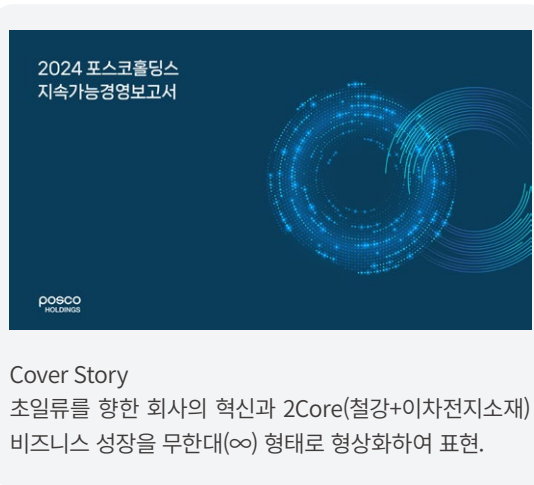


2024 포스코홀딩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About This Report

포스코홀딩스는 지속가능경영과 ESG경영에 대한 의지와 전략, 성과를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글로벌 ESG 공시 표준을 반영하여 원고를 구성했으며, 포스코그룹의 중장기 전략과 목표, 경영 현황과 ESG 성과를 체계적으로 담았습니다. 앞으로도 포스코홀딩스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그룹이 직면한 주요 ESG 기회와 리스크에 대해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성 기준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포스코그룹은 UN글로벌컴팩트(UN Global Compact) 회원사로서 인권·노동·환경·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한 이행 활동 내용을 본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재무 정보의 경우,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해 작성하였습니다. ESG 정보의 경우,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산업 표준을 고려하고, 기후변화 TCFD(기후변화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권고 내용도 반영하였습니다.

보고 범위

포스코홀딩스는 2022년 3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그룹 전반의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 사업 테마를 발굴하며 M&A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미래사업 포트폴리오 개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포스코홀딩스 및 그룹 주요 10개 사업회사의 국내 사업장과 해외 주요 철강법인 5곳을 포함한 정량 데이터 및 정성적인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단, 국내사업장과 해외사업장의 환경·사회 정량 데이터의 공시 항목에는 차이가 있으며, 해외사업장의 경우 철강 연결로 별도 공시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회사(10개사):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X, 포스코플로우,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포스코엔텍
- 해외 철강법인(5개사): PT.Krakatau POSCO(인도네시아), 장가항 포항불수강(중국), POSCO Yamato Vina Steel(베트남), POSCO Maharashtra Steel(인도), POSCO Thainox(태국)

보고 기간

포스코홀딩스 및 포스코그룹 주요 사업회사와 해외 사업장의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성과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정보는 2025년 상반기 실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고 주기

매년
(지나해 보고서 발간 시기: 2024년 6월)

보고서 검증

보고서 작성 프로세스와 게재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독립 검증 기관인 삼정KPMG에 제3자 검증을 의뢰하였습니다. 검증 기준은 ISAE 3000을 적용하였습니다.

보고서의 제약

본 보고서에 포함된 미래 예측 진술은 포스코홀딩스의 현재 전망과 전략을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의 지속가능성 및 ESG 성과에 대한 예측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과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 있으며, 포스코홀딩스는 이러한 미래 예측 진술을 업데이트 하거나 수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정보

- 포스코홀딩스 사업보고서 [↗](#)
- 포스코홀딩스 감사보고서 [↗](#)
- 포스코홀딩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
- 포스코홀딩스 SEC공시보고서 [↗](#)
- 포스코홀딩스 IR자료실 [↗](#)
- 포스코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 포스코 뉴스룸 [↗](#)

보고서 배포 및 의견 청취

본 보고서는 포스코홀딩스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 등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경영전략실 ESG 담당

E-mail: esg@posco-inc.com

홈페이지: www.posco-inc.com

회사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대치동)

목차

Part 1

CEO 메시지	6
기업 현황	7
주요 사업	8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	9
사업 전략	10
경영 방침	13
기업가치 제고 계획	15
리스크 관리	16

Part 2

이사회	19
ESG 전략 체계	29
이중 중요성 평가	30
핵심이슈	
1. 기후·에너지	38
2. 안전보건	53
3. 공급망	60
4. 인권	67
5. 윤리·컴플라이언스	81
6. 환경관리	86
7. 인재육성	94
8. 생물다양성	99
일반이슈	
지역사회	111
주주권리 보호	115
정보 보안	117
세금	120
정책지원	121
컨트로버시	
튀르키예 포스코아산TST법인 노동권	123
인도네시아 팜농장 PT.BIA법인 인권과 환경	126

Part 3

Factbook	134
Policybook	
160	
Reporting Index	
GRI	183
UNGP	185
WBA	185
CHRB	186
인증보고서	
187	

Part 1.

In This Section

CEO 메시지	6
기업 현황	7
주요 사업	8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	9
사업 전략	10
경영 방침	13
기업가치 제고 계획	15
리스크 관리	16

POSCO Spirit

대내외 경영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포스코그룹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구심점으로 창업 이후 진화 발전해 온 ‘POSCO Spirit’을 체계화하였습니다. 포스코인의 사고와 행동 양식의 근저에 흐르며 자연스럽게 생성된 POSCO Spirit은 구성원의 생각에서 비롯된 역사적 사건 및 사내 매체 키워드 분석, 전현직 임직원 의견 수렴을 병행하여 도출하였습니다. POSCO Spirit의 핵심은 국가 경제의 토대가 되겠다는 ‘공적사명감’이며, 이러한 소명 하에 포스코그룹은 시대별로 주어진 과업을 충실히 완수함으로써 다른 기업과 차별화된 성과를 내며 성장해 왔습니다.

POSCO Spirit은 공적사명감(Public Mission Leadership)이라는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5가지 의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스코그룹이 숭한 도전과 위기의 순간마다 실천으로 증명되어 왔으며 역사를 관통하여 오늘날 우리를 존재하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포스코그룹은 이해관계자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기업이 되도록 POSCO Spirit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습니다.



CEO 메시지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지난 한 해 세계 각지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는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포스코그룹은 ‘미래를 여는 소재, 초일류를 향한 혁신’이라는 新경영비전을 선포하고, 철강과 이차전지소재, 신사업을 중심으로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의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철강 부문에서는 먼저 최근 산업 지형을 급격하게 재편하고 있는 AI를 국내 조업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성 혁신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 시장에서 JSW와 철강, 이차전지소재, 재생에너지 등 사업 전반에 걸친 협력을 구체화하는 한편, 미국에서 현대차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고수익 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 저감 철강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광양에 연산 250만 톤 규모의 전기로 건설에 착수하였고, 중장기적으로는 HyREX 기술개발을 완성하여 탈탄소 실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차전지소재 부문에서는 포스코아르헨티나, 포스코필라리투스솔루션 등 주요 글로벌 거점에 상공정을 구축하여 양극재·음극재 사업의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가올 EV 시장 회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밸류체인 가치를 한층 높였습니다. 인프라 부문에서는 광양 제1 LNG 터미널의 종합 준공과 호주 Senex의 증산을 통해 에너지 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한편, 미래 국가 에너지 수급 안정화의 기틀을 다지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사업 부문에서는 메가트렌드가 제시하는 미래 사회의 지향점에 기반하여 도출된 주요 도메인을 중심으로 사업 아이템을 구체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신사업을 그룹 사업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SG경영에서는 글로벌 공시 규제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공시 내실화를 위한 전략적 준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미국의 기후 공시 규정 철회, EU의 옴니버스 법안 발표 등으로 글로벌 ESG 공시 규제의 속도 조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으나, 공급망실사법,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은 여전히 주요 사업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그룹은 이 시기를 단순한 유예기간이 아닌 전략적 준비의 기회로 삼아, 공시 인프라와 시스템, 공급망 실사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ESG 공시는 이제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경영 전략과 연계된 투자자 소통의 핵심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도 경제성과 기술적 현실을 균형 있게 고려한 실행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대규모 전환 기술은 인프라, 원가 경쟁력, 투자 타이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유연하게 접근하였으며 프리미엄 탄소 저감 철강재 시장 확대 전략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공급망 ESG 관리 측면에서는 ‘선택과 집중형 실사’를 도입하여 고위험 공급사를 중심으로 실사를 강화하였습니다. 실사 비용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면서도 리스크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철강 부문에서 축적한 공급망관리 경험과 역량, 노하우를 이차전지소재를 비롯한 새로운 사업 밸류체인 전반으로 확산하였습니다.

인권경영 측면에서는 ‘그룹 인권경영 선언문’을 선포하고, 그룹 차원의 실사 방법론과 고충처리 체계를 마련하여 인권경영이 기업문화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 부문에서는 고위험 작업과 사각지대의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 기술을 포함한 최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전 사업장에서 안전이 최우선 가치로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는 포스코정신(POSCO Spirit)이 있습니다.

포스코정신은 창업 세대의 제철보국과 선공후사라는 공적사명감에서 시작하여 오늘날 글로벌 혁신에 이르기까지 임직원 한 명 한 명에게 자연스럽게 체화되고 계승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는 역사에 걸쳐 숭한 위기 때마다 나타난 임직원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증명되었으며, 이렇게 이루어낸 지속가능한 성과는 포스코그룹을 한층 더 신뢰 받는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기술이 산업 지형을 바꾸고 기업에 요구되는 책임이 강화되는 대전환의 시기 속에서 포스코정신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포스코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회장 장인화

장인화



기업 현황

포스코그룹은 철강사업을 기반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을 뒷받침하며 성장해 왔고, 최근에는 이차전지소재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며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초일류 미래소재 기업’을 실현하겠다는 다짐과 포부를 ‘미래를 여는 소재, 초일류를 향한 혁신’이라는 새로운 비전에 담았습니다.

일반 현황

기업명

포스코홀딩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인화, 이주태)
* 2025년 3월 기준

본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괴동동)

상장시장

국내 _ 유가증권시장
해외 _ 美뉴욕증권거래소

종속회사

193개
(2024년 말 기준)

신용등급

S&P Global Rating
A-
(Negative)

(2025년 3월 기준)

MOODY'S Rating
Baa1
(Stable)

ESG등급

(2024년 말 기준)

MSCI

SUSTAINALYTICS

ISS ESG

한국ESG
기준원

A 등급

**Top Rated
Companies**
업종별 상위 5%

1등급
Quality Score
사회, 지배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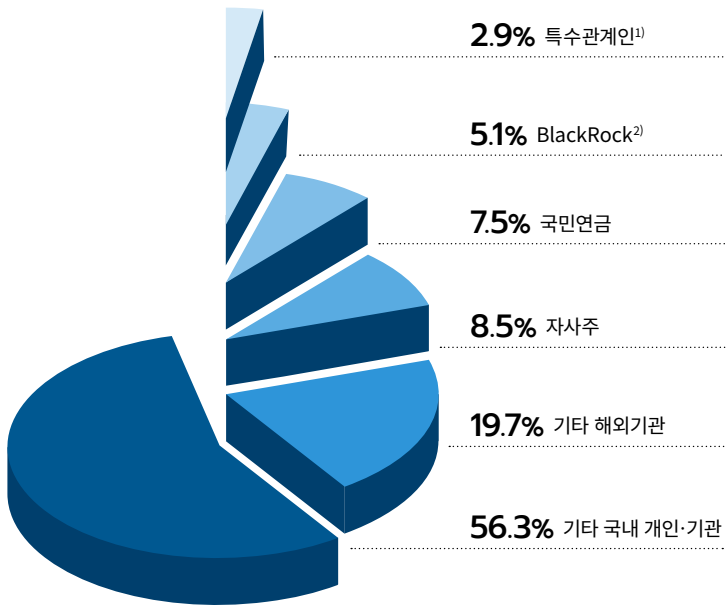
A 등급

주주 현황

발행주식 총수

(2024년 말 기준)

82,624,377주



1) 포항공대 2.40%, 포스코교육재단 0.49%, 포스코청암재단 0.04%
2) 미국 SEC BlackRock 공시기준(2023.4.6)

재무 현황(연결)

매출액

72.7조원

영업이익

2.2조원

ROE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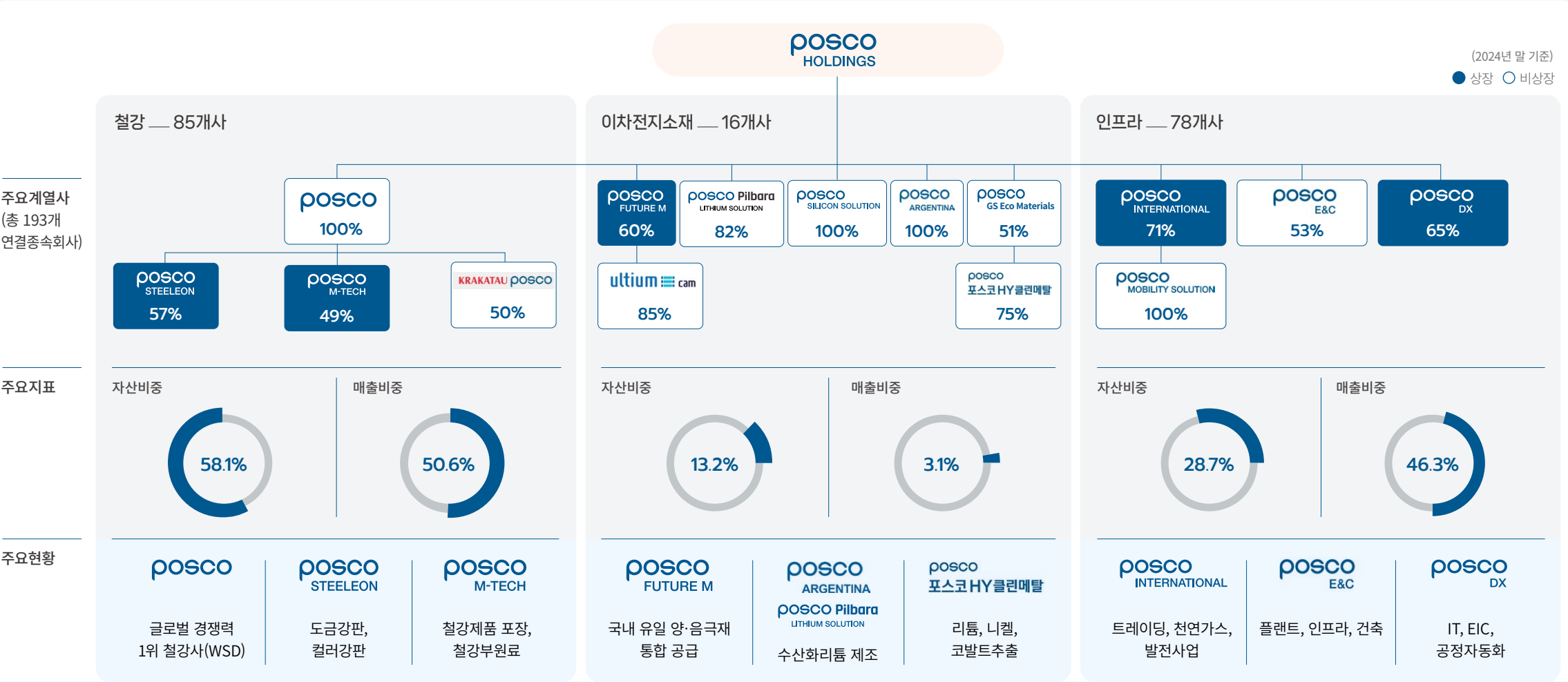
손익계산서	단위	2022	2023	2024
매출액		84.8	77.1	72.7
영업이익	조원	4.9	3.5	2.2
지배지분순이익		3.1	1.7	1.1

재무상태표	단위	2022	2023	2024
자산		98.4	100.9	103.4
부채	조원	40.1	41.3	42.0
자본		58.3	59.7	61.5

주요재무지표	단위	2022	2023	2024
순차입금비율	%	9.5	13.5	18.2
ROE		6.3	3.1	1.6

주요 사업

철강 및 인프라 사업에서 창출된 안정적 수익을 기반으로 이차전지소재 등 신성장 사업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자회사의 성장이 포스코홀딩스의 주주가치로 귀속될 수 있도록 포스코 및 이차전지소재 신사업의 ‘비상장원칙’을 견지하겠습니다.



* 사업 부문 간 내부 거래를 포함한 단순 합계 기준이며, 기타 부문(포스코홀딩스를 포함한 15개사)은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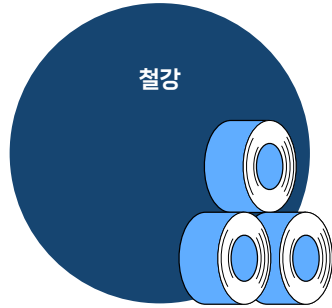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

포스코그룹은 철강과 이차전지소재, 신사업이 조화를 이루는 ‘2 Core + New Engine’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을 바탕으로 미래소재의 혁신을 주도하며,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2 Core + New Engine]에 선택과 집중

그룹 성장의 핵심축

본원 사업



» 철강은 초격차 경쟁우위에 기반한 핵심 수익 창출원으로서 그룹의 성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격화되는 경쟁 환경 속에서 기술과 원가 경쟁력을 혁신하고 경제적 탄소중립 전환을 이행하며 시장 리더십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재편 중인 공급망에 대응하여 글로벌 성장 시장에서 소재부터 제품에 이르는 완결형 현지화 전략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성장 사업



» 이차전지소재는 철강과 함께 그룹의 성장을 이끌 주력 사업으로 내실 있는 경쟁력을 조속히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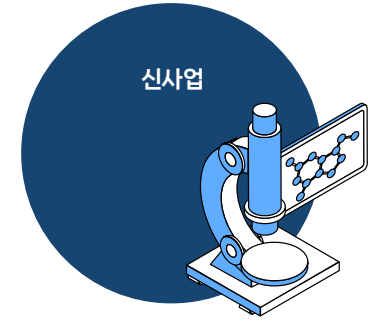
원료 부문은 리튬 등 우량자원을 적기 확보하여 글로벌 수요 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재 부문은 제조 및 원가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파트너사와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 기술을 선점하고 양산체계를 조기에 구축함으로써 EV 시장의 표준을 주도하겠습니다.

Core
성장지원



차세대 수익 창출원

신성장 동력



» 신사업은 유망 분야 중 그룹 전략과 연계성이 높고 성장성이 뛰어난 미래소재 분야를 육성하겠습니다.

메가트렌드가 그려낼 미래 사회의 지향점에 따라 선정한 도메인 후보를 중심으로 사업 아이템을 신속하게 구체화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신성장
육성지원



인프라/에너지

안정적 수익 기반 및 그룹 지원 역할

» 인프라 사업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그룹 사업의 지원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에너지 사업은 최근 정책 변화를 기회로 삼아 밸류체인 간 연계를 강화하면서 수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그룹의 핵심 사업이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겠습니다.

사업 전략: 철강 부문

본원 경쟁력 강화와 완결형 현지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탑티어(Top-tier)의 위상을 회복하겠습니다.
 상공정 중심의 해외 성장 투자 로드맵 실행, 제품·산업·지역별 포트폴리오 고도화, 전기로 등
 탈탄소 생산 체제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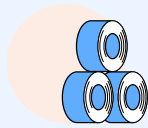
해외 상공정 투자

- 고성장·고수익 지역으로 투자 지역 선별 및 사업 확장
 - 해외 파트너사와 철강 및 그룹 핵심 사업의 전방위적 협력 추진
- * 고성장 시장(인도) : 2024년 10월 인도 1위 철강사 JSW그룹과 철강, 이차전지소재 분야 등 사업 협력 MOU 체결
- * 고수익 시장(북미) : 2025년 4월, 현대차그룹과 철강 및 이차전지 분야의 상호 협력 MOU 체결



시장 리더십 강화

- 수입재 방어를 통한 철강 생태계 강건화 및 구조적 원가 혁신
- 자동차·재생에너지 고객사 대상 장기공급 등을 기반으로, 지역·산업별 성장성과 수익성을 반영한 판매 포트폴리오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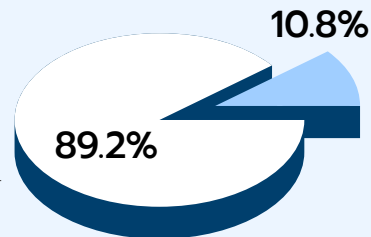


기술 본위 저탄소 체제 구축

- 전기로 신설 및 탄소저감 고급강 생산 기술 확보
 - HBI¹⁾ 및 스크랩 기반의 저탄소 원료 조달체계 구축
 - HyREX 데모플랜트(30만톤) 가동 및 2030년 상용화 기술 확보
- 1) Hot Briquetted Iron: 철광석에서 산소를 제거해 환원시킨 직접 환원철

생산 현황(FY2024)

국내 조강생산량
35,048천톤
 (연결 조강생산의 89.2%)



해외 조강생산량
4,233천톤
 (연결 조강생산의 10.8%)

주요 사업장

- 조강생산법인
- 생산법인
- 신규 투자 검토지역



사업 전략: 이차전지소재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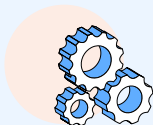
우량 자원의 선제적 확보와 제품·공정 기술 혁신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EV 시장의 캐즘을 기회로 삼아 저평가 우량 자원을 적기 확보하고, 제조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시장의 본격 개화에 대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요 전략



고품질 자원 적극 확보

- 북·남미 리튬 염호, 호주 리튬 광산 등
우량 자원 중심 투자 확대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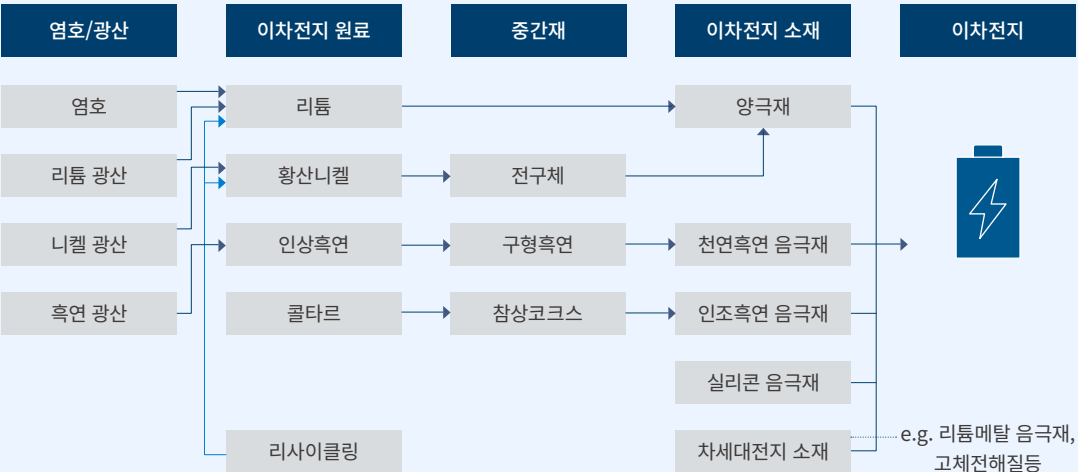
- 상업생산 개시 법인의 조기 조업
안정화 및 원가·품질 혁신



차세대 전지 핵심 기술 선점

- 고체전해질, SiOx 음극재 등의 조기
상업화를 통한 차세대 시장 선점

이차전지소재 포트폴리오



주요 사업장

- 해외사업장
- 국내사업장



사업 전략: 인프라 부문·신사업

그룹 사업 고도화 및 미래소재 분야의 신사업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LNG 밸류체인별 사업 강건화, EPC 역량 강화,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그룹 사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미래소재 분야의 신사업 편입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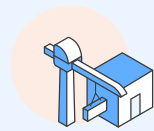
주요 전략



에너지

LNG 밸류체인별 사업 강건화 및 인프라 연계 사업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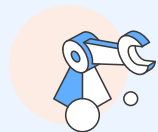
- E&P: 미얀마 4단계 개발, 세넥스(Senex) 증산
- 터미널: 제2 터미널 등 인프라 구축 및 연계 사업 확대
- 발전: 집단에너지 사업 진출 및 ASEAN 발전 사업 확대



E&C

고부가가치 사업 중심으로 사업 체계 수립

- 건축: 랜드마크 지역 중심의 도시정비 사업 수주 확대
- 플랜트: 철강 및 이차전지소재 사업의 EPC 역량 강화
- 인프라: 해상풍력 등 고부가가치 사업 강화



DX

Intelligent Factory 확산을 통한 그룹 생산성 혁신

- IT: 수주-출하를 아우르는 지능형 자율제조공장 구현
- EIC: 제조 현장의 무인화, 자동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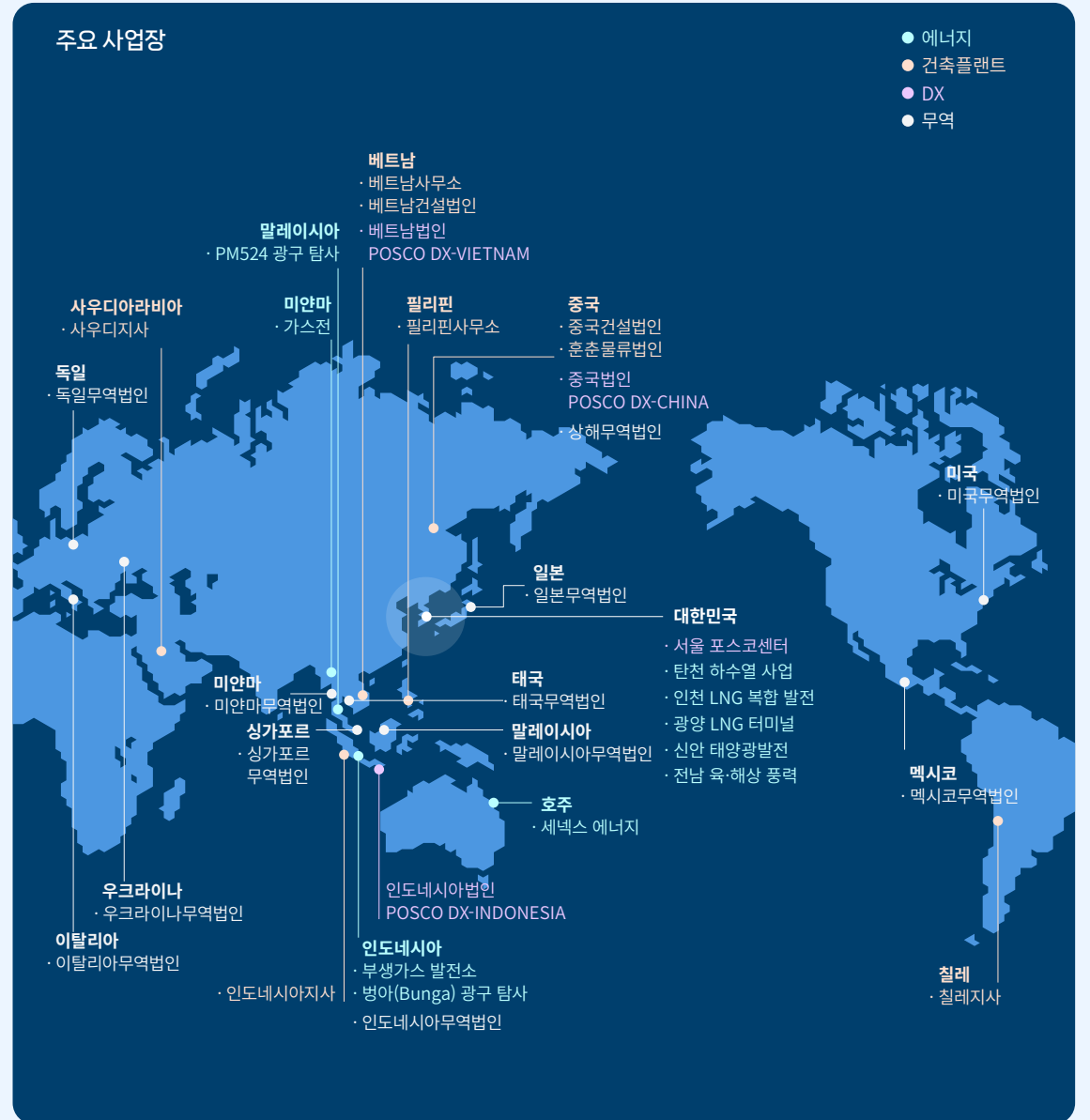


신사업

미래소재 등 유망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M&A 추진

- 그룹 가치·전략과의 적합성, 사업 성장성, 보유 역량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도메인 선정 및 추진

주요 사업장



경영 방침 (지주회사)

2025년 세계 경제는 강대국 간 패권 경쟁에 따른 교역 위축으로 2%대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경제도 수요 산업 부진과 중국발 공급 과잉, 원화 약세에 따른 원가 부담 등으로 1% 수준의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글로벌 정책 변동성이 증대되면서 경영 여건에 기민하게 대응할 전략 실행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불투명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회사는 유망 분야 투자를 지속하는 동시에 기술 본위의 운영 효율화로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겠습니다.

지주회사는 이차전지소재 원료 분야의 경쟁력을 고도화하고, 신사업 추진과 Corporate R&D 체계 구축으로 미래를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 먼저, 이차전지소재 원료 분야의 공급망을 지속 확장하고,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조업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리튬 사업은 저평가된 우량 자원을 한발 앞서 확보하겠습니다. 북미와 호주의 리튬 광산 및 남미 염호 등 신규 투자를 적극 검토하고 아르헨티나 염수 2단계를 종합 준공하여 원료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겠습니다. 또한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의 정상 조업도 적기 달성과 지능형 자율 제조 공장 도입 등으로 조업 경쟁력을 향상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광석 및 염수 리튬 설비 증설 시 최적 수행을 위해 엔지니어링 분야의 자체 역량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니켈 사업은 연산 2만 5천 톤 규모의 인도네시아 제련 공장 준공을 통해 원가 경쟁력이 높은 생산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이와 함께 습식 제련 및 침출, 용매 추출 공정 단순화 기술 개발로 투자 경제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리사이클링 사업은 2030년 이후부터 폐배터리가 유의미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거점별 현지 기업들과 수거 네트워크를 조기에 구축하고 하공정 합작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정 및 설비 기술 혁신으로 가공비를 구조적으로 절감하고, 포스코 고유의 건식 리사이클링 기술 개발을 통해 투입 원료를 삼원계는 물론 LFP까지 다변화하겠습니다.

차세대 사업은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EV 시장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선점하겠습니다. 시장 흐름에 한발 앞서 고체전해질과 실리콘 음극재, 리튬메탈 음극재 기술을 확보하고 실수요를 바탕으로 양산 설비 투자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으로, 사업 전략 실행의 핵심이 될 기술의 절대적 경쟁 우위를 확보하여 사업별 난제를 극복하고 포스코그룹 고유의 솔루션을 제시하겠습니다.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Corporate R&D 체계를 구축하여 R&D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기술과 사업 전략 간 연계성을 높이고 실효성과 성장성이 큰 과제 중심으로 그룹의 기술 개발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철강 제품의 품질 혁신은 물론 이공기술의 선제적 제안으로 성장 산업군에서 핵심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를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이차전지소재 기술 동향에 대한 예측을 강화하고 전고체전지와 같은 차세대 기술 표준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조업 현장에서는 산업용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융합하여 수주부터 생산, 출하를 관통하는 지능형 공장(Intelligent Factory)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의 변화에 부합하고 그룹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미래소재 기반의 신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신사업은 메가트렌드(Mega Trend)가 그려낼 미래 사회의 지향점에 따라 지난해 선정한 도메인 후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을 발굴함으로써 신사업이 철강 및 이차전지소재와 시너지를 이루며 그룹 사업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경영 방침 (사업회사)

사업회사는 경영환경 변화를 위기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전략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하겠습니다.

» 첫째, 안전 최우선 문화와 강건한 설비를 모든 사업의 근간으로 삼고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포스코그룹에 출입하는 모두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작업장의 위험 요인 제거에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3정 5S와 대형 인프라 설비의 성능 복원 등을 포함한 설비 강건화로 작업 현장을 더욱 안정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포스코에는 설비본원경쟁력강화TF팀 및 고로안정화TF팀을 사장 직속으로 운영하여 제철소 설비 경쟁력을 더욱 제고하겠습니다. 단기 성과에 몰두하여 안전 준수와 설비 강건화를 양보하는 어떤 행동도 용인하지 않고,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 둘째, 철강 사업은 해외 성장 투자와 탄소중립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원가의 구조적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만들겠습니다.

심화되는 보호무역 속에서 국내에서 생산한 소재를 해외 생산기지로 수출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인도와 북미 같은 글로벌 성장 시장에서 소재부터 제품에 이르는 완결형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원가가 항구적 상수로 굳어지는 가운데 연원료 조달 체계 개편과 기술 개발을 통해 원가를 구조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이 해마다 심각해지는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밸류체인 전반에서 탄소중립 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기존 설비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탄소 저감 브릿지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전기로와 HyREX를 차질 없이 건설하여 저탄소 철강재 수요 증가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HBI와 스크랩 등 저탄소 철원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 원료 공급망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셋째, 이차전지소재 사업은 고수익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생산 및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켜 미래 성장에 대비하겠습니다.

고부가 하이니켈 양극재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생산 능력 확장을 지속하겠습니다. 포항에서 상반기 내에 연산 4만 6천 톤 규모의 NCMA 공장을 준공할 예정이며, 광양에서는 올해 양산을 목표로 연산 5만 3천 톤 규모의 NCA 공장을 건설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GM과 합작한 연산 3만 톤 규모의 얼티엄캠은 올해 완공하여 북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상업 생산을 시작한 법인들은 공정 혁신과 품질 관리로 제품 및 원가의 초격차 경쟁력을 실현하고, 투자 사업은 건축 표준화를 통해 투자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겠습니다. 한편 OEM사 및 배터리사와 개발 단계부터 협업을 강화하여 양산 이후 판매 안정화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시장과 정책 변동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투자 사업의 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사업 내실화를 통한 질적 성장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 넷째, 인프라 사업은 정책 변화에 따른 수익 창출의 기회를 모색하고 그룹 차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에너지 사업은 글로벌 에너지 정책 기조 변화에 발맞추어 미얀마 4단계 개발 적기 완수 및 호주 Senex 증산 등 가스전 생산 확대를 진행하고, 저가 LNG 활용의 기회를 찾아 수익성을 적극 제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광양 제2 LNG 터미널 건설을 계획대로 진행하여 에너지 밸류체인 간 연계성을 높이고, 집단에너지 사업 등 발전 사업 모델을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건설(E&C) 사업은 그룹 핵심 사업이 원활히 미래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EPC 지원 역량을 빠르게 확보하겠습니다. 도시정비 부문에서는 단계별 성장 전략 추진으로 국내 3대 건설사로 도약하고, 리모델링 분야 시장 점유율 1위를 수성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은 기업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이해관계자의 신뢰와 지지 속에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준법과 윤리를 흔들리지 않는 경영의 근간으로 삼고,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더욱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 인권, 환경 등과 같은 핵심 ESG 이슈의 미흡 사항은 신속히 보완하고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그린워싱과 같은 ESG 리스크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국내외 사업장에서 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유례 없이 불확실한 경영 여건 속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전략들을 차질 없이 실행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을 만들고 업역을 넓히며 성장의 역사를 써 내려온 포스코그룹은 이제 미래를 여는 소재로 인류의 번영에 기여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2024년 12월 발표 기준)

기업가치 제고 목표

성장성
매출 성장률

2027년 6~8%
* 중기 연평균 매출
성장률(CAGR)

자본효율성
ROIC

2027년
6~8%

주주가치
주주환원

기본배당+α
자사주 소각

철강·이차전지소재사업 성장 투자 본격화 및 신성장 동력 육성

추진 방향

철강



경제적 탄소중립 전환 및
원가-제품 경쟁력 강화로
Global Top-tier 위상 회복

이차전지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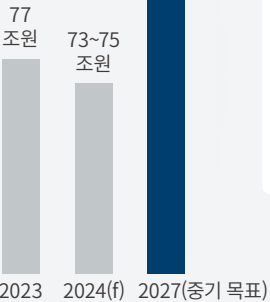
선제적 우량자원 확보
및 제품·공정기술 혁신으로
사업경쟁력 강화

인프라·신사업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그룹 전략과 연계성이 높은
미래소재 중심의
신사업 체계 구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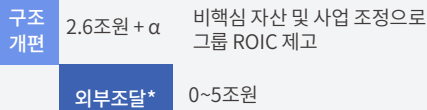
중기 연평균
매출 성장률
6~8%



효율적인 자본 재배치를 통한 ROIC 개선으로 기업가치 적극 제고

ROIC 기반 자본 효율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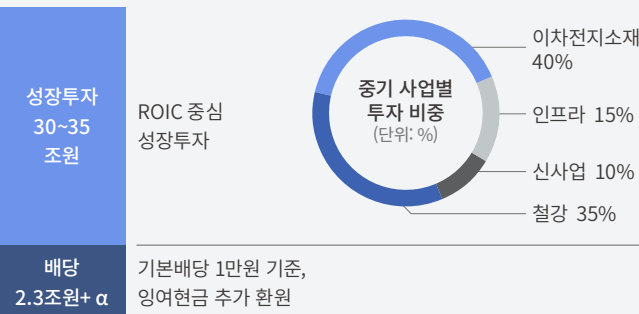
자본 원천(2025~202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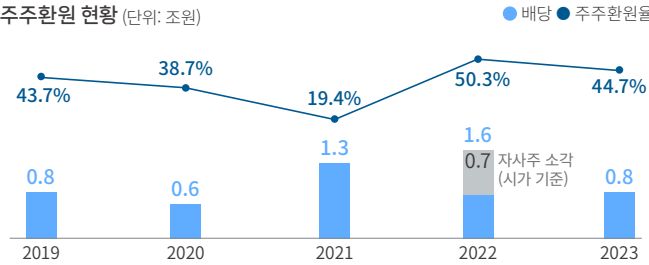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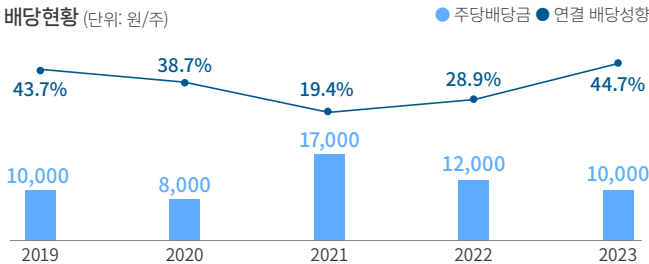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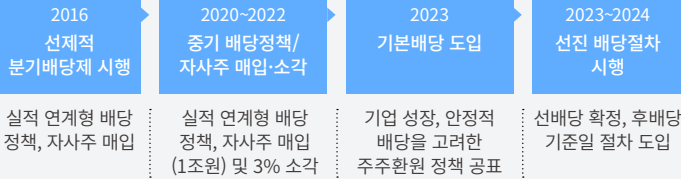
영업 현금흐름
25~30조원

*파트너십 기반 공동 투자, 차입금 조달 등

자본 배분(2025~202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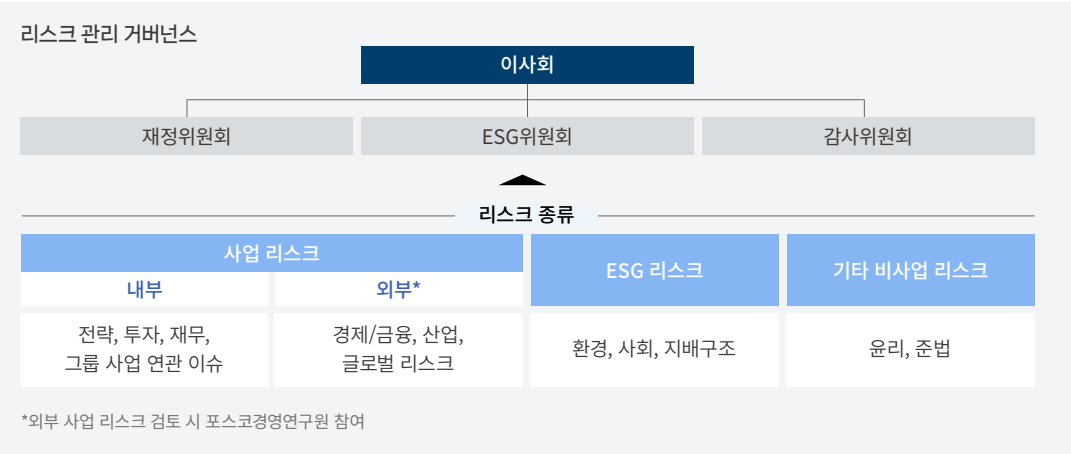
투자자를 고려한 선도적 주주환원으로 주주가치 제고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포스코홀딩스는 그룹 경영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상시 점검하고, 중요한 사안에 관해 모니터링 결과와 대응 방안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합니다.



2024년 ESG 보고 실적

ESG세션

개최일자	보고 내용
2024.7.23.	1. ESG 글로벌 트렌드와 기업의 역할 및 대응 2. EU 탄소노미 기반 친환경 재무 KPI 관리 전략 3. 수소환원제철 및 탄소감축 기술 추진현황

그룹ESG협의회

개최일자	보고 내용
2024.5.9.	1. EU 탄소노미 기반, 친환경 재무 KPI 관리전략 2. 포스코 탄소중립 로드맵 롤링 3.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계획 4. 포스코인터내셔널 인도네시아 팜농장 ESG 이슈 개선 현황
2024.9.24.	1. 포스코 그린워싱 규제 대응 사례 2. 포스코 내부탄소가격제 운영방안 3. 그룹 RE100 대응전략

사업 리스크 관리

사업 리스크는 미래전략본부, 사업시너지본부, 재무IR본부에서 모니터링하여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미래전략본부 경영전략실은 그룹 차원의 전략 추진과 투자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총괄하고, 재무IR본부는 내부 투자심의위원회를 운영함과 동시에 환율, 자금 등 재무 리스크도 점검합니다. 각 부서가 모니터링한 주요 이슈 및 신규 사업투자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사안은 재정위원회에 1차 보고되고,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의사결정됩니다. 산업 및 금융시장 동향, 글로벌 진출 지역의 사업 여건 변화와 경쟁사 전략 등 외부 사업 리스크는 포스코경영연구원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는 정기적으로 관련 부서에 보고되며, 그룹 정보 허브인 GIH(Global Information Hub)를 통해 전 그룹사에 배포합니다.

ESG 리스크 및 기타 비사업 리스크 관리

미래전략본부 경영전략실은 포스코그룹과 관련된 내외부 ESG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ESG 이슈 대응 및 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합니다. 경영전략실은 그룹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ESG 리스크 식별 및 판단 기준을 수립하고, 매월 사업회사별 ESG 리스크 현황을 종합 관리합니다. 핵심 ESG 이슈는 포스코그룹 C-레벨 협의체인 ‘그룹 ESG 협의회’에 매 반기 정례 보고하여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업윤리본부는 내부 감사부터 해외 컴플라이언스 관리까지 발생 가능한 리스크 점검을 총괄합니다. 기업윤리본부 정도경영실은 재무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연결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기 단위로 점검하여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매 분기 연결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경영진이 배제된 별도 미팅을 통해 외부감사인의 독립된 의견을 청취하여 회사의 재무 리스크를 감독합니다.

지주 체제의 리스크 관리 강화

포스코그룹 지주회사 체제 출범 4년 차인 2025년에는 지주사와 사업회사 간 시너지를 제고하고 불확실한 경영상황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사 조직 운영의 방향성을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전략, 신사업 발굴, 글로벌 M&A, ESG 등의 사업 리스크를 하나의 조직인 미래전략본부 경영전략실에서 통합·운영합니다. 또한 해외법인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자 지역별 거점 대표법인*을 포스코홀딩스 산하 조직으로 개편하고, 핵심광물 확보 및 원료 공급망 강화를 위해 호주핵심자원연구소를 신설하였습니다.

* POSCO-America, POSCO-Europe, POSCO-China, POSCO-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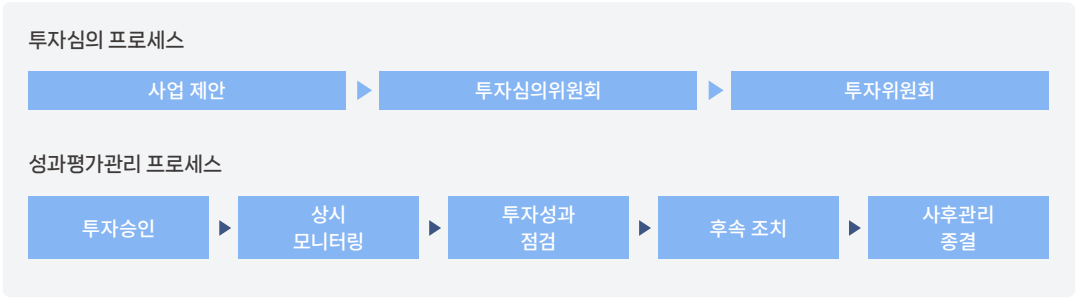
리스크 관리

투자심의

포스코홀딩스는 투자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투자 안전에 대해 투자심의 프로세스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은 각 전문부서 인원으로 구성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CEO 주재 의결기구인 투자위원회 및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투자 승인 이후에도 ESG 리스크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하고, 투자 완료 후에는 각 사업별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합니다.

특히, ESG 측면의 위험 요인은 최소화하고 성장 기회는 최대화하기 위해, 투자사업 제안 시 예상되는 ESG 리스크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고, 사후 성과평가 항목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보다 강화된 투자 리스크 점검을 위해 관련 사규를 개정하고 ‘투자 리스크 점검 체크리스트’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체크리스트는 10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되며, ESG를 포함한 지역, 산업·시장, 경제성, 법무 등의 항목이 포함 됩니다.



Part 2.

In This Section

이사회	19
포스코그룹 ESG 전략 체계	29
이중 중요성 평가	30
핵심이슈	
1. 기후·에너지	38
2. 안전보건	53
3. 공급망	60
4. 인권	67
5. 윤리 컴플라이언스	81
6. 환경관리	86
7. 인재육성	94
8. 생물다양성	99
일반이슈	
지역사회	111
주주권리 보호	115
정보 보안	117
세금	120
정책지원	121
컨트론퍼시	
튀르키예 아산TST법인 노동권	123
인도네시아 팜농장 인권과 환경	126

BOARD OF DIRECTORS 이사회

이사회 구성

책임 및 역할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사
외이사 3명 이상을 선임하며,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
야 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정관 제27조에 따라 이사회를
3인 이상 13인 이하로 구성하고, 사외이사 8인 이내, 사내
이사 5인 이내로 규정합니다. 2025년 3월 기준 이사회는
사외이사 6인, 사내이사 4인, 총 10인으로 구성됩니다. 포
스코홀딩스는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이
사회 결의로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 회장과 분리하여 사
외이사 중 선임합니다. 2025년 3월 이사회는 권태균 사외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사회 관련 규정

- 기업지배구조현장
- 정관
- 사외이사 독립성·다양성 가이드라인
- 사외이사 윤리강령



김기수 사내이사	김준기 사외이사	유진녕 사외이사	권태균 사외이사	장인화 사내이사	유영숙 사외이사	손성규 사외이사	박성욱 사외이사	이주태 사내이사	전성래 사내이사
전문위원회 현황	C A D E	E C D F	D C N		N D E	A D F N	F A C D	F	E

- A 감사위원회 위원장 C 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 D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 위원장 E ESG위원회 위원장 F 재정위원회 위원장 N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A 감사위원회 위원 C 평가보상위원회 위원 D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 위원 E ESG위원회 위원 F 재정위원회 위원 N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025년 3월 기준

이사회 구성

구분	사외이사						사내이사			
이름	권태균	유영숙	유진녕	손성규	김준기	박성욱	장인화	이주태	천성래	김기수
성별	남	여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나이	69세	69세	67세	65세	59세	67세	69세	61세	61세	59세
선임 연도	2021	2021	2022	2022	2023	2024	2024	2025	2025	2024
전문 분야	재정, 국제금융 및 투자	환경·기후	신기술 개발	재무회계	국제통상, 기업지배구조	기업경영, 기술개발	철강 생산·기술, 신사업, 투자, 마케팅	전략·투자, 그룹사업 관리	투자, 그룹사업관리, 마케팅	철강 기술, 신기술 개발
현소속	· 금호석유화학 사외이사	· 기후변화센터 명예이사장(비상임)	· 엔젤식스플러스 대표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 위원	· 한국공학한림원 이사장	·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미래전략본부장	· 포스코홀딩스 사업시너지본부장	·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 연구원장, 그룹 CTO
주요 경력	· 주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대사 · 조달청 청장 · 재정경제부 경제자유 구역기획단장 ·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	·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한국과학기술원(KIST) 부원장 ·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 · 환경부 장관	· LG화학 CTO·사장 · LG화학 기술연구원 원장·사장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	· 삼성자산운용 사외이사 · 한국회계학회 회장 · 삼일회계법인·한국회계 학회 저명교수 ·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 위원	·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 연세대·세계은행·CSIS 초대 힐스 거버넌스 연구센터 센터장 · Foley & Larcher 로펌 변호사	· SK하이닉스 경영자문 위원 부회장 ·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 ·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부회장	·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철강부문장) · 포스코 사내이사 부사장 (철강생산본부장) · 포스코 부사장 (기술투자본부장, 기술 연구원장 겸임)	·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경영전략팀장) · 포스코 사내이사 부사장 (경영기획본부장) · 포스코 부사장 (구매투자본부장)	·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탄소중립팀장) ·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철강팀장) · 포스코 부사장 (POSCO-Maharashtra 인도 대표법인장)	· 포스코 부사장 (기술연구원장) · 포스코 전무 (저탄소공정연구소장) · 포스코 상무 (엔지니어링솔루션 실장)
학력	중앙대 국제학/박사(2007)	美오리건주립대 생화학/박사(1986)	美리하이대 고분자공학/박사(1990)	美노스웨스턴대 경영학/박사(1992)	美조지타운대 법학/박사(1992)	KAIST 재료공학/박사(1992)	MIT 조선공학/박사(1988)	경북대 경제/학사(1988)	경북대 무역/학사(1989)	英세필드대 금속공학/박사(2001)
전문위원회	· 이사회 의장 · 회장후보군관리 위원회 위원장 · 평가보상위원회 위원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ESG위원회 위원 ·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 위원	· ESG위원회 위원장 · 평가보상위원회 위원 · 재정위원회 위원 ·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위원회 위원장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재정위원회 위원 ·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 위원	· 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 · 감사위원회 위원 · ESG위원회 위원 ·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 위원	· 재정위원회 위원장 · 감사위원회 위원 · 평가보상위원회 위원 ·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 위원	-	· 재정위원회 위원	· ESG위원회 위원	-
2024년 출석률	90%	100%	100%	100%	100%	100%	100%	신규 선임	신규 선임	100%

*2025년 3월 기준

전문위원회 구성

포스코홀딩스는 2024년 3월 정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이사회 내 6개 전문위원회(ESG위원회, 이사회후추천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재정위원회, 감사위원회,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전문위원회 업무 연속성 보장을 위해 이사 재임 기간 중 구성원 변동을 최소화합니다. 모든 전문위원회는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구성하며, 감사위원회, 이사회후보추천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위원회명	역할	위원장	위원	사외이사 (명)	사내이사 (명)	사외이사 비율 (%)
ESG 위원회	· ESG 관련 이행 모니터링 및 보고서 발간 ·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내부거래 · 계열회사의 ESG에 관한 중요한 사항 보고 등	유진녕	유영숙 김준기 천성래	3	1	75%
평가보상 위원회	· 경영진 평가, 보상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사전 심의 등	김준기	권태균 유진녕 박성욱	4	0	100%
이사회후 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후보의 자격심사 및 주주총회 추천	유영숙	권태균 손성규	3	0	100%
재정위원회	· 신규 및 기존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의 사전 심의, 의결 · 사채모집 및 중요한 자금차입의 사전 심의, 의결 등	박성욱	유진녕 손성규 이주태	3	1	75%
감사위원회	·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 기업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적정성 검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	손성규	김준기 박성욱	3	0	100%
회장후보군 관리위원회	· 이사회에서 정한 대표이사 회장 후보 기본 자격요건 사전 심의 ·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Pooling 결과 ·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육성 계획 등	권태균	유영숙 유진녕 손성규 김준기 박성욱	6	0	100%

*2025년 3월 기준

이사회 다양성

포스코홀딩스는 이사회 구성원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특정 이해관계 편중 방지를 위해 ‘정관’, ‘포스코홀딩스 기업지배구조헌장’, ‘이사회 독립성·다양성 정책’을 통해 이사 자격을 정의합니다. 사외이사 후보군 검토 과정부터 이사회 다양성 강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포스코홀딩스 정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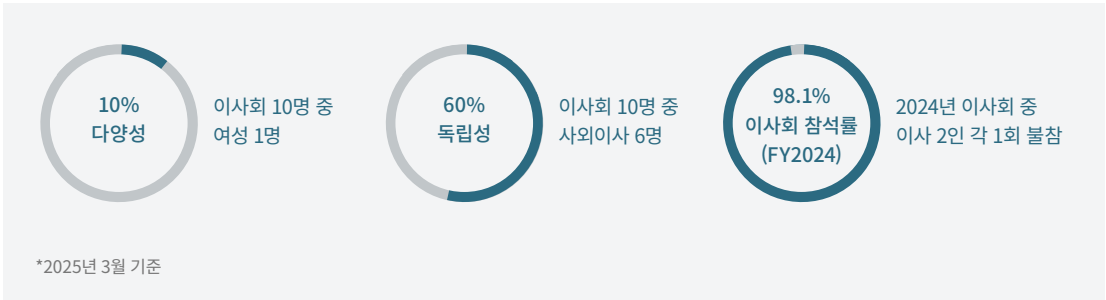
포스코홀딩스 기업지배구조헌장

이사회 독립성·다양성 정책

사외이사 후보군

구분	2019년 12월 기준		2024년 12월 기준		증감(19년대비)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합계	142	18	453	107	311	89
금융계	9	1	31	4	22	3
회계	21	2	75	9	54	7
산업계	48	7	119	34	71	27
학계	28	2	109	30	81	28
법조계	18	2	78	23	60	21
공공부문	18	4	41	7	23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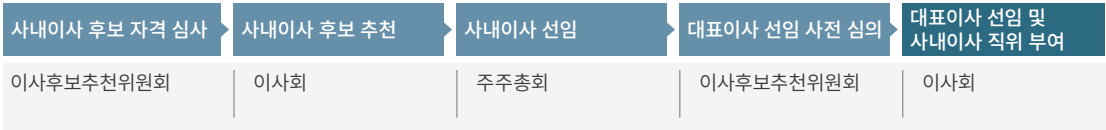
이사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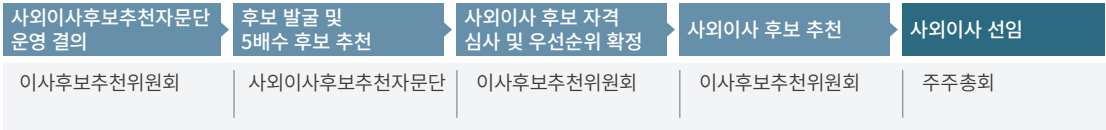
이사회 독립성

포스코홀딩스는 이사 선임 과정의 독립성을 법적 기준 이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운영 규정상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사외이사 후보 자격 심사 및 주주총회 추천, 사내이사 후보 사전 검토 및 자격 심사, 전문위원회 위원 선임, 대표이사 회장 외 사내 대표이사 선임 사전 심의 역할을 위임받아 이사 선임 절차 및 이사회 운영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신임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2004년부터 이사 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을 운영합니다. 자문단은 산업계·금융계·학계·법조계 등 각계 원로급 인사 5인으로 구성되며, 사회적 신망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입니다. 독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특정 집단 이해와 무관하게 선임 예정 이사 5배수를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안합니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자격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합니다.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신임 이사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사외이사 후보군을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양질의 후보군 확보를 위해 노력합니다.

사내이사 선임 프로세스



사외이사 선임 프로세스



주주추천 제도

포스코홀딩스는 주주 소통 강화 및 다양한 사외이사 후보군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주주가 직접 사외이사 후보 발굴에 참여하는 ‘주주추천 제도’를 운영합니다. 2025년 주주총회부터 주주추천 자격을 기존 0.5%에서 0.1% 이상 주주로 완화하여 책임 있는 주주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주주 소통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주주추천제 실효성, 지배구조 투명성, 개방성을 강화합니다. 정기주주총회 최소 4개월 전 0.1% 이상 지분 보유 주주를 대상으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 공고를 게재하여 주주 1인당 1명 후보 추천을 의뢰합니다. 접수는 전자우편 또는 우편 서면 제출 방식으로 진행하며, 주주 추천 후보는 다른 후보와 동일하게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 자격 심사를 받습니다.

사외이사 겸직 여부

포스코홀딩스는 사외이사의 타 기업 겸직 여부를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합니다. 사외이사는 이사회 참석 및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활동에 대해 이사회와 회사에 사전 공유해야 합니다. 상법 제542조의8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 자격 배제 요건을 준수하며, 선임 후 해당 요건 해당 시 이사직을 상실합니다. 현재 포스코홀딩스 사외이사 겸직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겸직 관련 정책에 위배되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성명	최초 선임일	겸직 기관	겸직 업무	재직 기간	겸직 기관 상장 여부
유영숙	2021.3.12.	마크로젠	사외이사	2021~현재	상장
권태균	2021.3.12.	금호석유화학	사외이사	2022~현재	상장
유진녕	2022.3.18.	엔젤식스플러스	대표	2019~현재	비상장
손성규	2022.3.18.	-	-	-	-
김준기	2023.3.17.	-	-	-	-
박성욱	2024.3.21.	-	-	-	-

*비고: 비영리기관·재단법인 겸직은 제외
- 박성욱: 한국공학한림원(비영리기관) 이사장

사외이사 이해관계 상충

포스코홀딩스는 사외이사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임 과정에서 후보군 과거 경력 및 제반 거래 내역을 교차 검토하여 상호 거래 또는 계약 유무를 확인합니다. 최종 후보 대상자로부터 거래나 이해관계 없음을 소명하는 확인서를 제출받습니다. 현재 사외이사 전원은 포스코홀딩스 또는 포스코홀딩스 출자 회사 재직 경력이 없으며, 최근 3개 사업연도(2022~2024년) 중 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전문성

포스코홀딩스 사외이사진은 다양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6명으로 구성되며, 전문 교육 이수와 사업장 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역량구성표(Board Skills Matrix)

역량지표	구분	사외이사						사내이사			
		권태균	유영숙	유진녕	손성규	김준기	박성욱	장인화	이주태	천성래	김기수
공동 (General)	① ESG-지속가능경영	●	●	●	●	●	●	●	●	●	●
	② 리더십	●	●	●	●	●	●	●	●	●	●
	③ 리스크 관리	●	●	●	●	●	●	●	●	●	●
전문 (Specific)	① 산업 경험	-	-	●	-	-	●	●	●	●	●
	② 기술, 디지털 및 혁신	-	●	●	-	-	●	●	-	-	●
	③ 재무·금융 및 회계	●	-	-	●	●	●	●	●	●	-
	④ 법률 및 공공정책	●	●	●	-	●	-	-	-	-	-
	⑤ 국제경영	●	-	●	-	●	●	●	●	●	-
	⑥ 사업개발 및 M&A	-	-	●	-	-	●	●	●	●	●

사외이사 교육

교육 일자	교육 실시 주체	참석 사외이사	주요 내용
2024.4.8.	탄소중립팀 등 사내 관련부서	신임 사외이사	철강사업 현황 및 중장기 전략, 인프라사업 현황 등
2024.4.16.	경영전략팀 등 사내 관련부서	신임 사외이사	포스코그룹 포트폴리오 전략, 2030 이차전지소재 성장 전략 포스코그룹의 ESG 경영 전략 등
2024.6.5.	포스코경영연구원	전원	‘이차전지소재 외부 환경 변화와 포스코그룹의 기회 요인’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2024.7.3.	포스코 관련부서	신임 사외이사	포스코 광양제철소 주요 공정 시찰

교육 일자	교육 실시 주체	참석 사외이사	주요 내용
2024.7.4.	포스코퓨처엠, 포스코HY클린메탈,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관련부서	신임 사외이사	포스코퓨처엠 양극재 공장 시찰, 포스코HY클린메탈 공장 시찰,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공장 시찰
2024.7.23.	유연철 UN Global Compact 한국협회 사무총장	전원	‘ESG 글로벌 트렌드와 기업의 역할 및 대응’을 주제로 외부 전문가 강연 개최
2024.10.18.	탄소중립팀 등 사내 관련부서	전원	HyREX 사업장 시찰 저탄소제철연구소·주조실험동 방문, 수소환원제철 개발 센터 방문 등

최고경영자 승계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후보는 정관 제29조 ‘대표이사 회장의 선임’ 조항에 따라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자격 심사를 거친 후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추천합니다. 주주총회에서 해당 후보가 사내이사로 선임된 이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대표이사 회장 선임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사회는 대표이사 회장 선임 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결을 거쳐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회장 후보군 발굴, 이사회가 정한 자격 요건 세부 자격심사 기준 수립, 다면적이고 심층적인 자격 심사를 수행합니다.

2023년 12월 이사회는 ‘포스코형 신지배구조 개선안’을 의결하고,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발굴한 회장 후보군에 대한 객관적인 자격심사를 위해 외부 저명인사로 구성된 ‘회장후보인선자문단’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자문단 평가 의견을 회장 후보 자격 심사에 반영하였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와 ‘회장후보인선자문단’ 운영을 통해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024년 3월 회장 후보군의 체계적 발굴·육성 및 공정 관리를 위해 이사회 산하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상설 전문위원회인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사내 회장 후보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된 내부 후보군과 외부 전문가가 추천한 외부 후보군을 상시발굴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장 후보 기본자격 요건

2023년 12월 이사회는 ‘포스코형 신지배구조 개선안’을 의결하고 회장 후보군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사전 공개함으로써 대외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신설된 회장 후보 평가 및 육성 지침에는 회장 후보군에 대한 5대 역량 및 12개 세부 항목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경영 역량 Management	산업 전문 역량 Industry Expertise	글로벌 역량 Global	리더십 Leadership	정도·윤리 Integrity-Ethics
· 비전 및 가치 제시 · 전략적 사고· 의사 결정 · 혁신 선도 및 위기 대응	· 그룹 핵심산업에 대한 통찰력 및 사업 기회 발굴 · 미래 신기술 이해	· 글로벌 환경·문화 이해 · 글로벌 사업 전략 수립 및 운영	· 인재 육성 · 소통 능력	· Integrity · 경영 윤리·준법 · 사회적 가치와의 조화

· 2024년 회장 선임 과정

- 포스코홀딩스 이사회는 회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12월 이사회에서 포스코형 신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이사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 현직 회장 연임 우선심사제 폐지로 공정성 강화
 -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회장후보군 발굴 및 자격심사 기능 강화
 - 실력있고 유능한 후보군 발굴을 위해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 상설 운영

이사회 평가

포스코홀딩스는 2010년부터 이사회 평가제도를 도입해 매년 1분기에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사 전원이 이사회와 본인 소속 전문위원회를 평가하며, 결과는 이사 보수 및 사외이사 선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이사회 평가는 이사회 역할과 책임, 구조, 운영 등 4개 영역 27개 항목과 각 위원회별 6~9개 추가 항목 평가를 포함하여 진행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2024년 사외이사 개별평가 제도 도입을 결정하였습니다. 사외이사 개별평가는 자체 평가와 동료 평가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2025년 시범 평가를 거쳐 2026년부터 매년 정식 평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평가 결과는 사외이사 연임 심사 등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사회 보수

이사 보수는 상법 제388조 및 포스코홀딩스 정관 제36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보수 한도 내에서 결정됩니다.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 평가보상위원회가 지급 규모를 심의 및 확정합니다. 2023년 11월 평가보상위원회는 보상환수제(Clawback)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이를 통해 책임과 보상의 연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CEO 및 사내이사 보수¹⁾

- 급여: 직위, 위임 업무 책임·역할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간 기본연봉 총액 1/12을 매월 지급
- 상여: 회계연도 재무성과 따른 정량평가 60%,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 등 주요 경영 활동 정성평가 40% 반영하여 지급
- 상여 평가항목(FY2024)
 - 정량평가(60%): 연결영업이익(20%), 연결영업현금흐름(10%), 연결매출액(10%), 연결ROA(10%), 주가(10%)
 - 정성평가(40%): ESG(10%)²⁾, 비즈니스(15%), 투자·기술(10%), 사람(5%) 등 주요 경영활동에 관한 평가

1)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 개별 보수 산정 기준 및 지급 내역은 매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 2024 사업보고서 [🔗](#)
2) 탄소 배출 총량(환경), 총 기록 사고율(안전), 글로벌 ESG 이슈 관리 현황 등으로 구성.

사외이사 보수

- 업무 정도, 규모 면에서 타사 사례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지급

회장 선임 절차는 관련 법령 및 정관 등에 따라 2023년 12월 말부터 약 3개월에 걸쳐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사회-주주총회-이사회 4단계 프로세스를 거쳐 진행되었습니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회장육성프로그램을 거친 내부후보자 지원, 주주 추천, 복수 서치펄 등의 광범위한 경로를 통해 후보자 Pool을 확보하였습니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총 28명의 사내·외 후보군을 대상으로 약 2개월의 기간에 총 10차 회의를 걸쳐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최종 회장 후보자로 장인화 후보를 선정하였으며, 2024년 3월 개최된 제 56기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 회장으로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SPECIAL PAGE
 이사회 중심의 ESG 리스크 관리

2022년 포스코홀딩스 출범에 따라 지주회사로서 대내외 ESG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그룹 차원 ESG 리스크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최고경영층 중심의 그룹ESG협의회와 사내외 이사가 전원 참석하는 ESG세션을 통해 중요 ESG 관련 의 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화하였습니다.

그룹 ESG 리스크 관리 체계



* 외부 사업 리스크 검토 시 포스코경영연구원 참여

ESG 이슈 관리 프로세스

주요 이해관계자의 ESG 관련 요구사항을 그룹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접수, 관리, 대응해야 할 경우, 경영활동에 반영하고 대내외 One-Voice로 소통 체계 운영



*그룹 10대 ESG 핵심이슈 영역

구분	참석 대상(2025년 기준)	주요 역할
ESG세션 (연 1회)	· 이사회(사외이사 전원, 사내이사 전원) · 주요 사업회사 대표이사	· 그룹 중장기 ESG 경영 전략 방향 논의 · 그룹 ESG 주요 현안 논의
ESG위원회 (수시)	· 사외이사 3인, 사내이사 1인	· 그룹 차원의 ESG 전략, 정책 및 관리체계 수립 · 주요 사업회사 경영진과 ESG 이슈 점검 및 대응 방안 주기적 협의 · 포스코홀딩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및 투자자 소통
그룹 ESG 협의회 (반기)	· 지주회사 CEO · 4대 사업회사 대표 · 지주회사 임원: 미래전략본부, 사업시너지본부, 재무IR본부, 기업윤리본부, 경영지원본부의 본부장·실장 15명, 경영전략실장(간사)	· 사업회사의 저탄소 정책, 안전, 환경, 보건에 관한 계획 점검 · 사업회사별 이행 현황 및 이슈 점검·논의 · 지주회사 이사회 또는 ESG위원회에 협의 내용 보고 등
그룹 ESG 실무협의체 (반기)	· 지주회사 경영전략실 · 10개 사업회사 전략조직	· 사업회사별 ESG 이슈 공유 및 대응 방안 논의 → 핵심 ESG 이슈는 ‘그룹ESG협의회’ 안건으로 상정 · 사업회사의 ESG 대응 역량 레벨업 지원 및 ESG 평가 공동대응 등

경영활동 반영 사례

구분	이사회 보고 안건	경영활동 반영 결과
정책 개정 및 신설	포스코홀딩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계획	· 그룹 ESG 전략체계 수립 · 그룹 ESG 정책 제·개정(14개)
제도 변경·프로세스 개선	포스코 탄소감축 성과 및 계획	· 전기로 신설 승인 · HyREX 데모플랜트 설계 착수
	공급망 ESG 관리 전략	· 공급망 관리조직 신설, 공급망 실사 체계 수립
	포스코 ESG 데이터 포털 앱 구축 결과 및 대응 방향	· 그룹 ESG 데이터 표준화 추진 · 그룹 통합 포털 앱 구축 중

2024년 이사회 운영 실적

이사회

개최일자	출석인원	의안 내용	가결 여부
2024.1.31.	12/12	1. 제56기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 승인과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보고사항 1) 2023년 연결 경영실적 및 그룹 ESG 실적 2) 2023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3) 2023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원안 가결
2024.2.8.	11/12	1. 사내이사 후보(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	원안 가결
2024.2.21.	12/12	1. 사내이사 및 기타 비상무 이사 후보 추천(대표이사 회장 이외의 후보) 2. 정관 및 이사회 관련 규정 개정 3. 제56기 정기주주총회 부의 안건 4. 회사 성과평가 체계 개선	수정 가결 원안 가결 수정 가결 원안 가결
2024.3.21.	10/10	1. 이사회 의장 선임 2. 대표이사 회장 선임 3. 전문위원회 위원 선임 4. 대표이사 선임 및 사내이사 직위부여	원안 가결 원안 가결 원안 가결 원안 가결
2024.4.19.	10/10	1. 준법지원인 선임	원안 가결
2024.5.14.	10/10	1. 2024년 1분기 배당 실시 2. 2024년 수정 경영계획 3. 이사보수기준 개정 4. 준법통제기준 개정 ※보고사항 1) 2024년 1분기 연결 경영실적 2) 2023년도 이사회 활동실적 및 평가결과 3)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정책 방향	원안 가결 원안 가결 원안 가결 원안 가결
2024.7.12.	9/10	1. 자기주식 소각 및 매입 계획	원안 가결

개최일자	출석인원	의안 내용	가결 여부
2024.8.9.	10/10	1. 2024년 2분기 배당 실시 2. 전문위원회 위원 선임 ※보고사항 1) 2024년 2분기 연결 경영실적	원안 가결 원안 가결
2024.11.1.	10/10	1. 2024년 3분기 배당 실시 2. 포스코퓨처엠 발행 신종자본증권 인수 참여 3. 포스코홀딩스 소유 철강 지분이관 계획 ※보고사항 1) 2024년 3분기 연결 경영실적 2) 그룹 적정시재 관리방안 3) 포스코홀딩스 지배구조TF 최종보고	원안 가결 원안 가결 원안 가결
2024.12.13.	10/10	1. 2025년도 POSCO 및 포스코 브랜드 사용계약 2. 2025년 포스코센터 임대차계약 3. 2025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4. 포스코글로벌센터 건립 5. 투자주식 매각 ※보고사항 1)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방안 2) 그룹 7대 미래혁신 과제 성과 3) 2024년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결과 4) 철강·이차전지소재 기술경쟁력 현황 및 강화 전략 5) 중장기 경영전략 및 2025년 연결 경영계획 수립 결과	원안 가결 원안 가결 원안 가결 원안 가결 원안 가결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일자	출석인원	의안 내용	가결 여부
2024.1.3.	3/3	1. 사외이사 후보 자격심사	원안 가결
2024.2.21.	3/3	1. 사외이사 후보 추천 2.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자격심사 3. 전문위원회 위원 선임 사전 심의	원안 가결 사전 심의 사전 심의
2024.2.23.	2/3	1. 전문위원회 위원 선임 사전 심의	사전 심의
2024.10.29.	3/3	1.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 운영	원안 가결

평가보상위원회

개최일자	출석인원	의안 내용	가결 여부
2024.2.6.	4/4	1. 2023년도 전사 경영성과 평가	원안 가결
2024.2.19.	4/4	1. 회사 성과평가 체계 개선	사전 심의
2024.5.8.	4/4	1. 이사보수기준 개정	사전 심의
2024.5.9.	4/4	1. 이사보수기준 개정	사전 심의

재정위원회

개최일자	출석인원	의안 내용	가결 여부
2024.10.28.	4/4	1. 포스코홀딩스 소유 철강 지분이관 계획 2. 포스코퓨처엠 발행 신증자본증권 인수 참여	사전 심의 사전 심의
2024.12.10.	4/4	1. 투자주식 매각 2. 포스코글로벌센터 건립	사전 심의 사전 심의

감사위원회

개최일자	출석인원	의안 내용	가결 여부
2024.1.26.	3/3	1. 2023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2. 포스코홀딩스 및 연결대상법인의 감사·비감사 서비스 계약에 대한 승인 3. 2023년도 감사위원회 활동 실적 ※보고사항 1) 2023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2)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원안 가결 원안 가결 원안 가결
2024.2.16.	3/3	1. 2023년도 내부 결산감사 결과 2. 2023년도 내부감사 실적 및 2024년도 계획 ※보고사항 1) 2023년도 외부 결산감사 결과	원안 가결 원안 가결
2024.2.21.	3/3	1. 정기주주총회 의안 심의	수정 가결
2024.3.12.	3/3	※보고사항 1) 2023년도 회계감사 결과보고	
2024.3.21.	3/3	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원안 가결
2024.4.24.	3/3	1.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명 동의 ※보고사항 1) 2023년도 20-F 감사결과	원안 가결
2024.5.9.	3/3	1. 2024년도 1분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 ※보고사항 1) 2024년도 1분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검토 결과	원안 가결
2024.8.14.	3/3	1. 2024년도 상반기 내부감사 실적 및 하반기 계획 2. 2024년도 2분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 3. 2023년도 외부감사인 감사활동 평가결과 ※보고사항 1) 2024년도 2분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검토 결과	원안 가결 원안 가결 원안 가결
2024.10.29.	3/3	※보고사항 1) PCAOB 및 국내 회계감독 동향	
2024.11.13.	3/3	1. 2024년도 3분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 ※보고사항 1) 2024년도 3분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검토 결과	원안 가결
2024.12.18.	3/3	1. 포스코홀딩스 및 연결 대상법인의 감사 서비스 계약에 대한 승인	원안 가결

ESG위원회

개최일자	출석인원	의안 내용	가결 여부
2024.2.19.	4/4	1. 정관 및 이사회 관련 규정 개정 ※보고사항 1) 그룹 ESG 데이터 포털 애플리케이션 구축 결과 및 향후 계획 2) 주요 사업장 물리적 리스크 분석 값 보정 결과	사전 심의
2024.4.19.	4/4	1.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원안 가결
2024.5.8.	4/4	1.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계획 ※보고사항 1) 2024년 1분기 그룹 ESG 실적 2) 2024년 포스코그룹 ESG 경영 추진 계획	원안 가결
2024.7.30.	4/4	※보고사항 1) 2024년 상반기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현황 2) 2024년 2분기 그룹 ESG 실적 3) 글로벌 평가기관 관점에서 본 포스코홀딩스 ESG경영 수준 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진행현황(이중 중요성 평가 결과 포함)	
2024.10.29.	4/4	1. 포스코홀딩스 소유 철강 지분이관 계획 2. 포스코퓨처엠 발행 신종자본증권 인수 참여 ※보고사항 1) 2024년 3분기 그룹 ESG실적 2) 포스코그룹 인권경영 TF 추진 계획	사전 심의 사전 심의
2024.12.10.	4/4	1. 2025년도 POSCO 및 포스코 브랜드 사용계약 ※보고사항 1) 2024년 하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현황	사전 심의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

개최일자	출석인원	의안 내용	가결 여부
2024.8.9.	6/6	1.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육성 계획	원안 가결
2024.11.15.	6/6	1. 대표이사 회장후보군 Pool 결과	원안 가결

이사회 세션

개최일자	회의명	참석 사외이사	주요 내용
2024.4.19.	전략세션	전원	그룹 7대 미래혁신 과제 및 주요 사업별 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2024.7.23.	ESG세션	전원	ESG 관련 외부전문가 강연 및 핵심 이슈를 논의
2024.11.1.	전략·성과리뷰세션	전원	그룹 차원의 사업 포트폴리오 평가 및 전략 방향 수립, 2025년 경영계획(안) 의견 수렴, 주요 사업별 2024년도 경영성과 평가 및 중장기 전략에 대한 토의
2024.11.27.	리더십세션	전원	CEO와 사외이사 간 내부 회장후보군 육성현황 관련 논의

사외이사 회의

개최일자	출석인원	정기/임시	회의 사항
2024.6.5.	6/6	정기	POSRI 간담회, 지배구조TF 중간 보고 등
2024.6.14.	6/6	임시	지배구조TF 1차 중간보고 결과 후 보완 보고
2024.6.18.	6/6	임시	지배구조TF 중간 보고 관련 사외이사 의견 교환
2024.6.24.	6/6	임시	지배구조TF 2차 중간보고 결과 후 보완 보고
2024.7.20.	6/6	임시	지배구조TF 중간 보고 관련 사외이사 의견 교환
2024.10.18.	6/6	정기	이사회 관련 현안 보고, POSCO Clean 위원회 운영계획 등
2024.10.30.	6/6	임시	이사회 안건 관련 사외이사 의견 교환

전문위원회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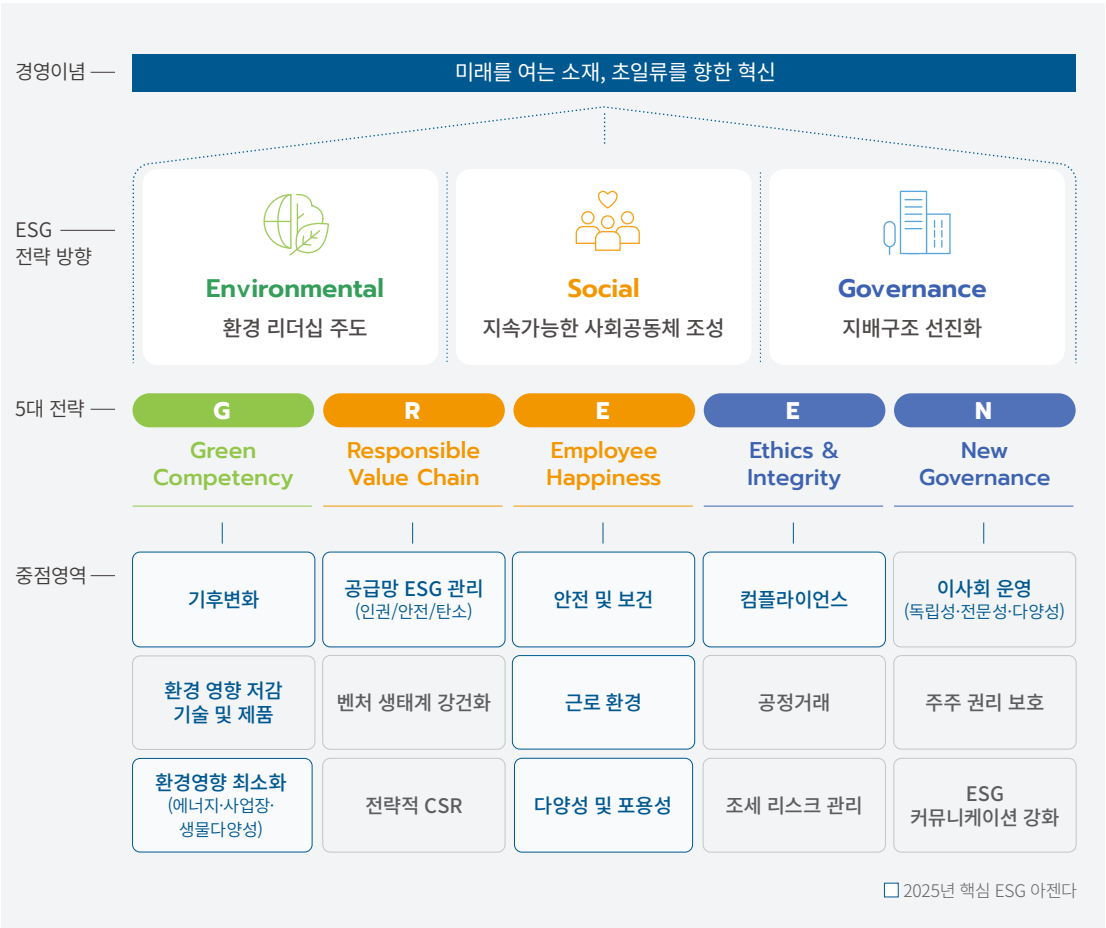
전문위원회 운영 관련 추가적인 회의 및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추가 간담회를 개최

개최일자	회의 사항	개최일자	회의 사항
2024.2.6.	평가보상위원회 간담회(1차)	2024.10.10.	평가보상위원회 간담회(3차)
2024.8.22.	평가보상위원회 간담회(2차)	2024.10.29.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간담회(3차)
2024.8.26.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간담회(1차)	2024.11.25.	평가보상위원회 간담회(4차)
2024.9.9.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 간담회(1차)	2024.12.13.	평가보상위원회 간담회(5차)
2024.10.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간담회(2차)		

ESG 전략 체계

경영 비전

포스코그룹은 ESG 전략 체계를 바탕으로 ‘미래를 여는 소재, 초일류를 향한 혁신’이라는 경영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ESG 전략

포스코그룹의 ESG 경영은 환경 영향 최소화, 지속가능한 사회 공동체 구성, 지배구조 선진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G.R.E.E.N.을 키워드로 5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중 중요성 평가

포스코홀딩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ESG 경영 전략에 반영하기 위해 2022년부터 이중 중요성 평가(Double Materiality Assessment)를 도입해 4년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 Core + New Engine’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면서, 그룹 차원의 핵심 ESG 이슈와 철강, 이차전지소재, 인프라 등 3개 사업 부문별 핵심 ESG 이슈를 함께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사업 부문 차원에서도 당면한 ESG 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경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포스코홀딩스를 둘러싼 ESG 이슈 풀은 CEO 주재 그룹ESG협의회 논의 안건과 ESG NDR, 컨퍼런스 콜, 이메일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직접 소통을 통해 파악된 이슈를 포함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위험과 기회를 식별해 회사가 외부에 미치는 영향과 외부 환경이 포스코그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투자자, 학계, 정부, 고객사, 공급사, 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제4회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ESG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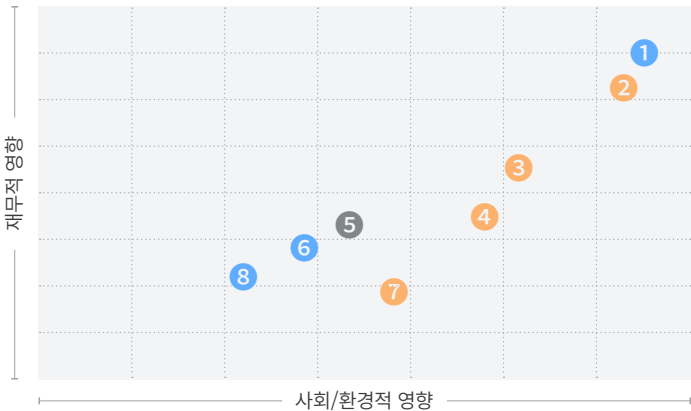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포스코홀딩스의 ‘8대 핵심 ESG 이슈’는 중장기 전략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이슈별 관리 현황은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단계	목적	주요 검토 사항
이해 및 이슈 선별	포스코홀딩스의 비즈니스 맥락을 이해하고 관련성 높은 ESG 주제 선별	· 그룹 관점의 검토 사항 - ESG위원회 안건, 그룹ESG협의회 안건, ESG 혁신과제 - 투자자 및 고객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 문의 사항 · 사업부문별 검토 사항 - 철강, 이차전지소재, 건설, 무역, 물류 등 사업부문·밸류체인 별 SASB 산업 지표 - 사업회사별 중요성 평가 결과
영향, 위험 및 기회 식별	포스코홀딩스와 유관한 사회·환경적 영향 ¹⁾ 과 재무적 위험 및 기회 ²⁾ 를 확인하고 식별	· 대외 공시 자료(사업보고서, IR 자료, 홈페이지 등), 미디어 리서치, 주요 이해관계자 문의 사항, 관련 법·규제 사항 검토 · 사회·환경적 영향과 재무적 위험 및 기회 요소를 파악 · 영향, 위험 및 기회의 경로(Impact Pathway) 개발
영향, 위험 및 기회 평가	식별된 사회·환경적 영향, 재무적 위험 및 기회의 수준을 평가	· 그룹 ESG 실무협의체(10개 사업회사 참여) · 포스코홀딩스의 사업 및 ESG에 대한 이해도 높은 내외부 설문조사 진행 (포스코홀딩스 5개 부서, 외부 24개 기관) · 주요 이해관계자 온·오프라인 요청 및 대응 현황 분석(총 180건) · 주요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을 통한 투자자, 정부, 고객 및 공급사의 의견 청취
핵심 이슈 선정	평가 결과 기반 중대 이슈를 선정하고 최고의사결정기구에 보고	· 핵심 ESG 이슈의 우선순위 선정 · 이사회 보고 및 최종 확정

1) 포스코홀딩스의 경영활동이 외부에 미치는 긍정·부정, 실재·잠재 영향

2) 외부 환경이 포스코홀딩스의 재무적 가치에 미치는 위험 및 기회

포스코홀딩스 핵심 ESG 이슈 선정 결과



순위	상위 ESG 이슈	전년도 순위	사회·환경 영향		재무적 영향	
1	기후·에너지 ¹⁾	1 4		90		95
2	안전보건	3		89		88
3	공급망	11		77		71
4	인권	6		74		60
5	윤리·컴플라이언스	9		59		57
6	환경관리	7		59		57
7	인재육성	10		63		44
8	생물다양성	8		47		47

1) 기후변화와 에너지는 전년도까지는 구분·공시하였으나, 올해는 ESRS 및 TCFD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통합 관리·공시 추진

구분	토픽	가치 사슬 내 위치	사회 환경적으로 미치는 주요 영향	영향 분류			재무에 미치는 주요 영향	위험 및 기회 분류	
환경	기후·에너지	업스트림 - 철강, 이차전지소재, 건설	· 공급망(광석 채굴·정제 및 건설 등) 및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로 인해 이상기후 등의 기후변화 발생	긍정 및 부정적 영향	실재적	단기에서 장기	·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응 비용 발생	위험	단기에서 장기
		자체운영 - 그룹 전체	·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에너지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에 기여				· 재생에너지 전환 비용 발생 · 철강 등 고탄소 제품의 생산·수입 비용 증가		
사회	안전보건	업스트림 - 철강, 이차전지, 건설, 에너지, 물류 등	· 고온·고압 제조과정으로 인해 직원 및 협력사 직원의 안전 및 건강 위험	부정적 영향	실재적	단기에서 장기	· 사고 발생시 조업 중단으로 인한 조업도 손실 발생 및 매출 감소	위험	단기에서 장기
		자체운영 - 그룹 전체	· 연료 채굴, 원료 운송, 하역, 물류 과정에서 협력사 직원의 건강 위험				· 관련 법적 제재 및 벌금 등 법적비용 발생		
사회	공급망	업스트림 - 그룹 전체	· 공급망에서 아동·강제노동, 자유권 침해로 인한 등 인권 및 사회적 부정적인 영향 발생	부정적 영향	잠재적	단기에서 장기	· 협력사가 위반 시 원자재 공급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생산 지연, 품질 저하 및 공급망 불확실성으로 인한 비용 발생	위험	단기에서 장기
사회	인권	자체운영 - 그룹 전체	·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절한 노동조건 제공으로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 및 회사의 사회에 대한 긍정적 영향 증가 · 장애인 고용, 인권경영 등을 통한 사회적 다양성 및 상호 존중 문화 조성에 긍정적 기여	긍정적 영향	실재적	단기에서 장기	·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과 관련된 부정적인 사건 발생 시 이해관계자 신뢰도 하락 및 브랜드 평판 악화로 매출 감소 · 관련 법적 제재 및 벌금 등 법적비용 발생	위험	단기에서 장기
지배구조	윤리·컴플라이언스	자체운영 - 그룹 전체	· 부패 및 뇌물수수 행위 발생 시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회사의 사회적 영향력에 부정적 영향 발생	부정적 영향	잠재적	단기에서 장기	· 관련 법적 제재 및 벌금 등 법적비용 발생	위험	단기에서 장기
환경	사업장 관리	업스트림 - 철강, 이차전지소재, 건설	· SOx, NOx,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여 대기질 악화	부정적 영향	잠재적	단기에서 장기	· 오염물질, 우려물질 저감기술 개발 및 설비 구축 관련 투자비용 발생	위험	단기에서 장기
		자체운영 - 그룹 전체	· 유해화학물질이 하천, 토양 등 자연에 직접 유출되는 경우 수질,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 발생				· 관련 법적 제재 및 벌금 등 법적비용 발생		
사회	인재육성	자체운영 - 그룹 전체	· 임직원을 대상으로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등등한 교육 기회 제공으로 인적 및 지적 자본 구축	긍정적 영향	실재적	단기에서 장기	· 임직원 대상 역량 개발·인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육훈련비 지출 증가	위험	단기에서 장기
환경	생물다양성	업스트림 - 철강, 이차전지소재, 건설 자체운영 - 그룹 전체	· 광석 채굴·정제 과정에서 사용하는 화학 물질이나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해 인근 토양, 수질, 대기가 오염되어 생물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 발생 · 사업 과정에서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 파괴, 생태계 단절, 자원 고갈등으로 멸종 리스크 증가	부정적 영향	잠재적	단기에서 장기	· 생태계보전지역 내 사업 활동, 관련 인증·허가 취득으로 인한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세금과 공과금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기타 비용 발생	위험	중기에서 장기

포스코홀딩스 핵심 ESG 이슈 선정 결과 인덱스

순위	상위 ESG 이슈	GRI	SASB	SDGs	TCFD
①	기후·에너지	302, 305	EM-IS-110a.1, EM-IS-110a.2, EM-IS-130a.1, EM-IS-130a.2	7, 11, 12, 13	●
②	안전보건	403	EM-IS-320a.1	3, 8	
③	공급망	308, 408, 409, 414	EM-IS-430a.1	8, 12	
④	인권	401, 402, 405, 406, 407		3, 5, 8, 10, 16	
⑤	윤리·컴플라이언스	205, 206		16	
⑥	환경관리	303, 305, 306	EM-IS-120a.1, EM-IS-150a.1	3, 6, 14, 15	
⑦	인재육성	404		4, 5, 10	
⑧	생물다양성	304		14, 15	

■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사업부문별 핵심 ESG 이슈 선정 결과

철강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인프라 부문			
순위	이슈명	사회·환경 영향	재무적 영향	순위	이슈명	사회·환경 영향	재무적 영향	순위	이슈명	사회·환경 영향	재무적 영향
1	기후·에너지	92	95	1	기후·에너지	92	95	1	기후·에너지	89	95
2	안전보건	85	94	2	안전보건	93	89	2	안전보건	88	94
3	공급망	77	89	3	공급망	85	91	3	공급망	69	80
4	인권	78	74	4	인권	89	72	4	인권	73	67
5	인재육성	85	54	5	윤리·컴플라이언스	76	82	5	인재육성	72	61
6	사업장 환경관리	68	64	6	인재육성	80	57	6	윤리·컴플라이언스	55	69
7	윤리·컴플라이언스	51	71	7	반부패	69	58	7	사업장 환경관리	61	54
8	반부패	40	54	8	사업장 환경관리	55	59	8	생물다양성	46	50

■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이해관계자 직접 소통 이슈 내역

포스코홀딩스는 지주회사로서 포스코그룹이 대내외 ESG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ESG 리스크 대응체계를 운영합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되는 그룹의 ESG 이슈를 포스코홀딩스 경영전략실(ESG)에서 종합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그룹ESG협의회 등 C-레벨 경영회의체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체계입니다.

2024년에는 ESG NDR, 투자자 컨퍼런스 콜 및 이메일 등 ESG 리스크 대응체계를 통해 그룹 차원에서 총 180건의 ESG 이슈를 접수하여 소통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주요 문의 내역과 개선 현황 등은 본 보고서에 충실히 담고자 하였으며, 앞으로도 열린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분		건수	비율
영역별	환경	83	46%
	사회	61	34%
	지배구조	36	20%
이슈별	기후변화	67	37%
	공급망	19	11%
	이사회	19	11%
	인권	13	7%
	지역사회·선주민	10	6%
	노동권·노사관계	8	4%
	환경(대기·수자원)	7	4%
	반부패·컴플라이언스	6	3%
	안전·보건	6	3%
	에너지·재생에너지	5	3%
	다양성·포용성	4	2%
	그외	16	9%
이해관계자별	투자자·보험사	135	75%
	고객·공급·협력사	21	12%
	비영리단체	9	5%
	정부·지자체	7	4%
	평가사	5	3%
	지역사회	3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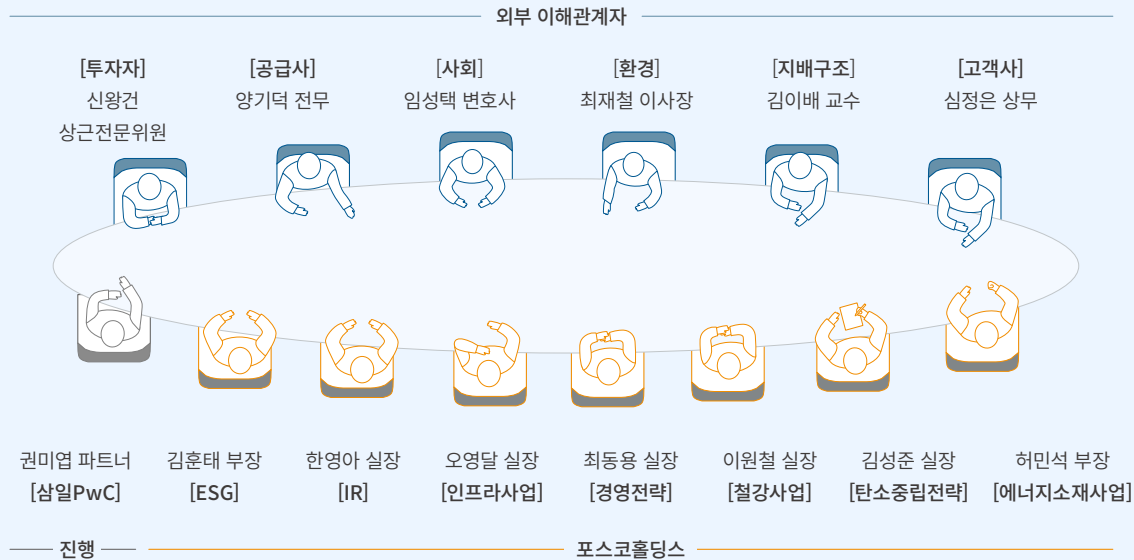
제4회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

2025년 4월 9일,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센터에서 제4회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포스코홀딩스가 그룹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주요 ESG 이슈에 대해 전략과 성과를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기후와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며, 철강 및 이차전지소재라는 두 핵심 사업의 경쟁력 향상에 있어 ESG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라운드테이블에는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표하여 신왕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김이배 덕성여대 회계학 교수, 심정은 HD한국조선해양 상무, 양기덕 조선내화 전무가 참석하였고, 포스코홀딩스에서는 최동용 경영전략실장, 김성준 탄소중립전략실장, 이원철 철강사업관리실장, 오영달 인프라사업관리실장, 한영아 IR실장, 허민석 에너지소재사업관리실 부장, 김훈태 경영전략실 ESG담당부장이 함께 하였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수렴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향후 포스코그룹의 ESG 정책 및 전략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후와 인권이라는 주요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앞으로의 ESG 활동 방향을 명확히 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참석자 현황



2024년 활동 리뷰

Q 작년 포스코홀딩스의 중요 이슈의 성과에 대해서 공유 부탁드립니다.

A 포스코홀딩스
김훈태 경영전략실 ESG 담당부장

작년 '제3회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에서 이해관계자들이 기대한 사항은 기후변화 대응, 인권, 공시, 안전과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탄소 감축의 중요성과 실질적 성과에 대한 공시를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이 국가전략기술 및 실증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선정되도록 노력했으며, 세제 혜택과 CAPEX 일부 지원도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광양제철소에 연산 250만 톤 규모의 전기로 건설을 착공하였고, 2026년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인권 측면에서는 그룹 차원의 인권 모니터링 체계 구축 요구에 따라 2025년 2월 그룹 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하고, 인권실사 및 고충처리 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현재는 인도네시아 팜농장을 대상으로 제3자 인권실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시 분야에서는 국영문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동시 발간 요구에 따라 작년부터 국영문 보고서를 동시에 발간하고 있으며, ESG 데이터 포털 앱을 통해 ESG 내부통제 시스템을 도입해 데이터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과 관련해서는 포스코 직원과 협력 직원이 2년 연속 중대재해 '0'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포스코이앤씨,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등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그룹 차원의 안전 전수조사를 통해 재해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중요 이슈와 이해관계자 제언

Q [기후변화 대응 이슈]에 대한 포스코홀딩스의 대응 현황과 기대 사항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포스코홀딩스
김성준 탄소중립전략실장

포스코그룹은 탈탄소를 생존과 미래 경쟁력 확보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올해부터 탄소중립전략실을 미래전략본부로 이관해 거버넌스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룹 차원의 중장기 탈탄소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업종 특성을 고려해 각 사업회사에 적합한 개별 로드맵도 수립 중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컨트롤타워로서 혁신기술 개발, 수소 및 저탄소 에너지 전략 수립 등 그룹 차원의 시너지 제고를 위한 전략 조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룹 내 탄소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철강 부문은 HyREX 기반 수소환원제철 기술, 전기로, CCS 등을 중심으로 탈탄소를 추진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발전사업에서 CCS와 수소 혼소 등을 추진합니다. 그룹 차원의 탈탄소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GX 협의체를 구성해 전 그룹의 탄소중립 이행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그룹 통합 탈탄소 로드맵을 연내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Q [기후변화 대응 이슈]에 대한 포스코홀딩스의 대응 현황과
기대 사항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포스코홀딩스
허민석 에너지소재사업관리실 부장

이차전지소재사업은 포스코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 사업으로, 리튬, 니켈 등의 원료 확보에서부터 리사이클링까지 아우르는 공급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당초 전망과 비교하여 현재 사업 환경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향후 시장이 회복되는 시점에 맞춰 선도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핵심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리튬, 니켈 등의 생산 초기 단계에서 품질 안정화와 공정 효율 제고에 집중함과 동시에, 원가 경쟁력 강화와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소재사업은 앞으로도 수익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실현하는 방향으로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A 포스코홀딩스
오영달 인프라사업관리실장

포스코그룹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건설, 디지털 전환, 물류 등 인프라 사업을 통해서도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중심으로 육상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글로벌파트너와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는 한편, 가스 탐사, LNG 발전, 트레이딩, 벙커링, 터미널 확충 등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건설 부문에서는 제로 에너지 빌딩(ZEB) 기술개발과 건축물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디지털 부문에서는 포스코DX가 스마트 팩토리, 빅데이터, AI 기반의 최적 제어를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탄소 감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물류 부문에서는 포스코플로우가 APM(육상 전원 공급 장치) 도입을 통해 항만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스코그룹의 인프라 사업 부문은 그룹 전체의 원활한 탈탄소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시장 변화를 선도할 독자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 공급사
양기덕 조선내화 전문

조선내화는 포스코의 고온 설비에 사용되는 내화재를 공급하고 제철소 현장에서 해체 및 시공까지 수행하는 PHP(POSCO Honored Partner) 공급사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감축 요구가 공급망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가 요구하는 탈탄소 기준은 조선내화에게도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당사는 제조, 운송 전반에서 저탄소 원료 전환, 폐기물 저감 등 탄소저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폐내화물 재자원화 공정을 광양 공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의 HyREX 수소환원제철에 적용 가능한 내화물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내 TF를 구성하여 재료 개발 및 설계를 수행 중입니다. 포스코가 해외 제철소 진출 시, 관련 기술이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후 리스크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포스코의 전환 전략에 발맞추어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A 기후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포스코그룹은 탈탄소화를 단순한 규제 대응책이 아니라, 산업 구조 전환의 기회이자 전략적 투자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특히 기술, 자원, 데이터 기반의 유기적인 통합과 같은 구조적인 접근 방식은 글로벌 ESG 평가에서 강력한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편, 탄소중립 전환은 이제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기반해야만 실질적인 생존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회적 책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원가의 구조적 혁신을 병행하지 않는 탈탄소 전략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탈탄소 전략은 ‘규제 대응’이 아닌 수익성 기반의 생존 전략으로,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해야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인권 이슈]에 대한 포스코홀딩스의 대응 현황과 기대 사항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포스코홀딩스
최동용 경영전략실장

오늘날 인권경영은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구축을 위한 핵심 경영 과제로 자리잡았습니다.

포스코그룹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2024년 10월부터 약 3개월간 그룹 인권경영TF를 운영하며 전사 차원의 인권경영 체계 설계를 본격화하였고, 2025년 2월에는 ‘포스코그룹 인권경영선언문’을 공식 선포하며 그룹 전반에서 체계적인 인권경영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구축한 인권경영 체계는 국내외 사업장은 물론 공급망 전반까지 포괄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재화된 역량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그룹은 인권경영을 개별 사업회사 단위가 아닌 그룹 전반의 전략 체계와 통합하여 관리하고, 이를 통해 전사적인 문화와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A 포스코홀딩스
이원철 철강사업관리실장

철강사업은 포스코그룹 내에서 가장 방대한 글로벌 공급망을 운영하는 부문입니다. 직접 거래 관계에 있는 1차 공급사만 1,000여 개사에 달하며, 전체 밸류체인으로 확장하면 1만 개 이상의 기업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2022년부터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대응 체계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협력사 지원을 포함한 공급망 인권실사 체계의 설계와 운영을 주도하고, 그 실행 노하우를 전 그룹사로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그룹 인권경영 체계 구축 과정에서도 철강사업이 수행한 실사 경험과 리스크 대응 사례가 식별-완화-예방-조치 전 과정에 걸친 실질적 운영 기준으로 정립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포스코그룹은 내부 공급망뿐만 아니라 주요 고객사와의 협력 관계에서도 신뢰 기반의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A 고객사
심정은 HD한국조선해양 상무

조선 산업은 전방위적 글로벌 공급망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대표적인 제조업이며, 선박의 주요 소재인 철강재는 공급망 내 탄소배출, 인권, 환경 리스크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선박 제조 공정은 그 특성상 다수의 하청과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복합 구조를 가지며, 고객사 입장에서는 공급망 내 ESG 리스크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HD한국조선해양도 주요 소재 납품사인 포스코의 공급망 ESG 대응 역량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포스코그룹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경영 체계를 정립하고, 공급망 전반에 걸쳐 실사와 개선 조치를 단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인권 실사 활동의 결과와 실제 개선 조치가 보다 투명하게 공시된다면, 고객사 입장에서 ESG 리스크를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포스코그룹 역시 공급망 차원의 ESG 선도 기업으로서 더욱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A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포스코그룹 인권경영 체계 구축에 자문기관 대표로 직접 참여하며,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권경영 원칙을 실질적으로 내재화한 사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UN 인권이사회가 2011년 채택한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은 ‘인권정책의 공식 선언, 정기적 인권실사, 인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 구제 절차 마련’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고, 포스코그룹은 이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인권경영선언문’을 통해 전사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인권실사 이행지침」으로 글로벌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실사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고충처리 절차 운영지침’을 기반으로 내외부 이해관계자 모두가 접근 가능한 고충처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포스코그룹이 이 체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인권 실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한다면, 100년 기업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견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Q [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포스코홀딩스의 대응 현황과
기대 사항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포스코홀딩스
한영아 IR실장**

포스코홀딩스는 2022년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이사회 중심의 독립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체계적인 고도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이사회는 사외이사 6인, 사내이사 4인으로 구성된 총 10인 체제로,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산하의 이사회추천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감사위원회,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는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투명성과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회장 연임 시 ‘우선 심사’ 절차를 폐지하고, 회장 후보 심사 기준 5가지를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회장 후보군을 상시적으로 육성·관리하기 위해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를 상설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장 연임 시 의사결정 방식을 기존 보통결의에서 특별결의로 변경해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사외이사 후보 추천 요건을 지분 0.5%에서 0.1%로 완화하여 기관 투자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사외이사 평가 제도 고도화와 연 10회 이상의 정기 이사회 개최를 통해 이사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A 투자자
신왕건 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

국민연금은 2022년 포스코홀딩스 출범 당시 물적 분할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포스코(철강)의 비상장 유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명확한 비전 제시,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약속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포스코홀딩스는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2023년 말에는 회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이사회 의결을 통해 도입하였습니다. 2024년 주주총회에서는 대표이사 회장의 3연임 시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정관을 개정해 경영진 선임에 대한 주주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제도는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실질적 독립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구조적 장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움직임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추가 개선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이사회 역량 구성 공시 범위의 확대입니다. 현재 포스코홀딩스는 사외이사에 대한 역량 구성표를 공개하고 있으나, 사내이사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선진 기업 사례를 참고해 사내외이사 모두의 전문성과 역량을 공시하면, 이사회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포스코 정신의 명문화입니다. 금년 주주총회에서 ‘기업시민헌장’ 전문의 정관 삭제 제안되었고, 포스코홀딩스는 이를 ‘포스코 정신’으로 포괄해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7월에 선포된 ‘포스코 기업시민헌장’은 포스코의 윤리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철학을 집약한 선언문으로, 해당 철학과 실천 정신을 ‘POSCO Spirit’으로 재정립해 명문화하고, 내부 구성원은 물론 주주와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포스코홀딩스의 장기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포스코홀딩스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고, 장기적인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글로벌 공시 및 규제 트렌드] 관련
포스코그룹의 시사점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지배구조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

최근 지속가능성 공시 분야의 주요 이슈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온니버스 간소화 패키지’입니다. CSRD, CSDDD, EU 택소노미, CBAM 등 EU의 지속가능성 규제가 기업과 회원국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보고 대상 축소, 공시 항목 간소화, 보고 기한 연기 등을 통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근거로 국내 공시 도입 속도 조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EU나 미국에 비해 친환경 정책과 지속가능 금융 인프라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었고, 제도 기반 또한 아직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속도 조절보다는 제도의 조기 안착과 시장 신뢰 구축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간소화 패키지를 단순한 유예가 아닌, 전략적 준비 기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축적된 지속가능성 공시 인프라, ESG 시스템, 공급망 실사 체계를 더욱 견고히 다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글로벌 공시 제도 확대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금일 포스코홀딩스의 2024년 ESG 성과 보고에서 발표된 그룹 ESG 데이터 포털 앱 기반 내부통제 시스템 도입은 주목할 만합니다. 회계 수준의 엄격한 통제 체계를 구축하여, 기존 금융권 중심의 내부통제 개념을 제조업 기반 기업으로 확장한 것은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ESG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향후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A 투자자
신왕건 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

국내 기업들이 국내 규제 환경에 발목 잡혀 ESG 공시 대응을 미루는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ESG가 투자 결정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ESG 공시 기준 채택은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적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ESG 정보는 전통적인 재무 정보와 달리 미래 기업 성과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비재무 정보입니다. 투자자의 해석과 기업의 전략적 정보 공개에 따라 기업가치 평가(Valuation)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ESG 정보 공시 역량 강화는 기업 밸류업 전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포스코와 같이 내부 준비가 잘 된 기업일수록 ESG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투자자에게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전략적 행보가 될 것입니다.

핵심이슈

In This Section

1. 기후·에너지	38
2. 안전보건	53
3. 공급망	60
4. 인권	67
5. 윤리·컴플라이언스	81
6. 환경관리	86
7. 인재육성	94
8. 생물다양성	99

POSCO HOLDINGS 2024

TCFD Report

기후·에너지

포스코그룹은 경영활동 전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설비 전환,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국제사회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TCFD 보고서는 글로벌 공시 기준에서 요구하는 물리적/전환 리스크에 따른 그룹 핵심 철강 사업의 회복 탄력성과 주요 사업의 기후 리스크 분석을 담았습니다. 앞으로도 기후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거버넌스, 전략, 위험 관리 및 목표와 지표를 보다 정교화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핵심이슈 ①

CLIMATE·ENERGY

기후·에너지

TCFD REPORT

GOVERNANCE

이사회

포스코홀딩스 이사회는 기후변화 관련 활동을 포함한 그룹 차원의 ESG 전략, 정책,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주요 ESG 현안 및 이행 모니터링 등을 관리 감독합니다.

이사회 운영규정

기후 보고 안건(FY2024)

회의명	날짜	안건명
이사회ESG위원회	02.19.	· 주요 사업장 물리적 리스크 분석 값 보정 결과
ESG세션 (사내외 이사, 주요 사업회사 대표 참석)	07.23.	· EU 택소노미 기반 친환경 재무 KPI 관리 전략 · 수소환원제철 및 탄소감축 기술 추진현황
그룹ESG협의회 (그룹CEO, 주요 사업회사 대표 참석)	05.09.	· EU 택소노미 기반, 친환경 재무 KPI 관리전략 · 포스코 탄소중립 로드맵 롤링
	09.24.	· 포스코 내부탄소가격제 운영방안 · 그룹 RE100 대응전략

경영진

그룹ESG협의회

포스코홀딩스는 기후변화를 주요 리스크이자 전략적 기회로 인식합니다. 경영활동 전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관리, 조직체계 구축, 설비 투자 등을 추진합니다. 그룹ESG협의회(매반기)와 그룹경영회의(매분기)에서는 주요 사업회사의 탄소관리 현황을 점검하며,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시나리오 분석, 이행 경과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탄소중립전략실

포스코홀딩스는 ‘2050 탄소중립’ 실행력 강화, 그룹 차원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본부 산하 탄소중립전략실을 운영합니다(2025년 4월 기준). 탄소중립전략실은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그룹 탈탄소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로드맵 이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업 회사별 현안을 점검 및 조정하여 체계적 실행을 지원합니다. 국내 사업장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퓨처엠도 각 사별 탄소감축 대응 전담 조직을 운영합니다.

그룹GX협의체

포스코홀딩스는 탈탄소 이행 점검과 전략 조정을 위해 탄소중립전략실장을 중심으로 ‘그룹GX(Green Transformation)협의체’를 운영합니다. 협의체는 포스코그룹 내 탈탄소 관련 투자, 생산, R&D 등을 점검하고 관련 현안을 조정하여 그룹 차원의 효과적 탈탄소 전환을 추진합니다. 2024년에는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퓨처엠, PT. KRAKATAU POSCO(인도네시아), POSCO YAMATO VINA(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로드맵 전략 코칭 및 이행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룹GX협의체 구성

그룹GX협의체
(탄소중립전략실 주관)

전략/기술분과

에너지분과

정책분과

포스코홀딩스

· 미래기술연구원 · 원자력협력추진TF · 정책지원실 등

포스코

· 기술전략실 · 환경에너지기획실 · 수소투자그룹 등

포스코인터내셔널

· 에너지사업본부 · 가스 사업본부 등

포스코퓨처엠

· 안전보건환경센터

해외법인

· 생산총괄

업무 Flow

탈탄소 이슈발생

그룹사, 해외법인 등
· 협업, 의사결정 지원사항 건의

실무 사전협의

포스코홀딩스(탄소중립전략실)
· 아젠다 도출 및 참석 회사 선정

그룹 GX 협의체

포스코홀딩스(탄소중립전략실)
· 임원급 내부 토론회 개최
· 전략 방향 점검, 우선순위 선정 등 의사결정 방향 도출

사업회사 실행

그룹사, 해외법인 등
· 그룹사 경영총 보고 및 실행

GOVERNANCE

사업회사 담당조직

포스코

포스코는 대표이사 사장 직속 기술전략실에서 철강 사업 탈탄소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전기로 설비 투자 등 탄소감축 생산 체제 구축을 이행합니다. 환경에너지기획실에서는 CBAM(탄소 국경 조정 제도,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등 국내외 탄소 규제, 에너지 정책, 온실가스 외부 평가 등에 대응합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에너지 사업 본부장 산하 에너지 정책 그룹에서 회사 탈탄소 전략을 구체화하고 성과 분석 전담 조직을 운영하여 실행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퓨처엠은 대표이사 사장 직속 안전보건환경센터장을 중심으로 환경기획그룹 내 탄소중립섹션을 운영합니다. 탄소중립섹션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내외 규제 및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당사의 탈탄소 로드맵에 따라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행 과제를 도출하고 추진합니다.

STRATEGY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유형			위험 및 기회 요인	설명	대응 활동	적용 부문
위험	정책 및 규제		ETS 강화 및 무상할당 축소	4차 계획기간 진입에 따라 무상할당 축소 및 유상비용 증가로 인한 비용 상승	내부탄소가격제 도입, 온실가스 예측·감축 계획 수립, 고로 브릿지 기술개발	철강
			CBAM 전면 시행	2026년 CBAM 전면시행으로 철강제품 수출 시 탄소비용 발생	CBAM대응TF 운영, 광양 전기로 250만톤 규모 착공, 전기로 고급강 생산기술 개발	철강
			발전소 CCS 의무화 확대	LNG 복합발전소 등 주요 발전설비 CCS 의무화로 탈탄소 투자 압력 증가	인도네시아 온쇼어·오프쇼어 CO ₂ 저장소 탐색 및 협력	에너지·무역
	시장		탄소저감 강재 공급 요구 증가	수요처의 탄소저감 강재 공급 요구 증가로 시기적 대응 필요	저 HMR 기술, 전기로 용해 스크랩 장입 기술 개발, 전기로 고급강 생산기술 개발	철강
			EV용 배터리 소재 수요 확대	고순도 탄소저감 전구체 및 리튬 수요 증가	장기 계약 체결, 리튬 직접 추출 기술 개발 및 수요예측 기반 전략 수립	이차전지소재
			글로벌 원료 공급망 경쟁 격화	Pellet, HBI 등 글로벌 원료 조달 경쟁 격화	호주·중동 HBI 프로젝트 투자 검토, 스크랩 수집기지·선별센터 확장	철강
	기술		수소환원제철 초기 투자 부담	HyREX 및 설비 전환에 대규모 투자 요구, 장기 검증 필요	HyREX 데모플랜트 건립	철강
			전기로강 고급화 기술의 한계	전기로 고급강 생산 시 정련 기술 한계 존재	전기로 고급강 생산기술 개발	철강
			CCUS 공정 기술 불확실성	CCUS 효율 및 배터리 공정 연계 기술 불확실성	RIST·산기평 과제 수행, 실증 기반 확대	철강·이차전지소재
	평판		그린워싱 대응 실패	과장된 홍보 시 투자자 신뢰 저하 및 ESG 평가 하락	친환경경영활동검토위원회, ESG 공시 내재화 및 투자자 소통 강화	그룹 전반
	물리	급성	해안 침수 및 하천 범람	포항 냉천, 광양 해안 등 침수 재발 위험	BCP 수립, 차수벽·배수 인프라 강화	철강
			폭우·기후 재난	기후재난에 의한 설비 중단 및 공급 지연	재난대응 매뉴얼, 비상 자재 확보 및 협력사 대응 교육	이차전지소재
		만성	이상 기온 및 가뭄	냉각·공정수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광물화 기반 CCU 기술, 지하수 활용률 제고 및 기후적응 투자 확대	이차전지소재
기회	전환	제품 및 서비스	친환경 제품 수요 증가	EV, 재생에너지 산업 확대에 따른 제품 수요 증가	탄소저감 강재, 고성능 양극재, RE100 제품 개발 및 글로벌 인증 확대	철강·이차전지소재
	자원 효율성		설비효율·스크랩·부생가스 활용	고효율 설비 및 에너지 절감 가능	기력발전 합리화, 열풍 제어 최적화, 부생가스 회수 확대	철강
	회복 탄력성		공급망 및 에너지 수급 탄력성 강화	기후 리스크 대응을 위한 시스템 필요	RE100 대응 태양광 확대, 해외 전력 PPA, LNG·수소 혼소 전환	그룹 전반

STRATE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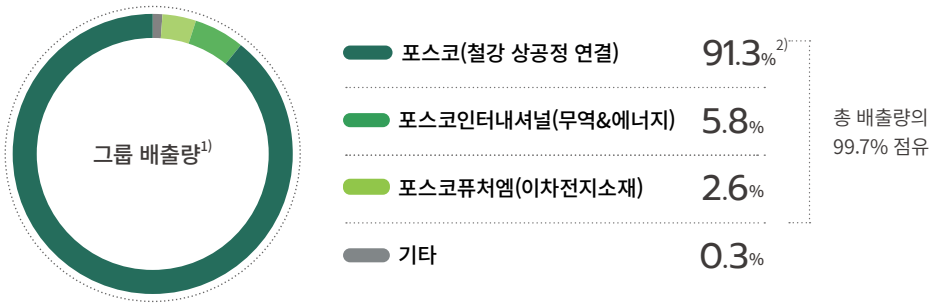
그룹 탈탄소 전략

포스코그룹은 탈탄소 전환을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 강화의 기회로 인식하고, 그룹 협력 극대화 관점에서 ‘그룹 탈탄소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철강, 이차전지소재, 인프라 3개 사업 부문에서 탄소 배출 비중이 큰 포스코(철강), 포스코인터내셔널(인프라), 포스코퓨처엠(이차전지소재)을 중심으로 각 사 특성에 맞는 ‘2050 탈탄소 로드맵’을 수립·이행 중입니다. 2024년에는 철강 부문의 해외 주요 사업장을 포함하여 로드맵을 수립·점검하였습니다.

목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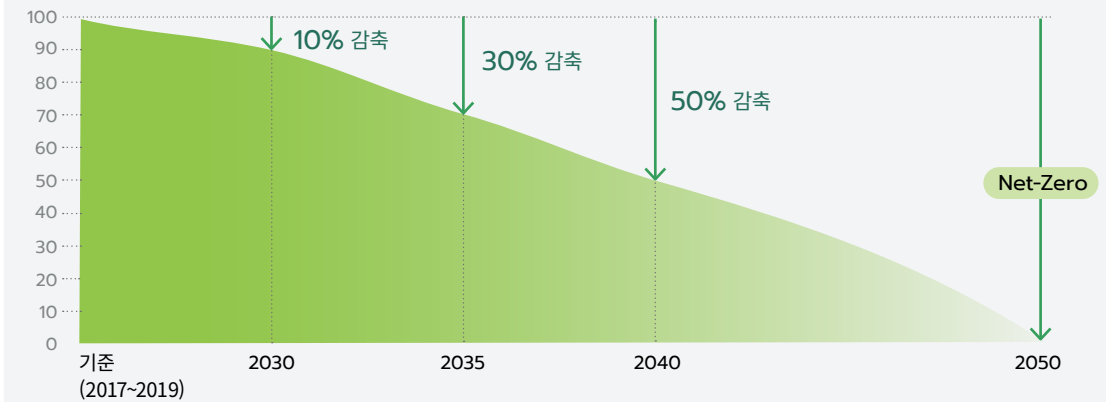
각 사업 회사는 탄소중립 선언 시기, 기준 연도, 업종 특성 등이 상이하나, 산업 부문별 국가 NDC(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Scope 1은 탄소감축 브릿지 기술, 전기로 도입, 수소환원제철로의 공정전환 등을 통해 감축할 계획이며, Scope 2는 태양광 및 육·해상 풍력 발전 등 그룹 차원에서 재생 에너지 사업 확대를 통해 감축할 계획입니다. 각 사의 로드맵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시장·기술 변화에 따라 통합 로드맵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현실적 감축 수단과 고객사 요구를 반영해 시기별 핵심 감축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그룹 연결 관점에서 최적의 감축 전략을 수립·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사업회사별 배출량(Scope1&2)



1) 국내 10대 사업회사 및 해외 철강 상공정 합산 기준(Factbook 134p, 151p)
2) 해외 상공정 포함(PT-KP/PY-VINA/장가항)

그룹 탄소 감축 목표



STRATE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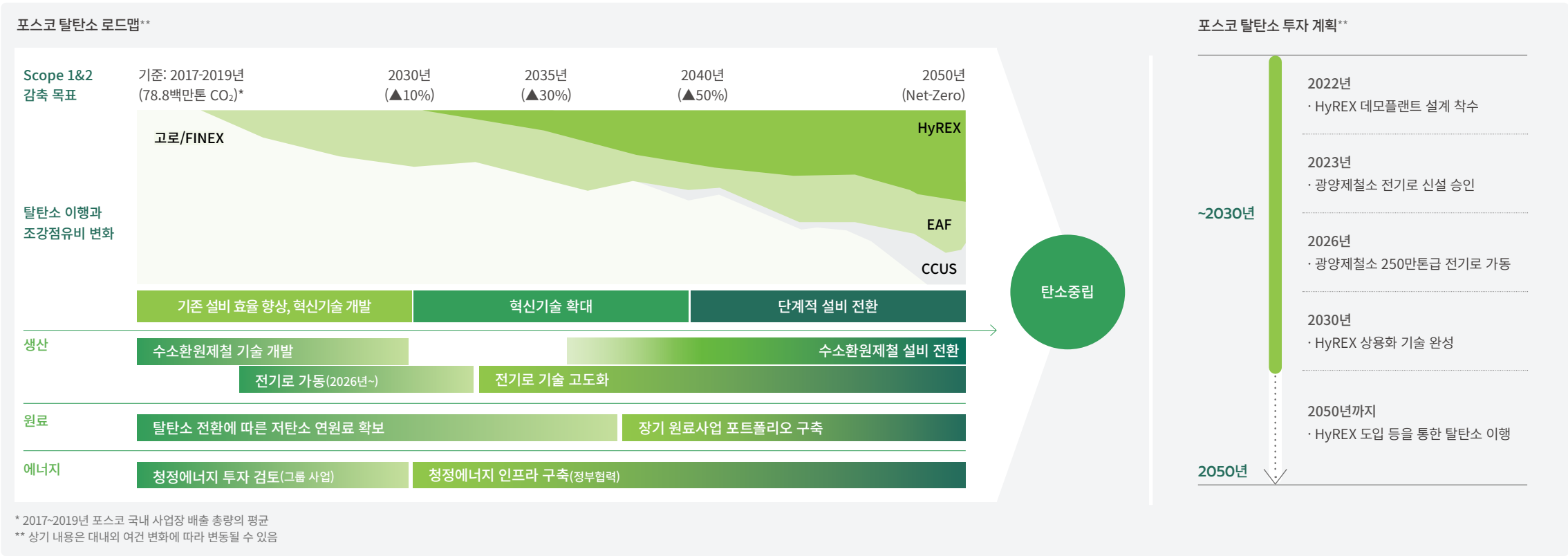
사업회사 탈탄소 이행 성과

1. 철강부문

포스코그룹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철강 부문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중장기 종합 전략을 담은 ‘2050 탈탄소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로드맵에는 원료, 투자, 에너지, 기술 개발 등 중장기 종합 전략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모니터링과 전략 갱신을 통해 탄소 저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2017~2019년 3년간 평균 배출량 7,880만톤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며, 2030년과 2035년 감축 목표는 국가 NDC(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계하여 재점검 중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고로 설비 효율 향상, 수소 취입, 저탄소 연·원료 사용을 통해 석탄 사용량을 줄일 계획입니다. 중기적으로는 대형 전기로 도입, 저 HMR(Hot Metal Ratio) 조업 기술 개발,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실현 가능성이 큰 브릿지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2024년 2월 착공한 광양제철소 대형 전기로(연산 250만톤)는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HyREX(Hydrogen Reduction)’ 개발을 통해 철강 공정의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HyREX는 2024년 1월 정부의 국가 전략기술에, 5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11월에는 예비타당성조사 과제에 각각 선정되었으며, 2030년 상용화 기술개발을 목표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및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후 상용화 적용을 통한 실질적인 탄소 감축 이행을 위해서는 탄소 저감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용성과 청정 수소, 청정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합니다.



STRATEGY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설비 전환

01 탄소감축 브릿지 기술개발: ①고로 기반 탄소감축 기술

펠렛, HBI(직접환원철), 스크랩

펠렛은 철광석을 파쇄·선별해 일정한 크기의 구형으로 가공한 원료로, 소결광 대신 사용할 경우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HBI는 환원 공정을 통해 철광석에서 산소를 제거한 원료로, 고로 투입 시 환원에 필요한 원료탄 사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수소가스

고로에 원료탄 대신 저탄소 연료인 NG(천연가스)를 투입하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은 개질 과정을 거쳐 일산화탄소와 수소로 분해되며, 이때 발생한 수소를 포함한 함수소가스를 고로 하부 풍구에 투입해 환원제로 활용하면 기존 대비 연료탄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2023년 상반기 고로 천연가스 투입 설비를 신설해 탄소 저감 효과를 확인했으며, 산학연 29개 기관과 국책과제 ‘COOLSTAR*’를 공동 추진 중입니다. 해당 설비를 기반으로 고로 수소 투입 기술을 개발 중이며, 이를 브릿지 기술로 패키지화해 탄소감축 특화 고로 모델을 정립할 예정입니다.

* CO₂ Low emission technology of Steelmaking And hydrogen Reduction, CO₂ 저감 Hybrid 제철기술개발 산업부 국책과제

02 탄소감축 브릿지 기술개발: ②전로 기반 저 HMR 기술

전로는 고로에서 생산한 쇳물인 ‘용선’에 산소를 불어넣어 불순물을 제거하고, 원하는 온도와 성분으로 정제된 ‘용강’을 생산하는 설비입니다. 용강 1톤 생산 시 발생하는 탄소의 약 80%는 용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포스코는 전로에 투입되는 용선 사용량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전기로 용해 스크랩 장입 기술’과 ‘상저취전로 기술’처럼 전로에서 용선 사용을 줄이고 철 스크랩을 다량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통칭해 ‘저(低) HMR 조업 기술’이라 부릅니다. 전기로에서 용해 스크랩 장입 기술을 활용해 연간 250만톤의 쇳물을 생산할 경우, 기존 고로 대비 최대 350만톤의 탄소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스코 고유의 FINEX 용선을 활용한 저 HMR 조업 기술 개발 시에는 전로 내 HMR(용선 투입 비율)을 70% 이하로 낮출 수 있어, 제선 공정의 온실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기존 전로 설비를 활용해 스크랩 사용량을 높이는 기술도 개발하였습니다. 스크랩 브랜드를 최적화하고 전로를 두 차례 경유하는 방식으로 스크랩을 2회 장입하여, 스크랩 사용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탄소감축 설비 전환 이전까지 고객사의 탄소 저감 제품 수요에 단기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전기로 용해 스크랩 장입 기술

고로 용선과 전기로 용강을 혼합해 전로의 용선 사용량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전기로는 스크랩을 재활용하여 용강을 만들기 때문에 석탄 및 철광석 사용량은 줄어듭니다. 다만 스크랩의 잔류 원소 함량으로 인해 고급 제품 생산에는 한계가 있어, 고급 자동차 강판이나 선박용 후판 등은 주로 고로 용선을 전로에서 정제해 생산합니다. 포스코는 연산 250만톤 규모의 대형 전기로를 2026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며, 고로 용선과 전기로 쇳물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탄소 감축과 고급강 생산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상저취전로 기술

전로의 철 스크랩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 전로 상·하부에서 산소를 주입해 추가 열원을 확보하는 기술입니다. 전로는 외부에서 열을 공급하지 않고, 용선 내 불순물 산화반응으로 발생하는 열로 용강을 생산합니다. 이 때문에 철 스크랩 투입량이 증가하면 용선 온도가 낮아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저취전로 기술은 기존 상부 산소 주입에 더해 하부에도 산소를 투입함으로써 2차 연소와 열 전달 효율을 극대화하여 이러한 한계를 보완합니다.

STRATEGY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설비 전환

03 전기로 기반 탄소저감 강재 생산기술

EU CBAM(탄소 국경 조정 제도) 등 고객의 탄소 감축 강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2월,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연산 250만 톤 규모의 전기로 공장을 착공하였습니다. 전기로 방식은 기존 고로 방식 대비 최대 75%까지 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어 EU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탄소감축 생산 체제입니다. 용해 스크랩 장입 기술을 활용하면 전기로 방식으로 불가능한 고급강을 생산할 수 있어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탄소 저감 강재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전기로에서 생산된 용탕을 정련으로 직사용하여 자동차 강판과 전기 강판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주원료인 스크랩을 선별·분류하고, 2차 정련에서 성분을 극한 제어하는 요소 기술을 개발하여 2030년을 목표로 자동차 강판과 전기 강판 양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2022년 8월 CBAM 대응 전담팀을 발족하고, 포스코 유럽 사무소 및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원료

철 스크랩 수급 및 관리

포스코는 안정적인 철 스크랩 확보를 위해 중장기 철 스크랩 확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전국에 수집 기지 확대 및 스크랩 선별·보관·가공을 위한 사내외 통합 스크랩 센터를 구축하고, 중장기로는 해외 스크랩 확보를 위한 장기 계약 및 공동 야드 투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HBI(직접환원철) 원료 확보 계획

철광석에서 산소를 제거하고 조개탄 모양으로 성형한 HBI(Hot Briquetted Iron)는 전기로 조업 시 철 스크랩 부족량을 대체하는 고급 원료입니다. 포스코는 안정적인 HBI 적기 확보를 위해 호주, 중동 등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해 탄소 저감 강재 생산에 적극 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4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은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재자원화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다양한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대규모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산업적 용도로 직접 이용하거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활용하거나, 영구 또는 반영구적으로 격리시키는 기술

코크스 오븐 활용 이산화탄소 취입 전환 기술

포스코는 2021년부터 RIST(포항산업과학연구원)와 함께 이산화탄소 포집·전환 기술 실증을 위한 민관 합동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철강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분리, 포집하여 코크스 오븐에 취입하여 부생가스 발전 열원으로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2024년 1월 포항제철소 실증 결과, 중순도 이산화탄소 만으로 코크스 오븐 취입이 가능하여 고순도 정제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으며, 코크스 오븐에서 배출되는 COG(Cokes Oven Gas) 열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COG는 연료가스, 부생수소 생산 원료, 고부가 화학제품 생산 원료 등으로 활용되는 에너지원이며, 열량이 높을수록 활용도가 높습니다. 포스코의 코크스 오븐 활용 이산화탄소 취입 전환 기술은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R&D 대표 기술 10선에 선정되어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광물 탄산화 시범 사업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광물화하여 육상에 저장하거나, 건설 소재로 재활용하는 광물 탄산화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2024년 7월, 에너지기술평가원의 ‘폐광도 슬래그 탄산화 관련 CCU(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시범 사업 과제’에 선정되어 현재 시범 설비를 구축 중입니다.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단계적 상용화 계획

포스코는 상용화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해 코크스로, 소결로, 열풍로,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가장 적합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탐색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성이 높은 설비 대상 이산화탄소를 단계적으로 포집에 나설 계획입니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압축·액화·정제 공정을 거쳐 운송·저장에 필요한 물성으로 변환 후 밀폐형 지질 구조를 갖춘 폐유가스전, 염대수층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영구 격리시킵니다. 밀폐형 지질구조란, 불투과성 암석이 다공질 퇴적지형을 덮어 가스 누출이 차단되는 지층을 의미합니다. 유망한 저장소로 동해 가스전,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호주 북서부 등지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수출입은행의 ‘국제 감축 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인도네시아 PT. Krakatau POSCO의 CCS 예비타당성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평가를 통해 CCS 적용 방법을 구체화하고 국내 제철소에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STRATE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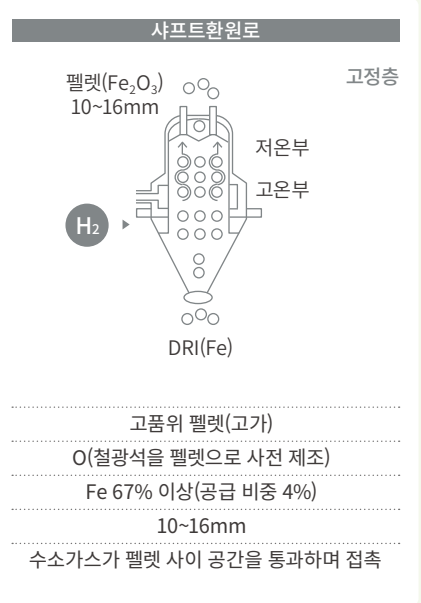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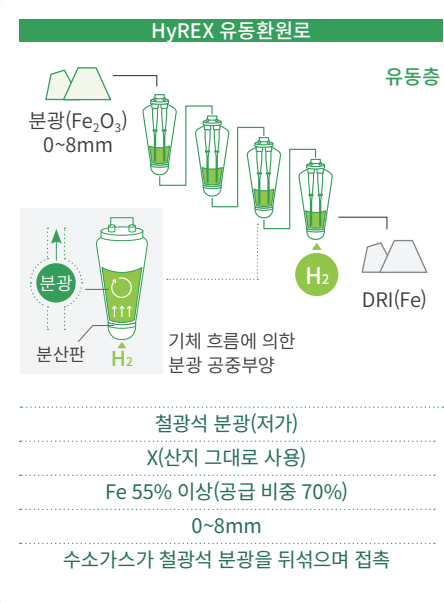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설비 전환

05 포스코형 HyREX(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수소환원제철은 제선 공정 환원제 및 원료탄을 수소로 대체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술입니다.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이미 상용화된 파이넥스 공정의 유동환원로 기술 기반으로, 원료·설비기술 측면에서 해외 철강사들의 샤프트환원로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료 측면에서 샤프트환원로는 철광석을 일정한 크기의 구형으로 가공한 펠릿을 사용하지만, 수소환원제철은 철광석 분광을 그대로 사용하여 원료 확보가 용이하고 경제적입니다. 설비 기술 측면에서도 유동환원로 방식으로 샤프트환원로 방식 대비 온도 제어에 유리합니다. 포스코가 개발한 유동환원로 기반 파이넥스 공정은 수소 투입 및 DRI(직접환원철) 제조 기술이 적용되어 가장 유리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소환원제철 기술 비교

환원 반응기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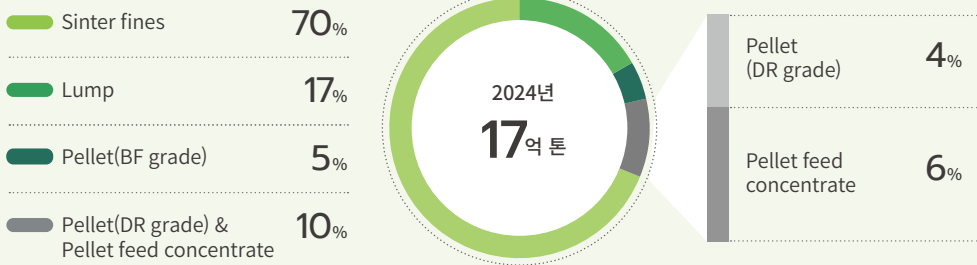


원료

HyREX(수소환원제철)용 저탄소 철강 원료 공급망 확보

포스코 고유의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HyREX는 샤프트환원로 방식과는 다르게 유동환원로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샤프트환원로는 철광석을 파쇄·선별한 후, 일정한 크기의 구형으로 가공한 고품위 DR Grade 펠릿을 사용하지만, 유동환원로는 별도의 가공 없이 광산에서 채굴한 가루 상태의 일반 철광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원료 확보가 용이하고 생산원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전 세계 철광석 공급량 17억 톤 중 DR Grade 펠릿 비중은 약 4%로, 이는 현재 DR Grade 펠릿 공급량으로는 전 세계 철강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수소환원제철이 상용화되면 샤프트환원로 기술을 적용하는 철강사들의 고품위 DR Grade 펠릿 확보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나, 포스코는 유동환원로 방식을 채용하여 상대적으로 원료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Global Iron Ore Exports by Product Grade



STRATE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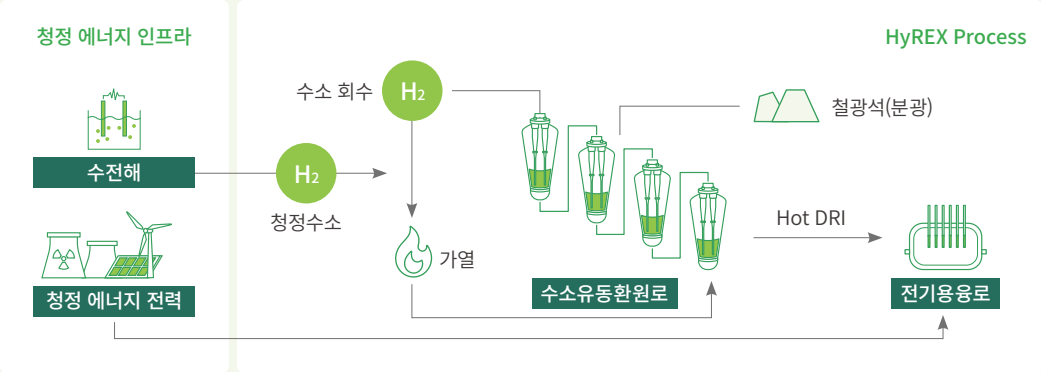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설비 전환

05 포스코형 HyREX(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포스코는 2021년부터 포항제철소 수소환원제철 건립 용지(135만㎡, 41만평) 조성을 위한 인허가에 착수했으며, 2022년 7월 FINEX 설비 설계 경험을 보유한 기업 프라이메탈스(Primetals)와 공동 엔지니어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HyREX 데모 플랜트 주요 설비에 대한 공동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포항제철소에 연산 30만 톤 규모의 시험 설비 건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 포항 기술연구원에 배치(Batch)당 50kg 규모의 수소 유동환원 실험로를 도입하여 수소 유동환원 기술을 검증하였습니다. 2024년 1월에는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를 개소하고, 4월에는 시간당 1톤 규모의 ESF(전기용융로, Electric Smelting Furnace) Pilot 설비를 준공해 첫 출선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포스코는 전기용융로 요소 기술 개발과 HyREX 기술 완성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HyREX 기술은 2030년까지 상용화 기술개발을 목표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도입은 청정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책지원, 청정수소 경제성 및 탄소저감 제품의 시장 수용성 등 탈탄소 이행 환경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 인프라 및 정책·제도적 기반 하에, 시장 수용성이 확보되는 시점부터 기존 고로 설비를 HyREX 설비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HyREX 기반 수소환원제철 공정



HyREX R&D Partnership Conference

포스코는 2023년부터 HyREX 기술에 대한 글로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HyREX R&D Partnership을 운영 중입니다. 글로벌 철강사, 원료사, 에너지사 등 19개 유관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4년 11월 1차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포스코는 글로벌 철강사들과 경쟁을 넘어 협력을 통해 철강산업의 탄소 감축 기술개발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포스코는 글로벌 철강업계 차원의 탈탄소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개발 협력관계 구축에도 적극 참여 중입니다. 세계 철강협회, 스웨덴 철강사 SSAB 등과 협력하여 2021년과 2022년 국제수소환원제철포럼(HyIS Forum) 개최를 주도하였고, 2023년부터는 세계철강협회가 주관하는 혁신기술 컨퍼런스(Breakthrough Technology Conference)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정받아 2024년 1월 국가 전략 기술로 선정되었습니다. 2024년 5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 중 하나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용 철광석 최적화 기술개발(철강)'이 선정되었습니다. 포스코는 2030년 상용화 기술 개발을 목표로 국책과제와 연계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STRATEGY

사업회사 탈탄소 이행 성과

2. 인프라 부문

에너지, 건축·인프라, DX, 물류 등 다양한 사업회사가 속한 인프라 사업 부문에서는 배출량 비중이 가장 높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중심으로 탈탄소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행, 점검 중입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23년 7월 ‘2050 탄소중립 기본 로드맵’을 공개하였습니다.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수소 혼·전소 발전, 배출가스 CCS(탄소포집·저장) 사업 확대와 함께 해상 풍력 에너지원을 중점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감축 방안은 ‘직접 감축(Scope 1)’과 ‘간접 감축(Scope 2)’으로 구분됩니다. 직접 감축은 설비 효율 개선 및 연료 전환과 CCS를 통해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방안이며, 간접 감축은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여 탄소 크레딧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직접 감축(Scope 1) 단계에서는 정부 정책 및 기술 상용화 시점을 고려하여 국내 주요 사업장인 인천북합발전소의 3.4GW 규모 LNG 발전을 수소 혼·전소로 순차적으로 전환하고, 이와 함께 발전소의 잔여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CCS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간접 감축(Scope 2) 단계에서는 태양광 및 육해상 풍력을 통한 탄소 크레딧 확보와 함께 그룹 차원의 RE100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CASE STUDY 포스코인터내셔널 CCS 사업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기 보유한 E&P(Exploration & Production)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CCS를 통한 그룹 탄소 배출 저감 및 국가 이산화탄소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2023년 2월 CCS 사업화 추진반을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동해 울릉분지 저장소의 유망성을 평가하여 추후 사업 기회를 대비하고, 인천 LNG 복합발전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CCS 도입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2024년 9월부터 인도네시아 국영에너지 기업인 페르타미나(Pertamina) 그룹과 북서 자바 해상 ONWJ 광구 대상 CCS 전주기 공동조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해양수산부 CCS R&D 과제를 수주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저장소 평가 및 주입 플랫폼 전환 설계 역량을 축적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글로벌 유망지역 대상 CCS 협력 기회를 검토 중입니다.

이 밖에 인프라 사업부문에서는 포스코이앤씨 등 각 회사별 사업 특성을 반영한 탄소 감축 계획을 수립하여 탄소 저감을 추진 중입니다.

3. 이차전지소재 부문

이차전지소재 사업부문에서 배출량 비중이 가장 높은 포스코퓨처엠은 2022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탈탄소 로드맵을 공개하였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은 세 가지 측면에서 탄소 감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기존 설비·공정 개선을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 기반 장비·설비 자재를 전력 기반 고효율 장비·기자재로 대체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연구기관과의 협업 과제 참여로 관련 기술을 조기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차전지소재 부문은 고객과 시장의 요구에 따라 경제적인 청정 에너지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광양 양극재 공장 지붕 태양광 등 일부 사업장에서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설비를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고,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와 PPA(전력구매계약) 확대 등 조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CASE STUDY 그룹사 재생에너지 사업 협력

2024년 2월, 포스코퓨처엠은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협력하여 광양 양극재 공장 지붕에 2.2MW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였습니다. 해당 태양광 패널을 통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연간 2.6GWh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확보하고, 포스코퓨처엠은 확보된 REC를 구매하여 RE100을 대응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2021년 8월에는 세종 음극재 공장 옥상 및 주차장 등에 연간 209MWh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양 양극재 공장 태양광 발전 설비

STRATEGY

에너지

그룹 탈탄소 연계 에너지 수급 전략 수립

포스코홀딩스 탄소중립전략실은 그룹 탈탄소 로드맵에 따라 그룹 에너지 믹스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에너지 수급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룹 에너지 믹스는 석탄 중심에서 LNG, 수소, 재생에너지로 다변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안정적, 경제적 에너지 조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원료 측면에서는 기존 환원제인 석탄이 수소로 전환되고, 에너지원 측면에서는 기존 화석연료가 LNG, 수소,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전력원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탈탄소 대응과 그룹 사업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안정적, 경제적 청정 에너지 조달이 중요합니다.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한 주기적인 그룹 에너지 전략 점검과 개선을 통해 철강, 이차전지소재, 인프라 사업 부문별 탄소 감축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겠습니다.

사업부문	에너지 수급 전략
 철강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 향상, 전원 믹스 최적화 등 에너지 혁신과 철강 공정의 브릿지 기술 활용을 통해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HyREX 등 탈탄소 기술개발에 집중할 것입니다. 탈탄소 로드맵 이행을 위해 우선 실행가능한 브릿지 방안으로 고로 부생가스를 활용한 발전량 감소를 LNG 발전 및 수소 혼소로 단계적으로 대체하여 점진적으로 탄소 감축을 실현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비 전환과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는 시점에 맞춰 기존 온실가스 발생의 주원인인 환원제의 수소 대체,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 청정 전원 포트폴리오 구성 및 CCS 적용을 통해 철강분야 탈탄소 목표를 이행할 것입니다.
 이차전지소재	고객사의 RE100 요구에 대응하고 그룹 연결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 전력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광양 양극재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전력을 조달받고 있으며,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과 직접 PPA 등을 활용하여 고객 탈탄소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인프라	단기적으로는 기존 발전소의 발전 효율을 개선하고, 서인천 3, 4호기 신예화 사업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청정수소 확보를 통한 수소 혼·전소 및 CCS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규모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로 청정 발전믹스 비중을 확대하겠습니다.

ISO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포스코는 2012년 9월부터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ISO 50001 인증을 획득하고 매년 재심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합니다. 매년 내부심사를 통해 전사 에너지경영시스템 이행 상태, 관리 기준 등을 평가·개선 중입니다. ‘ISO 50001 내부 심사원 교육 과정’ 등 사외교육을 통해 에너지 전문가를 지속 양성합니다(2024년 44명 수료).

기타 활동

배출권거래제 규제 대응

포스코는 EU 배출권 거래제도와 국내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중장기 탄소 비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로, CCUS,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감축 기술 및 고효율 생산기술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중장기 관점에서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발전 설비 효율 개선 및 LNG 발전에서 수소 혼·전소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며, 발전소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CCS 기술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포스코퓨처엠은 배출권거래제의 할당량 감소, 유상 할당량 확대 등 규제가 예상됨에 따라, 노후화 설비 개선 및 고효율 설비 교체 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 과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배출권 비용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내부 탄소가격제

포스코는 기후 관련 사업 기회와 위험을 관리하고 저탄소 사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2024년부터 내부 탄소가격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내부 탄소가격은 기후변화에 대한 임직원 인식 개선과 투자 및 프로젝트 사업화의 경제성 검토에 활용됩니다. 또한 주기적인 가격 갱신을 통해 시장 변화에 적기 대응 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그린 파트너십

포스코는 2003년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Carbon Disclosure Project)에 참여해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국내 제조업체 중 최초로 기후변화 관련 TCFD(재무정보공개 협의체,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지지를 선언한 데 이어, 협의체 권고안에 따라 탄소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4년 CDP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리더십(B)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METRICS AND TARGET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포스코그룹은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효과적으로 알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사업회사별로 연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실적을 모니터링하며, 그룹 차원의 경영층 협의체를 통해 분기별로 보고합니다.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 실적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에 따른 발전소 가동률 상승으로 전년 대비 61만톤CO₂eq 상승하였으며, 포스코는 전년 대비 90만톤CO₂eq 감소, 포스코퓨처엠은 전년 대비 9만톤CO₂eq 감소하였습니다.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포스코(국내)		7,019	7,197	7,107
포스코인터내셔널(국내)*	만tCO ₂ eq	0.2	422	483
포스코퓨처엠		223	239	230

* 2022년은 포스코인터내셔널 단독 배출량, 2023년 1월 (구)포스코에너지 합병으로 배출량 증가

RISK MANAGEMENT

포스코그룹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리적 리스크와 탈탄소 전
 환에 따른 전환 리스크를 분석하고, 재무적 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한 대응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물리적·전환 리스크는 기
 후변화 관련 TCFD(재무정보공개 협의체) 프레임워크에 따
 라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와 목표 등 네가지 영역
 을 관리하며,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물리적 리스크 시나리오 분석 및 대응 방법론

S&P 글로벌 기후경제학의 기후 모델링 분석 방법론은
 SSP(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시나리오를 적
 용하였습니다. SSP 시나리오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6차 평가 보고서(AR6, 실무그룹 I)에서 활용된
 신규 온실가스 경로로서 RCP 시나리오에 미래 인구변화, 경
 제개발 및 도시화 등 사회경제학적 요소를 함께 고려한 시나
 리오입니다.

SSP 시나리오

종류	사업장	전 지구 기온 (21세기 말)
SSP 1-2.6	사회 불균형의 감소와 친환경 기술의 빠른 발달로 기후변화 완화, 적응 능력이 좋은 지속성장 가능한 사회경제 구조의 저탄소 시나리오	+1.9°C
SSP 2-4.5	중도성장의 사회경제 시나리오로 기후변화 완화 및 사회경제 발전 정도가 중간 단계 가정	+3.0°C
SSP 3-7.0	사회경제 발전의 불균형과 제도적 제한으로 인해 기후변화에 취약한 상태에 놓이는 사회경제 구조의 시나리오	+4.3°C
SSP 5-8.5	기후정책 부재, 화석연료 기반 성장과 높은 인적 투자로 기후변화 적응 능력은 좋지만, 완화 능력이 낮은 사회경제 구조의 고탄소 시나리오	+5.2°C

*자료: 기상청, IPCC 6차 보고서

분석 대상

철강, 이차전지소재, 가스전 등 포스코그룹의 지속가능 성장을 견인하는 11개 핵심 사업장을 물리적 리스크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구분	사업장
포스코홀딩스(1개 사업장)	포스코아르헨티나(움브레 무에르토 염호)
포스코(5개 사업장)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크라카타우포스코(인도네시아), 포스코장가항불수강(중국), 포스코야마토비나(베트남)

구분	사업장
포스코인터내셔널(4개 사업장)	미얀마 가스전, 인도네시아 팜농장, 광양LNG터미널, 인천LNG복합발전소
포스코퓨처엠(1개 사업장)	광양 양극재 공장



2040~2049년 물리적 리스크별 재무 영향(SSP 5-8.5 시나리오 적용)¹⁾

2040~2049년 물리적 리스크별 재무 영향(SSP 5-8.5 시나리오 적용) ¹⁾					연평균 예측 손실률(MODELED AVERAGE ANNUAL LOSS)		1% 미만	1~5%	6~10%
회사	사업장	이상기온	내수 침수(폭우)	해안 침수	하천 범람	가뭄	산불	태풍	물부족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아르헨티나	1-5%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미만
포스코	포항제철소	1-5%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미만
	광양제철소	1-5%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미만
	크라카타우포스코(PT.KP)	1-5%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미만
	포스코장가항불수강	1-5%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미만
	포스코야마토비나(PY VINA)	1-5%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미만
포스코인터내셔널	광양LNG터미널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미만
	인천LNG복합발전소	1-5%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미만
	미얀마 가스전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미만
	인도네시아 팜농장	6-10%	1-5% ²⁾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미만
포스코퓨처엠	광양 양극재 공장	1-5%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2024년 2월 분석 결과

2) 팜농장의 내수 침수 리스크는 1.1%로 분석됨.

RISK MANAGEMENT

사업장별 대응 현황

2022년 포항제철소가 냉천 범람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2023년 포스코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자연재해 예방, 피해 복구, 대체 생산·시장 보호 계획을 종합적으로 담은 'BCP(업무 연속성 계획, Business Continuity Plan)'을 수립하고, 물리적 리스크 예방 시설물 보완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한 상시 대응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하천 범람 리스크가 있다’고 분석된 광양제철소 및 광양 양극재 공장에도 동일 수준의 예방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팜농장은 ‘이상 기온’과 ‘내수 침수’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상 기온’ 리스크에 대비하여 비상 발전기, 담수 저장시설 등을 확충하고, 작업자 안전보건 및 근로 환경개선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폭우 등에 의한 ‘내수 침수’ 리스크에 대비하여 배수로 정기 점검, 도로망 긴급 복구 비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포스코아르헨티나 리튬 사업장은 ‘가뭄 리스크’ 경고가 있었으나, 건조하고 일사량이 많은 기후 환경은 리튬 생산 촉진 요건임을 S&P글로벌에 설명하고, 물리적 리스크 분석 시 반영하였습니다.

포스코아르헨티나 리튬 사업장은 취수원을 구분해 별도 지하수를 개발·활용하고 있으며, 포스코홀딩스의 BPED 기술적용 공정은 기존 상용공정 대비 용수사용량을 50~80% 절감하는 방식을 운영하여 용수 리스크도 예방하고 있습니다.

해안 침수 리스크 대응 현황

회사	사업장	주요 대응 현황	부지 고도(해수면 대비)
포스코	포항제철소	· 쓰나미 취약구간 원료부두 방파 옹벽(2.3km) 설치(2012~2017년) 및 호안 시설물 ¹⁾ , 이안제 보강(2020년) ²⁾ 1) 하천, 해안, 독의 경계선 부위가 침식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보호 시설 2) 파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외해에 설치하는 방파제 · 제철소 침수 취약개소 및 핵심 설비 차수문·차수벽 설치(1,853개소) · 제철소 외부 차수벽(1.9km), 냉천 제방(1.7km) 보강 · 수위측정 레벨계, CCTV 기반 제철소 배수로 모니터링 관리시스템 개발 및 배수체계 개선 · 침수 시 비상대응을 위한 대형 엔진펌프 구비	+3.2~4.5m
	PT. Krakatau POSCO	· 최대 일일 강우량을 고려한 배수처리 시설 구축 및 배수로 정비 · 전기실, 제선변전소 등 주요 설비 차수문·차수벽 설치(96개소)	+4.5~5.5m
	POSCO YAMATO VINA	· 해안침수 대비 전기로·정련·연주·압연설비 및 전기실 등 주요 설비 지상 2~3층 배치 · 항만부두 및 제품창고 인근 배수로 확장 공사(2023년 3~10월) 및 항만 준설공사 실시(1회/2년)	+3.7m
포스코인터내셔널	미얀마 가스전 (육상 파이프라인)	· 해안침수, 태풍 등 자연재해를 고려한 구조설계 및 시공으로 비상상황 대응 절차 완비 · 사업장 인근 경사면 철근, 콘크리트 보강 및 범람 예방을 위한 집수장 정기 정비 수행	+15~20m

하천 범람 리스크 대응 현황

회사	사업장	주요 대응 현황
포스코	광양제철소	· 제선·압연 지역 차수문·차수벽 설치(662개소) · 제철소 배수로 관리시스템 개발 및 배수체계 개선 · 침수 시 비상대응을 위한 대형 엔진펌프 구비
포스코퓨처엠	광양 양극재 공장	· 공장 외부 차수벽 설치(전체 둘레 1,708m, 높이 2m), 차수벽 설치 및 방재패널 설치

이상기온 리스크 대응 현황

회사	사업장	주요 대응 현황
포스코인터내셔널	인도네시아 팜농장	· 폭염·가뭄에 대비하여 공장별 용수 공급 저수지 확보를 통한 농장 운영 안정화 · 농장 내 전력 공급 불안정 지역 대상 비상발전기 구비 · 이상기온 대비 작업자 보건 매뉴얼 수립 및 모니터링 실시, 수확작업 기계화 등 신규 작업군에 대한 SOP(표준작업지침서) 수립 추진 · 농장 내 자체 기상 관측기(총 10대)설치, 위치 기반기상정보 수집 등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반 근로환경의 안정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

RISK MANAGEMENT

공정한 전환

포스코그룹은 탄소 감축 공정으로의 전환이 임직원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 관계자들이 전환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정한 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성원

포스코그룹은 2050 탈탄소 로드맵을 기반으로 인력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착공되어 2026년 가동 예정인 광양 전기로의 경우, 설비 투자 단계부터 전기로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생산·기술 인력 총원 및 직무교육을 통해 관련 역량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포스코 고유의 HyREX 공정은 포스코가 적용 중인 파이넥스 공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덕분에 다른 철강사 대비 인력 전환 수요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업무 전환 교육을 통해 인력 재배치가 가능하며, 공정 전환 시에도 기존에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설비 전환 추진 시기에 맞춰 축소·폐쇄부서 직원을 중심으로 자발적 직무 전환 교육(Re-skilling)을 실시하고, 그룹 내 포스코인재창조원과 기술연구원 간 협업을 통해 전문 기술인 육성 교육과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신설 공정 직무분석을 기반으로 적정 수준의 인력 수요를 산정하고, 직원 본인 의사를 존중하여 부서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 안정성을 유지함은 물론 경력관리를 지원할 것입니다. 전환 과정은 각 사업회사별 노동조합, 주니어보드 등 공식 소통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신사업 분야인 이차전지소재사업, 수소·LNG 사업 분야는 대규모 생산시설 신설에 따라 인력 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3년 포스코그룹 사내 공모를 통해 이차전지소재 사업 회사로 74명의 인력이 재배치되었으며, 추가 필요 인원은 외부로부터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포스코그룹은 창립 초기부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을 중요한 사회적 역할로 여겨왔습니다. 이에 포항, 광양, 서울·인천 등 포스코 그룹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기업과 사회가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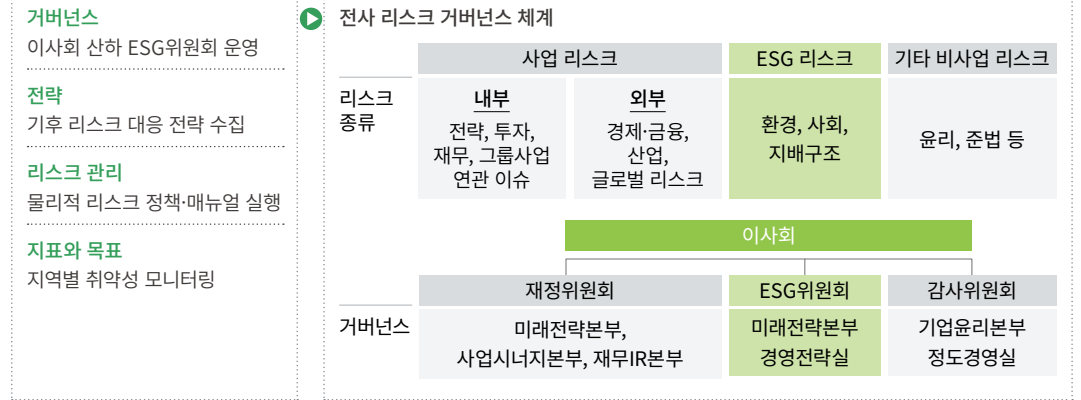
특히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도 지역사회를 핵심 이해관계자로 인식하며,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모든 의사결정에 중요하게 반영합니다. 관련 내용은 지역사회와의 소통 채널을 통해 지역 주민,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공정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환원제철 부지 조성’ 인허가 과정에서는 2023년 5월부터 포항시 송도동, 해도동, 청림동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서 등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열어 잘피류 서식지 보호 및 해안선 영향 등 주요 환경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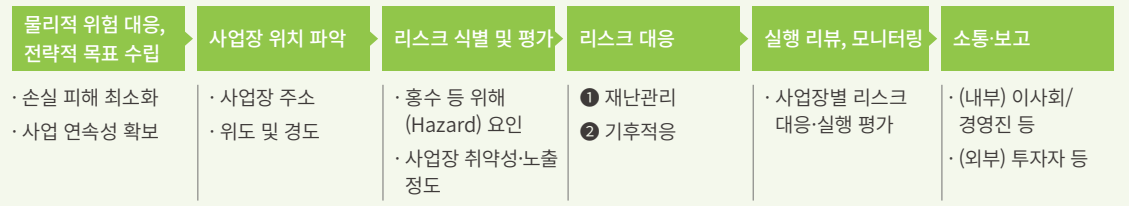
물리적 리스크 대응 프로세스

포스코그룹은 기후변화 관련 TCFD(재무정보공개 협의체)-COSO(미국 트레드웨이위원회 후원조직위원회) 간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물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기후 리스크와 취약성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와 '기후적응' 방식으로 나누어 대응합니다. '재난관리'는 홍수, 폭염, 태풍 등 단기적으로 발생 가능한 재난 상황을 예방하고, 실제 재난 발생 시 신속 복구 대응 절차를 규정합니다. '기후적응'은 기온과 해수면 상승 등 중장기 기후 변화 위험에 대한 적응 능력을 높이는 활동입니다. 폭염에 대한 임직원 보건 프로그램 강화와 방파제 및 방재 인프라 구축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재난관리 및 기후적응은 전세계 모든 사업장에서 실행되며 그룹 차원에서 그 성과를 모니터링합니다. 물리적 리스크 발생 현황 및 대응 활동은 그룹 ESG협의회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중요 사안은 이사회에 보고하며, 투자자 등 외부 이해 관계자들과도 효과적으로 소통합니다.

TCFD 프레임워크



물리적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RISK MANAGEMENT

재난관리 물리적 리스크 대응 프로세스

포스코그룹의 재난 관리는 BCP(업무 연속성 계획)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는 자연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영향을 최소화 하며 2차 피해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연재난은 태풍·호우, 대설·한파, 지진·해일, 가뭄, 낙뢰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 관리 체계를 운영합니다. 예방 단계는 재난 유형별 체크리스트 점검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미비점 발생 시 신속 보완합니다. 대비 단계는 재난 발생 시점을 예상하여 일주일 전부터 날씨·기후 예보를 주시하면서 비상 장비·자재 확보 등 점검 활동을 시작합니다. 대응 및 복구 단계는 경보를 발령하고 재난본부와 복구조직을 가동하여 신속히 피해 복구하고 업무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BCP(업무 연속성 계획) 및 관련 설명서에는 날씨, 기후, 지진 등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폭발, 화재 같은 사회재난에 대한 대응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난 유형	1 유형 태풍·호우	2 유형 대설·한파	3 유형 지진·해일	4 유형 가뭄(수자원 부족)	5 유형 낙뢰
-------	---------------	---------------	---------------	--------------------	------------

재난관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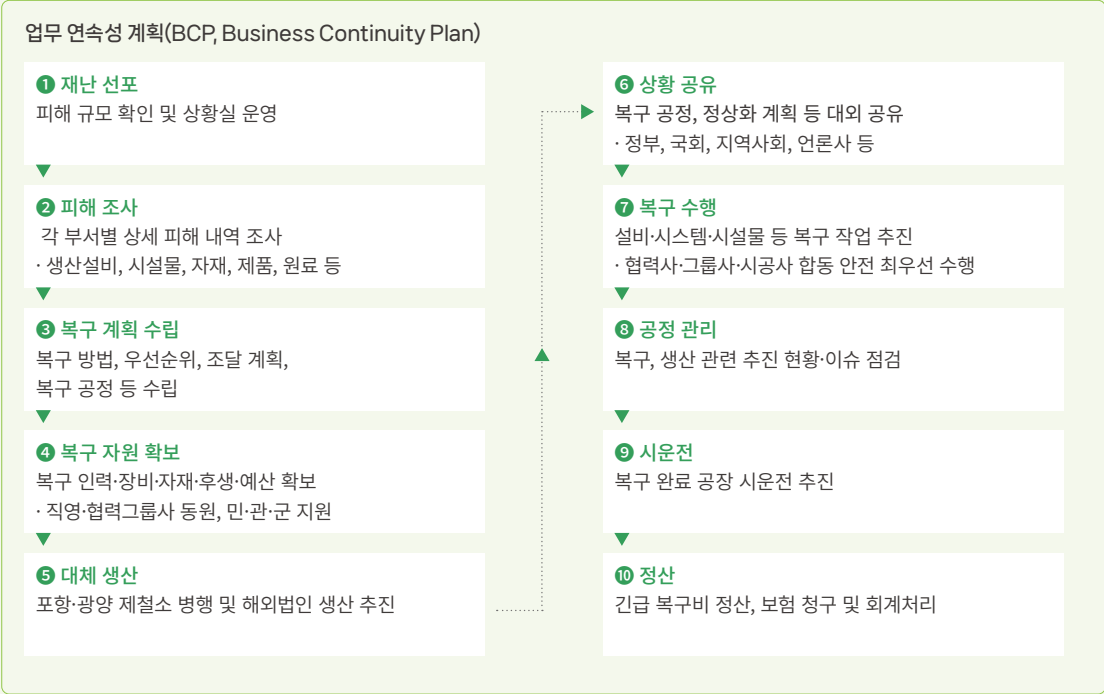
구분	정의	주요 활동
예방	·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한 연간 주기적인 사전 예방 활동	· 재난관리 체계 구축·점검, 시설물 점검 및 보강 · 재난 안전교육 및 비상 훈련
대비	· 재난 발생 전(D-7)에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 대비 활동	· 비상장비 및 비상자재 확보, 재난 진입 단계별 조치사항 관리
대응	· 재난 발생 당일(D-day)에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한 대응 활동	· 경보 발령, 재난본부 가동, 초동조치 및 구조·구급 활동 등 비상대응 활동
복구	· 재난 피해로부터 설비·시설물·핵심업무 등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활동	· 복구 조직 구성 및 운영, 복구 수행, 업무연속 계획 가동

기후적응

포스코그룹은 사업 및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부터 기후 리스크를 심도 깊게 고려합니다. 인력, 인프라, 에너지 등 모든 경영 활동 분야에서 기후 리스크 적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특히, 신규 투자 심의 단계부터 해당 지역과 기존 사업장의 기후 사건 취약성 및 노출도를 면밀히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공업 용수 부족, 전력 공급 중단, 원재료 공급 및 판매 위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합니다.

중장기적인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여 종합 방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장 보호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극한 이상 기온에 대비해 사업장 내 휴게 공간과 냉난방 시설을 확충하고, 유연 근무제 등 근무 환경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임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핵심이슈 ②

SAFETY & HEALTH

안전·보건

GOVERNANCE

이사회

포스코그룹은 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항을 포스코홀딩스 이사회 및 각 사업회사 이사회에 정기 보고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매 분기 이사회 정기 실적 보고 시, ESG 관련 사항을 필수 보고 항목으로 지정하여 안전 및 탄소 감축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포스코는 매년 안전 및 보건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CSO)는 회사 상황에 적합한 안전 실행 계획과 소요 안전예산을 수립·검토합니다. 이사회는 계획 적정성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책임을 집니다.

2024년 포스코 이사회 안전·보건 보고 실적

➔ 2024년 활동 실적

실행 중심의 자율안전 관리 활동 강화, 직업병 예방을 위한 산업보건 관리체계 내실화, 안전 취약개소 테마 진단 및 공정안전 관리·스마트 안전 수준 향상

➔ 2025년 활동 계획

현장 안전관리시스템 작동성 향상, 공감·효율 기반의 안전제도 운영, 직책보임자의 자율 안전관리역량 확보, 관계사 안전관리체계 향상, 스마트 안전 기술 개발 및 확대 적용

그룹안전협의체

포스코그룹은 2022년 4월부터 국내외 주요 사업회사와 해외법인이 참여하는 ‘그룹안전협의체’를 신설하여 반기별 운영합니다. 포스코는 그룹 안전수준 상향 평준화를 목표로 그룹 차원의 통일된 안전 전략 및 리스크 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그룹 전체에 전파하고 그룹사 간 안전활동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그룹안전협의체에서는 관계사 안전관리, 실습 중심 안전교육, 안전활동 임직원 참여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룹안전협의체 운영 체계

구분	참석 대상		주요 내용
	그룹사	해외법인	
철강부문 지속가능협의회	대표이사	법인장	안전, 보건, 환경 등 ESG 규제 대응 현황 및 이슈 점검
그룹 안전협의회	안전담당 임원	안전담당 임원	포스코그룹 안전보건 성과 공유 및 관리체계 점검
포스코 안전협의회	안전담당 임원	-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현황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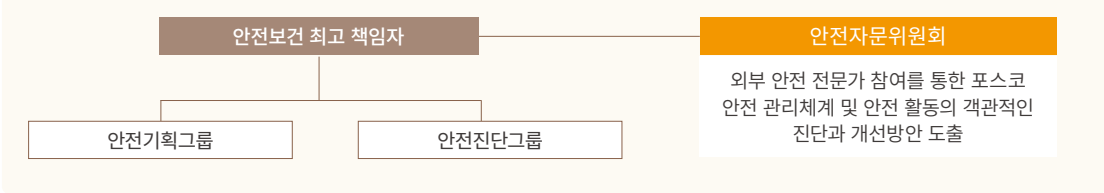
그룹안전협의회 개최 실적 및 주요 안건

개최일자	주요 안건명	개최일자	주요 안건명
2024. 3.26.	· 50인 미만 관계사 안전체계 지원 현황 및 계획 · 실습·체험·토론 중심의 안전 교육·훈련 계획 · 포스코 마음건강 케어 추진 현황 등	2024. 10.23.	· 공장장 주도의 고위험작업 안전관리 강화 · 그룹사 중대재해 신속 대응체계 구축 지원 결과 · 작업테마별 실습 훈련 및 안전조작 경진대회 결과

안전자문위원회

포스코는 2022년 5월부터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CSO), 사내외 안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안전자문위원회’를 운영합니다. 2024년 세 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스코 안전전략, 안전교육 방향,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관리감독자 책임 의식 강화 및 관계수급사 안전 실행력 향상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안전자문위원회 운영



GOVERNANCE

안전 전담 조직

포스코 안전보건기획실은 안전보건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며,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는 각 사업장의 안전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안전방재그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장 관리감독자와 안전보건파트장 외에도 안전관리 지원인력을 공장마다 배치하고 있으며, 고위험 작업에는 생명지킴이*를 별도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 끼임, 떨어짐 등 6대 고위험 작업에 투입되어 작업 안전조치 현황, 작업자의 불안정한 행동 등을 관찰 및 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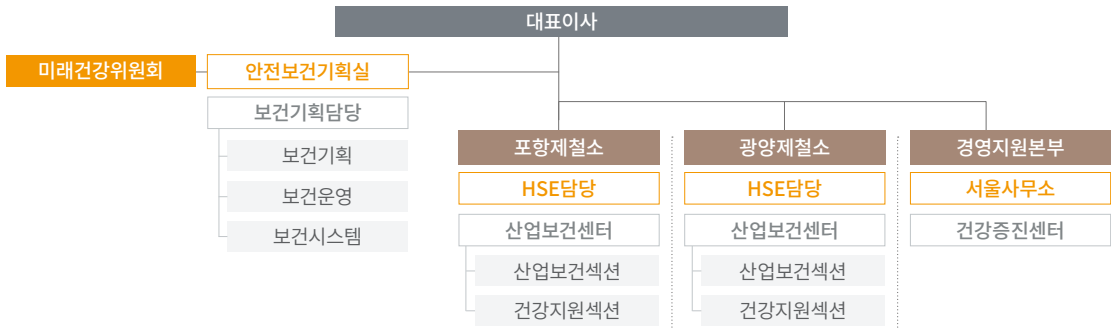


보건 전담 조직

포스코는 보건 전담조직을 두고 있으며, 회사의 산업보건 관리체계에 대한 자문과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보건자문위원회’를 2021년 7월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2024년 8월부터는 예방 관점의 근로자 건강증진 전략 수립을 목표로 ‘미래건강위원회’로 확대·재편성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작업환경 개선, 건강증진 체계 및 제도의 고도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미래건강위원회’는 포스코노동조합, 포스코노경협의회 등 직원대외기구 대표, 노무협력실장,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CSO)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와 직원 대외기구의 의견이 경영진의 산업보건 분야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예방 관점에서 근로자 건강증진 방안에 중점을 두고 보건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포스코 보건 관리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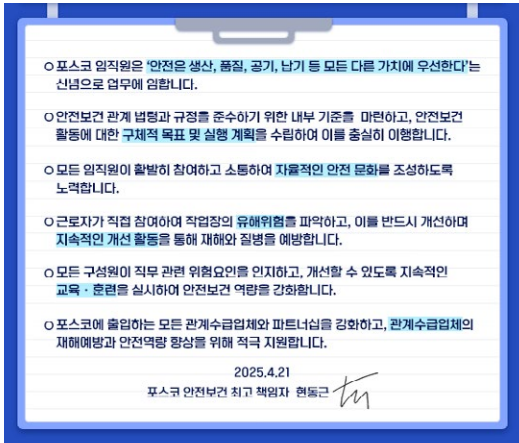
STRATEGY

안전보건경영방침

포스코는 안전 전략 이행 강화를 위해 2022년 안전보건경영방침을 개정하여, 안전이 생산, 품질, 공기, 납기 등 모든 가치보다 최우선임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전 세부 원칙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글로벌 수준의 선진 안전체제로 도약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9요소와 10대 안전철칙을 운영합니다.



포스코 안전보건관리체계 9요소

- | | | |
|---------------|--------------|----------------|
| 1 경영진 의지 및 목표 | 2 조직·인력 및 예산 | 3 양방향 의사소통 |
| 4 유해위험요인 관리 | 5 관계수급사 관리 | 6 법령 및 표준절차 준수 |
| 7 사고 조사 및 관리 | 8 교육·훈련 | 9 평가 및 개선 |

포스코 10대 안전철칙

절대 금지 수칙

- 가동설비 접근 및 점검·수리 금지
- 추락 위험개소 안전대 미착용 시 진입 금지
- 폭파·인화성 물질주변 화기 취급 금지
- 중량물·중장비 작업반경 내 접근 금지
- 산소·유해가스 측정 전 밀폐공간 진입 금지
- 전원 차단 및 검전 전 전기 작업 금지

절대 실행 수칙

- 작업 전 현장 TBM, 작업 중 지적 확인 (위험 시 작업중지권 사용)
- 수리 작업 시 ILS 절차 준수
- 모든 작업 시 안전 CCTV 촬영
- 규정에 맞는 안전보호구 착용

STRATEGY

정책 및 방침

포스코그룹은 산업안전보건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편의와 안정에 최적화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2년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정책은 포스코홀딩스 및 포스코그룹 전 계열사뿐만 아니라, 포스코그룹과 거래하는 협력사도 준수하도록 권장됩니다.

2024년에는 ‘포스코 공급망 행동규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은 공급망 안전에 관련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안전보건 정책

포스코 공급망 행동규범 가이드라인

II. 안전·보건

공급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이 업무 관련 재해와 질병의 발생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생산의 일관성, 직원 근속 및 사기를 증진할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사는 안전·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2-1. 산업 안전·보건

- 공급사는 근로자가 안전 및 보건 위험(예:화학, 전기 및 기타 에너지원, 화재, 차량 및 추락위험 등)에 노출될 가능성을 확인하고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장 설계, 기술적 및 행정적 통제, 예방정비, 안전규정 마련, 안전조치 및 교육을 실행해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위험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 공급사는 근로자에게 위험요인에 관한 교육 자료와 작업 시 필요한 개인 보호구를 제공하고 관리 및 감독해야 합니다.
- 또한, 임산부 또는 수유기 여성근로자는 위험한 작업 환경에 배치하지 않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줄이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수유기 여성 근로자를 위한 편의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2-2. 비상사태 대응

- 공급사는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상사태와 사고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함으로써 인명 피해와 환경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포스코 공급망 행동규범 가이드라인

직원 안전 포상제도

포스코그룹은 ‘안전 관련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들은 포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포스코

-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일반재해 발생 건수에 따른 포상금을 직영 및 협력사 직원¹⁾에게 지급
- 2024년 안전대상, 무재해 공장, 안전활동 우수단체 및 개인포상 등 총 176건의 포상 지급

1) 1년 이상 계약직 포함, 임원 및 상무모는 제외

포스코이앤씨

- 전사 중대재해 미발생 시 경우 전 직원²⁾ 대상 인센티브 지급 (반기 1회)
- 사업본부별 일반재해 발생 건수 목표 달성 시 추가 인센티브 지급
- 2024년 안전캠페인, DFS제안제도, 안전활동 우수현장 및 개인 포상 등 총 84건(단체40건/개인44건)의 포상 지급
- 2)정산기간 말일(6.30 /12.31) 재직 기준(계약직 포함)

중대재해 예방 관리

포스코그룹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작업장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 및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합니다. 스마트 안전 점검 및 모니터링 기술을 도입하여 작업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 진단·점검합니다. 사람이 투입되는 고위험 작업에 로봇을 투입하여 사업장의 안전사고 발생리스크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ASE STUDY 산업현장의 스마트 안전 기술 적용 사례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은 철강 및 이차전지소재 등 그룹 내 위험작업을 대체하고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AI 로봇 기술을 개발·적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와이어 볼(Smart Wire Ball)

약 700km에 달하는 제철소 원료 이송 벨트 컨베이어의 수작업 점검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 와이어 볼 로봇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벨트 컨베이어 위에 설치이어를 따라 이동하며, AI 기반 음향·열화상·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해 설비의 이상 유무를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현재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 설치되어 시운전 중이며, 향후 타 제철소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가스막이 로봇솔루션

고소·고열 환경에서 작업자가 직접 수행하던 코크스 오븐 도어의 가스 누출 방지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해, 산업용 로봇을 활용한 밀폐화 솔루션을 개발하였습니다. 광양제철소에서 기존 장치 및 설비와의 연동 및 성능 테스트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 하반기부터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로 확대 검토 중입니다.



4족 보행로봇 및 바퀴형 이동로봇

제조현장의 고위험 점검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4족 보행로봇과 바퀴형 이동로봇을 현장에 도입하였습니다. 광양제철소에서는 4족 보행로봇이 고로 설비점검 경로를 자율주행하며 점검 데이터를 자동 수집하고, 이상 상황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사고 예방 및 상시 점검을 위해 지하전기실에 바퀴형 이동로봇을 시범 도입하였으며, 포스코퓨처엠 등 유사 공정에도 적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고체전해질·음극재 원료투입 및 이송 로봇솔루션

고체전해질 생산공정 내 아르곤 분위기의 밀폐·협소 공간에서 원료 투입 및 추출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해 다관절 로봇 솔루션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원료의 연속공급이 가능해져 작업자 안전 위험을 해소하고 생산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외에도 포스코퓨처엠 인조흑연 생산 시 고열 수작업을 대체하기 위해 로봇 크레인을 활용한 도가니 핸들링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STRATEGY

안전 소통채널 운영

포스코는 회사와 직원, 직영과 관계사를 위한 다양한 안전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 등 관계수급사의 의견까지 모두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안전보건 목표와 정책을 수립합니다.

구분	참석 대상	주기	주요 내용
포스코 안전협의회	안전보건기획실장, 포항·광양제철소 임원, 대의기구/관계사 대표	반기	전사 안전활동 심사분석 및 의사결정(양 제철소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상위 개념으로 경영진 주재 안전협의체)
그룹 안전협의회	그룹사 및 해외법인 안전담당 임원	반기	국내외 주요 사업장의 안전리스크 점검 및 안전개선 이행 현황 점검
안전신문고	직영, 용역사, 협력사, 외부 출입자	수시	현장의 불안정한 상태, 불안정 행동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제철소장), 근로자측 위원(대의기구 대표 포함), 회사 측 위원	분기	제철소의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심의·의결(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등)
노사합동커미티	공장장 주관(공장 단위), 관계사 실무자 및 소속 대의기구 직원	매주	안전이슈 공유 및 VOE 청취/대응
안전협력상생단	안전주관부서, 파트너사협회, 그룹사/파트너사 안전관계자	매월	안전이슈, 실행 현황에 대한 공유 및 토론
사업주간협의체	부소장/부장 주관(부문 단위), 관계사 대표이사	매월	안전 성과, VOE 청취 및 개선 활동 공유

협력사 안전 강화

포스코는 포스코내에서 작업하는 외부 관계수급사의 안전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여, 적격한 수급사가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상생인증제를 운영 중입니다. 이 외에도 ‘찾아가는 안전버스’ 제도를 통해 안전교육 여건이 열악한 관계사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 교육 콘텐츠를 전파하고 현장에는 무더위 쉼터 역할을 겸하는 안전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총 4대의 버스로 1만3,000여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포스코그룹의 주요 사업장은 ISO 45001 및 KOSHA-MS 인증제도를 통해 안전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점검받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대상 사업장 모두 100%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보건관리

건강검진 제도

포스코는 전직원(1년이상 계약직 포함)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상급 종합병원과 협약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종합검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직원 배우자에게도 종합검진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누적 3만 7,077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경우 건강검진 협약을 통해 비용 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음 건강·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포스코는 전문 심리상담사를 통해 사내 심리상담실인 ‘마음챙김센터 休(휴)’를 운영하고 있으며, 1:1 대면상담, 심리 검사, 뇌파 검사를 통한 개인맞춤형 상담을 비롯하여 MBTI를 활용한 조직소통, TKI 갈등관리, 스트레스 관리법 등 상담사가 현업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상담 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고, 필요 시 외부 상담사를 연계하는 등 마음놓고 상담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포스코 직원 2,521건, 가족 773건, 협력사 347건 등 3,641건의 1:1 대면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전 직원 대상 생명존중문화 교육과 더불어 관리감독자 대상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통해 마음건강 위기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챙김센터 휴(休)’ 대면상담 실적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누계
직영	명	2,433	2,528	2,521	7,482
직영가족		575	636	773	1,984
협력사		196	149	347	692
총계		3,204	3,313	3,641	10,158

건강증진활동

포스코는 당뇨·고혈압·고지혈증 등을 예방하고자 1:1 맞춤 혈당 관리 프로그램을 런칭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당뇨가 있거나 발생 위험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총 6차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차수 당 12주간 운영됩니다. 24시간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부착해 실시간 혈당을 측정하며, 측정된 혈당은 전용 앱에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또한 참여자가 직접 운동과 식단 등의 생활습관을 전용 앱에 기록하여, 전문의와 임상 영양사가 앱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혈당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4년 운영 결과, 참여인원 255명 중 251명이 활동 참여를 완료했으며, 만성질환의 86.9%(당뇨 57%, 고지혈증 56%, 비만 67%)가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RISK MANAGEMENT

비상대응 계획

포스코는 중대산업사고 및 재난상황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포스코는 소방, PSM, 밀폐공간 및 화학사고 등 4대 비상상황에 대응한 훈련을 공장·섹션 단위로 실시하여 비상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별로 비상사태 발령, 운전정지 절차, 대피 절차를 수립하여 주기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인근 주민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경우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별도 계획과 원칙 또한 수립 및 운영 중입니다.

2024년 비상상황 대응 훈련 실적

구분	안전방재그룹 주관									환경자원그룹 주관		
	소방(법기준 연 1회)			PSM(반기 1회)			밀폐공간(반기 1회)			화학사고(연 1회)		
	대상	실적	실시율	대상	실적	실시율	대상	실적	실시율	대상	실적	실시율
포항제철소	68	68	100%	78	78	100%	127	127	100%	32	32	100%
광양제철소	69	69	100%	65	65	100%	122	122	100%	46	46	100%
기술연구원	6	6	100% (대상 없음)	-	-	-	4	4	100%	1	1	100%
서울사무소	3	3	100% (대상 없음)	-	-	-	3	3	100% (대상 없음)	-	-	-

비상대응 절차

포스코는 ‘중대재해 신속대응 지침’을 운영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지침은 비상상황 대응 절차와 신속대응 TF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속대응팀장은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CSO)로 지정되어, 긴급상황 발생 시 대표이사에게 즉각 보고됩니다. 또한, 업무용 헬기를 응급환자 이송 겸용으로 활용하여 긴급이송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최적의 치료를 제공합니다.

안전교육 및 훈련

포스코 안전 교육은 훈련·토론·실습 중심으로 운영하며, 협력사 안전교육 체계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안전관리 전문역량 향상을 위해 PSM(공정안전 관리, Process Safety Management) 사외 전문가 채용, PSM지도사(2024년 기준 355명)를 육성하여 PDCA(Plan-Do-Check-Action) 기반 PSM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제철소 내 P&ID(Piping & Instrumentation Diagram) 작성·관리 수준 고도화, P&ID를 활용한 ILS(Isolation and Locking System)를 실시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 출입자 안전교육

포스코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인원에 한해서만 사업장에 출입을 허가하는 출입자 안전교육제도를 운영하여 필수 안전사항과 작업 위험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작업 중에는 ILS, 안전작업 허가, TBM, 생명지킴이 배치 등 안전절차를 이행하여 사전에 잠재위험을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2024년 포스코 안전교육 현황

과정명	수강 인원(명)	대상 구분				
		직영	그룹사	협력사	용역사	하도사
직책자 후보군 안전리더십 교육	165	●				
일반직원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1,481	●				
PSM 전문인력 양성 교육	2,032	●				
관계사 계층별 안전역량 향상	18,785		●	●	●	●
찾아가는 안전버스	13,182	●	●	●	●	●
출입자 안전교육	66,246				●	●



파이넥스3공장 소방훈련



도금공장 화학사고 비상대응 훈련



1제선 밀폐공간 긴급 구조훈련



에너지부 PSM 훈련

RISK MANAGEMENT

유해위험 드러내기

포스코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유해위험 발굴, 안전 신문고 제도를 통해 사전에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확인된 위험에 대해 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분	이용대상	유해위험 발굴 건 수		주요 개선 사항
		2023년	2024년	
안전신문고	제철소 출입자 전원	1,024	1,125	작업장 주변 안전시설물 설비의 불안전상태, 교통시설물, 도로 파손 및 안전을 저해하는 일하는 방식 개선 및 해소(고위험 등급 중심의 개선 추진)
유해위험 발굴	직원 및 관계사 직원	41,564	39,556	

작업환경관리

포스코는 보건사업 투자 등을 통한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며, 작업장 내 밀폐공간, 보호구, 화학물질 관리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고시 및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혹서기에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온도별 작업·휴게시간 조정·민감군 안내 등을 포함한 폭염·고열작업 관리수칙을 운영하고, 혹서기 특보와 현장 패트롤 활동을 시행하며, 그늘막·생수 등 혹서기 물품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진 현장 방문 및 게시물·현수막·포스터 게시 등 온열질환 예방 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해 위험요인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는 고용노동부 지정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작업장 유해인자 노출 정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해인자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법 기준 대비 강화된 사내 관리기준(화학적 인자의 경우 법적 노출기준 대비 50% 수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유해인자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설비 개선 등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사용금지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건강 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은 입고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건강영향, 물질별 착용 보호구, 개선대책 등은 작업 전 근로자 대상으로 고지하고 필요 시 화학물질 취급 작업별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 감사·진단

포스코의 양 제철소는 안전방재그룹의 Audit 섹션에서 상시 테마 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METRICS AND TARGETS

그룹 안전관리 목표

안전사고 발생에 대응하여 최근 강화된 안전관리를 위해 2025년에는 재해 관리 중심의 안전 목표를 수립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LTIFR(총근로손실재해율, Lost Time Injury Frequency Rate)과 중대재해지수를 주요 지표로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구분	2024년 실적	2025년 목표
주요 4대 사업회사 ¹⁾ 연결 LTIFR ²⁾	0.72	0.60
포스코 LTIFR	0.83	0.60
포스코인터내셔널 LTIFR	0.17	0.33
포스코이앤씨 LTIFR	0.7	0.68
포스코퓨처엠 LTIFR	0.54	0.36
주요 4대 사업회사 ¹⁾ 연결 중대재해자수	3명	0명

1)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2) 4대 사업회사 LTI(총 근로 손실자수)÷4대 사업회사 연 근로시간 ×1,000,000

경영진 안전 KPI

포스코는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제철소의 안전 및 환경 관리 전략과 운영에 책임을 지는 제철소장의 KPI에 정량적 안전 지표를 반영하고 있으며, 일반 직원에게는 안전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안전·보건 목표와 성과를 명확히 설정하고, 보수 정책 연계된 임직원의 안전·보건 성과를 장려합니다.

포스코

- 대표이사: KPI의 25%(국내 사업장 내 발생한 중대재해자 수)
- 제철소장: KPI의 25%(각 제철소 내 발생한 중대재해자 수)

포스코이앤씨

- 경영기획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KPI의 5%(중대재해, TRIFR)
- 플랜트사업본부장, 인프라사업본부장, 건축사업본부장: KPI의 10%(중대재해, TRIFR)
- 안전보건센터장: KPI의 30%(중대재해, TRIFR)

SPECIAL PAGE 포스코이앤씨 안전 특별 보고

2024년, 포스코그룹 내 인프라 부문 사업회사인 포스코이앤씨가 관리·감독하는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3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포스코이앤씨는 중대재해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포스코이앤씨의 안전 대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스코이앤씨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원인 분석

(2024.1) 서울 재건축 A현장	(2024.8) 서울 공동주택 B현장	(2024.10) 지하 복선전철 C현장
· 경위: 기둥(미 고정) 위에 중량물 거치 중, 넘어져 협착 · 원인: 작업 절차의 임의 변경 및 작업 방법 미준수 · 대책: 사전 작업 허가 절차 강화	· 경위: 작업 종료 후 장비 전원 Off 중 판넬 내부에 감전 · 원인: 판넬 내 비정상 행위 (전자스위치 임시 고정) · 대책: 작업 종료 시점 관리 강화	· 경위: 인양 줄결이가 후크에서 이탈하여 중량물에 맞음 · 원인: 중량물 작업계획 미준수 · 대책: 고위험 작업 사전 보고 의무화 및 현장 점검 강화

공통점

고위험 작업유형	· 고위험으로 분류된 공종에서 재발 [공종] 중량물 인양작업 2건, 장비 사용작업 1건 [A~C 현장] 원가/공기 Issue PJT
안전관리 취약시점	· 안전관리 취약 요일/시간에 임의로 작업하거나 기본적인 안전 기준 미 준수 [요일] 휴일 전·후(월요일 2건, 금요일 1건) [시간] 작업 시작/종료 전 1시간 3건
중대성 재해 반복	· 원가, 공기 이슈 현장에서 중대성 사고가 연이어 발생 [B현장: 이익률] 차량 충돌(2023.4) → 중대재해(2024.8) [C현장: 공기부족] 중량물 낙하(2024.1) → 중대재해(2024.10)

재발 방지 대책

고위험 작업 관리 강화	· 안전작업계획서 표준안(54종) 제정으로 안전관리 계획 및 R&R 명확화 · 고위험 공종 협력사(철근, 토공 등) 본사 임원 주관 주 1회 이상 현장 안전 점검 실시
취약시점 관리 강화	· 휴일 작업에 대한 사전 승인 및 작업 종료 전·후 Critical Hour 집중 관리(행정 업무 최소화) · CCTV 모니터링 강화: 연장 작업 및 작업 종료 시 이상 징후 확인
이슈 현장 안전체질 개선	· 특별 안전진단 실시 : 2023~2024년 중대성 재해가 발생한 7개 현장을 대상으로 120 M/D 투입 · 원가, 공기 부족 등 현장 맞춤형 지원 강화(특별 안전 예산 부여, 기술·인력 지원 등)

안전 최우선 경영 다짐

포스코이앤씨는 2022년 이후 중대재해가 증가 추세로 전환되며 안전경영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건설경기 악화 등에 따른 안전 집중력 저하, 중대재해 원천 예방을 위한 중장기적 안전활동 부족 등 내/외적 요인을 파악하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최고 경영층부터 현장 최일선 근로자까지 다 함께 행동하는 안전문화 정착으로 전사 안전경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대내외 안전 Issue

외부 Issue	내부 Issue
· 중처법 대응 위한 안전 행정업무 부담 가중 → 안전점검 등 Field 안전관리 활동시간 감소 · 건설경기 악화 ¹⁾ 로 기업의 생존을 위한 우선순위 변화 → 공기 준수 및 수익성 확보 우선 1) 건설경기 지수 : (2022) 71.8 → (2023) 63.1 → (2024) 51.5	· 2022년 중대재해 Zero 달성 이후 현장 자율성 확대 → 본사 피드백 기능 감소로 안전체계 작동성 약화 · 2024년 중대재해 급증에 따라 단기적 안전대책 ²⁾ 집중 → 근원적 재해예방을 위한 중장기적 안전활동 부족 2) 긴급 안전조치, 연달 비상 안전활동 등

안전보건관리 강화 계획

Target	다함께 행동하는 안전문화 정착	
Key Plan	현장 중심의 실행력 강화로 행동 변화 견인 · 경영층 안전활동 강화 및 휴일 작업 집중 관리 · 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활동 강화로 실행력 향상 · Safety Academy를 활용한 실습·체험형 교육 강화 · 협력사 역량 검증(등록, 입찰, 수행) 강화 및 지원 확대	고위험 집중, Field 중심의 업무 환경 구축 · 진단 자원을 고위험 현장에 집중 투입 · 고위험 작업 시행 전, 시공임원 사전 보고제 운영 · T/C ¹⁾ , L/C ²⁾ 반입 점검 및 설치·해체 시 지원 강화 · BIM ³⁾ , AI CCTV 확대 등 스마트 안전 고도화

1) T/C : 타워크레인 2) L/C : 건설용 리프트 3)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Key Word

현장중심 제도	전원참여 실행	재해예방 혁신
근로자까지 단절 없이 전달·이행	공감, 책임의식 기반 자기주도 활동	기존 관점을 넘어 혁신적 방안 모색

핵심이슈 ③

SUPPLY CHAIN
공급망

GOVERNANCE

이사회

포스코그룹은 지주회사 이사회를 중심으로 그룹 ESG 정책 수립, 사업회사의 ESG 이슈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공급망 ESG도 그룹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핵심 ESG 이슈로서 포스코홀딩스 ESG 위원회를 통해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2023년 보고 안건: 공급망 ESG 실사 결과 및 향후 계획 (2023.12.15.)
- 2022년 보고 안건: 공급망 ESG 관리 전략(2022.12.7.)

공급망 관리체계

그룹 공급망관리협의회

포스코그룹은 2023년부터 ‘그룹 공급망관리협의회’를 운영합니다. 포스코 구매투자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그룹 내 각 사업회사의 구매담당 임원이 참석하여 공급망 전략, 이슈 및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고, 필요 시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광물* 관리를 위해 2020년부터 그룹사와 공동 운영했던 ‘책임광물협의회’를 2023년부터 ‘그룹 공급망관리협의회’로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 분쟁의 자금줄이 되지 않고,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채굴된 광물

그룹 공급망관리협의회 운영체계



- 참여 회사: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등 11개사
- 참석 대상: 각 사업회사 구매부서 담당 임원
- 회의 주기: 1~2회/년(2024년 개최일: 10월 15일)
- 활동 사항: 그룹 공급망 ESG 관리 전략 수립 및 공동 대응

- 1- 공급망 관리 전략 수립**
그룹사 간 공급망 관리 전략을 조율하고 통합하여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 2-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공급망 내 잠재적 ESG 리스크를 식별하고 평가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합니다.
- 3- 공급망 ESG 트렌드 공유**
최신 공급망 관리 트렌드와 기법을 공유하여 공급망 관리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 4- 지속가능성 목표 설정**
글로벌 ESG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 5- 교육 및 역량 강화**
공급망 ESG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 6- 그룹사 간 협력**
그룹 공급망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파트너십을 구축합니다.
- 7- 공급망 ESG 성과 모니터링 및 보고**
공급망 ESG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목표 달성 경과를 공유합니다.

STRATEGY

공급망 정책

포스코그룹은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관련 정책을 운영합니다.

포스코홀딩스 공급망 정책

포스코홀딩스 책임광물 정책

그룹 인권경영 선언문

포스코홀딩스는 2025년 2월 20일 공급망을 포함한 경영 전반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그룹 인권경영 선언문’을 선포하였습니다. 본 선언문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비롯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세계 인권선언 등을 준수하며, 공급망이 인권 실사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직접적인 공급망이 없으나, 실제 공급망 관리가 중요한 업을 영위하는 그룹 내 철강회사 포스코와 이차전지 소재사업회사 포스코퓨처엠은 각 업의 특성에 따른 공급망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포스코

공급망 행동규범

포스코는 공급사 행동규범을 통해 포스코와 거래하는 공급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RBA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행동규범과 포스코가 자체 규정한 항목 등 총 5개 영역(노동·안전보건·환경·윤리·경영시스템) 42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동규범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대외 공급망 ESG관리 고도화가 요구되면서, 포스코는 2024년부터 모든 거래 공급사를 대상으로 구매포털인 e-Procurement를 통해 행동규범 준수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 공급사 행동규범

포스코 공급사 행동규범 가이드라인

*공급사 행동규범 개정(2024.7월): [기준] 7개 영역 49개 규정 → [변경] 5개 영역 42개 규정

공급사 행동규범 주요내용

노동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차별·괴롭힘 금지,
인도적 대우, 결사·단체
교섭의 자유 등



안전·보건

산업안전, 산업재해 및
질병, 산업위생, 위험기
구 및 안전관리 등



환경

유해물질·폐기물·대기
오염 배출 관리,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모색 등



윤리

비즈니스 청렴성, 부당
이익 금지, 정보공개,
책임광물 관리, 개인
정보보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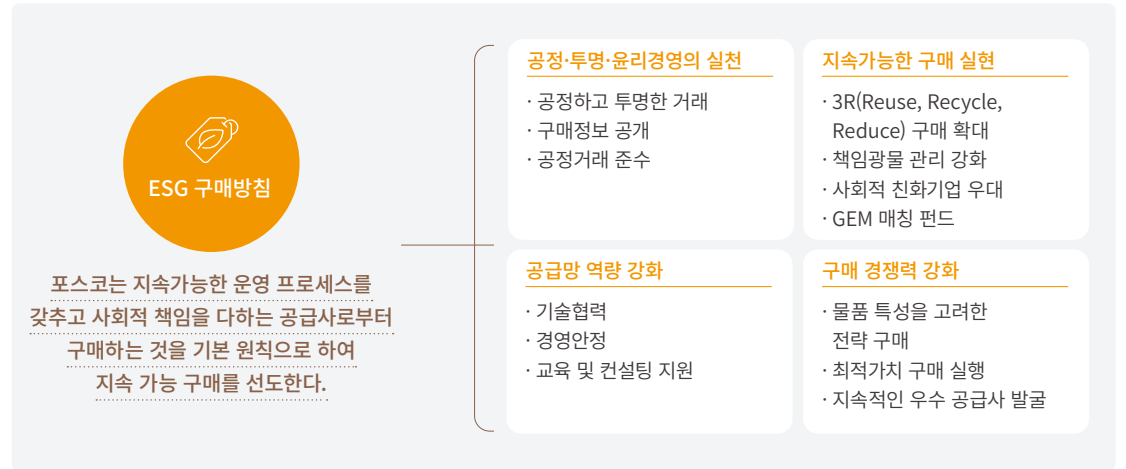
경영시스템

경영진의 책임과 의무,
위험성 평가 및 관리,
교육, 공급망 참여 및
책임 등



공급망 ESG 구매방침

포스코는 공급망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향상하기 위해 공급망 ESG 구매 방침을 시행합니다.



공급망 ESG 실천 지원

포스코는 2024년 거래 실적을 보유한 전체 공급사를 대상으로, 공급사 행동규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행동규범 준수에 동의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해당 공급사의 범위는 원료, 설비, 자재 분야를 포괄하였으며, 대상 공급사는 e-Procurement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서명을 진행하였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은 구매 및 동반성장 등 공급망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또한 공급사의 ESG 이해 및 인식 제고를 위해 공급사를 대상으로 국내외 ESG 동향, 지속가능한 공급망 정책, 공급사 행동규범, ESG 리스크 진단·실사 절차 및 대응 방법 등을 교육합니다.

포스코퓨처엠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공급망 ESG 관리 지침을 수립, 운영하고, UN 세계인권선언, ILO 핵심협약,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기준을 기반으로 개발된 공급사 행동규범을 운영합니다.

포스코퓨처엠 공급망ESG 관리지침

포스코퓨처엠 공급사 행동규범

STRATEGY

공급망 역량 강화

안정적인 공급망 조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중소 공급사의 지속가능한 경영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속가능한 구매 실현

포스코는 해외 원료탄, 철광석 공급사 등과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원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고, 광물 채굴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 활동을 수행합니다. 책임광물 관리 시스템 구축, ESG 리스크 관리, 내외부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등을 비롯하여 원료 공급사와 1:1 매칭 방식의 ‘GEM(Go Extra Mile) 펀드’를 조성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친화 기업을 우대합니다.

구매 경쟁력 강화

포스코는 환경, 품질, 물류 등 종합적인 비용을 고려한 최적가치 관점의 TCO(Total Cost of Ownership) 구매로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강건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우수 공급사를 선발하여 우선 협상권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사업 영향도와 조달 난이도를 기준으로 품목별 특성에 따른 구매전략을 추진하여 구매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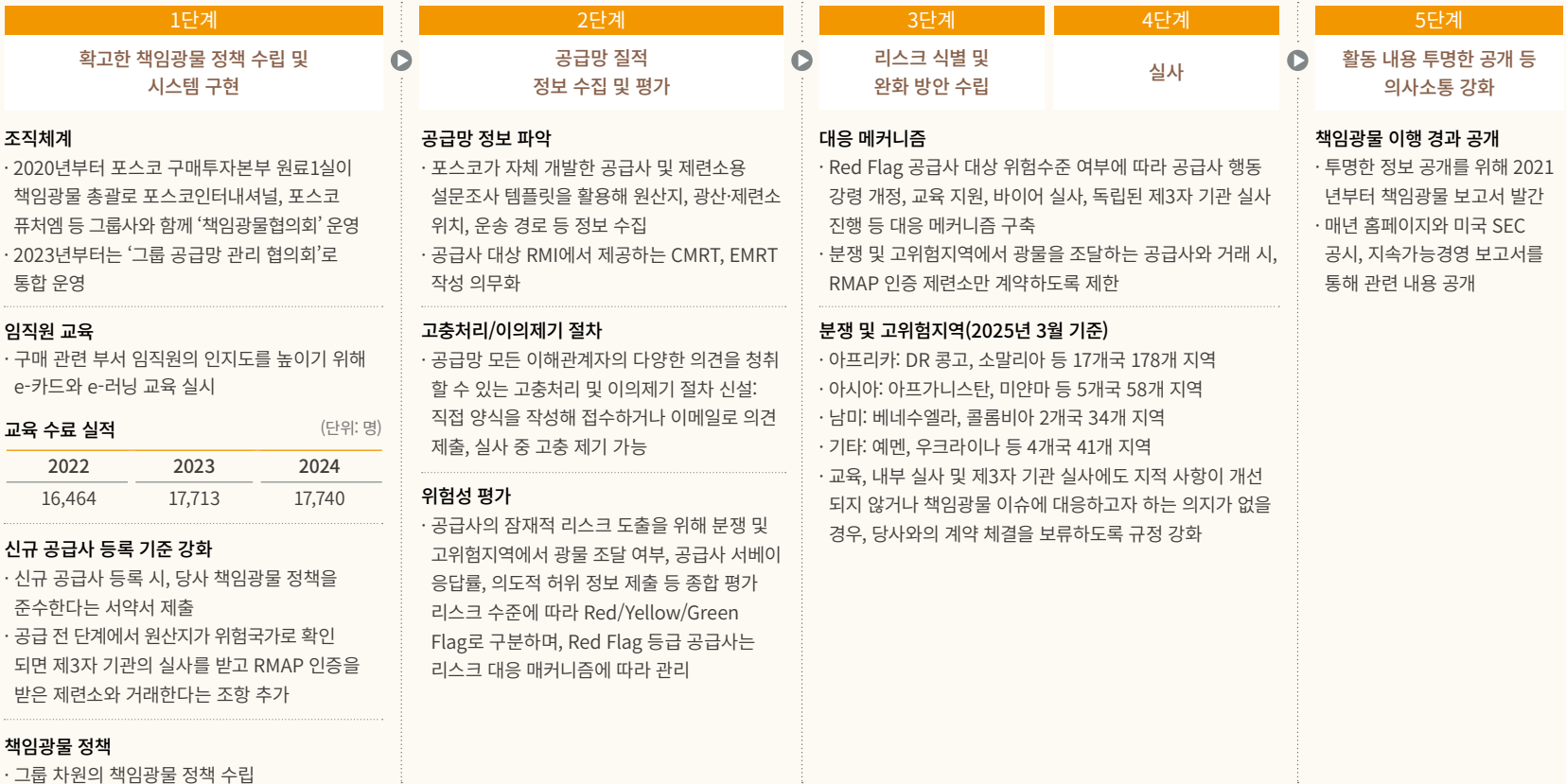
CASE STUDY 책임광물 관리

포스코는 OECD 실사 가이드(OECD Due Diligence Guidance)에 따라 책임광물 정책 및 업무 프로세스를 수립하였으며, 책임 있는 광물 조달과 공급망 관리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급사 등록 시 책임광물 정책 준수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원산지가 분쟁 및 CAHRA(고위험지역,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으로 확인될 경우, 글로벌 제3자 인증인 RMAP(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를 받은 제련소와 거래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개발한 공급사/제련소용 설문조사 템플릿과 RMI(Responsible Mineras Initiative)가 제공하는 CMRT(Conflict Minerals Reporting Template), EMRT(Extended Minerals Reporting Template) 작성을 의무화하여 공급망 정보를 파악하고, 위험성 평가를 통해 고위험군으로 선정된 공급사에 대해서는 리스크 대응 메커니즘에 따라 관리합니다. 포스코는 책임광물 관련 모든 활동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책임광물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책임광물 보고서

포스코퓨처엠 책임광물 보고서

포스코 책임광물 관리 프로세스



STRATEGY

CASE STUDY 책임광물 관리

책임광물 사용 현황

포스코는 분쟁광물(3TGs)인 주석, 텅스텐에 이어 2020년부터 광물 채굴 시 아동 노동 등 인권유린 문제가 있는 코발트까지 범위를 확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포스코 분쟁 및 고위험지역에서 채굴되는 광물에 대해 RMAP인증을 받은 제련소에서 생산된 원료만을 구매합니다.

포스코

광물	RMI 제련소 ID	제련소 이름	원산지	RMAP 인증
Tin	CID001477	PT Timah Tbk Kundur	Indonesia Kundur	Conformant
Tin	CID001482	PT Timah Tbk Mentok	Indonesia Mentok	Conformant
Tin	CID001463	PT Sariwiguna Binasentosa	Indonesia Pangkal Pinang	Conformant
Tungsten	CID002315	Ganzhou Jiangwu Ferrotungsten Co., Ltd.	China Ganzhou	Conformant

포스코퓨처엠은 분쟁광물(3TG) 중 텅스텐과 코발트를 구매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사업의 특성상 코발트 구매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포스코퓨처엠은 모든 3TG 광물을 RMAP 인증을 받은 제련소에서만 조달합니다.¹⁾²⁾

포스코퓨처엠

광물	RMI 제련소 ID	제련소 이름	원산지	RMAP 인증
Cobalt	CID003291	Guangdong Jiana Energy Technology	China Guangzhou	Conformant ³⁾
Cobalt	CID003255	Quzhou Huayou Cobalt New Material	China Guangzhou	Conformant
Cobalt	CID004681	Guangxi CNGR New Energy Science & Technology Co., Ltd.	China Cjangsha	Conformant
Cobalt	CID004492	Ecopro Materials	Korea Pohang	Active ⁴⁾
Cobalt	CID003338	SungEel HiTech	Korea Gunsan	Conformant
Cobalt	CID003226	Umicore Finland Oy	Finland Kokkola	Conformant
Cobalt	CID003534	Mechema Chemicals	Taiwan Taoyuan	Conformant
Cobalt	-	POSCO HY CLEANMETAL	Korea Gwangyang	인증 진행 중
Tungsten	CID002321	Jiangxi Gan Bei Tungsten	China Xiushui	Conformant
Tungsten	CID002082	Xiamen Tungsten	China Xiamen	Conformant

1) 포스코퓨처엠은 해당 보고서 발간 시점(2025년 6월)까지 100% RMAP 인증률 운영 중
 2) 포스코퓨처엠이 직·간접적으로 구매하는 모든 금속 원료가 RMI 등 공인된 인증을 획득하지는 않았으나 당사의 책임광물 정책에 동의하는 업체로부터 구매 중
 3) RMAP Standard 또는 동등한 교차인정평가(Equivalent Cross-recognized Assessment)를 완료한 제련소 또는 정련소
 4) RMAP 평가 관련 문서 제출 및 현장 평가를 수행하기로 약속한 제련소와 정련소로 단계상 사전평가(Pre-assessment), 평가(Assessment) 또는 시정조치단계(Corrective-action phase of the assessment)의 공급사를 포함

이차전지소재 분야 책임광물 리스크 관리 강화

신규 공급사 등록 기준 강화

책임광물 조달을 위해 2021년부터 신규 공급사 등록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공급사는 등록 시 당사의 책임광물 정책을 준수한다는 서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CAHRAs에서 채굴된 광물 사용을 제한합니다. 원부자재 원산지가 위험 국가로 확인될 경우 제3자 기관의 실사를 받아야 하며, RMAP 인증을 받은 제련소와의 거래를 필수 요건으로 합니다.

공급사 정기 서베이

포스코퓨처엠은 자체 개발한 공급사 및 제련소용 Questionnaire Survey Template을 활용해 원산지, 광산-제련소 위치, 물류 흐름, 공급망 내 리스크 여부, 공급사의 책임광물 정책 보유 여부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국제표준 문서인 CMRT를 활용해 정보의 정확성도 검증합니다. 포스코퓨처엠은 2021년 하반기부터 공급사 및 제련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4년에는 총 28개사 전원이 응답해 응답률 100%를 기록하였습니다.

공급사 Questionnaire Survey 실시 현황

(단위: 개사, %)

구분	2022	2023	2024
Questionnaire Survey 대상 공급사 및 제련소	24	25	28
응답 공급사 및 제련소	23	25	28
응답률	96	100	100

책임광물 추적관리시스템

2021년 3월, 포스코퓨처엠은 자동차사, 배터리사, 원료공급사와 협력하여 책임광물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책임광물 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원료 구매 단계부터 최종 자동차사까지 전 공급망에 걸쳐 책임광물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합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관리 범위를 리튬, 니켈 등 배터리 주요 원료로 확대하여 책임광물 추적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위험성 평가

포스코퓨처엠은 CAHRAs 기준에 따라 원산지 등 식별된 정보를 분석하여 공급사별 잠재 리스크를 도출합니다. 공급사 Questionnaire Survey 응답률, 허위 정보 제출 여부, 책임광물 인식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Red Flag* 관리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리스크 대응 메커니즘을 운영합니다. 2024년 공급사 대상 책임광물 위험성 평가 결과, Red Flag 등급의 공급사는 0개로 확인됐습니다.

*고위험 공급사

RISK MANAGEMENT

SRM(공급사 성과 평가, 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프로세스

포스코는 공급망 내에서 환경, 인권 등의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사 등록 단계에서부터 계약 이행에 대한 성과 평가 및 사후 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ESG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상시 리스크 관리

- ESG 리스크 관리** 비윤리, 안전사고, 아동노동, 인권유린 등
- 공급 리스크 관리** 등록기준 대비 신용등급 변화, 입찰 참가 실적 등 평가 후 사후조치

Step 1 신규 공급사 등록

포스코는 구매 물품을 ‘소싱 그룹(Sourcing Group)’으로 관리합니다. 소싱 그룹별 공급사 등록 기준은 SteelN.com을 통해 상시 공개하며, 등록을 희망하는 공급사는 ‘공급사 행동규범’과 ‘윤리 특별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신규 공급사 등록 신청사에 대해서는 환경 법규, 중대재해, 임금체불, 세금 납부 등에서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용 등급, 재무능력, 공급능력 등의 기본 자격을 심사합니다. 이후 공급사의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품질 테스트를 통해 품질 안정성을 확인합니다.

Step 2 성과 평가

포스코는 거래실적이 있는 모든 공급사를 대상으로 분기 또는 연간 단위로 공급사 성과 평가인 SRM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결과는 5개 등급으로 분류(Excellent, Good, Average, Weak, Poor)하여 평가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공급망 관리를 시행합니다.

2023년부터는 공급망 ESG 실사를 통해 환경·인권 등 공급망 ESG 리스크를 식별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Step 3 사후 관리

포스코는 분기 또는 연간 단위로 공급사의 성과 평가 보고서를 공급사에 제공하며 평가 결과에 따른 공급사의 강점과 약점을 피드백하고 개선 기회를 제공합니다. 평가 결과 Excellent 등급을 받은 공급사에게는 우선 협상권, 보증금 납부 면제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Poor 등급을 받은 공급사에는 자발적 개선을 촉구합니다. 만약 개선이 미흡할 경우에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입찰 참가를 제한합니다.

RISK MANAGEMENT

공급망 ESG 실사

포스코

포스코는 EU 공급망 실사지침과 글로벌 ESG 평가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 ‘공급망 ESG 실사 프로세스’를 구축하였고, 초도 실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고객, 평가기간 등 대외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행동규범을 개정하여 배포하였습니다. 2024년 3월에는 3년 연속 거래실적이 있는 공급사 중 연간 5억원 이상 거래실적을 보유한 356개사를 실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331개사의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서면 실사 결과, ESG 고위험사 또는 전년도 현장 실사 결과 ESG 열위사를 대상으로 제3자 평가기관과 협업하여 현장 실사를 수행하는 등 공급망의 ESG 리스크 관리 활동을 실행하였습니다. 현장실사 후 확인된 공급사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컨설팅사의 1:1 솔루션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계획수립

내용

글로벌 ESG 요구사항 및 국내외 타사 벤치마킹 후 점검 항목 확정

방법

포스코 구매플랫폼(e-Pro) 활용 서면 실사 진단, 고위험사 대상 제3자 평가기관의 현장 실사 실행

요구사항

- 공급망 관리 전략 수립
- 실사 프로세스 확립·이행
- 행동규범 준수 여부 확인
- ESG 영역별 리스크 점검·평가

서면 실사

진단대상

- 3년 연속 거래·연간 5억원 이상 실적 보유 상시 거래사→ 356개사 대상 서면 실사
- 서면 실사 결과, ESG 고위험사 또는 전년도 현장 실사 결과 ESG 열위사 → 50개사 대상 현장 실사

점검 항목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5개 영역 100개 항목 점검

- 환경: 인허가준수, 생물다양성, 탄소배출량
- 노동/인권: 강제노동, 아동노동, 차별금지
- 안전/보건: 안전보건 규정, 필수 안전교육, 건강검진여부
- 윤리: 고충처리 채널, 비윤리 교육, 정기적 감사

현장 실사

개선 요청

실사를 통해 확인된 공급사 ESG 리스크 개선 계획을 구매 담당자가 해당 공급사에 요청, 개선 실행 협의

개선 이행

개선 계획 제출 후 180일 이내 ESG 리스크 개선, 이후 구매담당자 개선 경과 모니터링

개선·모니터링

공통

지속가능경영보고서(포스코홀딩스) 및 포스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당사의 공급망 ESG 실사 결과 공개

원료

분쟁/책임광물(주석, 텅스텐, 코발트) 및 핵심광물(니켈, 알루미늄, 구리 등)에 대한 對고객사 공급망 관리 정보 공개

정보공개

포스코 공급사 실사 현황

평가대상	평가완료	평가율
356개사	331개사	93 %

공급망 리스크 평가

포스코는 강건한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등록된 공급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안전 등의 ESG 이슈가 있는 공급사와는 거래를 중단하는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 소싱 그룹 등록 기준 대비 신용등급이 미달(B등급 미만)되거나, 최근 1년간 입찰 참가 실적 혹은 2년간 거래 실적이 없는 공급사는 등록을 취소합니다.

공급사 성과평가 결과

지표	단위	2021	2022	2023	2024
전체 공급사 수*		1,704	1,729	1,700	1,663
Excellent	개	216	237	261	309
Poor		15	3	1	1
Poor 등급 회사 중 개선활동 계획 수립 비율	%	100	100	100	100
전년 평가 대비 평가 결과 개선 공급사 비율		70	77	86	83

*설비/자재 공급사 기준, 소싱 그룹 중복 포함

공급망 Grievance

포스코홀딩스는 공급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노동권·인권 침해 또는 비윤리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공식 신고 채널을 운영합니다. 신고센터 설명문은 한국어와 영어로 제공되나, 기타 자국어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자 신분 비밀 보장, 접수 신고 100% 응답 조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비윤리 신고 - 신고센터

포스코는 공급망 e-sales 전용 핫라인을 통해 환경·사회 위반 사항을 포함한 공급망 전반의 이슈 및 답합 우려 등을 신고할 수 있는 별도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Smart 구매

RISK MANAGEMENT

포스코퓨처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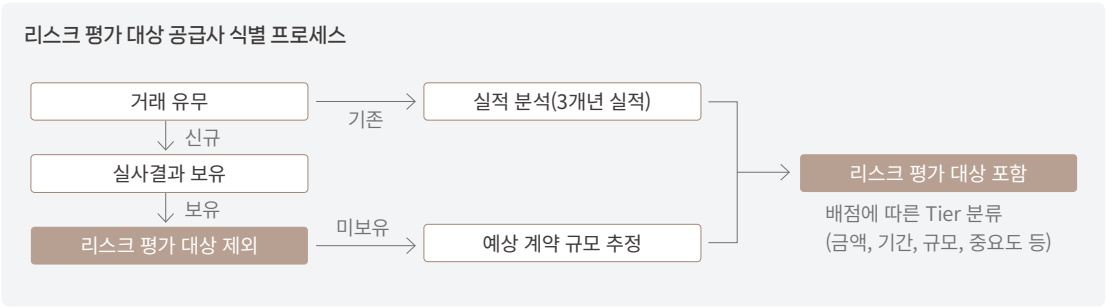
포스코퓨처엠은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를 위해 지표구성 - 사전식별 - 서면진단 - 현장실사 - 개선조치 및 모니터링의 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ESG 리스크 진단 및 실사 지표를 구성하고 공급사의 산업 특성, 품목, 거래 규모 등을 분석해 중요 공급사를 사전 식별합니다. 이후 설문 형식의 서면진단을 실시하고, 독립적 감사인(제3자 기관, 외부 컨설팅사 등)이 공급사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서면진단 및 현장실사 결과를 종합 분석해 리스크를 식별하고, 개선 조치를 권고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공급망 ESG 리스크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에 반영합니다.

공급망 ESG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

지표구성	▶	사전식별	▶	서면진단	▶	현장실사	▶	개선조치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경영 및 산업 이니셔티브, 국내외 법·규제 등을 반영한 특화 지표 설계		공급사의 산업, 품목, 거래기간 등에 잠재된 ESG 특성을 고려하여 ‘중요 공급사’ 식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공급사 ESG 리스크 수준 자가 진단 실시		독립적 감사인(제3자 기관, 외부 컨설팅사)과 함께 공급사 방문 및 현장 상황 점검		공급사와의 협의를 통한 개선 계획 수립 및 계획 기간 내 이행 여부 모니터링

ESG 리스크 평가 대상 공급사 식별

포스코퓨처엠은 공급사 ESG 리스크 진단 및 실사에 앞서 ‘리스크 평가 대상 공급사’ 사전식별(Risk Filtering) 절차를 운영합니다. 각국 정부 및 연구기관 자료, 언론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① 공급사의 사업방식에 따른 환경·사회적 영향 ② 공급사가 위치한 국가 및 공급사가 속한 산업군에서 요구하는 ESG 수준 ③ 공급사가 활용하는 원부자재에 포함되어 있는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공급사에 대한 재무상태 평가, 품질평가, 납기일 준수 평가 등의 결과를 분석하여 그 수준이 저조하거나 개선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그리고 위험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공급사도 ‘리스크 평가 대상’ 공급사로 식별하여 관리합니다. 2024년에는 총 368개사의 공급사를 리스크 평가 대상 공급사로 분류하였습니다.



POSCO HOLDINGS 2024
인권경영 특별보고서

인권



포스코홀딩스는 그룹 인권경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6개 주요 사업회사가 참여한 그룹 인권경영TF를 운영하였습니다.

인권경영TF는 각 회사의 지속가능경영(ESG)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법무, 인사노무, 정도경영, 포스코 인권센터 등 그룹 내 19개 부서의 관리자 및 실무자들이 참여하였으며, 2024년 10월부터 3개월간 운영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지평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TF 활동 결과로 그룹 인권경영 선언문, 인권영향 평가(서면·현장 실사) 방법론, 그룹 통합 고충처리 메커니즘 등 그룹 인권경영 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포스코그룹은 이번에 새롭게 정립한 그룹 인권경영 체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전 사업장의 인권 관련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부정적 영향을 식별·완화·예방 조치하기 위한 전사적 인권 리스크 점검 체계를 가동하여 인권경영을 기업 문화로 내재화할 계획입니다.

핵심이슈 ④

HUMAN RIGHTS

인권

GOVERNANCE

인권경영 거버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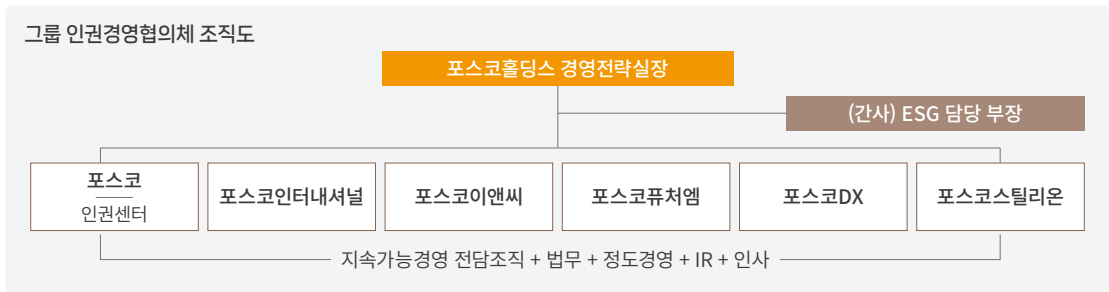
이사회

포스코그룹은 기업 경영 전반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 관련 국제 기준을 존중합니다. 포스코 그룹 인권경영 선언문에 따라 포스코홀딩스 이사회와 최고 경영진은 사업 활동 전반에서 인권 존중 책임 이행을 관리하고, 인권 경영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며, 임직원의 인권경영 실천을 모니터링합니다. 공급망을 포함한 그룹의 인권 이슈 및 개선 계획은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ESG위원회 보고안건: 미얀마 MPCC법인 인권 관련 이슈(2022년 11월 21일)

그룹 인권경영협의체

포스코그룹은 지주회사, 사업회사, 해외법인 간 인권경영 수준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포스코홀딩스 주도의 그룹 인권경영 협의체를 출범하였습니다. 협의체는 2023년부터 운영해 온 그룹 인간존중협의회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여 2025년부터 포스코홀딩스 경영전략실장 주관으로 운영됩니다. 철강사업회사 포스코를 비롯해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X, 포스코스틸리온 6개 주요 사업회사가 참여해 그룹 경영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외 인권 이슈를 상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향후 참여 사업회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룹 인권경영 협의체는 반기 단위로 운영되며, 2025년 3월에는 각 사업회사의 인권영향 평가 추진 계획, 인권 교육 및 주요 컨트롤러시 개선 계획 등을 아젠다로 논의하였습니다.



사업회사 관리감독

포스코홀딩스 기업윤리본부 정도경영실을 중심으로, 각 사업회사의 정도경영 전담 조직 및 포스코 인권센터가 정기적으로 인권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며, 필요 시 감사를 수행합니다. 인권 이슈 유형에 따라 비윤리, 갑질,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은 정도경영실이, 공정거래는 법무실이, 그 외 일반 인권 이슈는 경영전략실이 각각 담당합니다. 2023년부터 인간 존중 위반 행위 관련 설문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임원과 직책자가 윤리 및 인간 존중을 위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 연 1회 윤리 세션을 운영하며, 특히 2023년부터는 임원 윤리 세션에 인간 존중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 항목을 평가 문항으로 신설해 결과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업회사별 인권 전담 조직

포스코그룹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갑질행위 등 인권 관련 리스크 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 사업회사별 인권 전담 조직을 운영합니다. 포스코그룹 내 임직원수가 가장 많은 포스코는 2023년 1월 법무실 산하에 ‘인권센터’를 신설해 운영 중이며, 포스코홀딩스를 포함한 주요 7개 회사는 인권 전담 조직을 운영합니다.

인권 업무 영역별 담당 조직

포스코그룹은 인권 업무를 인권정책과 체계, 인권영향 평가, 고충처리의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담당합니다. 인권정책과 체계 및 인권영향 평가는 지속가능경영(ESG) 전담조직이, 고충처리는 정도경영 조직이 주관하며, 인사, 법무, 공정거래, IR, 마케팅, 안전, 환경 등 유관 부서가 세부 업무별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룹 인권 업무 영역과 주요 내용

영역	주요 내용
인권 정책과 체계	· 인권경영협의체 운영 · 인권경영 정책 및 절차 제/개정 · 인권 실사 계획 및 방법론 수립, 결과의 경영진/이사회 보고 · 임직원/이해관계자 대상 인권 교육
인권 영향 평가	· 인권 영향 식별, 예방, 조치계획 수립 · 인권 영향 평가 표준 체크리스트 개발 및 배포 · 임직원 대상 인권 영향 평가 실시, 주요 인권 이슈 도출 · 부정적 인권 영향의 대응조치 수립 총괄
고충처리	· 5대 고충 유형별 고충 접수 · 5대 고충 유형별 고충 상담 및 조사 · 고충처리 채널 효과성 평가 · 그룹 효과성 평가 결과의 개선 사항 검토

STRATEGY

인권경영 정책

그룹 인권경영 선언문

포스코그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인권경영 실천과 그룹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인권경영 내재화를 위해 ‘그룹 인권경영 선언문’^기을 제정하고, 2025년 2월 그룹 CEO를 비롯한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X, 포스코스틸리온 총 6개의 사업회사 대표이사가 포스코그룹 전체를 대표하여 공동 서명·선포하였습니다. 그룹 인권경영 선언문은 한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제작되어 당사의 인권경영 실천에 대한 의지를 내·외국인이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포스코그룹 인권경영 선언문

포스코그룹은 구성원, 주주, 고객, 비즈니스 파트너, 지역사회 등 경영활동 과정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사회와 조화를 통해 성장하고 영속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포스코그룹은 인권정책*을 통해 인권경영의 기본 원칙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계 인권선언, 국제인권장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및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유엔 아동권리 협약, 유엔 선주민 권리 선언, 유엔 인권용호자 선언, 기타 이주노동자, 여성, 장애인 등의 권리를 명시한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인권경영 실천 및 점검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합니다.

* 인권정책은 인권경영 정책,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책임장물 정책, 공급망 정책,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포스코그룹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선언합니다.

1. 인권보호를 위한 핵심 관리 영역

포스코그룹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다음의 인권 영향을 고려하여, 인권 침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에 앞장섭니다. 나아가 경영 환경의 변화나 사업 확장에 따라 인권 영향 관리의 우선순위가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정기적 인권실사 및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인권 영향 관리영역을 지속적으로 조정합니다.

- **차별금지:** 인종, 성별, 연령, 장애, 국적 등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동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평가를 보장합니다.
-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강제노동, 인신매매,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모든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일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합니다.
- **정의로운 전환:**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가능한 한 정의롭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합니다.
- **산업안전 보장:**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의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침해 행위를 방지하여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형성합니다.
-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비즈니스 파트너의 인권경영을 지원하며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관계를 유지합니다.
- **부패 및 뇌물방지:** 모든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처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내외 뇌물 및 부패방지 법률과 규범을 준수합니다.
- **환경권 보장:**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며, 천연자원과 무산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보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 **지역주민 인권 보호:**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지역 환경과 주민의 안전, 보건,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문화 보전 및 생물 다양성을 고려합니다.
- **소비자 인권 보호:**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안전하고 건강에 위험이 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과 관련된 정보 보호에도 철저히 임하여 고객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2. 인권경영 관리체계

포스코그룹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기반하여 보호, 존중, 구제의 원칙을 중시하고,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체계적인 인권경영 관리를 위해 인권 관련 리스크 식별, 방지, 완화, 대처하기 위한 인권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합니다.

- **인권 거버넌스:** 포스코홀딩스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은 인권경영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며, 임직원의 인권경영 실천을 위한 전반적인 방향과 정책을 모니터링합니다. 포스코그룹의 최고경영진은 사업 활동 전반에서 인권존중책임을 이행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다합니다.
- **인권 실사:** 회사는 인권 실사를 통해 회사, 자회사, 공급망에서 발생가능한 부정적 인권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고 완화하며 인권에 대한 책임을 다합니다. 실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는 내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개선 조치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고충처리제도:** 인권 관련 문제 제기과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하며, 윤리상담센터 및 비윤리 신고센터 등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불이익 없이 고충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충 제기자에게 적절한 피드백과 후속조치를 제공하며, 이해관계자가 고충처리제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었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이해관계자의 인권 우려에 책임감 있게 응답하며, 공식 보고서와 온라인 채널을 통해 투명하게 소통합니다. 인종, 성별, 연령, 장애, 국적 등으로 인해 취약성을 지닌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경영활동을 개선합니다.

포스코그룹은 모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 사회의 인권원칙을 지지하고 준수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포스코그룹을 대표하여 그룹 CEO 및 주요 계열회사 대표이사가 함께 인권경영을 선언합니다.

2025.2.20.

포스코홀딩스 그룹 CEO 장인화 포스코 사장 이희근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사장 이계인

포스코이앤씨 사장 정희민 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 사장 엄기천 포스코 DX 사장 심민석 포스코스틸리온 사장 최지환

posco

인권 보호 핵심 관리 영역

포스코그룹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다음의 11개 영역에 대한 인권 영향을 고려하여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 환경 변화나 사업 확장에 따라 인권 영향 관리의 우선순위가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정기적인 인권실사와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관리 영역을 지속적으로 조정합니다.

인권 보호 핵심 관리 영역

- 1 차별 금지
- 2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4 정의로운 전환
- 5 산업안전 보장
- 6 직장내 괴롭힘 방지
-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8 부패 및 뇌물방지
- 9 환경권 보장
- 10 지역주민 인권 보호
- 11 소비자 인권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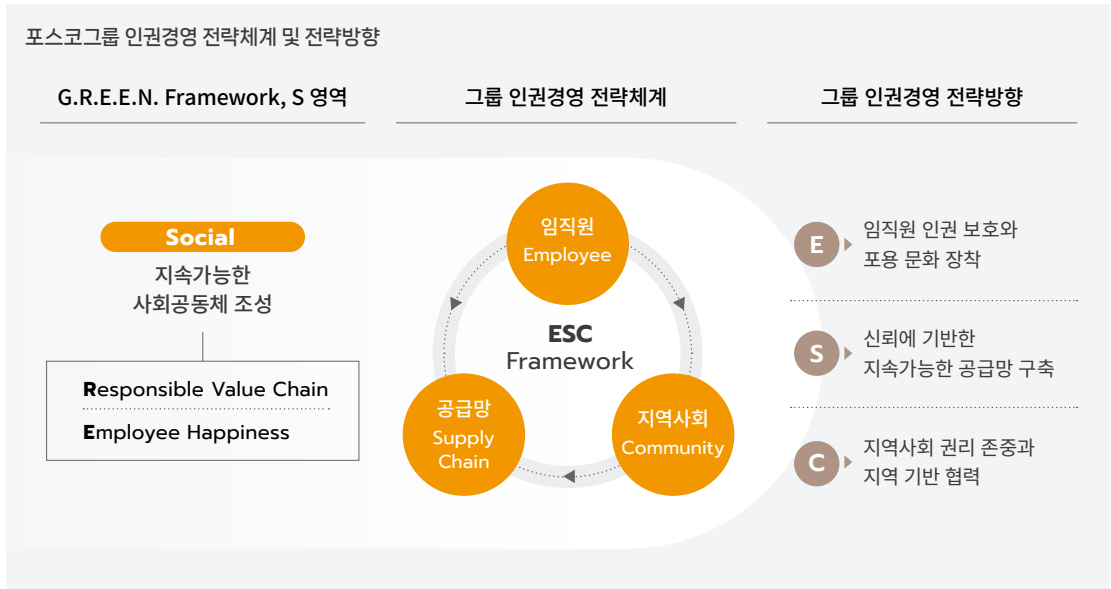
STRATEGY

인권경영 전략체계

포스코그룹 인권경영 프레임워크

인권경영은 포스코그룹의 ESG 전략체계인 G.R.E.E.N. Framework 중 사회(S) 영역인 Responsible Value Chain 과 Employee Happiness에 해당합니다. 주요 이해관계자인 임직원(Employee), 공급망(Supply Chain), 지역사회 (Community)를 중심으로, 포스코그룹의 인권경영 전략체계인 ESC Framework로 개념화하였습니다.

ESC는 임직원, 공급망, 지역사회를 지칭하는 단순한 약어를 넘어, 인권경영의 11개 관리 영역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 관련 부정적 영향을 식별·완화·예방·조치함으로써 인권 리스크로부터 벗어나는 ‘ESCape’의 의미와, 지속가능한 기업가치를 창출하고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를 상징하는 ‘ESCalate’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인권보장 제도 및 활동

인권 이니셔티브 참여

포스코그룹은 UNGC(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UNGC의 10대 원칙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관한 UNGC의 10대 원칙을 반영하여 인권 관리 및 실사 프로세스를 운영 중이며, 2024년부터는 UNGC 인권 존중 원칙 이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UNGC 가입 회사: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임직원 인권 존중 프로그램

포스코그룹은 인간 존중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와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글로벌 전 사업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서약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인권 존중 프로그램

구분	비고
인간 존중 서약	전 임직원 대상 매년 1회 윤리/상호존중에 대한 전자서약 실시(계약직 포함)
인간 존중 교육	전 임직원 대상 온라인 필수교육 및 오프라인 교육 실시 · (온라인 필수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인권경영의 이해 교육 · (오프라인 교육) 인간 존중 특별교육
인간 존중 캠페인	사내 시스템 공지를 통해 인간 존중 관련 이슈별 캠페인 진행(연 6회 이상)

2023년 4월에는 양성평등 및 상호 존중 서약식과 인간 존중 특별 대면 교육을 통해 차별·괴롭힘·성희롱·가해 확산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 갑질 방지 등 인간 존중 관련 세부 실천 항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후 인권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회사의 인권경영 체계를 알리기 위해 임직원 대상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인권 영향 평가 참여와 고충처리 절차 이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인권경영 정책과 제도가 사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교육 콘텐츠는 이러닝 형태로 제작하여 전 임직원 대상 필수 교육 과정에 포함하였습니다.

강의는 특히 고충 접수 방법, 처리 과정, 결과 통보 방식 등 절차의 각 단계를 상세히 설명하며, 실제 사례를 통해 절차의 적용 방법을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모든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회사 게시판 등을 통해 강의에 대한 안내를 배포하며, 직원들이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여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STRATEGY

이해관계자 고충처리

그룹 통합 고충처리 메커니즘

포스코그룹은 글로벌 실사 법제의 요구 사항에 맞춰 인권 이슈 관련 고충 유형을 표준화하고, 모니터링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그룹 차원의 통합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룹 내 주요 고충 사항이 포스코홀딩스와 사업회사 간에 체계적으로 보고·이관·지원되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고충처리 시스템을 통해 비윤리, 갑질, 괴롭힘·성희롱, 공정거래 등 네 가지 고충 유형만을 접수·관리하였으나, 인권경영TF를 통해 일반 인권 이슈를 고충 유형에 추가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를 표준화하였습니다. 일반 인권 이슈에는 인권경영 체계, 고용상 비차별,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아동노동, 안전, 공급망 관리, 현지 주민 인권, 환경권, 소비자 인권 10대 영역이 포함됩니다. 해당 고충 사항은 ESG 담당 부서가 접수하고, 영역별 유관 부서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향후에는 각 사업회사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고충 사항이 포스코 중앙 DB로 자동 연계되어, 그룹 차원에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포스코그룹 5대 고충 유형과 담당 부서					
고충 유형	1 비윤리	2 갑질	3 괴롭힘/성희롱	4 공정거래	5 일반 인권 이슈 10대 영역
담당 부서	정도경영			법무	(접수)ESG, (조사)인사/구매/ESG

또한 인권 이슈 발생 시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로의 보고 및 이관 기준을 정립하였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그룹 내 보고·이관된 고충 사항을 종합하여, 그룹 차원의 인권 정책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고충처리 프로세스

포스코그룹은 그룹 공통의 고충처리 절차 운영지침을 수립해 포스코홀딩스 및 전 사업회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충 사항 발생 시 고충처리신고센터(Grievance Mechanism)를 통해 이해관계자는 누구나 온라인(이메일, 웹사이트), 전화, 우편,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충 신고는 익명 또는 기명으로 가능하며, 한국어는 물론 영어 또는 신고자가 선택한 언어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를 함께 운영합니다.

고충처리 프로세스

이해관계자 등록	상시 접수	검토/처리	결과 안내	완료
(이메일/전화/우편 가능) 고충처리신고센터 ☎	회사별 전담조직 접수 및 검토 추진		검토 결과 및 처리 내역 피드백	

고충처리 운영 실적과 사례

2024년 고충처리 운영 실적과 사례는 ESG Fact Book ☎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임직원 인권 피해 구제

인권 침해 사건 대응 프로세스

포스코홀딩스는 인권 침해 사건 발생 시, 사건 인지부터 사후 관리까지 단계별 대응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윤리 위반과 같이 피해자 구제 및 2차 피해 예방이 필요한 사건은 신속한 처리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피해자 구제 방안

-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 전 조사 참여자 의무 작성
 - 피해자 보호조치 운영: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법무 및 의료/상담 지원
 - 피해자 구제 사내 제도:
 - 법무 지원: 사내 전담변호사가 지정되어 있고, 희망 시 외부 변호사의 변호도 가능
 - 의료 지원: 성윤리 위반으로 유발된 질병의 진료비를 지원
 - 상담 지원: ‘마음챙김센터휴’에서 전문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 사규 명문화: 피해자 구제 및 2차 피해 방지를 사규로 규정
 -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은폐하거나 2차 피해를 유발한 자에 대해 엄중 징계하고,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가 있는 피해자의 직책보임자가 2차 피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더욱 엄중 징계한다.
 - 예방 관리: 전 임직원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화, 양성평등과 상호존중 서약 실시

SPECIAL PAGE 「PRI Advance Progress Report 2025」의 포스코홀딩스 Case Study 사례 소개

PRI Advance는 2022년 12월 출범한 인권·사회 분야 투자자 연합 이니셔티브로 지난 2년간의 주주 관여(Engagement) 활동 성과를 종합·정리한 ‘Progress Report 2025’를 2025년 6월 5일 발간하였습니다. 주주 관여 대상 기업은 철강, 광산, 신재생 에너지 분야 38개 기업이며, 포스코홀딩스도 대상기업으로 지정되어 지난 2년간 PRI Advance 미팅에 성실하게 임하며 ‘인권’ 분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PRI Advance의 ‘Progress Report 2025」에서는 지속적인 대화에 참여 중인 30개 기업 중 포스코홀딩스 사례를 Case Study로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Details of engagement

주주관여(Engagement)는 POSCO의 독립 이사회 의장과 주요 위원회 책임자를 포함한 포스코 경영진과의 대화를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EOS와 다른 투자자들은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침 및 국제노동기구(ILO) 원칙과 같은 고용 및 인권 분야의 국제적으로 존중받는 모범 사례 기준에 회사의 행동을 맞추므로써 장기적인 주주 가치 개선 기회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참여 활동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 EOS와 다른 투자자들은 노동권 전문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도 협의했습니다.

회사가 공개한 정보 및 기타 전문가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자와 그들의 대표들은 POSCO의 노동권 접근 방식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글로벌 모범 사례를 참고하여 자체적인 인권실사 방법론을 개발하고, 글로벌 운영 전반에 걸쳐 노동 및 인적 자본 문제에 대한 거버넌스, 정책 및 관행을 강화하도록 회사에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공급망 전반에 걸친 인권 실사를 위한 조치를 설명하는 등 핵심 노동권 존중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공하라는 제안도 포함되었습니다.

Changes, potential outcomes and next steps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POSCO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권경영협의체와 인권 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인권 실사 방법론을 표준화하고, 그룹 차원의 인권 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공급업체와 함께 수행한 인권 평가에 대한 보다 투명한 공개를 강조했습니다. 2025년 2월, POSCO 그룹의 CEO들은 인권 선언문에 서명하고 발표하여 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참여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고, Engagement가 계속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POSCO의 진전은 인권 문제와 관련된 잠재적인 평판 및 재정적 위험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주주 가치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포스코그룹 인권경영 체계 평가 체크리스트(표준)

(11개 영역, 136개 지표)

항목	No.	지표
A. 인권경영 체계 구축		
인권 존중 정책 선언	1	회사는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정책선언을 했다.
	2	인권정책선언은 회사의 최고위 수준에서 표명된 것이다.
	3	회사의 인권정책선언은 회사 내부와 외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4	회사의 인권정책선언은 해당 회사에서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이 큰 중요한 인권 현안이 무엇인지가 표명되었다.
	5	인권정책선언은 공개적이며,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6	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
인권 영향 평가 정기적 실시	7	회사는 인권영향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8	인권영향 평가는 국내법 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인권규범을 준거로 한다.
	9	인권영향 평가 실행 시 회사 내·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10	회사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협의를 한다.
	11	자회사나 협력회사의 활동도 인권영향 평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12	회사는 인권경영을 제도화 하였다.
	13	회사는 인권경영 문제를 다루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였다.
	14	회사는 인권준수 감시장치를 마련했다. (human rights compliance mechanism)
	15	회사는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6	직원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명확히 정의하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제한한다.
	17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를 준수하며, 이를 직원과 고객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18	디지털 환경에서 직원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며, 감시 도구의 사용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얻는다.
	19	데이터 유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20	회사는 인권경영 성과를 정량적 지표 또는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확인한다.
인권경영 성과	21	인권경영 성과 확인 시 내·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22	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23	인권경영 성과 보고는 공개적으로 이루어 진다.
	24	보고는 회사의 활동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25	보고는 시간의 추이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일관적이다.
	26	보고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친다.
	27	회사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고충처리 및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구제절차 마련	28	구제절차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 등 인권 규범에 기반을 두었다.
	29	구제절차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
	30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31	피해자가 회사 구제절차 이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조력한다.
	32	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그에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항목	No.	지표
G.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방지		
정책 수립 및 유지	91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금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 및 유지하고 있다.
	92	정책을 개발 및 개정할 때 회사 대표, 전문가, 직원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과 협의한다.
	93	정책은 사업장, 휴게 및 식사 장소, 출퇴근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과 장소, 절차에 적용하고 있다.
판단 및 처리	94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을 금지·예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95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과 관련한 사건 발생시 조사, 조치 및 교육 등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한다.
	96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과 관련한 사건 발생시 피해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필요시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97	피해자, 대리인, 증인, 내부고발자를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고 상담 및 휴식, 유급 휴가 제공 등을 지원한다.
	98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및 비밀을 보장한다.
	99	피해자 및 신고인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100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방지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한다.
예방 및 교육	101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금지를 위해 교육, 캠페인 등을 시행한다
	102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방지 정책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H.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정책	103	회사는 공급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104	회사는 공급업자, 하청업자,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 이행을 요구한다.
인권 리스크 식별 및 예방	105	회사는 공급망의 인권 리스크를 식별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평가하고 있다
	106	회사는 공급망 평가 시 심각한 인권 리스크가 예상되는 경우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107	회사는 공급망의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모니터링 및 조치	108	회사는 협력회사에서 심각한 인권 이슈 발생시 시정을 요구하며 시정이 되지 않을 시 제재 방안을 검토한다.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109	내부 및 외부 보안 인력에게 국제 인권 기준 및 인권 침해 방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110	외부 보안 업체와 계약시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정보공개 및 고충처리	111	회사는 공급망의 실사에 대해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I. 현지 주민의 인권보호		
지역주민의 인권의 존중, 보호	112	회사는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113	관련 법령에서 회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준수한다.
	114	회사는 토지 구매 시 법률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며, 추가적인 권리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115	회사는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수단을 이용하지 않는다.
	116	회사는 부적절한 강제이주에 가담하거나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기지 않으며, 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117	법률에서 이주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고 법률 취지에 맞는 대책을 수립, 제공한다.

항목	No.	지표
J. 환경권 보장		
환경경영체계 수립 및 유지	118	회사는 환경경영 체계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다. (ISO14001 등)
	119	회사는 환경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한다.
	120	환경개선을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목표가 적절한지를 점검한다.
	121	회사는 회사 활동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에서 환경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122	회사는 환경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직원을 교육하고 훈련한다.
환경정보의 공개	123	회사는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일반 이해관계자(투자자, 고객, 직원 등)에게 제공한다.
	124	환경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환경 사고가 났거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가급적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한다.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125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
	126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업의 확장을 고려하는 경우,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한다.
	127	환경영향 평가 결과 심각한 환경영향의 가능성이 발견되면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K. 소비자 인권보호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128	회사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 제조, 표시를 함에 있어서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129	회사는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제조, 설계 또는 표시 등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평가를 실시한다.
	130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가격정보, 성분, 사용법, 보관법 등에 관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131	회사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는다.
	132	회사는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거래조건, 제품특성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133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며, 지역에 따라 현지어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
	134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들에게 그 위험성을 알리고 보수또는 교환, 회수한다.
제품 결함시 조치	135	제품에 결함이 발생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린다.
	136	제품 심각한 결함이 발생된 경우 소비자에게 즉시 위험성을 알리고 보수 또는 교환, 회수한다.

포스코그룹 인권인식도 평가 체크리스트(표준)

항목	No. 지표
A. 인권경영 체계 구축	1 나는 회사가 인권경영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2 회사는 인권 존중 책임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실천)하고 있다.
	3 나는 고충처리 절차에서 비밀이 보장되고, 신고에 대한 불이익이 없음을 알고 있다.
	4 회사는 직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5 나는 회사로부터 인권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ex.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안전보건 교육 등)
	6 회사는 인권 침해 사례 발생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7 회사는 인권 침해 사례 처리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방안을 직원들에게 설명한다.
B. 고용상의 비차별	8 회사는 성별, 종교, 나이, 인종, 장애여부 등을 사유로 직원을 차별하지 않는다.
	9 회사는 휴직 또는 장기휴가에서 복귀한 직원에게 적절한 업무를 부여한다.
	10 회사는 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정보(출산계획 등)를 요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직원을 불리하게 처우하지 않는다.
	11 회사는 업무와 무관한 직원 특성을 사유로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의와 복리후생에 있어 차별하지 않는다.
	12 회사는 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업무를 진행한다.
	13 회사는 직원이 종교적,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한다.
C.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4 회사는 법으로 보장하는 직원 대의기구, 근로자 참여단체 설립 및 운영 등을 허용한다.
	15 회사는 법으로 보장하는 직원 대의기구, 근로자 참여단체 결성, 활동을 사유로 해당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D. 강제노동 금지	16 회사는 신체적, 정신적 괴롭힘이 동반되는 강제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17 회사는 법 기준을 초과하는 불필요한 연장근무를 지시하지 않는다.
	18 회사는 직원과 그 가족의 이동의 자유를 제약할 목적으로 여권 제출요구를 하거나, 이를 장기간 보관하지 않는다.
	19 회사는 법정 휴일 및 휴게시간을 준수한다.
	20 회사는 법에 따른 휴가와 휴직을 부여하며, 직원은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E. 아동노동 금지	21 회사는 15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22 회사는 18세 미만의 직원에게 위험/유해한 환경에서의 업무 수행을 지시하지 않으며, 장시간/야간노동에 투입하지 않는다.

항목	No. 지표
F. 산업안전 보장	23 회사는 비상탈출구 및 소방 등 직원의 안전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24 회사는 주기적으로 작업환경의 안전과 위생을 관리한다.(ex. 실내환기, 실내온도, 조명, 음용수, 작업복, 음식보관시설, 화장실, 안전장구, 숙소, 작업현장 등)
	25 회사는 임신 중이거나 질병이 있는 직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지시하지 않는다.
	26 회사는 유해/위험한 업무 수행시, 적절한 보호장비를 제공한다.(안전복, 장갑, 헬멧, 보호경, 안전화 등)
	27 회사는 유해/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28 회사는 작업장 위생과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29 회사는 업무상 부상/질병에 걸린 직원이 있을 경우,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G.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0 나는 회사에서 인간 존중 업무(괴롭힘/성희롱 예방 등)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담당자를 알고 있다.
	31 나는 괴롭힘/성희롱 예방 등 회사의 인간 존중 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
	32 나는 괴롭힘/성희롱, 차별행위, 산업안전 등 인권 관련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채널과 구제절차를 알고 있다.
	33 직원들은 상호간 폭언, 폭행, 인신공격, 따돌림, 조롱 등 일체의 무례하거나 위협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34 직원들은 성유리에 위반되거나 성희롱으로 오해 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35 회사는 직원의 사생활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는다.
H.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36 직원들은 협력사, 공급망 등 외부 이해관계자를 배려하고, 폭언, 폭행, 인신공격, 부당한 대우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7 회사는 협력사, 관계사 등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갑질)를 하지 않는다.
I. 현지 주민의 인권보호	38 직원들은 본인의 업무로 인해 지역 주민의 환경, 안전보건, 거주지 자유 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9 회사는 회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재산 등 및 권리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소통하고 보상 등을 위해 노력한다.
J. 환경권 보장	40 회사는 환경보호를 위한 체계와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그에 맞게 적절히 이행하고 있다
	41 회사는 제품 개발 및 경영활동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한다.
	42 회사는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K. 소비자 인권보호	43 회사는 제품/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지 않는다
	44 회사는 제품에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알리고 보수, 교환, 회수 등을 적절히 제공한다.
서술형 답변	45 상기 답변 중 '동의하지 않음'으로 체크하신 항목에 대한 의견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46 회사에 인권 관련 우수사례가 있다면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47 회사에 인권 관련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 11개 영역, 47개 지표

SPECIAL PAGE 포스코아르헨티나 사례

포스코그룹은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을 기반으로 선주민 권리 보호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노력합니다.
포스코아르헨티나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살타주 및 카타마르카주의 상생 노력을 특별 보고합니다.

포스코아르헨티나 법인 개요

주요 사업: 염호 내 리튬 자원 개발 및 수산화/탄산리튬 생산

생산 능력: 배터리급 수산화리튬(25천톤/년), 공업용 탄산리튬(23천톤/년)

고용 인원: 총 458명(주재원 67명, 현지인 391명, 선주민* 23명 포함)

* 2024년 12월말 기준

* 지역 선주민들은 고지대 캠프 관리 보조, 측량 보조, 주차장 관리, 지질탐사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



STEP 1 — 커뮤니티 의견수렴

포스코아르헨티나는 모든 사업 진행 과정을 주민 설명회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며,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지역사회·회사가 함께하는 회의를 진행합니다. 사업 외적으로도 고지대 커뮤니티에 CSR 담당 직원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지역사회의 니즈를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며,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특히 공장 가동 이후에는 관련 지역사회에 고충이 상시 접수될 수 있도록, 2024년 11월부터 QR코드 기반 의견 수렴 채널을 오픈하여 마을 주민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설치 후 지난 6개월 동안 접수된 의견은 총 5건이며, 모두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 공청회 모습



광업부 라운드테이블 회의 모습

구분	운영 주기	2024년 주요성과
프로젝트 인근 커뮤니티 회의	매 분기	· 의료 진찰 서비스 요청 → 치과, 일반 건강검진 지원(반기) · 동물용 사료, 딸감용 목재 요청 → 주기적 폐목, 옥수수 기증(상시) · 건설, 안전환경 교육 요청 → 건설노조 협업 용접기능 운영(15명), 응급처치·생물다양성 교육 실시 · 주변 현장 모니터링 참관 요청 → 폐수 방류지 등 주변 환경 샘플링 시 참관 및 결과 공유
	상시	· 커뮤니티, 세탁물 등 간이 서비스 구매 및 인력 채용 확대 요청 → 인력 풀 및 업체 현황 관련사 공유(4건) · 하공정 폐수 방류에 따른 분석 결과 및 설명 요청 → 지역주민 대상 정보 공유회 시 폐수 분석 결과 및 모니터링 현황 공유(1건)



SPECIAL PAGE 포스코아르헨티나 사례

STEP 2 — 프로그램 시행 ▶

의견수렴 채널을 통해 접수된 내용은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통해 반영되며, 모든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은 지역주민 대표회의의 참여를 기반으로 합니다.



1. 아동 교육 프로그램

지역 학교 교실과 화장실 건설 및 농업 교육 진행



2. 선주민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Fundación UOCRA 및 POSCO E&C와 함께 실업 청년과 선주민들을 노동 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해 직업 교육을 제공



3. 여성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지역 여성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벽돌공 교육을 통해 24명의 지역 여성이 졸업, 자격 획득



4. 현지 우수 인재 양성 프로그램

지역 우수 대학생에게 신사업인 리튬 세미나 교육 및 장학금 지원으로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



5. 재활용 프로그램

공장 운영 과정의 팔레트 목재를 재활용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자원 재활용과 주민 부가 소득 창출을 지원



6. 주민복지 - 치과 검진 프로그램

선주민 마을의 가장 큰 의료 이슈인 치아 건강 개선을 위해 치과 검진 및 치위생 교육 실시



SPECIAL PAGE 포스코아르헨티나 사례

7. 다양성 - 지역 문화 축제

지역 고유 문화 축제와 행사를 함께 개최하여 선주민들의 정체성이 문화로 보존될 수 있도록 지원



8. 지역사회 인프라 개선 - 지역사회 공원, 스쿨버스 정류장 개설

지역 아동들을 위한 공원과 스쿨버스 정류장을 개설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



STEP 3 — 프로그램 리뷰 회의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프로그램 시행이 원래의 요구에 부합하게 운영되었는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발견된 개선 필요 사항은 없는지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소셜 테이블을 운영합니다. 논의된 개선사항은 다음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으로 적용됩니다.



포시토스 소셜 테이블 회의 모습

지역사회 내 비정기적인 이슈 발생 시에도 회사는 가능한 개선책을 함께 고민합니다. 지난 2025년 3월 인근 마을인 산 안토니오 로스 코브레스시에 집중 호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지역 아동들이 새로운 학용품으로 미래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정부, 주민들과 함께 학용품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처럼 포스코아르헨티나는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열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선주민의 권리 보호와 지역사회 성장을 지원합니다.



산 안토니오 코브레스 학용품 지원 행사

핵심이슈 ⑤

ETHICS & COMPLIANCE

윤리·컴플라이언스

GOVERNANCE

이사회

윤리·컴플라이언스는 이사회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하며,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와 ESG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리 감독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상법 제542조의 11)에 따라 설치·운영하며,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독립적으로 감독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ESG위원회는 컴플라이언스(준법)와 공정거래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를 감독합니다. 기업윤리본부장(변호사)은 부사장급 임원으로 윤리·감사·반부패, 공정거래, 법무·컴플라이언스를 총괄하며, 포스코홀딩스 준법지원인으로서 이사회에서 선임됩니다.

관리감독 책임 명문화

- **이사회 운영규정**
 - 내부거래 심의 명문화(상시, 2024년 4건 심의)
 - 준법통제 점검 결과 이사회 보고 명문화(연 1회):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결과보고(2024.12.13.): 뇌물, 불공정거래행위,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 준법자율 점검 결과 및 개선, 준법통제 체계 유효성 평가 결과 포함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및 공정거래 CP 운영 현황 ESG위원회 보고 명문화(반기 1회, 2024.7.31, 2024.12.11. 보고)

이사회 컴플라이언스 전문성 확보

- 신입 사외이사 대상 ‘공정거래법 기준 포스코그룹사 현황’ 설명
- 매월 1회 준법레터(CEO Legal Briefing) 발송

기업윤리본부

포스코홀딩스 기업윤리본부는 법무, 윤리·감사·반부패, 공정거래, 지식재산 관리 등 그룹의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총괄합니다. 해당 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본부 내에는 ISO 37301 전문 심사원, 국내 및 해외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총 39명의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부 산하의 정도경영실은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감사 업무 수행을 보좌하고, 그룹 감사 전략의 수립 및 운영과 각 사업회사 내부감사 부서의 총괄을 담당합니다.

기업윤리본부 조직도			
기업윤리본부(본부장: 부사장)			
법무	공정거래	지식재산	정도경영
· 준법통제시스템 도입 및 확대 등을 통한 법적 위험 평가 및 관리 활동 수행	· 포스코홀딩스 공정거래 CP 운영 및 그룹사·협력기업· CP 활성화 지원	· 지식재산 법률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	· 감사위원회 업무 지원
· 준법 점검(정기 점검 및 특별 점검) 활동을 통한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결과 보고	· 대기업집단 규제에 대한 준법 점검 및 리스크 예방 활동 (교육, 검증 등)	· 발명자와 회사 간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권리 귀속 원칙 수립	· 포스코홀딩스사업회사 감사 수행
· 준법통제 체제에 관한 유효성 평가 실시 및 결과 보고	· 포스코홀딩스 계약 리스크 관리(지침·약관 관리 등)	· 지식재산의 유출, 도용, 불법 복제에 대한 방지 정책 수립	· 사업회사 감사결과 검토
		· 브랜드 사용에 대한 법률, 세무 규정 점검 및 사용료 수취	· 보고(경영층, 감사위원회)
			· 윤리경영-인간 존중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 부패 방지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용

사업회사 담당조직

포스코그룹 윤리·감사 업무는 기업윤리본부 정도경영실 및 각 사업회사의 내부감사부서(실장, 공인회계사, 경영관리 전문인력 등으로 구성)가 수행합니다. 국내외 사업장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윤리경영 정책 수립·운영 지원, 윤리교육 및 캠페인 전개, 인간 존중 위반 및 비윤리 감사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내부감사 부서의 윤리경영 업무 결과는 포스코홀딩스 정도경영실에서 주기적으로 최고경영층에 보고하며, 경영층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에도 연 2회 정기적으로 직접 보고합니다. 컴플라이언스 업무는 기업윤리본부 법무실 및 각 사업회사의 법무담당부서(실장, 국내·해외 변호사, 변리사 등으로 구성)가 수행하며, 포스코홀딩스 및 각 사업회사 준법지원인은 매년 1회 사업회사의 준법통제 체제에 대한 유효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GOVERNANCE

협의회·위원회

그룹 법무협의회

포스코홀딩스 및 주요 사업회사 준법지원인이 참석하는 ‘그룹 법무협의회’를 운영합니다. 그룹 법무협의회는 매 분기 개최되며 준법통제, 그룹 차원의 중요 법무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또한 그룹의 준법 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회사 간 업무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그룹 자율준수관리자협의회

포스코홀딩스 및 주요 사업회사 자율준수관리자가 참석하는 ‘그룹 자율준수관리자협의회(또는 그룹 자율준수관리자 CP 간담회)’를 연 1회 운영하여 그룹의 공정거래 정책방향 등을 공유하고 CP 활성화 방안을 협의합니다. 아울러 포스코홀딩스 및 주요 사업회사 자율준수관리자가 협업하여 ‘그룹 CP 활성화 지원 TF’를 통해 그룹사, 협력기업 등 CP 도입 및 운영을 지원하고, 공정거래 합동점검, 경영층 대상 준법설명회 등을 진행합니다.

그룹 정도경영협의회

그룹 정도경영협의회는 포스코홀딩스 기업윤리본부 정도경영실 임원, 24개 사업회사 정도경영실장, 정도경영사무국장, 정도경영그룹장, 포스코 인권센터장 등으로 구성되며, 윤리·안전·환경 등 그룹 내 리스크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중요 안건은 연 2회 내부감사부서의 업무 결과에 포함되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포스코홀딩스 감사위원회에 보고됩니다.

POSCO Clean 위원회

포스코홀딩스는 2024년 그룹 구성원이 공유하는 핵심가치인 ‘준법경영’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준법·윤리경영 자문기구인 ‘POSCO Clean 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명 전원을 외부 위원(비상근)으로 구성하였으며,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ESG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POSCO Clean 위원회는 준법경영 프로그램 및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합니다.

STRATEGY

정책 및 방침 수립

윤리정책 및 지침

포스코홀딩스의 윤리경영 표준 및 정책은 모든 임직원(계약직 포함)이 준수해야 하는 윤리규범을 비롯하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내부감사지침 등 총 11개(사규 2개, 업무지침 9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윤리본부 정도경영실은 해당 사규 및 지침의 적정성을 수시로 검토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新윤리규범 체계 정립의 일환으로 윤리규범을 개정하고, 실천지침을 별도로 분리·보완하여 윤리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윤리경영 사규 및 지침			
 사규	· 윤리규범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업무지침	· 윤리규범 실천지침 · 내부감사 지침 · 반부패 준수 지침	· 비윤리행위 신고보상 및 면책 지침 · 이해충돌방지 행동지침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 윤리실천 특별약관 · 해외 윤리실천 특별약관
 반부패 준수지침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반부패 준수 지침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반부패 준수 지침에서 정의하는 ‘부패’란,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 유무형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가 이러한 이득을 얻도록 하는 일체의 일탈 행위를 의미합니다.		

컴플라이언스 정책

- 준법지원인을 선임한 포스코홀딩스 및 7개¹⁾ 사업회사는 준법통제기준²⁾을 사규로 관리
- CP를 도입·운영하는 포스코홀딩스 및 34개³⁾ 사업회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⁴⁾을 사규로 관리

1)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X, 포스코플루우, 포스코스틸리온
2)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준법지원, 법적 위험의 평가·관리, 준법 점검(준법지원활동 연 1회 이사회 보고) 등 명시
3)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등 34개 그룹사
4) CP 전담 조직의 책임과 권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자의 직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계획 실적에 대한 이사회 보고(반기 1회) 등 명시

ISO 인증

포스코퓨처엠은 준법경영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2023년 9월 국내 배터리 소재 업계 최초로 ISO 37301(준법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포스코와이드와 포스코A&C는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해 윤리적 경영을 위한 대응 체계 구축을 인정받았습니다.

STRATEGY

윤리경영

비윤리신고센터

포스코그룹은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비윤리신고센터’를 연중무휴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비윤리 행위,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누구나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센터는 각 사업회사의 내부 감사 부서가 접수부터 조사, 사후 관리까지 전담 운영합니다. 모든 신고 건은 100%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023년에는 글로벌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들도 모국어로 상담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 운영 언어를 기존 한국어, 영어, 중국어에서 스페인어와 베트남어까지 확대하였습니다. 2024년 포스코홀딩스에 접수된 신고는 총 21건이며, 19건은 조사 및 조치가 완료되었고 2건은 조사 중입니다.

**온라인 신고센터**

전화
080-390-3366

우편
(우)0619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서울시 강남구 대치4동 892번지)
포스코홀딩스 기업윤리본부 정도경영실

내부고발제도

포스코그룹은 내부고발제도를 통해 윤리경영을 강화하였으며, 임직원은 누구나 ‘비윤리신고센터’를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회사 내부 시스템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푸시 설문조사를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내부고발제도 운영 프로세스

신고(상담) 신청·접수	사실관계 조사	사실 확인 및 조치 의뢰	사후 관리	조치 결과 통보
홈페이지 비윤리신고센터(24시간 가능), 메일, 전화, 우편, 방문 등	관련자 면담 (신고자·행위자·제3자)	사건조사 완료 (필요 시 인사조치 의뢰)	재발방지 교육, 모니터링	조사 결과 안내 (인사조치 결과 포함)
				

제보자 보호

포스코그룹은 상담 및 신고 과정에서 신분 노출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관련 지침에 따라 필요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합니다. 내부 감사 부서 임직원은 매년 초 ‘감사인 보안 서약’을 통해 신고자 신분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신고자의 비밀 보장을 포함한 절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장’ 중 사기업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기반으로 ‘비윤리 행위 및 면책’ 지침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부고발 임직원이나 외부 이해관계자 신고인을 모두 보호합니다.

컴플라이언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포스코그룹은 2002년부터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공정거래 CP(Compliance Program)를 운영합니다. 2025년 현재 35개 포스코그룹사가 공정거래 CP를 도입하였으며, 9대 전략을 공정거래 CP 운영 전반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 공정거래 CP 관리 체계

**PREVENTION 예방**
CP 정책 수립 및 예방 활동
· 경영층 CP 활동 지원
· 컴플라이언스 지침 제·개정
· 맞춤형 교육, 상담, 정보 제공

**RESPONSE 대응**
리스크 재발 방지 및 사후관리
· 제도 개선 코칭, 후속조치
· 분쟁 해결, 재발 방지
· 협력 네트워크, CP 활동 평가

**DETECTION 감지**
공정거래 리스크 모니터링
· 상시 모니터링
· 준법 리스크 점검
· 현업 부서 자가 점검

포스코그룹 공정거래 CP 9대 전략

①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 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규제 관련 업무지침 · 해외법인 공정거래 준수지침	②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CEO 메시지를 통해 공정거래 준수 의지 표명 · 매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 실시	③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이사회(ESG위원회) 결의에 의거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④ 자율준수 편람 제작 및 활용 · 대기업집단·비즈니스 부문별 자율준수 편람 주기적 개정·배포	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 · 현업 부서 공정거래 정기교육 실시 · 임원, 직책자, 신규직원 등 계층별 공정거래 교육 실시 · e-러닝 과정 운영	⑥ 내부 감시 체계 구축 · CP 운영현황 이사회(ESG위원회) 보고 · 공정거래 상담/신고센터 운영 · 공정거래 상담 및 취약 부문 테마별 실태 점검
⑦ 법 위반 임직원 제재 · 위법행위 경중에 따른 처벌규정 운영 ·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치 및 재발 방지 시행	⑧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 자체 CP 효과성 평가 및 개선활동 · 공정거래위원회 CP 등급평가 참여	⑨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 공정거래 관련 현업 부서장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STRATEGY

임직원 교육

윤리

실천서약 및 교육

포스코그룹은 윤리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와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글로벌 전 사업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서약을 받고, 정기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 윤리서약: 국내 및 해외 전 임직원 대상 전자 서약 추진(계약직 포함, 매년 1월)
- 윤리교육: 국내 및 해외 전 임직원 대상 윤리 교육 의무화(계약직 포함, 연 1회)

임직원 윤리 실천 프로그램 운영 현황



온라인 프로그램

- e-필수교육: 포스코그룹 윤리경영의 이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예방(계약직 포함, 전 직원 수료)
- GIH(Global Information Hub) 시스템 활용 및 사내 게시를 통한 윤리경영 캠페인 그룹 내 공유 (비윤리, 괴롭힘, 성희롱, 갑질 등)



오프라인 프로그램

- 포스코그룹 신입사원·경력사원·인턴사원 입문 교육
- 신입 직책자 및 해외법인 신입 주재원 파견 전 교육
- 해외법인·협력사 윤리 및 인권 교육
- 사업회사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윤리 교육
- 부서장 주관 조직 내 전파 교육
- 윤리경영 캠페인: 52개 사업회사 대상 그룹 차원의 윤리경영 캠페인 추진(연 12회)



윤리경영 전문성 강화

- 포스코그룹 감사인의 감사역량 Up-Skilling을 위한 정도경영아카데미 운영 (내부감사의 이해, 논리적 보고서 작성법, 감사인의 자세, 인터뷰 기법 등 감사실무와 Mind-set 과정)

컴플라이언스

그룹 전체의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위해 경영층부터 각 회사 전담조직, 지주회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과 회의를 실시합니다.

컴플라이언스 교육

과정명	대상	과정명	대상
포스코그룹 경영층 준법 교육	전 임원	계층·업무 분야별 맞춤형 준법 교육	공정거래 CP담당자, 기업집단 및 공시 담당, 현업부서 등
사업회사 담당자 대상 M&A 분쟁사례 및 법제동향 교육	그룹 법무 담당 변호사	포스코그룹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 개최	그룹 CP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
해외 IP(특허, 영업비밀) 분쟁에 대비한 IP 관리 방침 특별 교육	그룹 법무 담당 임원 및 부서장	공정거래 캠페인 활동	전 임직원
포스코그룹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간담회	그룹 CP담당 임원	공정거래 CP 편람 제작 및 배포	전 임직원

임직원 서약

포스코그룹 임직원은 매년 공정거래 및 반부패 준수에 대한 온라인 서약을 실시합니다. 서약은 국내외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9개 언어*로 진행합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튀르키예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2024년 서약 결과



공정거래 준수 서약 **30,614명** 글로벌 반부패 준수 서약 **10,209명**

RISK MANAGEMENT

윤리 리스크 진단

임직원의 윤리 실천 수준을 진단하고 비윤리 행위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 국내외 사업장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임원 및 직책자에 대한 윤리세션을 운영하고, 협력사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비윤리 및 인간 존중 위험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리스크가 감지된 경우, 추가 모니터링 및 조사를 진행합니다.

윤리진단	임원 윤리세션	직책자 윤리세션	윤리 리스크 감지 설문
	☑ 임원의 윤리경영 실천 점검 (연 1회)	☑ 직책자의 윤리 리더십 제고 (연 1회)	☑ 업무 비윤리, 인간 존중 위반(성희롱, 괴롭힘 등) 실태 점검(월 1회)

윤리 리스크 모니터링

내부감사 부서 전 직원은 비윤리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연중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중요한 사안이 발견되면 감사로 연계하고 모니터링 실적은 감사부서 직원의 KPI 항목으로도 운영됩니다.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부정·오류 등 리스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RMS(Risk Management System)를 구축하여 회사 전반의 업무에 적용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법인 체크리스트

해외법인은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려운 지리적 상황을 고려하여 그룹 차원에서 핵심 업무 체크리스트를 운영합니다. 해외법인은 자체적으로 주요 업무 분야(경영·구매·생산·설비·원료·투자·판매 등) 관리 수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리스크를 발굴하여 사고를 예방합니다. 각 사업 회사의 내부감사 부서는 핵심 업무 체크리스트 결과를 주기적으로 감사하며, 필요한 경우 해외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실사를 진행합니다.

해외법인 핵심업무 체크리스트 주요 점검 사항	
	
기준 반영 여부	운영 여부
☑ 제·개정된 본사 규정 해외법인 전파 여부	☑ 수행 주체, 주기, 관리 방안 등 프로세스 준수 여부
☑ 해외법인의 제·개정 체크리스트 적용 여부 등	☑ 정례점검 시 제출한 산출물의 적정성 검토 등

컴플라이언스 점검

포스코홀딩스는 연 1회 전 부서를 대상으로 준법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법 위반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체크리스트는 영업비밀, 배임·수증, 뇌물, 불공정거래행위, 개인정보, 비정규직 등 전 부서 공통 이슈와 세법, 주주총회(재무 IR본부), 인사노무(경영지원본부) 등 부서별 개별 이슈 점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필요 시 주요 법무 이슈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RISK MANAGEMENT

공정거래 CP 위험성 평가

포스코홀딩스는 2022년 지주회사 출범에 따라 공정거래 CP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비즈니스 중요도와 이해관계자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지주회사 행위제한 및 기업집단 규제’가 중점 관리 항목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 테마별 부서별 맞춤형 준법 코칭과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리스크를 예방합니다.



METRICS AND TARGET



핵심이슈 ⑥

ENVIRONMENTAL
MANAGEMENT

환경 관리

GOVERNANCE

이사회

포스코홀딩스 이사회는 매년 12월 중기 경영전략 및 차년도 경영계획을 보고받고 의결합니다. 해당 보고에는 대가·물·폐기물·토지·화학물질 등 환경 관련 주요 추진계획과 탄소중립 및 환경 예산(투자비·비용) 실적 및 계획이 포함됩니다.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는 환경 및 탄소 관리체계 강화 내용을 매 분기별로 보고합니다.

환경 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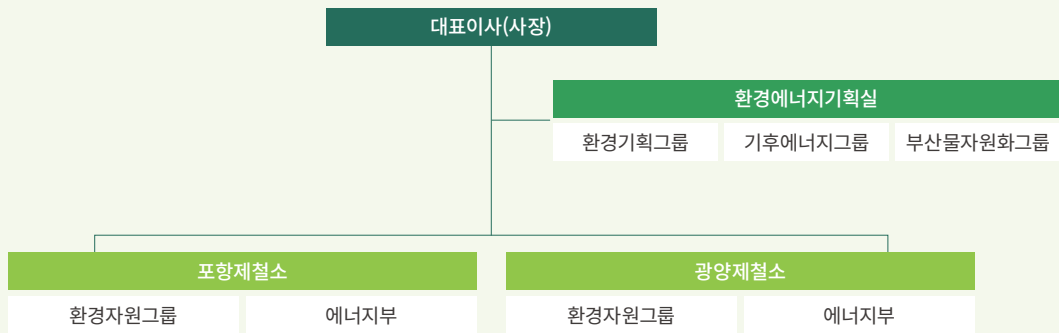
포스코홀딩스는 지주회사로서 국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생산 설비는 없지만 일부 연구 시설을 운영합니다. 미래기술연구원 그룹기술전략실 내에 환경 인허가 및 환경 감시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그룹 ESG 협의회와 포스코홀딩스 이사회 ESG 위원회는 사업회사의 주요 환경 투자, 개선 실적 및 현안을 보고받습니다. 각 사업회사는 환경 전담조직을 통해 업 특성에 맞는 환경관리를 추진합니다.

포스코 환경 업무는 사장 직속 환경에너지기획실과 제철소 산하 환경자원그룹, 에너지부가 공동 수행합니다. 환경 관리 현황 및 위험 관리 내역은 대표이사 사장 주관의 회사운영회의의 정기 안건으로 매월 보고됩니다. 환경에너지기획실은 매년 환경 분야의 중기 경영전략 및 기술전략을 수립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환경자원그룹은 제철소 환경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인허가 주관, 배출방지시설 점검, 화학물질 교육실적 관리,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 등을 담당합니다. 에너지부는 제철소 내 부생가스, 전력, 용수, 수소 등 안정적 에너지 공급 설비 관리를 최적화합니다. 발전설비 효율 향상, 부생가스 최대 회수, 조업공장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해 외부 구입 에너지 절감을 추진합니다.

환경자문위원회

포스코는 제철소 주변 환경 영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환경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는 사내외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됩니다. 2024년에는 분기별로 1회씩 총 4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권역 환경보건센터 역할, 환경보건정책 방향 등 환경부 정책 동향을 주제로 논의하였습니다.

포스코 환경 관리 조직도



STRATEGY

정책

포스코그룹은 그룹 차원의 환경 정책📌을 선언하였습니다. 각 사업회사는 업 특성에 따라 자체 환경 경영 방침을 운영합니다. 해당 정책은 기후변화, 대기, 수자원, 폐기물, 생물다양성 등 환경 전반의 영향 최소화, 감시 및 자연환경 복원 노력을 명시합니다.

ISO 14001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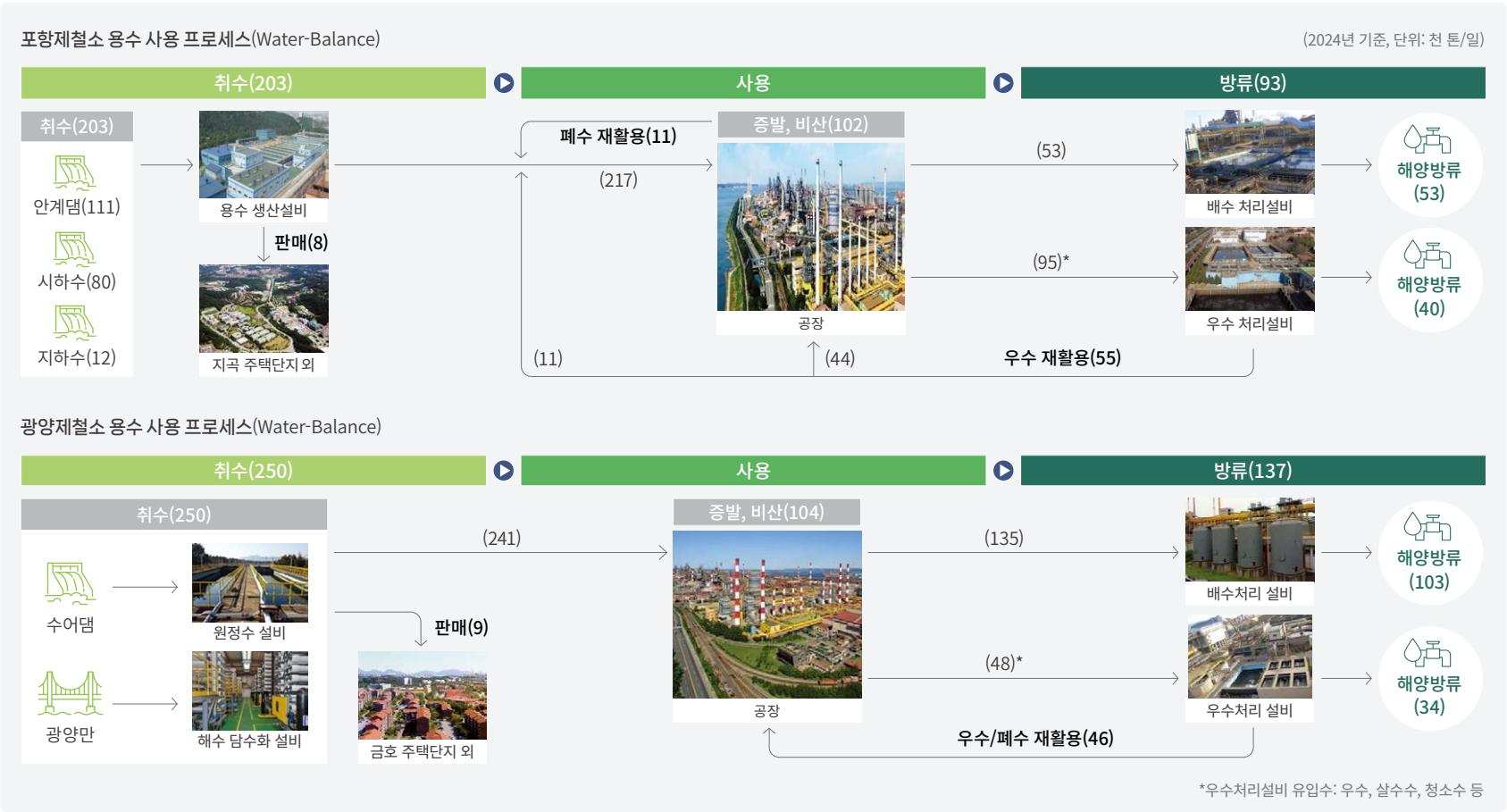
포스코의 주요 사업장은 환경 관리 국제 표준인 ISO 14001과 ISO 50001 인증을 획득하고, 매년 적격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 부서가 주관하는 개별 부서 단위의 자체 내부 심사와 함께, 외부 전문 인증기관의 사후 관리 및 재인증 심사를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이러한 심사 결과는 최고 경영층에 보고되며, 이를 바탕으로 환경 전략 및 목표를 보완하여 효율적인 환경 경영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포스코는 용수관리 최적화 및 재활용 확대 등을 통해 물 부족 리스크 최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제철소 주변 해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류수 수질을 엄격히 관리합니다. 포스코는 제철소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시스템을 통해 용수 원별 용수 취수량을 포함한 에너지 수급 현황을 실시간 관리하며, 매월 공장별 용수 사용량을 모니터링합니다.

CDP Water Security 평가

포스코는 2016년부터 물 정보 공개 프로젝트인 CDP Water Security 평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 평가에서 리더십 등급인 Leadership A-를 획득하였습니다.



STRATEGY

용수 절감

포스코는 환경정책을 통해 용수를 포함한 자원사용을 최소화하고 폐수를 포함한 환경관리를 통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포항제철소는 WRI(Water Resources Institute) 기준 Water Stress(물 부족) 20~40%의 Medium High 이하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2023년 8월부터 광양제철소가 Water Stress 40~80%의 High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위 공장 수처리설비 배출수 중 수질이 양호한 폐수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배수종말 처리수와 같은 최종 방류수를 RO(역삼투, Reverse Osmosis) 처리하여 도로, 야드 살수수가 아닌 공업용수로 재활용하는 연구과제를 진행하여 용수 취수 절감 및 재활용 증대로 Water Stress에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표수, 지하수 사용을 줄이기 위해 포항제철소는 2015년부터 하수처리 재이용수를 활용하여 하루 8만톤의 Fresh Water 사용을 저감하고, 광양제철소는 2014년 해수 담수화 시설에서 해수 담수화 용수를 생산하여 최대 하루 3만톤의 Fresh Water 사용을 저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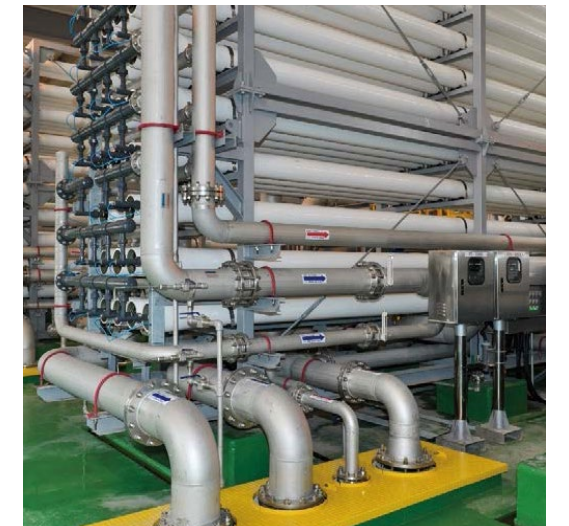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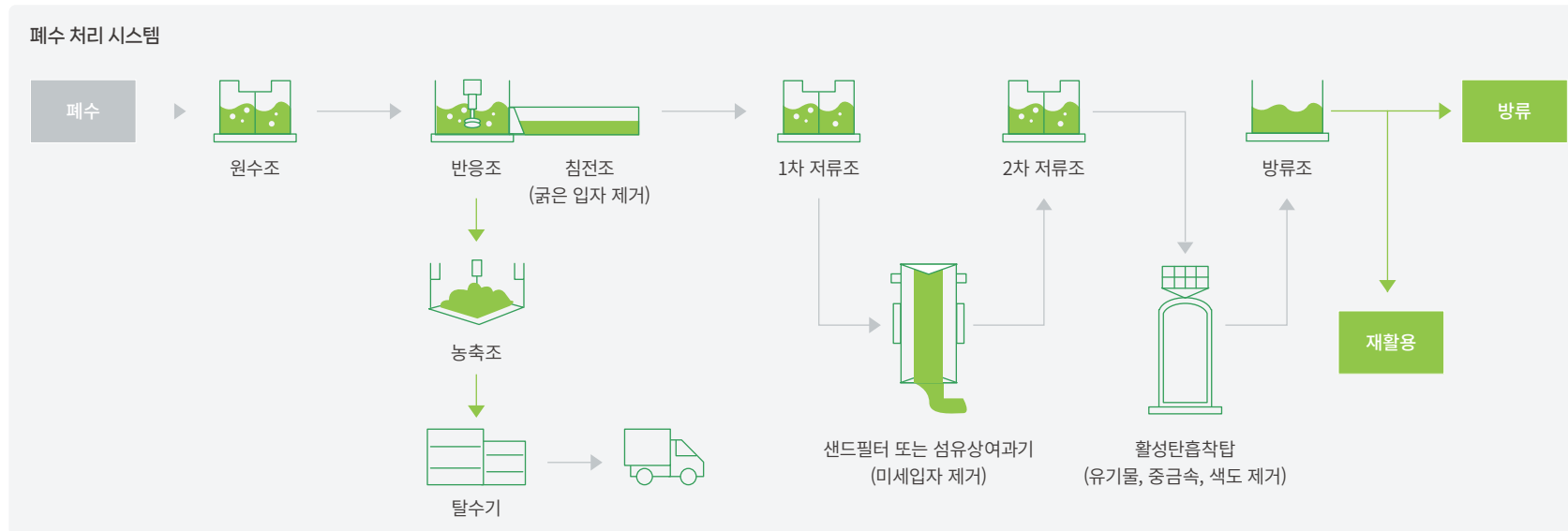
폐수 관리 및 재활용

제철소 폐수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냉각수, 빗물, 야드·도로 살수 등 재활용이 가능한 용수를 우수처리 시설로 집수·처리 후 사용하는 등 용수 재활용 최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24년 포스코는 19% 수준을 재사용해 지역사회 물 부족 리스크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수는 엄격한 배수종말 처리를 통해 방류합니다. 제철소 내 각 공장에서 1차(물리/화학) 처리된 폐수와 유기물질 함유로 2차(생물학적) 처리 등의 과정을 거친 폐수는 폐수종말 처리시설에서 최종 처리하며, 최종 방류수의 SS, TOC, T-N 등 주요 오염 물질 배출농도는 법 기준 보다 강화된 자체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수 담수화 설비

포스코는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를 취수하여 전처리, 역삼투 공정을 거쳐 용수를 생산합니다. 우선 발전소 복수기 냉각수의 온배수인 20~30°C의 해수를 취수한 후, 가압부상조(DAF), 한외여과(UF)와 같은 입자성 물질을 전처리하는 공정을 거칩니다. 이후 고압 펌프를 활용한 역삼투(SWRO+BWRO) 공정을 거쳐 해수의 이온성물질을 제거해 용수를 생산합니다.

광양제철소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는 용수 취수량 절감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도모합니다. 최대 하루 3만 톤의 해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여 담용수와 같은 수자원을 대체합니다. 또한 일반 해수가 아닌 온배수를 취수함으로써 필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고압펌프의 압력에너지를 회수하는 ERD(에너지 회수 장치, Energy Recovery Device) 설비를 통해 압력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광양제철소 해수 담수화 설비

STRATEGY

화학물질

포스코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

포스코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직원들에게는 화학사고 대응 교육 및 안전교육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 제철소 내 화학물질 관리 주관부서를 설치하고, 화학물질 관리자를 각각 50명 이상 선임하여 책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수 방재차량과 전문 인력이 배치된 안전방재센터의 운영을 통해 조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기적인 민관합동훈련 및 자위소방훈련으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화학안전을 위한 화학안전공동체 대표기업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 화학안전 지원 및 지자체 화학안전위원회 위원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관리시스템

포스코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제조·수입 화학물질 중 연간 취급량 100톤 이상 화학물질은 등록 완료했으며, 연간 취급량 100톤 미만 화학물질도 법정 기한에 맞춰 등록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포스코의 각 제철소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운반, 사용, 폐기를 위한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합니다. 2016년부터 제철소 상황에 맞춰 화학물질 운반 차량에 위치추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기준을 준수하며, 누출 감지 시스템을 포함한 시설 개선으로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

생산 제품별 환경유해물질 성적서를 발급하고 전자거래시스템(e-Sales)을 통해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합니다.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퓨처엠은 이차전지 소재, 첨단화학 소재, 산업기초 소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 체계를 운영합니다. 국제적 규제 및 기준, 이니셔티브를 준수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사업장별 유해물질 정보를 통합적으로 운영합니다. 또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s)를 비치하여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이해관계자들이 관련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화학물질 안전 관리

포스코퓨처엠은 2024년 사내 화학물질 구매 프로세스를 강화하여 전 화학물질을 구매 단계에서부터 화학물질의 성분 및 농도를 확인함으로써 취급 전에 관련 법규의 만족 여부,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추후에는 자동검토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험 발생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 후, 필요 시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하거나 중장기 개선 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각 사업장별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준수, 보호장구 착용, 자체점검, 수급인의 관리감독, 취급시설의 안전확보와 위해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 등 직무를 부여하여 안전한 취급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 포함 양극재 공장(연 1회), 포함 음극재 공장(연 1회), 광양 양극재 공장(반기 1회)

유해물질 관리

포스코퓨처엠은 생산하는 제품 내 유해물질 함유여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에 따른 RoHS 물질 10종에 대한 농도 분석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수행합니다. 또한, 유럽에서 사용 금지 예정인 과불화화합물(PFAS) 및 제품 내 불소 포함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EU REACH에 따른 고위험성우려물질(SVHC) 211종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사업장별 발생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누출, 화재·폭발 시나리오를 선정 및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합니다.

STRATEGY

폐기물 관리

포스코그룹은 폐기되는 자원을 최소화하고자 자원순환 목표를 관리합니다. 그룹 사업 내 업 특성상 폐기물이 발생하는 철강부문 포스코와 이차전지소재부문 포스코퓨처엠의 노력을 보고합니다.

포스코

포스코는 폐기물의 발생 단계에서 최종 폐기까지의 과정을 폐기물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관리합니다. 지침에는 작업범위, 조직 및 책임권한, 관련용어 정의, 폐기물 발생 시 업무 절차 등을 포함합니다.

지정폐기물(유해폐기물) 최소화

대한민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됩니다. 포스코가 취급하는 지정 폐기물 처리 내역은 모두 환경부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서 관리하고, 2024년 모든 지정폐기물을 유출사고 없이 적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정폐기물 배출 감축 노력을 통해 2017년 총 폐기물 중 1.47%였던 지정폐기물의 비율은 2024년 기준 0.53%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순환

제철소 총 폐기물 발생량의 75% 이상은 슬래그이며, 이는 고로슬래그와 제강슬래그로 구분됩니다.

(1) 고로슬래그 재활용 고로슬래그는 고로 쇳물 생산 과정에서 생성된 암석 형질 부산물로, 주로 수재슬래그 형태로 시멘트 원료 대체재로 활용됩니다. 포스코는 수재슬래그 함량을 최대 58%까지 높인 포스멘트(PosMent)를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및 포스코이앤씨와 공동 개발하여 부산물 자원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수재슬래그는 규산질 비료 원료로 활용되어 벼 생장 촉진, 쌀 품질 향상에 도움을 주며, 메탄 생성균 활동을 억제하여 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약 14% 저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포스코는 국내 대학과 협력하여 규산질 비료 투입량에 따른 메탄 저감 효과를 정량화하였으며, 2022년 1월 해당 결과가 국가 고유 온실가스 보정계수로 승인, 2024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 저탄소 농업기술로 인정받았습니다.

(2) 제강슬래그 재활용 제강슬래그는 제강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파쇄 후 자력선별을 통해 유가자원인 철(Fe)을 회수하여 철강 공정에 재사용합니다. 잔여 슬래그는 천연 암석 성분과 유사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건설재료로 활용됩니다. 제강슬래그는 침출수 발생 영향이 적어 아스팔트 도로포장용 골재로 적합하며, 천연골재 대비 약 2.2배 긴 도로 수명, 미세먼지 발생량도 저감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퓨처엠은 폐기물 발생 시 성분 분석 및 용출시험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폐기물 분류 및 처리 방법을 검토합니다. 사외 처리 시 운반 및 처리업체의 수탁 처리 능력을 확인하고 올바르게 시스템을 통해 폐기물의 최종 처리 과정을 모니터링합니다.

전체 환경 비용 중 56%에 달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폐기물 발생 저감, 처리 비용 절감, 부산물 가치 향상을 통한 수익성 향상을 핵심 목표로 삼고 부산물 자원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포스코퓨처엠은 2025년 99.2%, 2026년 99.0%, 2027년 99.0%라는 폐기물 재활용률 목표를 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폐내화물 순환 시스템 구축

포스코퓨처엠이 생산하는 내화물은 고온에서도 화학적 성질과 강도를 유지하는 특성으로 인해 제철소, 석유화학 플랜트, 발전소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는 필수 소재입니다. 고로(용광로) 한 기를 해체할 때마다 평균 1만 톤의 폐내화물이 발생하며 포스코퓨처엠은 이를 재활용하여 시멘트 부원료, 주물사, 복토재 등으로 활용하는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2024년 기준 공사용 폐내화물의 재활용 비율은 100%에 달하며 향후 재생 내화원료의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자원순환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차전지 부산물 자원화

양극재 공정에서 발생하는 망초 부산물은 판매처를 다변화하여 안정적인 판매 구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포항 음극재 공장 분진의 경제성과 고효율 가치를 증명하여 순환경제사회법 제21조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을 획득하여 향후 폐기물 운반 비용 절감과 함께 수익 창출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토양

포스코그룹은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신고하고 정기적으로 토양 오염도에 대한 검사를 수행합니다.

STRATEGY

대기

포스코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환경규제를 준수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관리 지표로 선정하여 목표 및 세부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안정적인 배출 농도 관리를 위해 강화된 사내 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배출 농도를 관리하고, 환경관제실을 통해 24시간 환경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환경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측정 결과를 전광판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공유합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 설비 도입

소결공장 중조 투입 및 활성탄 흡착을 통한 황산화물 제거설비를 운영 중이고, 소결, 발전 등 주요 질소산화물 배출원에는 선택적 촉매/비촉매 환원 기술을 활용한 탈질 설비(SCR¹⁾, SNCR²⁾) 설치, 먼지 발생 최소화화를 위한 1,500여기의 집진기 설치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합니다. 2022년부터 고로 후풍-재송풍 시 잔류가스를 2단의 집진설비로 처리하는 집진브리더를 제철소 내 모든 고로 8기(포항 3, 광양 5)에 설치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있습니다.

1) 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2) SNCR: Selective Non-Catalytic Reduction

비산먼지 저감

원료 야드 단계적 밀폐화를 추진하는 한편, 복포, 살수, 표면경화제 살포 등의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강화하여 운영합니다.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4개월간(12월~ 3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자발적 협약을 2019년 12월에 정부와 체결하였고, 환경부로부터 계절관리제 이전 대비 매년 강화된 감축목표를 부여받아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의 가동율 및 효율 향상 등의 노력을 통해 이를 준수하였습니다. 특히, 제5차 계절관리제 이행기간(2023년 12월~2024년 3월)에 대해서는 광양제철소가 남부권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아 자발적 협약 이행 평가 최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제철소 향만 이송장비 배기가스 저감

포스코폴로우는 제품 이송을 위한 ET¹⁾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파트너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EURO6²⁾ 엔진을 장착한 ET 차량 1대 도입을 시작으로, 2023년 3대, 2024년 1대를 추가 도입하여 총 5대의 ET 차량을 운영 중입니다.

1) Elevating Transporter: 한 번에 약 100톤의 철강 제품을 이송할 수 있는 대형 차량
2) 유럽연합(EU)이 도입한 경유차량 배기가스 규제단계의 명칭

선박 탈황설비 설치

선박 연료유 사용에 따른 국제해사기구(IMO^{*})의 연료유 황산화물 함유량 규제 강화에 선제 대응하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선사와 공동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까지 24척의 철강 원료 수송 선박에 탈황설비 도입을 완료하였습니다.

*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선박 기인 환경오염 방지 등을 책임지는 UN 전문기구

환경교육

포스코는 현장 주도형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유관부서별 특성과 직무를 반영한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024년 포스코 환경교육 현황

활동 내역	대상	교육실적
ISO 14001 내부심사원, 실무자 양성과정	부서별 담당자	5월(총 134명)
조업부서 대상 환경교육	조업부서 리더·공장장 및 환경전담인력	2월, 4월, 9월(총 408명)
정비부서 대상 환경교육	정비부서 파트장·주임급	6월(총 372명)
투자부서 대상 환경교육	투자부서 담당자	11월(총 165명)
환경부서 대상 환경교육	환경 주관부서 담당자	12월(총 35명)
신입사원 대상 환경부문 교육	신입사원	상시

환경투자

포스코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부산물 재활용 확대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6년간(2019년~2024년) 굴뚝자동측정기(TMS), 질소산화물/황화합물 저감설비 도입, 집진설비 개선 등 약 2조 2,69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포스코 환경투자 실적(2019~2024년)

(단위: 억원)

구분	주요내용	집행 실적
대기 환경개선	· 소결, 발전, 압연 지역 등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탈질설비(SCR, SNCR) 신설 및 개선 · 집진기 능력 증대, 열화 개소 개선 및 굴뚝자동측정기(TMS) 구축 등	19,941
수질 환경개선	· 오폐수 처리시설 개선 및 비점오염 저감 시설 설치 · 폐수처리설비(BET) 능력 증대 투자 등	2,240
부산물 자원화	· 슬래그, 더스트, 슬러지 등의 재활용 설비 처리능력 증대 투자 · 부산물 보관장 신설 및 증설 등	219
기타(화학물질, 토양 등)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강화 투자(확산 방지시설, 경보설비 등)	294
합계		22,694

RISK MANAGEMENT

환경 리스크 관리

포스코는 급변하는 시장 상황과 국내외 환경 규제 및 이슈를 리스크이자 기회 요인으로 식별하고, 이들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중장기 사업 전략과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규제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잠재적 사업 리스크를 사전에 규명하고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합리적인 정책 발전을 도모합니다. 또한, 신규 사업 추진 시에는 환경에 미치는 요소와 그 영향도를 파악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환경 주관 부서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환경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철소 운영회의 및 주요 경영층 정례 보고를 통해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합니다. 각 제철소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일 환경 순찰을 실시하며 환경 리스크 대응에 힘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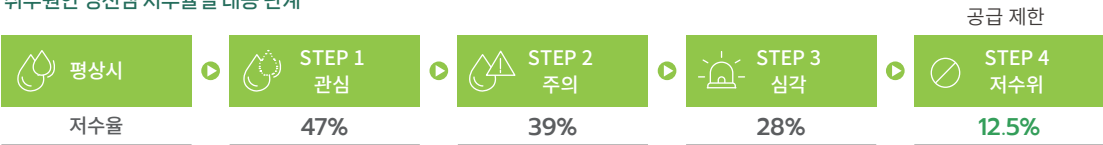
용수 리스크 관리

포스코는 매년 사업장이 물 스트레스 또는 물 리스크 지역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자원 리스크를 세분화하여 물 스트레스가 높은 지역과 취수량이 많은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포항제철소(Water Stress: Medium High)

포항제철소가 위치한 포항은 Water Stress Medium High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많은 취수량으로 인해 수자원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취수원인 영천댐 저수율별 대응 단계



용수 공급 부족 시 비상대응 체계

영천댐 저수율 상향별 용수 대체 공급 및 사용량 저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저수율	대응 방안
28% 이하 가뭄 ‘심각’ 단계	· 공장 수압밸브 조절 및 용수 공급 점진적 감량 · 제철소 생활용수 절감활동 전개 · 냉각수 Blow Down 저감 및 담수 재활용수 대체
12.5% 이하 ‘저수위 공급제한’ 단계	· 설비별 용수 공급량 조절을 통한 저감 · 댐용수 부족분에 대해 대체 수자원 공급(한국수자원공사 협조)

광양제철소(Water Stress: Hig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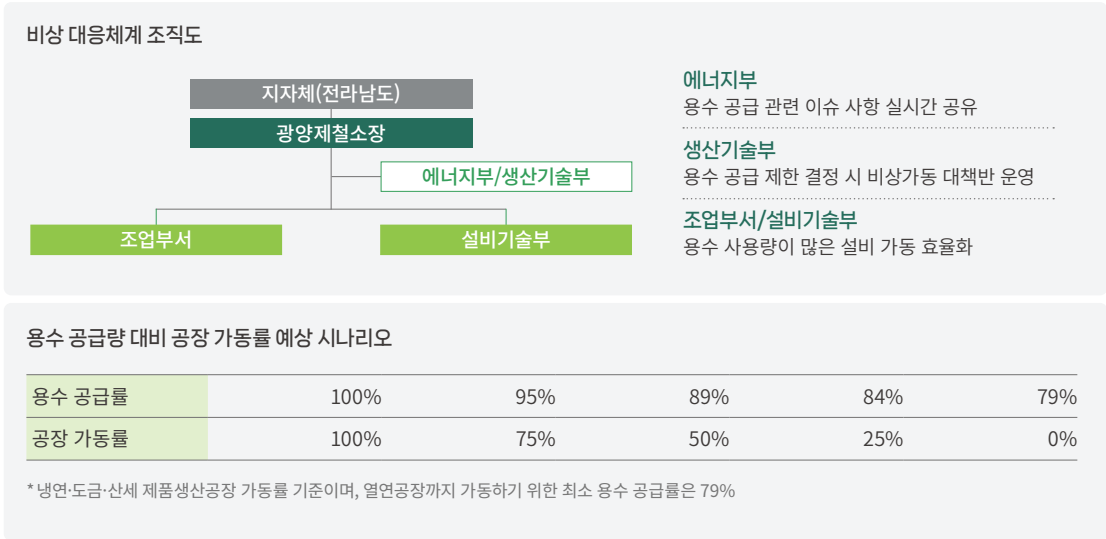
2023년 세계자원연구소(WRI)의 물 부족 분석 결과, 2023년 8월부터 광양 지역이 '높음(High)' 수준의 물 스트레스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포스코는 물 부족으로 인한 공장 가동률 감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용수 공급 제한 시의 비상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상 분석

- 365일 연속 공정으로 가동되는 제철 공정 특성상, 고온 물질을 다루는 용광로, 전로 등 핵심 공정의 가동 정지 상황에 대비 필요
- 정상 용수 공급량 대비 5% 이상 제약 발생 시, 최종 제품생산 공장의 단계적 가동률 축소를 통한 철강재 공급 차질 예상

용수 공급 부족 시 비상대응 체계

- 용수 공급량 대비 공장 가동률 예상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따라 용수 공급률이 10% 미만으로 내려가는 경우 해수 담수화 설비를 최대 생산체제(3만 톤/일)로 전환하고 담수를 저장하는 저수지(water reservoir, 26만 톤)에 담수를 최대로 확보하는 등 단계별 비상대응 방안을 수립



비상상황에 대비한 용수절감 계획을 수립

- 가뭄 등 비상상황 시 해수 담수화 설비 최대 가동(2만톤/일 → 3만톤/일)
- 단위공장 수처리설비 처리수의 내부 순환 재이용 물량 극대화 연구과제
- 배수 종말 처리수 재이용 물량 연구과제

RISK MANAGEMENT

노사 합동 커미티

포스코는 공장장, 관리자, 직원 대의기구, 협력사 관리감독자, 직원이 참여하는 정기 협의체를 운영하여 환경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2024년 운영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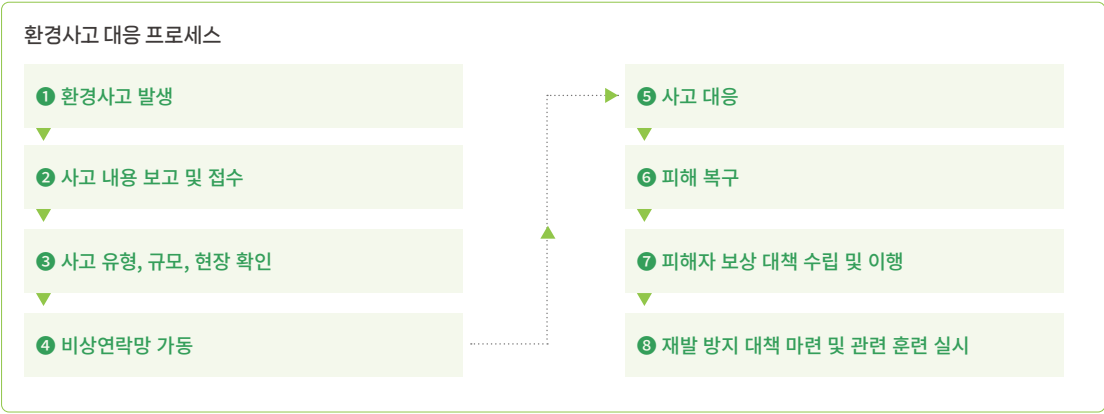
격주 단위 환경 이슈 공유 총 23건 배포

통합환경관리인 제도

포스코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통합 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매체별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통합환경관리인은 제철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며, 분야별 법규 준수를 감독합니다. 또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처리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감시하고 효과적인 관리 전략을 수립합니다. 환경 관련 법규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으며 최신 기준을 제철소 운영에 적용합니다.

환경사고 대응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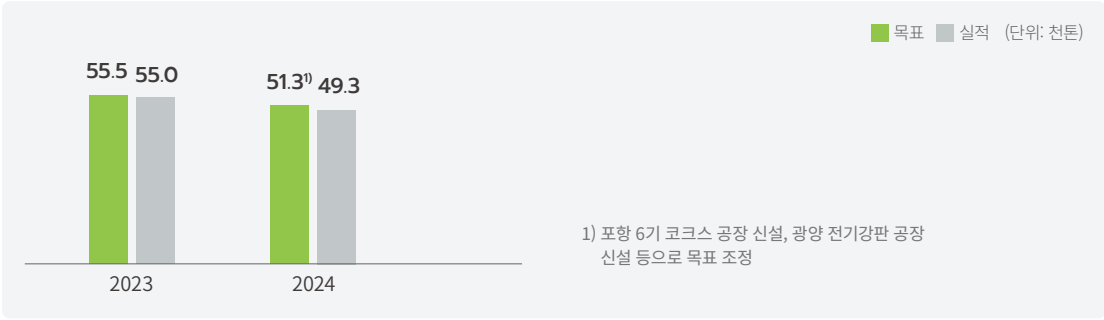
업 특성상 폐기물 및 화학물질유출 등 환경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포스코퓨처엠은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본사 및 각 사업장은 비상 대응 조직과 연락 체계를 운영하며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전 임직원이 숙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사고 대응을 위한 부서별 모의 비상대응 훈련을 정기적으로 처리하고 각 사업장에서는 발생가능성이 높은 환경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METRICS AND TARGET

포스코

대기배출총량 목표 및 실적



TMS 설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 3에 의거, 전년도 배출량이 NOx 또는 SOx 3톤 초과, 먼지 0.15톤을 초과하는 배출구를 대상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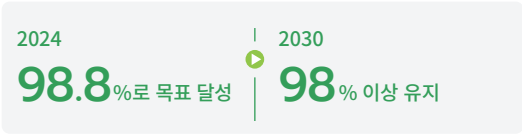
TMS 설치 현황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목표
105개	245개	246개	300개	318개

* 대기 TMS 설치 계획은 투자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됨

폐기물 재활용율 목표

2024년 부산물 발생량과 재활용량은 각각 20,204천 톤과 19,951천 톤으로, 자원화율은 98.8%를 달성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부산물 자원화율 98%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포스코퓨처엠

폐기물 재활용율 목표



핵심이슈 7

TALENT DEVELOPMENT

인재육성

GOVERNANCE

거버넌스

포스코홀딩스는 CEO 산하에 경영지원본부를 두어 인재 육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은 포스코그룹 인재 육성·관리의 총괄 책임자로서 주요 사안을 검토·승인하고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경영지원본부는 포스코그룹의 조직 문화, 임원 인사, 직원 인사 담당 조직으로 분리 운영되며, 각 부서에는 포스코그룹 내 인사관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배치합니다. 인재개발 및 교육, 성과보상 체계, 노사관계, 직원 건강과 안전 등 인재경영 관련 주요 사안은 경영진에게 수시 보고되며, 주요 의사결정 시 고려 요소로 반영됩니다. 포스코그룹은 직원의 고용안정을 중시하며, 비정규직 고용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러한 인재 경영 체계를 바탕으로 인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고자 노력합니다.

인사관리 조직도



STRATEGY

핵심인재 영입

포스코그룹은 미래기술 분야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핵심 인재 채용 로드맵을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대학 연구실(Target Lab)과 주기적으로 교류하며, 산학연 장학생 제도 등을 통해 당사의 R&D 전략에 적합한 맞춤형 인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미래기술포럼, 인공지능의 날(AI Day) 등 R&D 전략을 공유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미래기술연구원을 홍보하고 중장기적인 인재 확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

포스코그룹은 채용, 평가, 승진 등 모든 인사 절차에서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채용 관련 체계적 면접 방법과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구조적 면접기법(Structured Interview)을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지원자의 성별, 연령, 출신 등에 관계없이 직무 역량과 조직문화·인재상 부합 여부만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인재를 선발합니다. 인사평가 시 평가자와 피평가자 전원이 ‘공정평가 서약’을 합니다. 직책자가 일반 직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과 방법을 주기적으로 교육하며, 평가 종료 후 공정성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직원들이 승진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1년 전 최소 자격 요건 및 가점 사항 등을 안내하는 승진 안내문을 게시하여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평가제도

포스코홀딩스는 개개인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직원 간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절대평가 제도를 운영합니다.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서의 업무 추진 계획과 개인 목표를 연계한 목표 기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평가는 성과관리 면담을 필수로 진행하며, 직책자의 리더십과 업무 방식을 점검하기 위해 다면평가를 실시합니다. 또한 업무 성격에 따라 원 소속 평가자 외 협업 부서의 평가 결과를 일부 반영하는 매트릭스 평가 방식도 적용합니다.

보상제도

포스코홀딩스는 성별과 나이, 장애유무, 국적 등과 무관하게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과 기반의 차별적 보상 제도를 운영하며, 우수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공적에 따라 다양한 포상을 수여합니다.

연봉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 강화를 위해 매년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연봉 인상을 결정	모범사원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회사생활에 모범이 되는 직원을 선발하여 포상
경영성과금 배분	회사 공동의 경영성과를 전 직원에게 배분	재량 포상	업무 관련 공적이 있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그룹·부서 포상
포스코 대상	재무성과 창출, 신기술 개발, 성장동력 확보 등을 통해 회사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직원을 포상		

STRATEGY

인재 육성

포스코그룹은 그룹 전략과 임직원의 학습 수요에 부합하는 전략적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여 최고경영층, 사업회사 HR/D 임원 및 담당자, 학습자 의견을 정기 수렴하고, 장기 학습 여정(Learning Journey)을 설계·운영합니다. 리더십 중점 과정과 핵심 인재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후에도 6개월 이상 실무 적용 관리를 통해 교육 효과성을 극대화합니다. AI 교육 플랫폼기반 개인별 맞춤형 학습 큐레이션과 튜터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육 프로그램 효과 측정

교육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운영합니다. 교육 반응, 성취도, 현업 적용도, 경영 기여도 등 각 단계별 평가 지표를 표준화하여 정량적으로 관리하며, 그룹 전략 달성 기여도 및 현업 과제 수행에 대한 정성적 성과도 함께 평가합니다. 선제적 교육 수요 파악 및 프로그램 지속 개선을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교육

리더십 역량을 갖춘 조직 구성원 양성을 위해 계층별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입사원과 주니어의 성장 비전 제고(20과정, 5,551명), 임원 및 직책자 리더십 향상(15과정, 1,813명), 현장 직책자 조직관리 역량 강화(2과정, 5,587명), 핵심인재 경영역량 강화(4과정, 78명) 등 구성원의 생애주기별 성장 단계에 맞춘 교육을 추진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교육 후 리더십 행동 지표 및 실행 계획에 대한 피드백과 실천 점검을 통해 조직 내 실질적 변화를 유도합니다.

직무 전환 교육

급변하는 업무 환경과 직무 전환 대응을 위해 기술 재교육(Re-Skilling)을 제공합니다. 사업 및 일하는 방식 변화에 맞춰 수준·직무별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14과정, 3,119명)을 실시합니다. 직무별 맞춤형 인공지능(AI) 과정을 통해 실무 활용 역량 향상, 직무 전환 대응 및 업무 스킬 향상을 지원합니다. 사무 직무 업스킬링 과정(8과정, 265명)은 마케팅, 구매, 재무, 경영 기획, 투자, 인사(HR), 정도경영, 홍보 등 분야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실무 중심 트레이닝으로 구성되어 신규 직무에 대한 빠른 적응을 도와줍니다. 신설 이차전지소재사를 대상으로 3단계 수준별 아카데미(228명)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체계적 성장을 지원합니다. 해외 파견 주재원 대상 부임 전·부임 중 주재원 양성과정(60명), 글로벌 직무 스쿨(115명)을 운영하며, 현지 문화 및 경영환경 교육을 제공합니다. 주재 기간 중에도 원격 학습을 통해 지속적 역량 개발을 지원합니다.

해외법인 우수 인재 양성

포스코그룹은 전 세계 해외법인의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Global P.A.L.*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글로벌 모범직원이 한국 본사를 방문해 그룹의 사업 전 반과 한국 문화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상호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4년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 14개 국가에서 선발된 우수 직원 9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Pride(우수인재로서 자부심), Appreciation(지금까지 포스코그룹에 대한 모범사원의 헌신에 감사), Loyalty(포스코그룹 일원으로서 소속감)를 의미함

전문가 양성

석·박사 학위 지원



미래 성장을 이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매년 다양한 학위 과정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위 과정은 사내 공모를 통해 선발하며, 최소 자격 요건을 충족한 모든 직원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과정: 포스텍 석·박사, 국내외 MBA, 직무 분야 관련 석사, 해외 연구, 국내 대학 학사 편입 등

전문학위 과정



2014년 포스코기술대학을 설립하여 현장 직원의 자기개발과 평생학습을 지원합니다. 정부 공식 인가를 받은 정규 전문대학으로, 학위 수여가 가능하며 교육비는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교육 대상: 포스코, 포스코퓨처엠, 포스코스틸리온, SNNC 소속 현장 핵심 인력으로서의 성장을 희망하는 직원
·교육 과정: 공업수학, 물리, 화학 등 교양 과목과 재료강도학, 기계요소설계, 제어공학 등 전공 필수 과목

포스코 명장



글로벌 최고 수준의 분야별 전문가를 생산기술직군 최고 영예인 ‘포스코 명장’으로 임명하고 각종 보상을 제공합니다.

·보상 내역: 명예의전당 영구헌액, 1직급 특별승진, 포상금 및 노하우 전수를 위한 간담회비, 기술전수 활동비 등 수당 지원, 퇴직 후 기술 컨설턴트 재채용 우대 등

전문자격증 지원 제도



포스코인재창조원이 자체 개발한 금속 및 안전 분야 기능장 6종, 기사·산업기사 7종 교육 과정은 누구나 신청·참여 가능합니다. 러닝 플랫폼에서는 MOOC(온라인 공개 수업, Massive Open Online Course) 기반 기술 강좌와 외부 전문 콘텐츠 큐레이션 등 자기 주도 학습을 지원합니다. 금속, 기계, 전기·전자, 안전·소방, 환경 등 10개 분야 총 253종에 대해 자격증 취득 시 레벨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AI 활용 전문가 과정



AI 기술 역량 확보를 위해 포스텍 인공지능연구원과 연계한 AI 전문가 과정을 운영합니다. 해당 과정은 16주간 Off-job 형태로 진행되며, 코딩 기초부터 머신러닝, 데이터마ining 등 석사 수준의 내용을 학습하고, 포스텍 교수진의 코칭 아래 현업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과제를 수행합니다.

사내 공모 제도



포스코홀딩스는 직원들의 경력개발과 자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사내공모 제도를 운영합니다. 신사업 분야 그룹 공모를 통해 새로운 분야에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고 성장 기회를 도모할 수 있으며, 포스코그룹 글로벌 사업을 선도해 나가는 해외법인 해외주재원 선발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 직원들은 사내벤처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창업을 통해 CEO후보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STRATEGY

조직 문화

포스코그룹은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조직건강도 조사를 실시해 직원 만족도를 진단합니다. 해당 조사는 업무 몰입 수준, 경영층 신뢰, 자기개발 기회, 존경과 인정 등을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며, 결과는 모든 직책자와 직원에게 공유해 조직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계약직 직원들에게도 차별없이 우리사주(ESOP)제도, 자율 근로시간 제도, 경조사 지원, 의료실손보험, 직원 및 배우자 건강검진 제도 등을 동일하게 보장합니다.

2024년 신입 CEO 취임 후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100일간 현장동행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16*건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였습니다.

* 자율복장 확대 시행, 난임 시술 무제한 지원, 구내 식당 환경 개선, 사내 어린이집 0세반 신설, 가족 배려 주차장 운영, 야간 긴급 대응팀 확대 운영 등

정서적 안정 지원

포스코홀딩스는 직원들이 직무 스트레스, 정서, 성격, 대인관계 등에 대한 심리상담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내 상담실을 운영하고, 조직 내 소통역량 향상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집단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합니다. 또한, 지역별 사 외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온라인 심리검사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양한 근로 시간 제도

포스코홀딩스는 직원 개개인의 여건과 업무 특성에 맞춰 다양한 근로시간제도를 운영합니다. 2024년부터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일환으로 ‘격주 4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는 2주간 월~목요일에 하루 1시간 씩 추가 근무해 평균 주 40시간을 충족하면 격주 금요일에 휴식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2024년 말 기준, 제도 이용 대상자인 임직원 총 493명 중 470명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점오피스 및 자율복장제도 운영

포스코그룹은 조직 구성원의 업무 효율성과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근로 시간, 장소, 복장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장거리 출퇴근 직원과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 11월 거점 오피스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서울 여의도 파크원, 경기도 포스코DX 판교 사옥, 인천 송도 포스코타워 등에서 운영 중입니다. 구성원의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수평적이고 유연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3년 7월부터는 자율복장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음 챙김 교육

임직원의 정신 건강과 정서적 안정은 업무 몰입도 및 조직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직책자 대상 마음 챙김 과정(199명), 직원 가족 대상 부부 명상캠프 과정(61명) 등 정기적인 마음 챙김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 자기이해, 감정 조절 역량을 강화하며, 전문 심리상담사와의 1:1 상담도 제공합니다.

노사관계

포스코홀딩스는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 동수로 구성된 노경협의회를 운영합니다. 분기별 정기 협의회를 통해 직원 고충 해결과 건의사항 청취는 물론 복지제도 개선과 같은 현안 이슈를 논의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합니다. 포스코그룹은 창립 이후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가는 동반자’라는 철학 아래 상생의 노사관계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주회사의 특성상 관리자 중심으로 인력을 구성하고 있어 별도의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원 직접 투표로 선출된 노경협의회를 운영합니다. 노경협의회에서는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시로 경영층에 전달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포스코홀딩스 노경협의회

- 출범: 2022년 4월 16일 - 운영: 매 분기 정기회의

- 안건: 근로자 위원은 일반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급여, 복리 후생 등을 협의하며, 안건 협의 결과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됨.

포스코그룹 내 사업장을 보유한 주요 사업회사는 헌법상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며, 포스코는 2개의 노동조합이 활동 중입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의 복수 노조가 있으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한국노총 소속의 포스코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단체교섭에 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매년 임금교섭을 통해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2년 주기로 단체교섭을 실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합니다.

포스코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취업규칙 제9조에 법정 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연근무시간제 등도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 또한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국내외 모든 사업장은 각 국가의 노조 설립 요건을 갖추면 차별 없이 누구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기준 24개 해외법인에서는 노조가 공식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없는 법인에서도 직원대의기구를 공식 운영하여 직원들이 급여, 복리후생, 차별금지 등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의견을 정기적으로 제안하고 회사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포스코 본사는 해외사업장에서 노조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3년부터 해외법인 노사 리스크 진단을 별도 시행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법인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TRATEGY

다양성 확대

포스코그룹은 그룹 내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구성원의 화합과 성장을 도모합니다.

장애인 고용 확대

2007년 대한민국 1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포스코휴먼스’를 설립하여 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포스코휴먼스는 2024년 말 기준 총 705명의 직원 중 장애인 직원 319명(중증장애 157명, 경증장애 162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장애인 고용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철탐산업훈장(포스코휴먼스)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선수와 예술가를 고용하여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선수·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 인력 확대

포스코그룹은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규칙상 직원 채용·보직·승진·급여·교육·퇴직 등 처우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상시 관리합니다. 임금체계도 직무·역할에 따른 직군별로만 구분하며,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여성 리더 양성을 위한 W-멘토링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포스코이앤씨는 다양한 계층의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성 협의체 ‘다이버(DIBE)’를 통해 사내 다양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주민 및 현지인 채용

포스코그룹은 해외사업장 운영에 있어 현지인 및 선주민 채용 우선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아르헨티나 법인은 현지인 직원 391명을 고용하고, 고지대 캠프 관리 보조, 측량 보조, 주차장 관리, 지질탐사 보조 등을 위해 선주민 23명을 고용하였습니다.

복지후생

포스코그룹은 직원의 행복 증진을 위해 일·가정의 균형과 가족 돌봄을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후생 제도를 시행합니다. 특히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국내 최고 수준의 가족친화 복지제도를 통해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는 롤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 차원의 다양한 인프라와 프로그램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포스코그룹의 철학입니다. 그 성과를 인정받아 포스코그룹 13개 사*는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자격을 획득·유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X, 포스코플로우,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포스코엔텍, 포스코와이드, 포스코MC머티리얼즈, 포스코A&C, 포스코휴먼스, 포스코경영연구원

퇴직자 지원

포스코그룹은 평생 현역시대에 대비하여 정년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퇴직 후 진로 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교육 프로그램

퇴직 예정자 및 퇴직자를 대상으로 생애 설계와 경력 전환을 지원하는 종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진로설계 워크숍, 부부 워크숍, 실행력 강화 워크숍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재무 설계, 창업·재취업 컨설팅, 생애 전환 워크숍 등의 교육 패키지를 제공합니다(2024년 기준 2,345명 참여). 귀농·귀촌, 재취업, 여가 등 개인의 희망 분야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커리어 전환 교육도 병행합니다. 퇴직 후 삶의 안정적 전환을 위해 심리적 안정, 건강관리, 가족 관계 개선 등을 지원하는 마음 챙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여 정서적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재채용 프로그램

포스코는 노사 합의에 따라, 매년 생산기술직군 정년 퇴직 인원의 70% 수준을 재고용하는 재채용 제도를 운영합니다. 재채용을 통해 선배 직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후배 직원들에게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며, 이를 통해 저근속 직원들의 성장 지원과 기술 경쟁력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는 직원들에게 재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자신의 재정 계획과 투자 성향에 맞춰 퇴직연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확정급여형(DB) 제도는 퇴직 시점의 급여 수준과 근속연수를 기반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확정기여형(DC) 제도는 직원이 선택할 경우,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고, 직원은 이를 투자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를 전환(DB형 → DC형)할 수 있습니다.

가족친화제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 결혼 축하금(2백만원) · 결혼식장 대관(서울, 송도, 포항) · 결혼 휴가(7일) · 신혼여행 지원금(2백만원)	· 난임 지원 휴가(10일), 휴직(1년) / 치료비 지원(회당 최대 1백, 최대 10회) / 재택근무(2년, 1일 8·6·4시간 중 선택) · 아기 첫만남 선물(50만 원 상품권) · 태아검진 휴가(여직원 월 1회, 남직원 3일) · 임신기 단축근무(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최대 1일 2시간 단축) · 임신기 전환형 시간선택제(임신 기간, 1일 6 또는 4시간 근무 중 선택) · 임신기 재택근무(임신 기간~출산휴가 전, 1일 8·6·4시간 중 선택) · 임신부 책걸상 지원 · 유산산 휴가(여직원 최대 90일, 배우자 3일)	· 배우자 출산지원 재택근무(임신 32주~출산 전, 1일 8·6·4시간 중 선택) · 출산 장려금(첫째 3백만원, 둘째 7백만원, 셋째 이상 천만원) · 임양지원금(6세미만 자녀 입양 시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전후휴가(최대 100일) · 배우자 출산휴가(20일, 분할 가능, 전일·반일·반반일 가능) *세쌍둥이 25일 · 3자녀 이상 직원 주택대부 무이자(사내 주택구입·임차자금 대출 시 회사가 이자 전액 지원)	· 육아물입기간 · 직장 어린이집 · 육아기 단축근무(최대 3년, 최대 1일 5시간 단축) · 육아기 전환형 시간선택제(2년, 1일 8·6·4시간 중 선택) · 육아기 재택근무(2년, 1일 8·6·4시간 중 선택) · 선택적 근로시간제(주 40시간 내 출퇴근 시간 자율 조정) · 격주4일제 *임신직원 대상, 격주4일 근무 운영 · 자녀 장학금(3자녀 이상 한도 없음) · 자녀 초등입학 선물(책가방, 도서, 학용품 중 택1)

POSCO HOLDINGS 2024

TNFD Report

생물다양성

포스코홀딩스는 국립생태원 및 포스코경영연구원과 협력하여 포스코홀딩스 연결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연자본 의존도와 생물다양성 영향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특별 보고서는 TNFD의 LEAP 프레임워크에 따라 각 사업장의 자연자본 노출도 및 영향도와 대응 역량을 진단했으며, 자연자본 관리의 필요성이 높고, 동시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인도네시아 PT.BIA 팜농장의 자연자본 관리 현황을 종합 분석하여 Book-in-Book 형태로 담았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앞으로도 TNFD 기반으로 글로벌 사업장의 자연자본 관리를 보다 정교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핵심이슈 8

BIODIVERSITY

생물다양성

TNFD REPORT

TNFD 보고

포스코홀딩스 생물다양성 정책

포스코홀딩스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회복이 지속가능한 경영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TNFD(자연자본 관련 재무정보 공개 기준,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에 대응하여, 모든 사업 활동에서 생물다양성을 고려하는 경영체계와 실행 원칙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포스코홀딩스 생물다양성 정책

TNFD 권고안 및 LEAP 접근법 적용

포스코홀딩스는 자연자본에 대한 의존과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TNFD 포럼에 가입하였고,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까지 4대 주요 사업회사도 2024년 6월까지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그룹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TNFD의 핵심 분석 프레임워크인 LEAP 접근법을 적용하여 생물다양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였습니다.

LEAP 접근법

LEAP(Locate, Evaluate, Assess, Prepare) 접근법은 기업의 사업 활동과 자연자본 간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재무적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는 TNFD 권고안의 핵심입니다.

Locate

자연자본과 접점이 있는 사업장 및 지역 식별



Evaluate

생태계서비스(자연이 경제·사회에 제공하는 다양한 편익)에 대한 의존성(Dependency)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Impact) 분석



Assess

기업의 자연자본 관련 물리적·전환 위험과 기회의 중요성 평가



Prepare

대응 전략 수립 및 정보공개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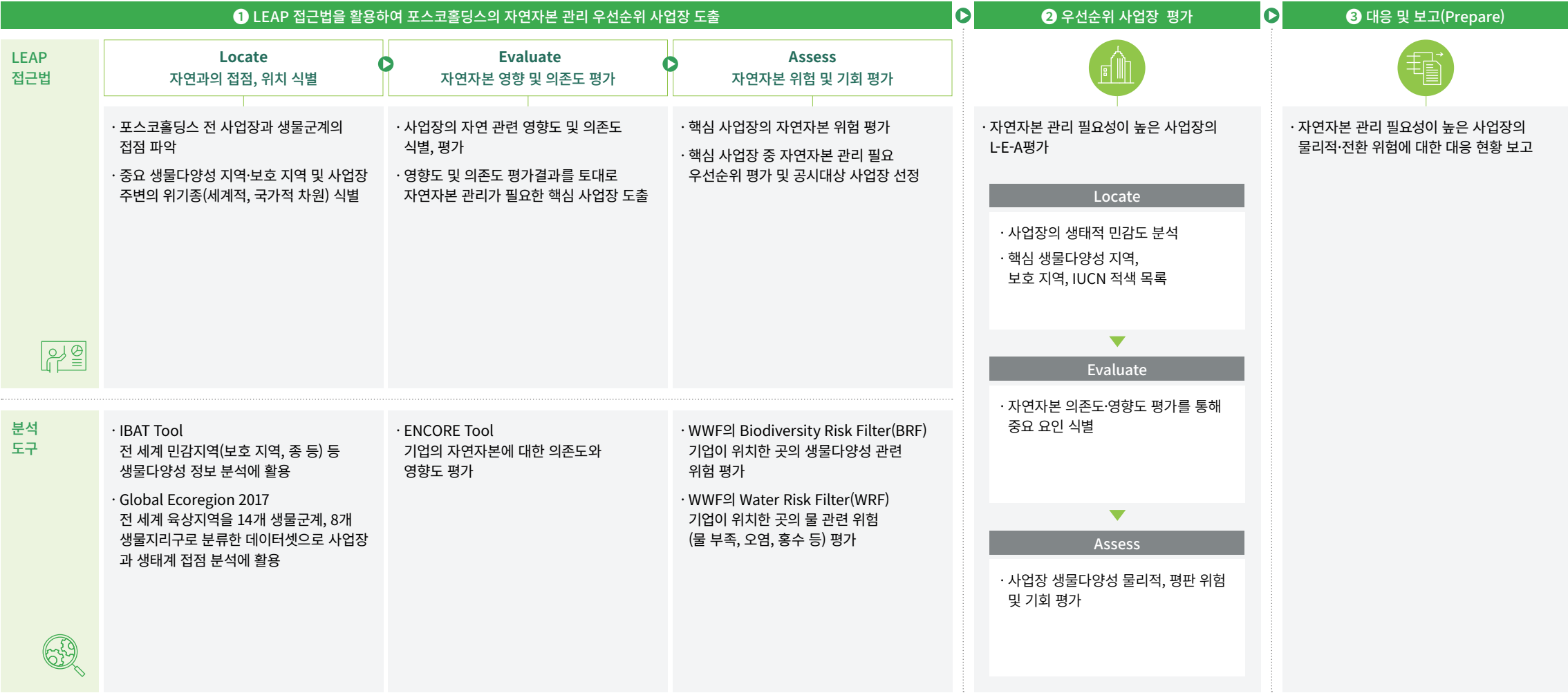
자연자본 관리

포스코홀딩스는 국립생태원 및 포스코경영연구원과 협력하여 포스코홀딩스 연결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연자본 의존도와 생물다양성 영향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KBA(핵심 생물다양성 지역, Key Biodiversity Areas), PA(보호 지역, Protected Areas) 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Red List(적색 목록)등 공신력 있는 생물다양성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사업장 및 공급망의 생태계 민감도, 자연자본 의존 구조, 주요 영향 항목을 평가하였습니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포스코홀딩스는 우선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과 주요 생태계 유형을 식별하고, 자연자본 의존도와 영향도를 기준으로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을 분석하여 구분하였습니다. 이후, 중요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TNFD의 LEAP 접근법에 따라 심층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LEAP 평가 결과는 각 사업장의 자연자본 의존도·노출도 및 영향도와 대응 역량을 진단하였으며, 향후 TNFD 기반 공시 및 생물다양성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LEAP 접근법

자연자본 관리

자연자본 관리의 우선순위 사업장을 도출하기 위해 LEAP 접근법을 두 차례 적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L(Locate)-E(Evaluate)-A(Assess) 분석을 통해 포스코홀딩스 연결 사업장 중 자연자본 관리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사업장으로 PT.BIA 팜농장을 선정하였습니다. 사업장 선정 후, 두 번째 L(Locate)-E(Evaluate)-A(Assess) 분석을 통해 PT.BIA 팜농장의 자연자본 관련 영향 및 노출도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자본 대응 현황을 보고(P, Prepare)하였습니다.



글로벌 사업장 LEAP 평가 — ① LOCATE

분석 방법

포스코홀딩스는 TNFD의 LEAP 접근법에 따라, 전 세계 207개 사업장의 생태적 위치를 분석하여 생물다양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진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자연기금(WWF)과 RESOLVE가 개발한 Global Ecoregion 2017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사업장의 생물군계와 생물지리구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IBAT를 사용하여 사업장이 생물다양성 민감지역이나 법적으로 보호된 지역과의 공간적 중첩 여부를 평가하고, STAR 지수^{*}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긍정적 기여도와 잠재적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

* STAR(Species Threat Abatement and Restoration Score) 지수: 멸종위기종 위협의 효과적인 저감과 복원 가능성 평가 점수

분석 결과

① 사업장의 위치 및 산업 분석

포스코홀딩스는 2024년 말 기준 전 세계에 193개 법인, 207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이들 사업장은 29개국에 분포해 있습니다. 위치별로는 사업장의 31% 수준인 65개가 한국에 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1%, 85개 사업장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TNFD 접근법에 따라 우선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선정과 산업별 자연자본 관련 위험 및 기회 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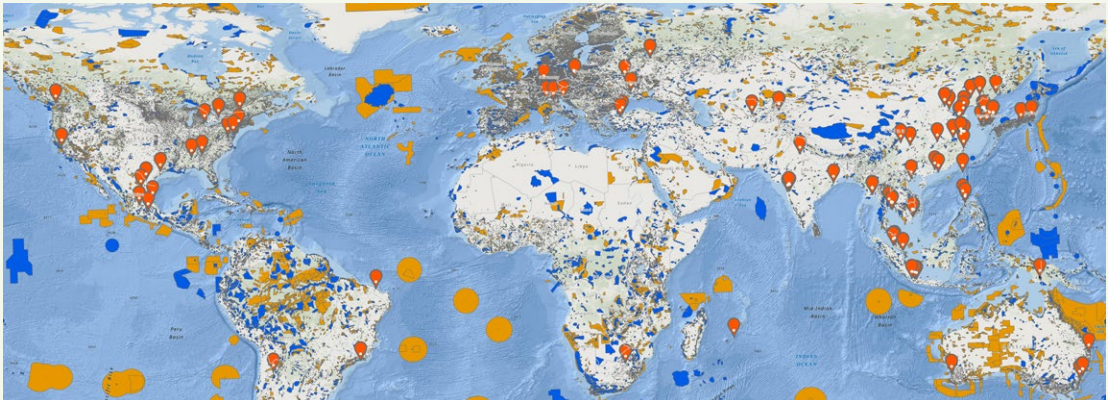
구분	사업장 개수	사업장 비율
제조업	85	41%
건설업	11	5%
운수 및 물류업	10	5%
전기, 가스 공급업	6	3%
농림수산업	3	1%
그 외	92	45%
합계	207	100%

② 생물다양성 민감지역과의 공간적 접점 분석

20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민감지역과의 공간적 접점을 평가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28% 수준인 57개 사업장이 보호 지역 및 핵심 생물다양성 지역에 인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태적으로 민감(중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일수록 우선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연결 사업장 위치



포스코홀딩스 연결 사업장 생태민감지표 분포

글로벌 사업장 LEAP 평가 — ② EVALUATE

분석 방법

포스코홀딩스는 TNFD의 LEAP 프레임워크의 Evaluate 단계에서, 사업 활동과 자연자본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자연에 대한 의존도(Dependency)와 영향(Impact)이 높은 산업 및 사업장을 식별하였습니다. 국제표준산업분류(ISIC)를 기준으로 주요 산업을 분류하고, ENCORE Tool을 활용하여 각 산업의 생태계 서비스 의존도와 영향도를 분석했고, 이를 ‘높음’, ‘중간’, ‘낮음’의 3단계로 재구조화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자연자본 관련 위험과 기회 인식 및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① 핵심산업(사업장)의 자연자본 의존도 및 영향도

ENCORE 분석 결과 농업, 리튬 및 니켈, 철강은 자연자본에 대한 의존도와 영향도가 높은 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농업은 수자원, 기후 조절, 토양 등 자연자본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토지 이용과 오염물질 배출 등에서 자연자본에 미치는 영향도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철강과 이차전지소재 산업도 독성오염물질 배출 측면에서 중간 이상의 자연자본 영향도를 보였습니다.

핵심산업(사업장)의 자연자본 의존도

※ ENCORE는 의존도와 영향도를 VH(매우 높음), H(높음), M(중간), L(낮음), VL(매우 낮음)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3개 구간 (높음 중간 낮음)으로 재구조화

의존도		공급서비스			조절 및 유지서비스										
		바이오매스	유전자원	수자원	기후조절	강우패턴	공기 정화	토양 침식방지	고체 폐기물처리	수질 유지	홍수조절	태풍 완화	병해충 조절	수분	물 정화
섹터분류 ¹⁾															
농업															
리튬 및 니켈															
철강	철강제조														
	비철금속제조														
기분화학물질 제조															
이차전지소재	비금속 광물제조														
	전기모터 등 장치 제조														
	원료재활용 및 회수														
에너지															

핵심산업(사업장)의 자연자본 영향도

※ ENCORE는 의존도와 영향도를 VH(매우 높음), H(높음), M(중간), L(낮음), VL(매우 낮음)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3개 구간 (높음 중간 낮음)으로 재구조화

영향도		방해(빛, 소리 등)	담수 사용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대기오염배출 (non-GHG)	고형폐기물의 발생 및 배출	토지 이용 면적	독성오염물질 배출	영양오염물질 배출	물 사용량	침입 외래종
농업											
리튬 및 니켈											
철강	철강제조										
	비철금속제조										
이차전지소재	기본화학물질 제조										
	비금속 광물제조										
	전기모터 등 장치 제조										
	원료재활용 및 회수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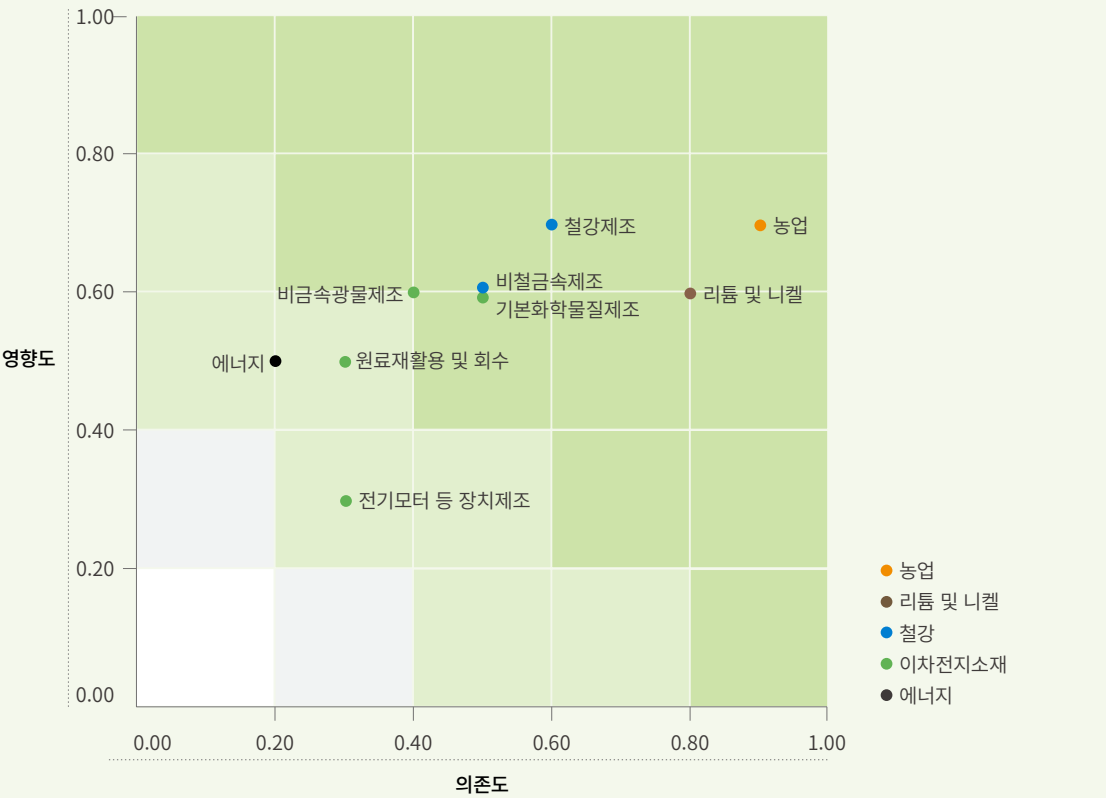
1) ISIC 기준 분류를 포스코홀딩스 사업군에 맞추어 조정함

글로벌 사업장 LEAP 평가 — ②EVALUATE

② 핵심산업(사업장)의 우선순위 도출

자연자본 의존도와 영향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농업이 가장 높은 수준의 상호 작용을 보이며 자연자본 관리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산업으로 식별되었습니다. 철강제조, 기본화학물질제조 산업 역시 높은 순위를 보였으며, 리튬·니켈 및 비철 금속제조 등의 산업도 우선 관리가 요구되는 산업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반면, 전기모터 등 장치제조 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의존도와 영향도를 보여 자연자본 관리의 필요성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우선순위 산업 도출



③ ASSESS

분석 방법

TNFD 접근법의 Assess 단계에 따라, 자연자본과의 상호작용이 높은 산업군을 중심으로 사업장의 자연자본에 대한 중요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자연자본 의존도와 영향도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30개 사업장 중 재무 및 이해관계자 중요도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11개 사업장을 자연자본 관리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평가는 WWF의 BRF(Biodiversity Risk Filter), WRF(Water Risk Filter), IBAT(Integrated Biodiversity Assessment Tool)을 활용하여 수행되었으며, 특히 IBAT 기반 STAR 지수를 통해 멸종위기종 보호와 서식지 복원에 대한 각 사업장의 생태적 중요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글로벌 주요 지역에 위치한 11개 사업장을 자연자본 관리가 필요한 우선순위 사업장으로 식별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장은 농업, 에너지, 이차전지소재, 리튬 및 니켈, 철강 등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 있습니다. 앞서 분석한 핵심산업(사업장)의 우선순위 도출 결과에 따라, 2025년에는 PT. BIA 사업장을 선정해 TNFD 기반 LEAP 평가를 수행하고, 대응 현황과 활동 성과를 정리하였습니다. PT.BIA 사업장은 팜농장 법인으로 CPO(팜원유, Crude Palm Oil)를 판매하는 법인입니다. PT.BIA 분석 사례를 시작으로, 향후 자연자본과의 접점이 높은 중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TNFD 기반 상세 보고를 확대하고, 전사적인 자연자본 대응 전략을 정교하게 구축하여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한 소통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자연자본 우선순위 관리 사업장

업종	사업장	국가
1. 농업	PT. BIA	인도네시아
2. 리튬 및 니켈	POSCO Argentina	아르헨티나
3. 철강	포스코장항불수강유한공사	중국
	포스코 포항제철소	한국
	포스코 광양제철소	한국
	POSCO YAMATO VINA STEEL	베트남
	PT KRAKATAU POSCO	인도네시아
4. 이차전지소재	포스코퓨처엠(광양 양극재 사업장)	한국
5. 에너지	포스코인터내셔널(인천 발전소)	한국
	포스코인터내셔널(광양 LNG 터미널)	한국
	미얀마 가스전사업 (POSCO INTERNATIONAL MYANMAR)	미얀마

PT.BIA 사업장 LEAP 평가 — ① LOC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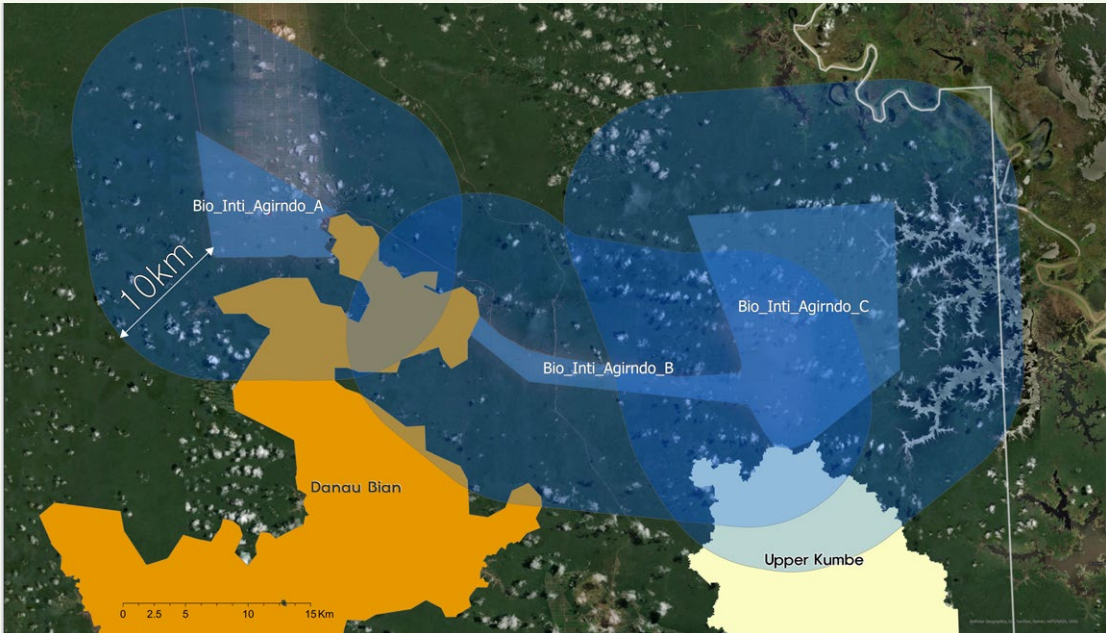
분석 방법

PT. BIA 사업장의 3개 구역을 대상으로 각 구역의 지리적·생태적 특성을 평가하여 생물다양성 민감성과 자연자본에 대한 노출도를 진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위성 좌표 기반의 사업장 위치정보와 IBAT의 핵심 생물다양성 지역(Key Biodiversity Areas), 보호 지역(Protected Areas), IUCN 적색 목록(Red List) 등 글로벌 생물다양성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습니다. 분석 항목에는 보호구역 및 고위험 생태지역과의 거리, 인접 생태계 유형, 멸종위기종 서식 분포 현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PT. BIA 사업장의 3개 구역 자체에는 핵심 생물다양성 지역(Key Biodiversity Areas)과 보호 지역(Protected Areas)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3개 사업장 모두 생태민감지역의 반경 10km 이내에 인접해 있습니다. 사업장 인근에는 약 115,575ha 규모의 핵심 생물다양성 지역인 Upper Kumbe와 보호 지역인 비안강(Danau Bian)이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장 주변에는 IUCN 적색 목록에 등재된 멸종위기 5종, 취약종 13종 등 18종의 생물종이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종으로는 돼지코거북, 알락고리마도요, 갈색알라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T. BIA 사업장 위치(3개 구역)



② EVALUATE

분석 방법

국제표준산업분류(ISIC)를 기반으로 농업 산업의 활동 유형을 정의하고, ENCORE(Exploring Natural Capital Opportunities, Risks and Exposure) Tool을 활용하여 물, 토양, 기후, 생물다양성 등 핵심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Dependency)와 영향도(Impact)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 분석은 PT.BIA 사업장에 대한 분석은 아니지만, 팜 농장을 포함한 농업 분야의 활동과 자연자본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 대응방안 탐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농업은 자연자본과의 상호 작용이 활발한 산업군으로 식별되었습니다. 자연자본 의존도 측면에서는 바이오매스, 기후조절, 토양침식 방지 등의 생태계 서비스에 높은 의존성을 보였습니다. 이는 농업 활동이 생태계의 기본 기능에 지속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자연자본에 대한 영향도는 토지 이용 면적, 담수 사용지역, 물 사용량 등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경작지 확장이나 관개 활동이 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농업분야 자연자본 의존도

생태계 서비스	바이오매스	유전물질	기후 조절	강우패턴	토양침식 방지	토질 유지	수질 정화	수분 조절
의존도								
생태계 서비스	수자원	홍수조절	폭풍우 저감	수량 조절	병해충 조절	공기 정화	폐기물 분해	서식지 유지
의존도								

※ ENCORE는 의존도와 영향도를 VH(매우 높음), H(높음), M(중간), L(낮음), VL(매우 낮음)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3개 구간 (■ 높음 ■ 중간 ■ 낮음)으로 재구조화

농업분야 자연자본 영향도

생태계 서비스	방해(빛, 소리 등)	토지 이용 면적	담수 사용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대기오염 배출
영향도					
생태계 서비스	물 사용량	고형 폐기물 배출	독성 오염물질 배출	영양 오염물질 배출	침입 외래종
영향도					

※ ENCORE는 의존도와 영향도를 VH(매우 높음), H(높음), M(중간), L(낮음), VL(매우 낮음)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3개 구간 (■ 높음 ■ 중간 ■ 낮음)으로 재구조화

PT.BIA 사업장 LEAP 평가 — ③ ASSESS

분석 방법

세계자연기금(WWF)의 글로벌 리스크 진단 도구인 BRF(Biodiversity Risk Filter), WRF(Water Risk Filter), IBAT(Integrated Biodiversity Assessment Tool)를 활용하여 생물다양성과 수자원 관련 물리적 위험을 진단하였습니다. BRF는 생물다양성 위험을, WRF는 기후 및 수자원 위험을, IBAT는 민감 지역과의 중첩 여부 및 STAR 지수를 기반으로 멸종위기종 보전 기여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이 분석은 각 사업장의 지리적 위치와 외부 생물다양성 및 수자원 데이터를 결합하여 물리적 위험을 진단하고 대응이 필요한 주요 이슈를 식별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PT. BIA의 3개 구역은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물리적 위험 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업장이 열대우림과 습지 생태계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과 인접해 있고 멸종위기종의 서식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수자원 위험에 서는 가뭄에 대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으며, 물 가용성, 수질, 홍수 등 기타 항목은 중간 또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분	국가	생물다양성 물리적 위험	수자원 물리적 위험				STAR (종위험 감소 및 복원)	민감지역
			물 가용성	가뭄	홍수	수질		
PT. Bio Inti Agrindo(Estate A)	인도네시아							
PT. Bio Inti Agrindo(Estate B)								
PT. Bio Inti Agrindo(Estate C)								

④ PREPARE

주요 활동 사례

PT.BIA의 자연자본 관련 위험을 예방·완화하고 기회로 바꾸기 위한 주요 활동 사례를 소개합니다.

① 수자원 및 지역사회 물 접근성 확보

PT. BIA는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마을 식수공급시설을 신설하였으며, 수질과 수량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자원 고갈 및 오염 리스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② 생물다양성 보호 및 고보존가치지역(HCV) 관리

비안강 인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지역 주민과 협력해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고보존가치지역(HCV) 6,718ha를 지정·보존하고 있으며, 비안강 일대 13.9만ha에 대해 야생동물 보호구역 협약을 체결(2023년)하는 등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③ 산림 전환 방지 및 산불 대응

산림 습지 보전, 맹그로브 숲 복원(2019년~) 등의 활동을 통해 토양침식과 기후 변화 리스크를 줄이고, 화재 예방을 위한 인력 배치와 7개의 화재 감시탑을 운영하여 산불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④ 지속가능한 팜오일 공급망 운영

PT. BIA는 2021년 RSPO(지속가능한 팜오일)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정책을 도입하여 책임 있는 농업 운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신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NDPE 정책 이행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Supplier Due Diligence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른 평가 기준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⑤ 외래종 및 고형폐기물 관리

외래종 유입에 따른 생물다양성 영향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외래종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착수하였으며, 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직원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폐기물 분리 및 적절한 처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⑥ 이해관계자 인권 정책 및 참여 활동

PT. BIA는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책임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 다양한 인권 정책과 참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환경보전 및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ECCDP)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선주민 대상 공청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사업 활동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의료 등 사회적 지원을 통해 지역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국제 기준에 따라 사업장 전반에 대한 인권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와 근로자의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하는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PT.BIA 사업장 LEAP 평가 — ④ PREPARE

PT.BIA 리스크 예방 주요 활동

앞선 L(Locate) – E(Evaluate) – A(Assess)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PT.BIA의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고, 위험을 기회로 바꾸기 위한 PT.BIA의 주요 활동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생태계 서비스/영향	주요 내용	PT.BIA 사업장 주요 활동내용	Index
물리적 위험	급성	수자원 공급	가뭄, 홍수 등 극단적 기상현상으로 인한 피해	①
		홍수조절-태풍완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만성	토지 이용 면적	산림 훼손 및 서식지 단절 위험	②
		담수 사용지역	비안강 유역 생태계 훼손 가능성	
		물 사용량	가공 공정에서 물 사용 증가	
		기후-강우패턴 조절	장기적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성 감소, 산불위험 증가	③
		병해충조절-수분	생태계 변화로 인한 병해충 증가 및 수분 감소	
		토양침식방지	토양 질 저하 및 침식	
전환 위험	정책규제	토지 이용 면적	산림보호 관련 규제 강화	②
		물 사용량	수자원 사용 규제 강화	
		독성 오염물질 배출	농약/화학물질 사용 규제 강화	
	법적 책임	독성 오염물질 배출	토양-수질 오염에 따른 법적 소송	
		영양 오염물질 배출	하천 오염에 대한 법적 제재	
	시장	유전자원 공급	지속가능 팜유에 대한 시장 요구 증가 야생종 교잡 및 토착 유전자 다양성 감소	④
		수질 정화	수질 오염 규제 강화에 따른 관리 비용 증가 및 거래 제한 가능성	
		물 사용량	수자원 효율성 향상 어려움, 물 공급 불안정, 비용 증가	
	기술	고형 폐기물 배출	팜 껍질 및 부산물 발생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술 요구	
		토지 이용 면적	산림파괴 기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평판	침입 외래종	IUCN 침입종 리스트 기반 외래종 도입 및 확산 위험	④
		영양 오염물질 배출	지역사회와의 관계 악화	⑤
				⑥

▶ SPECIAL PAGE 포스코아르헨티나

LEAP 평가 결과 두 번째 우선순위 사업장이자, 리튬사업장인 포스코아르헨티나 리튬 염호의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을 보고합니다.



포스코그룹은 2018년 아르헨티나 움브레 무에르토 염호를 인수하여, 2020년 염수리튬 데모플랜트와 2022년 염수리튬 1단계 공장을 착공, 2023년에는 염수리튬 2단계 공장을 착공, 2024년부터는 1단계 공장이 가동 중입니다. 포스코아르헨티나는 염호 개발 과정에서 환경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분기마다 전문가와 함께 환경 영향을 조사하며, 연 1회는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합니다. 조사결과는 지역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환경 모니터링

포스코아르헨티나는 사업 진행 경과와 환경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포스코아르헨티나 직원,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선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환경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수행합니다.

· Salta 광업 사무국 기술 직원 및 사외 전문가, 인근 2개 마을(Estación Salarde Pocitos 및 Santa Rosa de los Pastos Grandes) 주민, 포스코아르헨티나 직원 참여

· 대기·수자원·토양·폐수·소음 등에 관해 사전 교육을 받고 공동 샘플 채취, 결과 분석 등 수행

· 염수리튬 2단계 공장은 2개 주(州) 공동구역에 위치하여, 카타마르카 주 사무국 및 마을 주민까지 포함하여 주민 참여 모니터링

환경 규정 및 교육

포스코아르헨티나는 신입 직원, 신규 계약업체 근무자에게 쓰레기 분리수거, 유해폐기물 보관, 동식물 보호, 문화재 발견 대응 등 고지대 환경관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무자를 대상으로 환경관리 표준을 수시 점검하고 미흡 사례를 교육하며, 현지 직원, 트럭 기사, 선주민에게는 도로 및 일반 규정에 대한 정기 교육과 이행 점검을 실시합니다.

도로 주행 관련 규정

- 인허가된 도로에서만 주행, 신설 도로 이용 최소화
- 경적이나 불빛을 줄여 동물에 대한 위협 최소화
-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 및 현장 기록/보고 의무화

일반 사항 관련 규정

- 미허가 장소에서 불을 피우거나 식물 채취 금지
- 고양이 등 염호 미거주 가축 반입/사육 금지
- 야생동물 취수 활동 보장 및 사업장 순찰 강화
- 동물 피해 관찰 즉시 구조, 치료 후 자연으로 복귀 지원

수자원 특별 관리

포스코아르헨티나 리튬사업장은 세계자원연구소(WRI, World Resources Institute) 기준 물 부족(Water Stress) High 지역으로 사업장 물 사용에 따른 지역사회와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합니다. 취수원을 구분하여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수심 80m 이하에서 별도 지하수를 개발·활용하고, 포스코아르헨티나의 지하수 개발이 지표수 자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수자원 양과 수질 조사 결과를 주민에게 공유하며, 연 1회 주민이 직접 수질 검사에 참여하는 공동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BPED 기술적용 공정은 기존 상용 공정 대비 용수 사용량을 50~80% 절감하는 방식을 운영하여 용수 리스크도 예방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업 시 일일 물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하수 수위 관리 및 주기적 수질 분석 등 모니터링을 통해 고산지대 물 부족 현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SPECIAL PAGE 포스코아르헨티나

생물종 현황 조사

포스코아르헨티나는 2024년 2월, 5월, 8월, 11월 매 분기 생물다양성 전문가 및 지역 주민과 함께 염호 인근 지역 동식물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존 고산 지역 염호 일대의 동식물에 관한 기록이 적어, 포스코아르헨티나의 정기적인 생물종 현황 조사는 지역 생물다양성 관련 중요한 기록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인근에는

주요 식물 분포 현황

구분		2023년 6월	2024년 5월	2023년 12월	2024년 11월
과	종	개체수	개체수	개체수	개체수
국화과 (Asteraceae)	Artemisia copa	107	230	461	591
	Chuquiraga atacamensis	11	13	146	237
	Senecio viridis	257	80	1,274	222
	Parastrephia lucida	0	72	116	0
콩과 (Fabaceae)	Adesmia erinacea	0	131	92	320
	Adesmia horrida	1,663	908	3,777	2,703
선인장과(Cactaceae)	Maihueniopsis glomerata	9	54	34	74
벼과 (Poaceae)	Festuca argentinensis	0	62	718	30
	Festuca orthophylla	452	113	370	73
	Puccinellia frigida	0	0	104	0
가지과 (Solanaceae)	Solanum sinuatirecurvum	0	0	400	13
	Lycium chñar	0	0	288	12
마편초과 (Verbenaceae)	Aloysia deserticola	1,234	513	77	654
	Junellia seriphioides	0	87	241	219

생물종 보호 계획

포스코아르헨티나의 공정 특성상 고산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 인근에는 다양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사업 운영 단계 및 종료 후까지 고려하여 생물종 및 토양 영향을 최소화하고 원상 복구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정한 비쿠냐(Vicugna vicugna)가 우세종으로 서식하고 있으며, 플라멩고, 당나귀류 등 여러 포유류, 조류, 파충류와 다양한 식물종도 다수 관찰되고 있으며, 계절별 분포에 차이를 보입니다. 앞으로 매년 기록이 누적되면 동일 계절의 동·식물 분포 현황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동물 분포 현황

구분				2023년 6월	2024년 5월	2023년 12월	2024년 11월
목		과	종	개체수	개체수	개체수	개체수
포유류	Artiodactyla	Camelidae	Vicugna vicugna	137	39	36	16
			Equus africanus asinus	15	9	23	0
	Rodentia	Cricetidae	Abrothrix andina	0	10	2	0
		Ctenomyidae	Ctenomys opimus	0	16	1	0
조류	Anseriformes	Anatidae	Oressochen melanopterus	76	17	2	4
	Phoenicopteriformes	Phoenicopteridae	Phoenicopterus chilensis	14	57	0	20
			Phoenicoparrus andinus	3	77	70	84
	Columbiformes	Columbidae	Metriopelia aymara	29	6	30	24
		Thinacoridae	Thinocorus orbignyianus	16	10	0	13
	Passeriformes	Furnariidae	Geositta punensis	35	129	25	58
			Phrygilus atriceps	17	3	0	11

공사 단계별 계획

- 부지정지 공사 전 단계: 해당 지역 내 트랩을 통한 도마뱀, 설치류 등 포획 및 주변 방생
- 공사 진행 단계: 생물학자가 현장에 상주하며 공사 과정 중 동물 접근 방지 조치 및 동물류 확인 시 이동 조치 이행
- 향후 계획: 표토층을 별도 보관하여 추후 플랜트 철수 시 복구 토양으로 재활용 예정

토양 복원 계획

- 사업 종료 시 오염 가능성이 있는 유류탱크와 유해폐기물 저장장소 등 토양 채취 후 분석, 오염된 토양 복원 작업 실시
- 설치 구축물은 모두 철거하고 사업 부지 평탄화 작업 실시 예정, 고산지대 특성상 단기간에 동식물의 재번식 예상됨

일반이슈

In This Section	
지역사회	111
주주권리 보호	115
정보 보안	117
세금	120
정책지원	121

LOCAL COMMUNITY

지역사회

이사회

포스코홀딩스는 지역사회를 위한 주요 기부 활동에 대해 이사회와 그 산하 기구인 ESG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보고 내용에는 기부의 목적, 용도, 기부처, 시기 등 상세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 기부금 관련 이사회 규정: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기부 및 찬조는 ESG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 10억원 초과 기부 및 찬조는 ESG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고, 이사회에서 심의 및 의결

정책 및 방침

포스코그룹은 창립 이래 줄곧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왔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중심의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출범 이후에는 지역 주민의 인권 보호, 환경권, 고충처리제도 등을 ‘인권경영 정책’에 포함하고, UN 선주민 권리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소통을 명문화한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의견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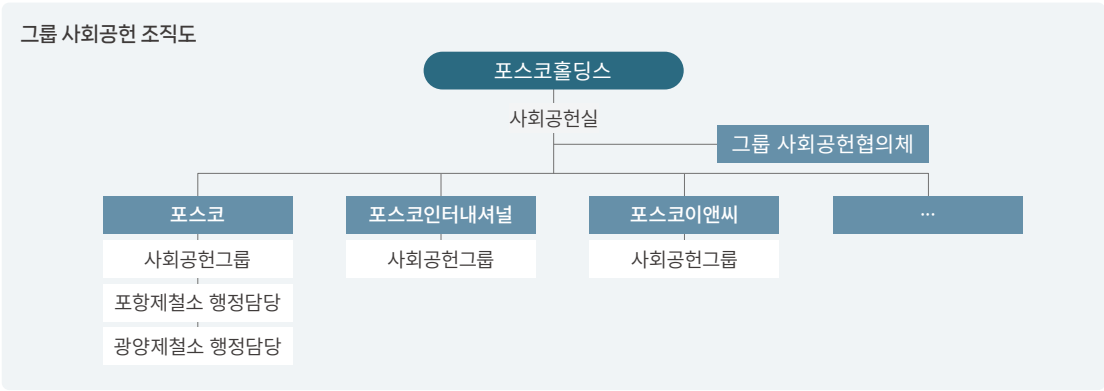
포스코그룹은 주요 사업장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기적으로 지역 주민 공청회를 열고 회의체를 운영하며 지역사회 및 선주민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고충처리 시스템’을 통해 이해관계자 누구나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포스코그룹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포스코그룹은 지역사회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지역 NGO 등과 정기 협의체를 운영하고,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담 조직

포스코그룹은 그룹 차원의 전략적 사회공헌 추진과 전사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2025년 사회공헌실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공헌 담당 조직을 갖춘 12개 사업회사*가 참여하는 사회공헌협의체를 운영하여 각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협력하고 있습니다.

*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X, 포스코플로우,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엔텍, 포스코와이드, 포스코A&C, 엔투비, 포스코휴먼스



주요 사례

소통 채널명	지역사회 의견	포스코그룹 지원 사항	개선 효과
포항 자문위원회, 시민위원회	지역 관광 산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 스페이스 워크(117억원)	· 2024년 말 누적방문객 300만명 돌파 · 국내 최대 규모의 체험형 조형물로 지역사회 관광 산업 활성화
광양 자문위원회, 시민위원회	지역 랜드마크 조성, 대표 관광지와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2025.2월 착공)	· 포스코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조성 기대
포스코그룹 지속가능사회 혁신플랫폼	생물다양성, 자원순환 등 포스코그룹이 속해있는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	· 지역 대학 교수진,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대학생, 포스코그룹 사업회사가 참여하여 사회적 이슈 발굴,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솔루션 제공	· 대학생과 포스코그룹 사업회사가 협력해 각 사별 사업영역과 연계한 아이디어 제공
광양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지역사회 내 봉사문화 확산	· 매년 광양시 자원봉사 축제 개최 · 지자체, 포스코그룹이 함께 재능봉사, 시정협력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전개	· 시민들의 봉사참여 확대

지역사회 기여

포스코그룹은 다양한 재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교육, 복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왔습니다. 주요 재단 및 문화공헌 활동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스코1%나눔재단

포스코1%나눔재단은 2013년 설립한 비영리 재단으로 포스코그룹 및 협력사 임직원이 급여의 1%를 기부하고, 회사가 동일 금액을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출연하여 운영됩니다. 총 37개 포스코그룹 사업회사와 협력사 임직원이 기부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12년간 재단 사업의 수혜자는 누적 6만 7,653명에 달합니다. 2024년에는 국가유공자 예우 공로로 국가보훈부 장관상,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국회의장상,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4년 수익 기부금 수입(회사 매칭그랜트 포함) 및 이자 수익 등	10,400,716,631원
	2024년 비용 사업수행비, 일반관리비, 모금비 등	9,890,872,871원
	포스코그룹 기부참여사	37개사
	기부 참여 인원/사업 수혜인원	39,402명/67,653명

주요 성과

사업분야	사업명	2024년 주요성과
미래인재 육성	상상이상 사이언스	전국 87개교 중학생 9,754명 대상 미래 철강산업의 과학적 원리 교육
	두드림	자립준비청년 50명 대상 취·창업 프로그램 지원
	포어스	포항 다문화 가정 및 취약계층 청소년 25명 대상 멘토링 등 진로 지원
취약계층 자립지원	희망날개	보훈병원 4개소, 국가유공자 23명 대상 첨단보조기구 지원, Biz 지역 장애인 120명 대상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희망공간	포항·광양 장애인 시설·가정 29개소 및 자매마을 공공시설 10개소 리모델링
	장애인 디지털 아카데미	청년 장애인 24명 대상 웹 개발 코딩 교육 지원
	만남이 예술이 되다	장애예술인 대중화를 위한 공연 기회 4회 제공, 영상 8편 제작
기부자 참여	1%마리채	기부자 주도하에 138개 기부처 발굴, 기부 프로그램 3.1만 명 참여
	Change My Town	지역사회 개선 활동 142건 진행, 임직원 2.4천 명 참여
	포스코그룹 지정사업	기부 참여사 중 26개사 주관,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113개 사업 진행



국가유공자 첨단보조기구 지원 사업

포스코1%나눔재단은 2020년부터 국가보훈부와의 협업을 통해 공상·전상 등으로 장애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현직 소방관·군인을 대상으로 로봇의족 등 맞춤형 첨단보조기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체적 한계를 보완, 일상 복귀와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누적 지원 인원 (2020년 ~ 2024년)	183명
---	-----------------------------	------

수혜자 후기

사고 이후 휠체어에 의존해야 했던 일상은 저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딸에게도 큰 어려움이었는데 포스코1%나눔재단으로부터 ‘로봇의족’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선물받았습니다. 특히 “아빠와 공원에서 같이 마음껏 달리고 싶다”던 딸의 소망을 들어줄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기쁘고, 제가 받은 도움이 우리 가족 모두의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1%의 나눔이 저에게는 100% 그 이상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포스코1%나눔재단이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상이 국가유공자 및 현직 소방관·군인에게 첨단보조기구를 전달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년 CSR필름페스티벌 어워드 기획재정부 장관상 상생협력 부문 수상작

포스코교육재단

포스코교육재단의 전신인 제철장학회의 설립 배경은 포스코의 창업과 성장 과정에서 체화된 포스코정신(POSCO Spirit)과 맥을 같이합니다. 포스코의 창업이 대한민국 경제·산업 분야의 도전이었던, 196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94 달러에 불과하여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던 대한민국에서 교육재단 설립은 사회·교육 분야의 도전이었습니다. 종합제철소 건립 공사가 시작되면서 지방 소도시였던 포항 지역에는 유입 인구가 급증하였으나, 늘어난 인구를 감당할 주택과 학교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포스코는 1971년 1월 재단법인 제철장학회를 설립하고, 지역사회의 교육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왔습니다. 1986년에는 기초 교육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포항공과대학교를 개교하였고, 이후 1995년 11월 포항공과대학교는 별도 학교법인으로 분리하였습니다. 2002년 포스코교육재단으로 개칭하고, 현재 포항, 광양, 인천 지역에 총 12개의 유치원·초·중·고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재단 현황

재학생	포스코그룹 누적 출연금	운영학교
8,219명	1조 1,659억원	12개교
누적 졸업생: 133,642명 (포항 87,350명, 광양 44,756명, 인천 1,536명)	(1971~2025.2.)	[포항]포항제철고, 포항제철공고, 포항제철중, 포항제철초, 포항제철지곡초, 포항제철유 [광양]광양제철고, 광양제철중, 광양제철초, 광양제철남초, 광양제철유 [인천]인천포스코고

주요 성과

- 1 기업이 학교를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모범 사례로 지방의 교육 인프라 마련을 통한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안정적인 지역 근무 여건 형성, 저출산·지방 소멸 방지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2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초·중·고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통해, 사립 고유의 차별화된 교육 노하우를 축적하고 학교급 간 연계된 체계적인 교육과정, 다양한 특기적성 및 특별 교육 프로그램 등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초등] 바른 인성, 인문 소양 함양, 전인 교육 실시
[중등] 특기적성 개발, 창의 활동, 디지털 역량 강화
[고등] 특별 프로그램, 진학 및 취업에 특화된 교육과정
- 3 교육재단의 선진 교육시스템과 특성화 교육은 지역 중소도시에 위치한 기업체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산학 협력 밸류체인의 시작점에서 기업체, 지역사회,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posco
포스코교육재단

포스코교육재단 2030 중장기 발전 계획

AI,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맞춰 미래사회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30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장기 발전방안 추진에 따른
포스코홀딩스 2025년 출연 계획

15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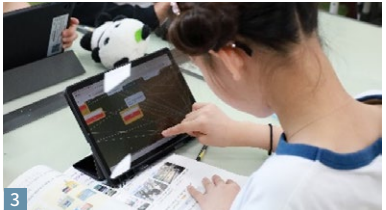
- 1 교육력 강화: 특기 적성 다양화, 창의 수학, 과학 실험, 디지털 AI 교육, 독서 및 인문소양 교육 등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과정 추진으로 학생들의 미래 핵심 역량 강화
- 2 디지털 인프라 구축: 네트워크 기반의 인프라, 스마트교실, 전자칠판 등 정보화 기기를 기반으로 다양한 학습 플랫폼과 디지털 콘텐츠 개발로 양방향 수업과 실시간 소통 가능한 디지털 학습 환경 구축
- 3 교육시설 개선: 학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자기주도 학습공간, 특별실 등의 리모델링과 자율형 사립고의 기숙사 증축 등으로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몰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1



2



3



4

1 포항제철고등학교 전경

2 인천포스코고등학교 전경

3 포항제철초 학생이 태블릿 PC를 활용해 AI 코스웨어 활용 수업을 하고 있다.

4 인천포스코고 학생들이 실험 장비를 활용해 생명과학 실험을 하고 있다.

포스코청암재단



1971년 제철장학회로 출범한 포스코청암재단은 글로벌 지역사회 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성과(누적)	
포스코청암상은 과학·교육·봉사·기술 총 4개 부문을 시상합니다. · 과학상: 국내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과학자 중,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창의적인 업적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인사를 선정 · 교육상: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교육계 전반에 확산시킨 개인 또는 단체 선정 · 봉사상: 아시아 지역에서 인류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한 개인 또는 단체 선정 · 기술상: 세계적 수준의 기술 혁신과 산업화를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인재 선정	4개 분야 (과학상, 교육상, 봉사상, 기술상)	63명
포스코아시아펠로십 은 아시아 각국의 장학·학술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역내 차세대 인재 육성과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해 아시아에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한국 유학 장학: 아시아 유망 인재 한국 초청 석·박사 학위 취득 지원 · 아시아/아프리카 현지대학 장학: 각국 대표대학에 재학중인 우수학생 지원 · 오피니언리더/주니어 펠로십: 개발도상국의 오피니언 리더를 초청해 한국과 아시아 국가 간 상호이해와 협력증진에 기여	한국 유학 장학 아시아 현지대학 장학 아프리카 현지대학 장학 오피니언 리더/주니어 펠로십	33개국 532명 16개국 5,664명 4개국 180명 10개국 60명
포스코사이언스펠로십 은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기반이 되는 응용과학을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국내 대학과 연구소에서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등 4개 분야의 기초과학 및 금속·신소재, 이차전지소재 등 2개 분야의 응용과학을 연구하는 젊고 유능한 신진 과학자 선발	기초과학(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및 응용과학(금속·신소재, 이차전지소재)	513명
포스코유스펠로십 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 기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 지역사회가 당면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입니다.	비전장학 히어로즈펠로십 등대장학	지역사회 대학생 636명 의인 및 의인자녀 98명 지역사회 고등학교 911명

문화공헌 활동

포스코 미술관
포스코미술관은 1995년 포스코갤러리로 개관한 후, 1998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기업미술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미술관으로서 포스코미술관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세대/연령/성별을 초월해 일상에서 예술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경험을 꾸준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에는 고려청자의 아름다움과 기술적 정수를 조명하며 국가지정문화재 포함 60점의 유물을 전시한 ‘천기누설 고려비색’전을 개최하였습니다. 8월에는 ‘Popping, 살아있는 책들’ 전을 통해 13세기부터 현대까지의 팝업북 250여권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개관 30주년을 기념하여 추상화가 하태임 작가의 ‘강박적 아름다움에 관하여’ 전을 통해 독창적 예술세계 전반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를 선보였습니다.

- 2024 기획전 <천기누설 고려비색: 天機漏洩 高麗翡色>
- 2024 기획전 <Popping, 살아있는 책들>
- 2024 기획전 <하태임, 강박적 아름다움에 관하여>

포스코 콘서트

포스코그룹은 클래식음악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조성진과의 협연 공연’을 시작으로 5년 동안 세계적인 연주자와 함께 클래식 콘서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도이치 캄머필하모닉을 초청하여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임윤찬과 협연하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지역사회에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포스코그룹은 2025년 서울 공연 외에도 포항과 광양에서 추가로 포스코클래식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포스코그룹과 함께하는 파보 예르비 & 도이치 캄머필하모닉 콘서트 포스터

PROTECTING SHAREHOLDER RIGHTS

주주권리 보호

주식 및 주주 현황

주식 발행 정보

포스코홀딩스의 정관에 따라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이며, 현재까지 발행된 보통주 96,480,625주 중 15,547,673주*를 이익으로 소각해 2025년 3월 기준, 당사의 총 발행주식 수는 80,932,952주(보통주)입니다. 현재까지 종류주 해당사항은 없으며, 보통주만 발행하였습니다.

*2024년 7월 1,691,425주 소각, 2024년 8월 255,428주 소각, 2025년 3월 1,691,425주 소각 포함

주식 및 주주 현황

(2024년 말 기준)

구분	소유주식 수(주)			지분율
	2022년 말	2023년 말	2024년 말	2024년 말
최대주주, 국민연금	7,706,725	5,393,999	6,160,584	7.46%
BlackRock*	4,390,734	4,206,522	4,206,522	5.09%
등기임원	11,317	15,249	13,797	0.02%
자기주식	8,722,053	8,695,023	7,003,598	8.48%
기타	63,740,401	66,260,437	65,239,876	78.95%
계	84,571,230	84,571,230	82,624,377	100%

*미국 SEC BlackRock 공시기준(2023.4.6)

주식 동향

구분	2022	2023	2024
최고가(원)	306,500	658,000	488,000
최저가(원)	211,000	272,000	253,500
연말종가(원)	276,500	499,500	253,500
KOSPI 지수(연말 기준)	2,236	2,655	2,399
시가총액(연말 기준, 백만원)	23,383,945	42,243,329	20,945,280

주주 참여 제도

소액주주 참여 촉진

포스코홀딩스는 소액주주의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운영합니다. 공시를 통해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며, 홈페이지에 위임장을 게시하여 의결권 대리행사가 용이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는 국문·영문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어 주주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전자투표제: 소집공고 및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전자투표 의결권 행사방법 안내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공시 [🔗](#)

주주 권익 보호

의결권 제도

포스코홀딩스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공평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 주주총회일: 2025.3.20.
- 소집공고일: 2025.2.19.(주주총회 4주 전 공시)
- 감사보고서 공시: 2025.3.12.(소집공고 후 공시)
- 의결권 행사 현황 홈페이지 [🔗](#)

주식 동향

구분	제55기 주주총회	제56기 주주총회	제57기 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일	2023.3.17.	2024.3.21.	2025.3.20.
정기주주총회 분산 개최 여부	예	예	예
서면투표 실시 여부	예	아니오	아니오
전자투표 실시 여부	예	예	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예	예	예

주주제안

포스코홀딩스는 상법에 따라 주주제안 절차를 운영합니다.

-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에 의거하여 소수 주주의 주주제안이 가능하며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운영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3% 이상을 보유하거나 주주제안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0.5%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목적사항은 이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음

집중투표제 도입(2004년)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위한 총회 소집이 있을 경우,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집중투표 실시를 회사에 청구해야 함
- 집중투표가 청구되면 각 주주는 1주당 선임할 이사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갖게 되며, 이 의결권을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여러 후보자에게 집중하여 투표할 수 있음. 이 경우, 최대 득표를 받은 후보자 순으로 이사가 선임됨

사외이사 주주 추천제도 도입(2018년)

포스코홀딩스는 상법상 주주제안과는 별개로,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외이사 후보군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부터 '주주추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합니다. 정기 주주총회 약 3~4개월 전에 상법상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들을 대상으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합니다. 이 공문을 통해 주주당 1인의 사외이사 예비후보추천을 의뢰하며, 추천은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접수받습니다.

- 주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는 다른 후보와 동일하게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에서 자격심사를 실시
-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 시에는 2024년 11월 4일~2024년 11월 18일 일정으로 주주 추천을 진행

배당

주주환원정책

2020년 1월 이사회에서 회사의 배당 관련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중기 배당정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배당성향 30% 수준의 주주환원 목표를 공개하고, 배당성향 산정 시 연결 지배지분순이익을 기준으로 현금 유출이 없는 일회성 비용을 조정하도록하여 경영실적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회사의 중기 배당정책 기간(2020~2022년) 동안 현금배당은 2조 8,161억원으로 연결 기준 배당성향은 24.8%였습니다. 2022년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3%인 자기주식을 장부가액 기준 5,675억원에 소각하는 등 역대 최대인 3조 3,836억원의 주주환원을 실시하였으며, 총주주환원율은 29.8%를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4월에는 연간 별도 잉여현금흐름의 50~60%를 재원으로, 주당 기본배당 10,000원을 지급한 후 잔여 재원은 추가로 환원하는 방식의 새로운 3개년(2023~2025년)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성장을 통한 주주가치 증대와 안정적인 배당을 통한 주주환원을 균형 있게 도모하고자 수립되었습니다. 특히 투자비를 고려한 잉여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마련하고 성장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초일류 소재기업으로서의 성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기본배당 제도를 도입하여 잉여현금흐름의 변동성에 따른 주주환원 규모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신규 주주환원정책에 입각하여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기본배당 1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주주와의 약속을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한편, 2024년 7월에는 소각 가능한 자사주 6%를 3년에 걸쳐 분할 소각하겠다는 새로운 자사주 정책과 함께, 1천억원 규모의 자사주 신규 매입 및 즉시 소각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신규 취득하는 자사주는 임직원 활용분을 제외하고 전량 즉시 소각하겠다는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2024년 7월과 2025년 3월 두차례에 걸쳐 각각 2%의 자사주를 소각하였으며, 2024년 7월에는 자사주 1천억원을 시장에서 신규로 매입함과 동시에 소각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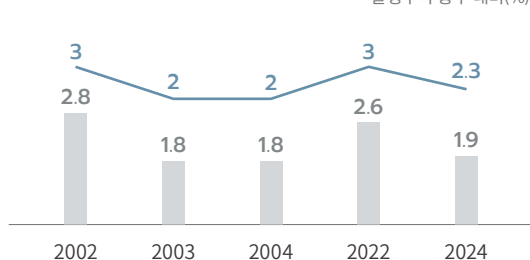
당사는 아울러 55기와 57기 주주총회에서의 정관 개정을 통해 '선(先) 배당 확정 후(後) 배당기준일' 방식의 선진적 배당 절차를 기말배당과 분기배당에 순차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주환원과 관련하여 주주와 투명하게 소통하며 주주의 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배당 지급 현황

구분	2022	2023	2024
연결배당성향(%)	28.9	44.7	69.2
배당 수익률(%)	4.1	2.4	4.0
주당배당금(원)	12,000	10,000	10,000
목표이행률*	-	100%	100%

*중기(2023~2025) 주주환원 정책(별도 잉여현금흐름 50~60%를 재원으로 기본 배당 10,000원 지급 후 추가로 환원)에 따른 기본 배당금 지급 이행률

자사주 소각 이력



주주 커뮤니케이션

포스코홀딩스는 CSO 주재 하에 컨퍼런스 콜 형식으로 연도 및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발표 이후에는 국내, 아시아, 미주, 유럽 지역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중장기 전략 방향 등을 소개하는 NDR(Non-Deal Roadshow)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IR자료를 포함한 기업 정보는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회사 홈페이지 등 공시조회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주에게 적시에 공정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뉴욕증권거래소에 주식예탁증권(ADR)을 상장한 기업으로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영문 공시 의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주를 위한 홈페이지 영문 정보 공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영문 감사보고서: 연결보고서 [↗](#) / 별도보고서 [↗](#)
- 영문 사업보고서: 미국 연차보고서(SEC) 공시 [↗](#)
- 금융감독원 사업보고서 영문 요약본 [↗](#)

나아가 2023년 3월, 개인투자자 니즈에 대응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포스코홀딩스 IR'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1년간 포스코그룹의 주요 사업 내용을 개인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한 동영상 콘텐츠 81편을 업로드하였으며, 2024년 12월 기준 구독자 수는 25,700여명, 누적 조회 수는 3,074만회에 달합니다.

2024년 IR 활동

- 2024년 주주총회: 1회
- 기업설명회: 4회
- SEC 공시: 64건
- 컨퍼런스, NDR 등 IR 활동: 129회
- 금융감독원/증권거래소 공시 (영문,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제외): 71건



INFORMATION SECURITY

정보 보안

정보보호 추진체계

정보보호 정책

포스코홀딩스는 정보보호 원칙을 기반으로 정보보호 규정과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제정하여 9개의 세부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최신 법률과 제도,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여 규정 및 지침을 개정하며 이를 전사 정보보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합니다. 해당 문서는 사규관리 시스템을 통해 모든 임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개정 사항은 기업 포털 시스템(Enterprise Portal)에 게시합니다. 이와 같이 포스코홀딩스는 규정 및 지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 임직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준수하도록 독려합니다.

정보보호 세부 지침 9종

정보보호규정, 개인정보보호 규정, 문서관리지침, 정보시스템 보안지침, 포스코센터 출입 및 시설보안 지침, 기술정보 보안관리지침, 미래기술연구원 정보보안지침, 핵심기술보유 퇴직임직원 보안점검 지침, 개인영상정보관리지침

정보보호 정책 운영체계

Plan 계획		정보보호 정책 및 계획 수립 정보보호 규정·지침 수립 및 비즈니스 목표와 연계된 정보보호 계획 수립
Do 실행		자원 배정 및 정책 실행 인력·기술·재정 자원 배정 및 규정·지침 실행, 임직원 대상 교육 및 훈련 실시
Check 점검		성과 측정 및 점검 정책의 효과 측정 및 이행 여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Act 조치		지속적인 개선 문제점 도출 및 정책·계획·프로세스 등 개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포스코홀딩스는 2022년 3월 출범 이후, 정보보호 담당 임원을 CISO(정보보호 책임자,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로 지정하였습니다. CISO는 CPO(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 Chief Privacy Officer)를 겸임하며, 정보보안 및 개인 정보보호 관련 전문가를 해당 업무의 임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포스코그룹의 정보보안 관리는 CISO와 그가 소속된 그룹 기술전략실의 전담 인력이 수행합니다.



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포스코홀딩스 정보보안 담당은 그룹 차원의 정보보안 관리 강화를 위해 그룹 내 사업회사를 대상으로 ‘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그룹CISO협의회)’를 매 분기 운영합니다. 또한 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전사 정보보호정책의 추진 방향 및 실행 계획을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포스코홀딩스 정보보호 책임자이며, 참석 대상은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등 그룹의 핵심 사업 및 기술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26개 사업회사의 정보 보호 담당 임원 및 그룹장입니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포스코그룹은 주요 사업회사를 대상으로 ISO/IEC 27001 및 ISMS 인증 사후·갱신 심사 수행을 통해 정보보안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인증 현황

10개사: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X, 포스코플로우, 포스코와이드, 엔투비, 이스틸포유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ISMS(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 필수 대상인 3개사(포스코DX, 엔투비, 이스틸포유)는 100% 인증, 나머지 7개사는 자발적 인증 취득

회사명	인증명
포스코홀딩스	ISO/IEC 27001
포스코	ISO/IEC 27001
포스코인터내셔널	ISO/IEC 27001
포스코이앤씨	ISO/IEC 27001
	ISMS-P
포스코퓨처엠	ISO/IEC 27001
포스코DX	ISMS-P
포스코플로우	ISO/IEC 27001
포스코와이드	ISO/IEC 27001
엔투비	ISMS-P
이스틸포유	ISMS-P

정보보호 전략 및 활동

그룹 정보보호 전략

1 글로벌 수준의 정보보호 운영

· ISO 27001 인증 사후심사 수검을 통한 포스코홀딩스 인증 유지

3 임직원 변화 관리

· 신입/경력사원 보안교육(수시), 전 직원 e-러닝 교육관리

5 내외부 보안점검 실시

· 피싱메일 점검, 자체 모의해킹, 정보 유출 모니터링 점검 등

7 그룹 정보보호 관리 수준 개선

· 사업회사 정보보호 컨설팅 수행: 사업회사 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보안 밀착 컨설팅
· 사업회사 정보보호 수준 진단: ISO 27001 및 ISMS-P에 기반한 진단 체크리스트 업데이트, 현장 진단
· 그룹 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분기 1회): 사업회사별 이슈 공유 및 공동 대응, 사업회사 일대일 의견 수렴 및 개선

9 대외기관 협력(정부 및 민간)

· 산업보안 컨퍼런스 진행(한국산업보안한림원, 국가정보원, 산업기술보호협회 등)

2 정보보호 관련 법률 대응

· 정보보호 공시(~6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7월), 그룹 공동 법률 대응사항 지원

4 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 개정

· 정보보호 세부 지침 9종 관리
· 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한 규정 심의 및 협의

6 그룹 차원의 정보보호 전문 역량 강화

· ISO 27001 인증심사원 자격과정 운영(10명 이수)
· 사업회사 정보보호 담당자 변화관리

8 취약점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기술적 보안 수준 향상

· 정보유출 모니터링 고도화
· 그룹 기본 보안 인프라 구축, 보안 클라우드 전환을 통한 관리 일원화
· 그룹 보안 인프라를 통합보안 관제에 연동, 관제 시나리오 고도화 작업
· 외부 침해 위협 예방을 위한 그룹 홈페이지(53개) 모의해킹 진단 및 개선

전문인력 역량 강화

국제 정보보호 인증심사원 자격과정 운영(8월)

· 교육 대상: 사업회사 정보보호 담당자(10명)
· 교육 내용: ISO/IEC 27001(정보보호경영시스템) 심사규격, 필수 통제항목, 심사 사례 등

그룹 정보보호 담당자 변화관리(수시)

· 공유 내용: 보안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규정·지침 등 변경사항
· 교육 주제: 개인정보 보호,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클라우드 보안 등

전 직원 대상 교육

포스코그룹은 정보보안 관리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필수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정보보안 담당자가 부서별 전파 교육과 특수직무자에 대한 별도 교육을 실시합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전 임직원은 매년 1회 보안서약과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서약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정보보안 교육 실적(계약직 포함)



정보보안 필수교육
임직원 이수율

99%

전사 공지
정보보호 관련 교육자료

22회 게시(2024년 기준)

특수직무자 보안 교육

대외비 업무 노출이 높은 비서직군 대상, 이수율 100%

국가핵심기술 보유 및 관리

포스코그룹은 국가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최신 보안 기술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엄격한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보안 교육과 인식 제고 활동을 통해 보안 의식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업데이트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 보유 국가핵심기술 8개

철강 6개, 전기전자 1개, 자동차 1개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은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7가지 보호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그 이행 여부에 대해 정부로부터 정기적으로 진단받고 있음

정보보호 예산 및 투자

포스코홀딩스는 전체 IT 예산 중 7.3%를 정보보호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조직의 우선순위, 대내외 위험, 법률 등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는 정기적인 성과 측정을 통해 그 효과가 검증되며, 이는 조직의 위험 관리와 규제 준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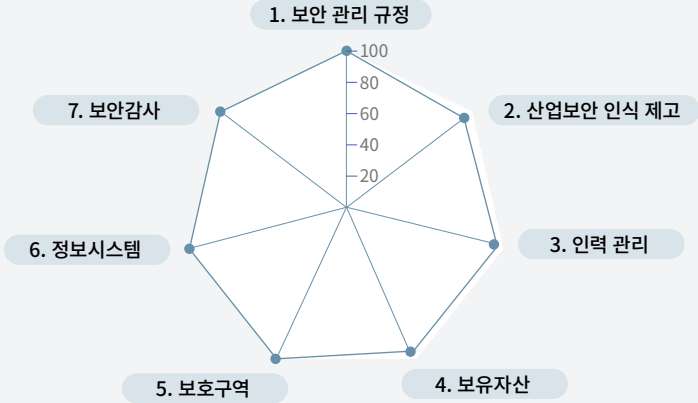
포스코그룹은 정보보안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그룹 내 사업회사, 포스코 해외법인, 협력사를 대상으로 연 1회 정보보안 진단을 실시합니다. 진단 결과 도출된 취약 항목에 대해 정보보안 전담 인력이 개선 조치를 지원하는 등, 공급망 전반의 정보보안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역(60)	주요 내용
보안 관리체계(9)	보안 관리 조직, 기준, 활동 등 명시
보안인식 제고(6)	교육·상벌제도·담당자 전문성 제고
인력 관리(5)	입사·근무·퇴직 단계별 보안 통제
보유자산(4)	정보자산 분류·관리 및 유출 통제
보호구역(7)	보호구역 지정·관리 및 출입 통제
정보시스템(17)	IT·보안 인프라 구축, 운영 관리
보안감사(1)	보안감사·점검, 보안사고 대응체계
개인정보(11)	개인정보 수집·보유·파기, 영상정보 등 관리

2024년 정보보안 진단 결과 기반 개선 조치 내역

- **사업회사(49개사)**
현장 방문 정보보안 점검
- **해외법인**
홈페이지 취약점(38건) 및 내부 시스템 취약점(353건) 조치
- **협력사**
64개사 현장 방문 밀착 컨설팅

영역별 관리 수준



정보보호 목표 및 계획
목표

보안관제 탐지 시나리오 자동화 적용



2025 추진 계획

포스코홀딩스는 중장기적으로 그룹의 정보보호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최신 해킹 공격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보호 점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으며, 이차전지 소재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진단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 위협을 효과적으로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에서 통합 보안관제의 단계별 운영 방식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대응은 정보보호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핵심기술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보안 강화와 외부 침해 위협 예방을 위해 그룹 전반에 걸친 모의해킹 점검을 실시하고, 내부 시스템의 취약점을 식별해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추가로, 독일 자동차 산업 협회(VDA)에서 개발한 보안 프레임워크인 TISAX(Trusted Information Security Assessment Exchange) 인증을 취득하여 글로벌 자동차 제조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TAX
PAYMENT

세금

정책

포스코그룹은 대한민국 및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의 조세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조세 회피 금지 및 이전 가격에 대한 기본 원칙을 포함한 조세 정책²⁾을 엄격히 따르고 있습니다.

투명한 납세의무 이행

포스코그룹은 국내 법규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나라별 법규에 따라 성실하게 세무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나라별 과세당국과의 투명한 관계 속에 관련 법이 정하는 자료 제출 등 납세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OECD 이전 가격 가이드라인과 각국의 법규에 따른 정상가격거래를 원칙으로 합니다. BEPS(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를 매년 과세당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해당 국가에서 요청할 경우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세금 납부 현황

(단위: 억원)

Financial Reporting	FY 2023	FY 2024	비고
Earnings Before Tax	26,352	12,512	
Reported Taxes(명목세액)	7,893	3,036	Income statement(법인세 비용)
Reported Taxes Rate	29.95%	24.27%	
Cash Taxes Paid	7,274	5,537	Cash flow statement(법인세 납부액)
Cash Tax Rate	27.60%	44.25%	

지역별 법인세 현황(FY2024)

(단위: 억원)

구분	국가명	사업회사/법인명	주요사업	매출액*	영업이익(손실)	법인세비용(수익)
국내외				1,249,469	42,875	2,929
국내	대한민국			897,184	41,137	1,833
		포스코	철강재 제조 및 판매	375,565	14,731	2,436
		포스코인터내셔널	무역, 자원개발	273,887	8,815	1,392
		포스코이앤씨	플랜트, 인프라, 건축	91,619	1,204	150
		포스코퓨처엠	양극재, 음극재, 내화물 등	36,090	289	(1,984)
		기타		120,023	16,098	(161)
해외				352,285	1,738	1,096
동남아				119,654	1,421	472
	인도네시아	PT. KRAKATAU POSCO/POSCO-IJPC 등	철강재 가공 및 판매	36,384	1,350	261
	베트남	POSCO-Vietnam/POSCO-VST/PY-VINA 등	철강재 제조 및 판매	28,502	70	70
	싱가포르	POSCO INTERNATIONAL SINGAPORE 등	무역 트레이딩	32,251	80	65
	태국	POSCO Thainox/POSCO-TBPC/POSCO-TCS 등	철강재 가공 및 판매	15,706	171	31
	말레이시아	POSCO-MKPC/POSCO-Malaysia 등	철강재 가공 및 판매	5,430	(488)	29
	기타	기타		1,382	238	16
중국		장가항포항불수강 등	철강재 가공 및 판매	68,767	(2,034)	(174)
일본		POSCO-JAPAN/POSCO INTERNATIONAL JAPAN 등	철강재 무역, 트레이딩 등	35,974	430	107
인도		POSCO Maharashtra/POSCO-IPPC 등	철강재 제조 및 판매	34,320	1,154	(106)
북미				30,512	494	291
	미국	POSCO INTERNATIONAL AMERICA 등	무역 트레이딩	30,118	563	131
	캐나다	POSCAN 등	석탄 판매 등	394	(69)	160
남미				28,312	(273)	158
	멕시코	POSCO-Mexico/POSCO-MPPC 등	철강재 제조 및 판매 등	28,272	799	158
	기타	기타		40	(1,072)	0
유럽				29,499	(163)	11
	폴란드	POSCO-PWPC 등	철강재 가공 및 판매	1,272	(70)	2
	이탈리아	POSCO-ITPC/POSCO INTERNATIONAL ITALIA 등	철강재 가공 및 판매, 트레이딩 등	9,812	(19)	20
	독일	POSCO INTERNATIONAL DEUTSCHLAND 등	무역 트레이딩	10,996	10	0
	기타	기타		7,419	(84)	(11)
호주		POSCO-Australia 등	자원 개발 및 투자	4,538	854	338
기타지역	기타	기타		710	(145)	(1)

*내부거래 제거 전 매출액

POLICY
SUPPORT

정책지원

조직

포스코홀딩스는 합법적인 범위에 한하여 정책지원 활동을 수행하며, 그룹 차원의 대관 업무는 포스코홀딩스 커뮤니케이션 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 정책지원 조직 현황

구분	회사명	인력 현황	2024년 주요 활동
국내	정책지원	14명	그룹 전반의 대정부·대국회 활동 총괄
	포스코홀딩스	글로벌통상정책	4명 그룹 전반의 글로벌 통상 업무 총괄
		국제협력	7명 그룹 전반의 국제협회, 주한 해외공관, 해외 상공회의소 활동 총괄
	포스코		7명 철강 관련 대정부·대국회 활동
	포스코인터내셔널		10명 에너지·무역 관련 대정부·대국회 활동
	포스코이앤씨		6명 건설·인프라 관련 대정부·대국회 활동
	포스코퓨처엠		5명 이차전지 관련 대정부·대국회 활동
해외	포스코유럽		1명 EU 싱크탱크 및 정책 전문가 네트워킹
	포스코유럽(브뤼셀사무소)		2명 CBAM 관련 EU 의회·집행위 대응 및 EU 입법 모니터링
	worldsteel		2명 세계스테인리스협회 분과위원회 프로젝트 추진
	포스코아메리카		4명 미국 정책 동향 모니터링

정책

포스코그룹은 윤리규범, 부패 방지 정책 및 대한민국 정치 자금법에 따라 정치적 목적의 기부·후원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윤리규범

금품, 접대, 편의 제공금 등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제공하거나 요구받아서서는 안 됨을 명시, 예외 사항과 구체적 금액 기준 제시

부패 방지 정책

미국 FCPA, 영국 Bribery Act 등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고 OECD 뇌물방지협약, UN 부패방지 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유엔글로벌 콤팩트 등 국제표준 준수

포스코홀딩스 이사회 운영규정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기부 및 찬조는 ESG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 10억원 초과 기부 및 찬조는 ESG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고, 이사회에서 심의 및 의결

그룹 주요 협회비 현황(해외)

(단위:천원)

회사명	협회명	협회 소속 국가	참여 목적	당사 역할	2023년 납부 금액	2024년 납부 금액
포스코홀딩스	세계철강협회(worldsteel)	벨기에	전 세계 철강산업의 이익 증진을 목표로 수요산업 트렌드, 기후변화, 안전 등 철강산업 전반의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	탄탄소 혁신기술 컨퍼런스(worldsteel Breakthrough Technology Conference) 개최 주도 등 글로벌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 가속화 유도	929,010	845,917
	WEF (World Economic Forum)	스위스	글로벌 경제 트렌드 이해 및 당사 사업전략 수립에 필요한 인사이트 확보	잠재적 비즈니스 파트너 등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회원사로서 글로벌 이슈 해결에 참여	450,000	457,464
포스코유럽	재독한국경제인협회	독일	주독일 한국 기업 협업 및 현지 대응력 제고	주정부 경제관료 및 투자청 정기 미팅 및 한국경제인협회 행사 참여	2,850 (EUR 2,000)	2,930 (EUR 2,000)
	유럽철강유통협회		시장 및 유통망 정보 확보를 통한 수출량 확대	철강유통상 컨퍼런스 참석 등으로 당사 세일즈 채널 최적화 제고	4,987 (EUR 3,500)	5,243 (EUR 3,500)
포스코유럽 (브뤼셀사무소)	재벨한국경제인협회	벨기에	주벨기에 한국 기업 협업 및 현지 대응력 제고	정기, 비정기 간담회 참여를 통한 EU 정치경제 정책 동향 정보 파악	1,633 (EUR 1,200)	1,810 (EUR 1,200)
포스코아메리카	National Foreign Trade Council	미국	외국무역협회로서 반관세에 대한 협력 활동의 확대 및 소속 기업 간 정보 교류	철강·이차전지 등 주요 정책에 대한 당사 입장 전달 및 연대활동 참여	13,192 (USD 10,000)	13,639.8 (USD 10,000)
	Washington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통상·산업정책 현안 및 동향 정보 수집	주요 통상 현안 관련 정보 수집 및 네트워크 강화	462 (USD 350)	477.4 (USD 350)
	American Metals Supply Chain Institute		대미 수입자를 대변하는 철강 산업단체로, 철강 수출입 규제에 대한 통상 환경 제고	철강 관련 이해관계자 연대활동 강화 및 대미 수출 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 전달	5,277 (USD 4,000)	5,479.9 (USD 4,000)
	US Chamber of Commerce		통상·산업정책 동향 정보 수집 및 아웃리치 활동 지원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강화 및 통상·산업정책 관련 논의 세미나·간담회 참여	13,192 (USD 10,000)	6,819.9 (USD 5,000)

그룹 주요 협회비 현황(국내)

(단위: 천원)

회사명	협회명	협회 소속 국가	참여 목적	당사 역할	2023년 납부 금액	2024년 납부 금액
포스코홀딩스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민국	기업경영 관련 법·제도 개선 위한 창구 확보	부회장단으로서 국내외 기업인 및 정부 관계자 등과의 소통 및 기업 경영 관련 규제·애로사항 개진을 통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기업 혁신 활동 지원	100,000	100,00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미 투자 기회 확대 및 양국 간 무역 증진을 위한 정보 교류	철강·이차전지 사업 등 대미 무역 증진 기여	180,000*	-
	주한호주상공회의소		호주 내 당사의 원활한 사업 운영과 양국 간 무역 증진을 위한 정보 교류	환경 철강 원료, 리튬 사업 등 양국 간 무역 증진에 기여	20,000	20,000
	청정암모니아협의체		암모니아 기반의 해외 수소 도입과 청정 연료 활용을 위한 국내외 기술 및 정보 교류	정회원으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CO ₂ -free 암모니아 생산·운송·추출·활용 등 전 주기 기술 기반 마련을 위한 협력 및 전 주기 실증 연계 추진	2,000	2,000
	H2KOREA		민간 주도 국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준회원으로 수소 관련 국내외 동향, 통계 자료 수취 및 활용	25,000	25,000
	한국경제인협회		기업 경영환경 개선(노동·규제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ESG 경영 확산 등	회원사로서 업계 주요 기업인 및 정부 관계자 등과의 소통 및 규제·애로사항 개진을 통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 도모	-	862,000
포스코	한국철강협회(산하기관 포함)		철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내수시장 안정화를 위한 생태계 강화와 관련 정책 제언, 통상규제 대응을 위한 아웃리치 활동 지원 등	3,228,000	3,601,451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 철강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협의체	대외 정책 활동 지원(기후변화·통상 이슈 대응 등), 포스코 대표이사의 부회장단 활동, 노사관계·ESG 등 관련 각종 회의체 참석	327,590	327,590
포스코인터내셔널	상공회의소(서울상공회의소, 인천상공회의소 및 광양상공회의소)		통상·산업정책 동향정보 수집 및 아웃리치 활동 지원	대표이사의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위원장 활동, 주요 회의체 참석을 통한 국내외 통상·산업 정책 동향 파악 및 산업계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 기여	256,400	138,200
포스코이앤씨	대한건설협회		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에 공헌	건설업계 현안 및 동향수집, 각종 정책과 제도 개선 참여	673,471	811,247
포스코퓨처엠	한국배터리산업협회 ¹⁾		배터리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에 공헌	배터리업계 현안 및 동향정보 수집, 각종 정책과 제도 개선	120,000	155,000
	한국경제인협회		대기업 입장 대변을 위한 산업단체 활동	정부 및 국회 건의 등 산업단체 활동 참여	-	47,000

* 2023~2025 3년 회원비
1) 한국배터리연구조합은 한국배터리산업협회의 내부조직으로 통합 공시함.

ESG ISSUE PROGRESS & PROSPECTS

LABOR RIGHTS AT POSCO ASSAN TST IN TÜRKIYE 튀르키예 포스코아산TST법인 노동권

※ 소송 경과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년도 보고서 144p~150p 참고

POSCO ASSAN TST의 노동권 관련 모든 소송이 2024년 10월부로 종결되었습니다. 현재 2025년 6월 기준, 관련 진행 중인 소송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명확한 사실관계와 현지 법인의 노동권 개선 노력, 그룹 차원의 개선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WHAT IS THE MATTER?

2017년 11월, 포스코의 해외 법인인 포스코아산TST 직원 해고 관련 이슈

POSCO ASSAN TST 법인 개요(FY2024)

- 2011년 포스코(POSCO)와 튀르키예 Kibar Holding 합작으로 설립된 스테인리스스틸 냉연제품 생산법인
- 지분구조: 포스코(60%), Kibar Holding(30%), 포스코인터내셔널(10%)
- 연간 판매량: 약 16만톤
- 연매출/영업이익: USD 369.5백만/USD △6.5백만
- 고용인원: 직접 고용 인원 498명 (이즈밋 공장 478명, 이스탄불 오피스 20명)



THE FACT.

시점	사실관계
2017.11.13	· 튀르키예 산별노조인 빌레식 금속노조(이하 금속노조)가 포스코아산TST에 사내 노조 설립을 위해 튀르키예 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 승인을 요청
2017.11.14~11.21	· POSCO ASSAN TST직원 69명 해고 ※ 해고사유: 튀르키예 헌법과 노동법, 회사 사규 위반(금속노조가 사내 조합원 수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미 금속노조에 가입한 TST 직원들이 동료직원들의 노조 가입을 부당한 방식으로 강요)

소송1. 부당해고 확인 소송: 2021년 5월 복직 여부를 다투는 소송의 최종심 판결이 있었으며, 개개인에 대한 법원의 추가 보상금액 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어 2024년 10월 모든 소송이 종결됨.

2017.11.30 해고직원 소송제기	· 해고직원 69명 전원 ‘부당해고 확인 소송’ 제기 · 해고직원 2명은 중도 소송 취하, 67명이 각각 제기한 총 67건의 부당해고 확인 소송에서 최종 회사가 패소
2021.5 최종심 판결	· 최종심 판결내용 (1) 부당해고된 해고원의 복직 (2) 해고원 복직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실제 복직이 이뤄진 날까지 공백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최대 4개월분) 단, 해고 당시 금속노조 조합원이었던 근로자에게는 1년치 급여를 노조 보상금으로 지급
2021.5~2024.10	· 포스코아산TST는 최종심 판결까지 3년 이상 소요된 상황으로 복직보다 해고로 인한 근로기회 상실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보다 현실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함. · 튀르키예 근로노동법 4857 제21조에 명시되어 있는 ‘고용주의 근로계약에 대한 선택적 권리’에 따라 해고자 (1)(2) 판결에 대해 모두 보상금으로 지급 · 실제 보상금 수령 해고원 중 포스코아산TST에 복직을 요구한 해고원은 없었으나, 62명이 추가 보상금 요구 소송*을 제기함 · 추가 보상금은 법원의 추가 보상금액 판결에 따라 순차 지급되었고, 2024년 10월 31일부로 62건의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어 모든 소송 종결됨 * 해고기간 임금 인상분과 복직 혜택을 누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추가 보상 요청

소송2. 노조설립 불승인 반려 소송: 최종심에서 노조가 승소했으나, 2023년 3월 노조가 법적 요건을 더 이상 갖추지 못하여 튀르키예 노동부가 ‘금속노조의 TST 사내노조 승인 요청’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최종 확정하였음.

2018.1.3 소송제기 2020.3월 1심 판결 2021.4월 2심 판결 2022.6월 최종심	· 빌레식 금속노조가 ‘노조설립 불승인 반려 소송’에 제기 · 1심(2020년 3월)과 2심(2021년 4월)은 포스코아산TST 승소 ※ 승소 근거: 금속노조가 사내 노조 설립에 필요한 정족수를 갖추지 못함 · 최종심(2022년 6월)은 포스코아산TST패소 판결 ※ 패소 근거: 이스탄불 사무소 직원을 제외하고 이즈밋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만을 모수로 보면 금속노조가 정족수를 갖추었다고 판단
2022.6~2023.2.E	· 빌레식 금속노조는 포스코아산TST 사내에 노조 설립을 재추진, 튀르키예 노동부에 이슈조정 중재 신청하였으나 노동부는 조정불가 입장 표명
2023.3.9	· 튀르키예 노동부는 총파업 미실시 사실 확인 후 금속노조가 노동법에서 명시한 사내 노조가 되기 위한 법적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근거로 2023년 3월 9일에 ‘금속노조의 TST 사내노조 승인 요청’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최종 확정하고 포스코아산TST에 결과 통보

THE PROGRESS

(1) POSCO ASSAN TST 노동권 강화 노력

직원 대의기구 역할 강화	POSCO ASSAN TST는 직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직원대의기구가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그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함			
	직원대의기구 구성		직원 대의기구 활동 내역	
	구성	직원 투표로 선출된 직원 대표 4명	회의 일자	주요 논의 사항(FY2024)
	회의 주기	매분기	1분기	· 임금인상 관련 사항 합의로 MESS` 기준 임금 인상 합의 · 업무상 긴급히 출근해야하는 경우, 계획 외 오버타임의 경우 돌발업무 수당으로 건당 320TL(Net 250TL) 지급 합의 · 명절 지원금 1,750TL 에서 3,000TL 인상 합의
노사 화합의날 개최	회의 운영	법인 대표가 직접 직원 대의기구의 의견 청취	2분기	· QSS(Quick Six Sigma) 개선활동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 시행 · 쿠르반 명절 시 가동일정을 조정하여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 제공 · 2024년 6월 15일 명절 반일 휴일을 전일 휴일로 부여
	회의 결과	법인 대표와의 회의 결과를 직원 설명회를 통해 안내	3분기	· 노사화합의 날 트레킹 행사 진행(2024.10.3~4) · TST 노사합동 포스코 STS 해외법인(태국) 벤치마킹(2024.11.6~12)
			4분기	· QSS 대회 개최 · 직원대의기구 월별 활동비: 2024년 NET 1,000TL → 2025년부터 Net 1,500TL로 인상 합의
	*튀르키예 노동조합 단체연합과 경영자 단체가 임금인상 협상을 진행하여 합의한 결과			
현지어 인권정책 명문화	2023년 4월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경영 정책을 영어 및 튀르키예어로 명문화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함 🔗			
노사 화합의날 개최	회사는 임직원과 함께하는 노사화합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 주도로 가족 초청행사, 전 직원 체육대회, 노사합동 해외 벤치마킹, 트레킹 등의 활동을 진행함			
				
				
				
신입 법인장 인터뷰				
	가족 초청의 날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노사합동 벤치마킹(태국)			
직원 대의 기구 인터뷰	노사합동 트레킹			

신입 법인장 인터뷰

2025년 1월부터 신규 부임한 POSCO ASSAN TST CEO 최지섭입니다. 현지 노동환경에 대한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노동권을 지속가능한 경영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노사간 투명한 소통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노동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ESG 기준과 POSCO 가치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일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최지섭 / CEO



직원 대의 기구 인터뷰

직원 투표로 선출된 직원 대표로서 직원들의 의견을 회사 대표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노사관계 개선 및 기업 문화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POSCO ASSAN TST 직원 대의기구는 노사화합을 위해 상호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원과 회사의 발전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케리야 아르잔/ Preventive Maintenance B Operator



THE PROGRESS

(2) 그룹 전반의 노동권 강화 노력

포스코그룹 ‘인권경영 선언문’ 명문화

포스코그룹은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을 기준으로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그룹 인권경영 선언문을 명문화하였음. 본 인권경영 선언문은 그룹CEO 및 주요 사장단의 서명으로 국문과 영문으로 공시되었으며, 상세 내용은 본 보고서 69p 참고

포스코 해외법인 인권진단 실시

포스코 법무실 인권센터는 글로벌사업장 인권진단체계를 수립하고, 인권경영 수준 점검을 위해 전 해외법인을 대상으로 매년 인권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2024년 포스코 해외법인 인권진단 및 현지실사 결과

- 진단 대상: 해외법인(50개) 현지채용 직원 12,000여명(응답률 73.2%)
- 기간/방식: 2024년 8~9월 / 담당 주재원 및 G.Staff 대상 온-오프라인 설문(12개 언어)
- 진단 결과: 전년 대비 직원 인식점수 상승, 전체 8개 영역에 걸쳐 대다수인 43개 법인(86%)은 양호한 수준(90점 이상)이나 법인-직원 간 인식차이는 보완 필요
 - [우수] 강제/아동노동 금지, 안전·보건 보장 [개선 필요] 인권경영체계, 이해관계자 인권존중
- 개선 활동: 전 법인 대상 진단결과 피드백(2024년 11월) 및 자체적인 개선활동 촉진, 인권 관리체계 강화(인권교육 표준화 등) 권고, 상대적 열위법인 현지실사
 - * 피드백 사항 : 진단 개요 및 법인별 진단 결과(영역별 점수, 주요 VOC), 영역별 관리사항

현지실사(2023년 진단결과 반영) *2024년 진단결과를 반영한 현지실사는 2025년 실시 예정

- 대상 법인: 인도네시아 법인
 - 실사 기간: 2024년 5~6월
 - 실사 내용: 2023년 진단한 각 영역별 준수 여부(제도/교육/위반사례 등) 검토를 위한 업무자료 상세 확인, 주재원 및 Global Staff 인터뷰 등 진행
 - 실사 결과
 - 현지법 상위의 고충처리 프로세스,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상생 활동, 협조적 노사관계 기반 평화적 교섭 등에서 우수
 - 단, 변화하는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최신 개정법을 및 변경된 본사 사규 바탕의 규정 보완, 개인정보 수집절차 개선 활동 등이 필요
- ※ 해당 법인 개선조치 완료(2024년 10월)
- ESG 정책집 및 윤리강령 게시, 대면교육 강화, 개인정보수집동의 전자서약 징구 등

포스코 해외법인 노사리스크 진단

포스코아산TST 노동권 이슈 진단을 계기로 포스코 인사문화실에서는 2024년 1분기 주요 해외법인에 대한 ‘노사 리스크 진단’을 시행하여 노사 이슈의 재발을 예방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고자 하였음. 상세 진단 결과는 전년도 보고서 147p 참고

영역별 진단 결과

- 전체 8개 영역 평균 90점 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자체점검과 직원인식 간 차이는 평균 3점 수준
- 특히 ‘강제/아동노동 금지’, ‘안전·보건 보장’ 영역이 우수하였고, 채용 시 국제기준/현지법 의거 취업가능 연령 및 관련 증명서 확인, 연소근로자 보호 등 글로벌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 중임
- 인권경영체계 관리는 전년 대비 점수가 제일 상승한 영역으로 고충처리 창구/인간 존중 교육 등이 제도화되어 있으나, 직원 심리적 안전감 제고 및 현장직원 대상 교육 확대 니즈를 확인

법인별 진단 결과

- 대다수인 86%의 법인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및 규정을 갖추고 인간 존중 활동을 실천 중임
- 베트남/인도지역, 미국 대표법인의 경우 직원의 인권 체감도가 높은 수준이었고, 중남미 지역 및 최근 경영여건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중국지역 생산법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음
- 인식 수준이 높은 법인은 영역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운영에서 우위 부각, 향후 우수사례 발굴/전파를 통해 전체 법인의 인권 수준을 향상할 계획이며, 중남미 지역 등 낮은 법인도 전년 대비 뚜렷한 상향 추세를 보이는 바 지속적인 관심 및 직원 공감대 형성, 관리체계 강화로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인권경영 추진

THE PROSPECTS

외부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포스코그룹은 이해관계자와 투명한 소통을 기반으로 외부 관점의 개선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이를 개선하고 상호 조율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PRI Advance 참여 기업으로 글로벌 투자기관과 인권 분야에 특화된 대화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요구 사항과 회사의 노력은 PRI Advance 공식 보고서에서도 확인 가능함

*인권 분야 투자자 연합 이니셔티브

인권경영 선언문 해외법인 전파

2025년 국내 주요 사업회사 대상으로 인권경영 선언문을 전파, 확산하고 있음. 2026년부터는 주요 거점법인을 중심으로 인권경영 선언문을 현지어로 번역하고 현지 CEO 서명으로 배포할 계획임

인권교육 시행

국내외 모든 임직원이 회사가 명문화한 인권경영 선언문의 내용을 인지하고, 본인의 권리와 구제절차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있음. 본 교육과정을 각국 언어로 개설하여 모든 포스코그룹 임직원의 인권 교육을 확대해나갈 계획임

인권영향평가 시행

2025년 국내 주요 사업회사 대상으로 인권 영향평가를 시행하였으며, 주요 개선 조치 내역은 내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지속 공시해 나갈 계획임

ESG ISSUE PROGRESS & PROSPECTS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AT PT.BIA IN INDONESIA 인도네시아 팜농장 PT.BIA 법인 인권과 환경

포스코인터내셔널 인도네시아 팜농장 PT.BIA 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우려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그간의 대응 노력, 그리고 향후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WHAT IS THE MATTER?

포스코인터내셔널 인도네시아 팜농장 운영 관련 환경·사회적 영향에 관한 우려

PT BIO INTI AGRINDO(PT.BIA) 법인 개요(FY2024)

- 2011년 설립한 팜농장 법인, 2012년 말 식재 시작, 2017년 CPO(Crude Palm Oil, 팜원유) 판매 개시
- 지분구조: 포스코인터내셔널(85%), 현지 파트너(15%)
- 연간판매량/생산량: 190,627톤/186,104톤
- 영업이익: USD56백만
- 고용인원: 3,849명



THE PROGRESS

(1) 산림 복원

사실 관계	· 2007년 사업구역허가를 받은 사업 부지 39,900ha에 대해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AMDAL)를 실시함(2009년) ※AMDAL 결과, 사업 부지는 주로 덩굴, 갈대 및 이차림으로 확인됨. · 야생동물보호구역, 늪지대, 수로 등 보호가 필요한 지역 5,705ha를 제외한 34,195ha에 대해 토지사용권(HGU)을 획득함(2009년) · 자체적으로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한 산림, 습지, 수로 등 6,454ha를 추가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7,741ha를 팜농장으로 개발함(2017년 완료)	사업 부지 39,900ha	
		토지사용권 취득 면적 34,195ha	개발 제외 면적 5,705ha
진행 경과	인증 취득 ·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선언(2020년 3월) · 지속가능 팜유 협의체인 RSPO(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인증 취득(2021년 9월) · 농장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국제표준 ISO 45001 취득(2022년 7월) 환경 개선 노력  하천 인근 화학물질 사용 금지: 드론을 활용한 모니터링 강화 이해관계자 교육 및 규정 강화: 고보존가치(HCV) 구역에 대한 이해 제고, 불법 포획 금지 안내 지역사회 참여 및 제3자 수질검사 실시: 수질 분석용 샘플 취수 과정에 선주민 참여, 공청회 통해 분석 결과 지역사회 공개(반기 1회)	PT.BIA 팜농장 27,741ha	
		자체 보존 면적 6,454ha	
향후 계획	· RSPO 인증과 연계하여 승인받은 RaCP(Remediation and Compensation Procedure) 프로그램 이행으로 팜농장 개간 면적(27,741ha)의 약 5배에 해당하는 139,600ha 규모의 산림 및 생태계 보호 - 대상 지역: 팜농장 인근 비안강 야생동물 보호구역(LBWR, 총 면적 139,600ha) - 이행 예산: 총 USD62백만/25년(2021~2046년) - 세부계획: 5대 사업 분야별 사업 이행 계획 (1) 산림 및 생물다양성 보존 (2) 선주민들의 지속가능한 경제생활 지원(경제적 자립지원) (3) 선주민들의 환경보전활동 장려 프로그램 운영 (4) 통합화재 관리 (5) 수질관리		



선주민 경제 자립지원(파푸아 전통 다목적 편직물 가방 Noken 제작)

THE PROGRESS

(2) 선주민의 사전인지동의(FPIC)와 고충처리절차 *Free, Prior & Informed Consent 자발적 사전인지 동의

사실 관계

-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PT.BIA는 파푸아 지역 정부 및 선주민과 총 27차례의 공청회를 실시함
- 공청회는 모두 현지어로 진행되었으며, PT.BIA 사업 부지에 대한 관습적 소유권을 보유한 Mahuze 및 Basik-Basik 부족 대표들이 참석하여 서면으로 합의함
- 이후, 파푸아 지방정부로부터 회사가 모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역사회와 합의에 도달하였음을 공문으로 인정받음

토지보상 관련 선주민 공청회

토지보상 합의 서명 및 보상금 지급

현지 실사

- PT.BIA는 원주민 권리에 대한 외부 이해관계자의 우려를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진단하고 해결하고자 2025년 4월 제3자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였음
- 인권영향평가의 프레임워크는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ILO 핵심 협약, UNGPs에 근거하여 수립되었으며, 10개의 핵심 인권 이슈를 식별 및 평가하였음.

인권영향평가 프로세스

PT.BIA는 주요 인권 이슈를 식별하기 위해 혼합 방법론을 적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부 인권 자료 및 공시 문서 검토, 현장 점검, 지역단체 인터뷰 등을 실시하고, 각 이슈의 심각성과 발생가능성을 평가하여 주제별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합니다. 특히, 현장 방문과 상황 기반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영향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모든 이슈의 가능성 점수를 결정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기업 활동 및 비즈니스 관계가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절차

문헌 조사	이해관계자 인터뷰	현장 점검
· 내부자료, NGO 보고서, 학술 문헌 등 공공데이터 검토 · 지역의 주요 인권 관련 이슈 파악	· 학계, NGO 등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문헌조사 보완 · 지역 NGO 및 공동체 단체와 대면 인터뷰 실시	· 팜농장, 착유공장, 인근 지역사회 등 직접 방문 · 실질적 인권 리스크 노출 및 피해 여부 확인

중요성 판단 절차

심각성 정의	발생가능성 정의 ¹⁾	중요성 산정
· 인권 침해의 규모, 범위, 회복가능성 등을 평가	· 운영 환경과 사업 활동과의 연관성 검토	· 두가지 요소(심각성+ 발생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슈의 우선순위 결정

1) 문헌 조사에서 식별되었지만 인터뷰·현장 점검에서 확인되지 않은 이슈는 발생가능성 점수 하향 조정
2) Saliency는 리스크의 규모나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에 있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이슈’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이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인권 과제를 식별하는 기준으로 사용됨

인권영향평가 결과

LRQA는 PT.BIA 법인을 대상으로 10개 핵심 인권 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각 주제에 내재된 인권 이슈의 중대성(saliency)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차별, 단체교섭, 폭력 및 괴롭힘 등은 체계적인 관리와 이행 활동이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근무환경, 선주민 권리, 지역사회 관계 등 일부 주제에 대해서는 운영상 모니터링 체계 보완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한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PT.BIA 법인은 중대성이 중간 이상으로 평가된 주제를 중심으로, 개선 과제 도출 및 이행을 통해 인권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핵심 인권 주제	유관 이해관계자	Saliency ²⁾
① Child Labour (아동노동)	근로자, 선주민 및 지역사회	Less Salient
② Discrimination (차별)	근로자	Less Salient
③ Forced Labour (강제노동)	근로자	Salient
④ Freedom of Association (단체교섭)	근로자	Less Salient
⑤ Decent Work (근무환경)	근로자	Salient
⑥ Health & Safety (안전보건)	근로자	Less Salient
⑦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y Rights (선주민 및 지역사회 권리)	선주민 및 지역사회	Most Salient
⑧ Civil and Political Rights (시민적·정치적 권리)	선주민 및 지역사회	Less Salient
⑨ Violence & Harassment (폭력 및 괴롭힘)	근로자	Less Salient
⑩ Access to Remedy (구제 접근성)	근로자, 선주민 및 지역사회	Less Salient

심각성

발생가능성

Issue	Occurrence Probability (X)	Saliency (Y)
1	0.8	0.1
2	0.2	0.2
3	0.7	0.6
4	0.2	0.1
5	0.4	0.7
6	0.6	0.5
7	0.8	0.9
8	0.2	0.2
9	0.6	0.4
10	0.2	0.2

THE PROGRESS

PT.BIA 인권영향평가 결과

테마	문헌 조사	현장조사 결과
① 아동노동	· 인도네시아는 아동노동에 관한 법률과 ILO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팜유 산업 전반에 걸쳐 아동노동 발생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존재함	· 18세 미만 아동노동자는 확인되지 않으며, 고용 시 신분증 및 생년월일 확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학교 및 보육시설 지원을 통해 아동보호 기반을 마련
② 차별	· 인도네시아는 성별, 민족, 지역 간 사회적 차별 리스크가 존재하며, 특히 파푸아 출신 주민에 대한 구조적 차별 우려가 꾸준히 제기됨	· 임금, 승진, 고용 기회에서 차별 정황은 발견되지 않음 · 파푸아 출신 및 여성 근로자 인터뷰에서도 차별 사례는 확인되지 않음
③ 강제노동	· 강제노동은 팜유 산업 전반에 내재된 구조적 리스크로, 특히 인도네시아 팜유 부문과 파푸아 지역에서는 임금 체계 및 근로 형태와 관련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제3자 인권영향평가 기관의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강제노동 리스크가 높고 근로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 수준이 낮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음	· PT.BIA 법인은 제3자 노동중개를 배제한 직접 고용, 서면 계약 제공, 채용 수수료 모니터링 및 환급 제도 등을 통해 강제노동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통제하고 있음 · 현장 실사에서도 ILO 기준에 따른 중대한 강제노동 사례는 식별되지 않았으며, 일부 초과근무 및 작업환경 개선의 필요성은 있었으나 강제노동으로 간주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됨. 따라서 강제노동은 산업 전반에서 주의가 필요한 이슈이나, PT.BIA 법인 팜농장 내에서는 발생 가능성이 낮은 리스크로 판단됨
④ 단체교섭	· 팜유 산업 전반에서 결사의 자유 제한, 노조 결성 방해 등의 문제 사례가 보고됨	·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와 노조 가입 권리는 보장되며, 약 90%가 노조에 가입 · 단체협약(PKB)은 존재하지만, 노사협의회 운영은 비정기적이며 근로자 참여도는 낮은 편임
⑤ 근무환경	· 인도네시아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에 관한 핵심 협약(제87호, 제98호)을 아직 비준하지 않아 제도적 측면에서 노동자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음 · LRQA의 자체 인권리스크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낮은 임금 수준과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인해 노동권 침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에 해당함. 이러한 제도적·구조적 요인은 인권 실사 대상인 PT.BIA의 근무환경 평가에도 참조 기준으로 적용되었음	· PT.BIA 법인은 인도네시아 노동법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 규정을 단체협약과 공급업체 행동강령에 반영하고 있음 · 근로시간은 지문 인식 기반의 출퇴근 시스템과 자발적 연장근로 신청서를 통해 관리되며, 대부분의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다만, 기상 등 외부 요인으로 작업이 지연되는 경우 근로시간이 정확히 기록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해당 제도의 개선을 추진 중임
⑥ 안전보건	· 팜유 산업 내 고온, 장시간 노출, 보호장비 부족 등의 보건 리스크가 지적됨	·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보호장비 무상지급 및 정기 안전교육 시행 · 유해작업 사전 승인제와 식품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함 · 여성 생리휴가 등 특수보호 정책은 미흡하나 중대한 위반은 없음
⑦ 선주민 및 지역사회 권리	· 인도네시아는 유엔 선주민 권리 선언(UNDRIP)을 비준하고 자결권 및 사전동의권(FPIC) 원칙을 수용하고 있으나, 해당 원칙이 국내 법령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보호는 미흡한 상황임 · 기초 농지법, 헌법재판소 판결, 파푸아 특별자치법 등 일부 관련 법령은 존재하나, 집행력 부족과 국가 주도의 허가 절차로 인해 토지 취득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음 · 선주민 권리가 침해될 경우 생계 수단 상실, 문화 훼손, 식량 불안정 등 실질적인 영향이 클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머라우케 지역에서는 정당한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된 개발 사례 및 토지 소유권 분쟁 사례가 언론을 통해 확인된 바 있음	· LRQA는 PT.BIA 법인의 팜농장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FPIC 이행 여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에 대한 외부 우려를 점검하고, 관련 인권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현장 기반 인권 실사를 수행함 · 실사 과정에서 LRQA는 PT.BIA 법인의 팜농장 부지에 관습법적 권리를 가진 주요 선주민 공동체(Marga Basik-Basik, Marga Kewam, Marga Mahuze Milavo) 대표들과 직접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결과 FPIC 미이행 또는 비동의 토지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 제기나 갈등 사례는 확인되지 않음. 신규 토지 분쟁 사례도 실사 과정에서 식별되지 않음 · PT.BIA 법인은 토지 사용에 대해 해당 공동체들과 법적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 고용, 주거, 교육, 인프라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됨 · 사회공헌 및 환경보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평가 있었음 · 2024년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민사소송은 한 선주민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를 상대로 제기한 사안으로, PT.BIA는 당사자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해당 소송은 같은 해 6월 철회됨. 현장 실사와 인터뷰 과정에서도 PT.BIA의 절차적 위반이나 개입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 일부 선주민 대표들은 머라우케 지역 내 외부 인구 유입에 따른 문화 변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특히 청년층의 교육 및 고용 기회 확대가 전통적인 생계 방식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함
⑧ 시민적 정치적 권리	· 인도네시아 헌법은 권리를 보장하나, 파푸아 지역에서는 일부 제약 사례가 존재함	· 사업장 내에서 교육, 의료, 식량 지원 등 사회적 서비스 제공 · 종교적 시설 지원 등을 통해 접근성 보장
⑨ 폭력 및 괴롭힘	· 농장 노동자에 대한 신체적·성적 괴롭힘 발생 우려가 산업 전반에서 보고됨	· 인터뷰 및 실사에서 폭력·괴롭힘 사례는 식별되지 않음 · 내부 고충처리 체계를 운영 중이며, 피해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음
⑩ 구제 접근성	· 농장 노동자의 권리 침해 시 적절한 구제 수단 부재 문제가 지적됨	· 공식적인 고충처리 절차가 존재하며,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 · 신고에 따른 불이익 우려는 없으며, 제기된 민원은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역사회 요청사항(의료, 장례비 지원 등)에 대한 명확한 대응 사례가 확인됨

THE PROGRESS

(2) 선주민의 사전인지동의(FPIC)와 고충처리절차 *Free, Prior & Informed Consent 자발적 사전인지 동의

향후 계획

선주민 의견수렴

- PT.BIA 홈페이지를 통해 RSPO Complaints System을 기반으로 수립한 고충처리 매커니즘 (Grievance Mechanism)을 명문화함(2020년)

날짜	공정회 주제	참석자	이행 내역
2024.10.	ECCDP(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프로그램 운영 현황 공유	PT.BIA, 선주민, 자연환경보호국 (BBKSDA), 이해관계자	· 지역주민향 경제/사회 (교육, 의료 포함) 프로그램 운영 현황 공유 및 성과 발표 · 지역주민, 학계, 정부, 및 종교 계 포함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향후 프로그램 진행 방향 설정

선주민 고충처리시스템

· 2024년 접수된 총 건수는 53건이며, 모두 의료, 장례, 교육비 요청 등 일반 민원건으로 별도 고충에 대한 접수 건은 없었음

General Complaint Category(2023)

12 case

33%

25%

17%

17%

8%

- Medical expenses (3)
- Funeral support (2)
- Religious and culture support (4)
- Education expenses (2)
- Another event support (1)

General Complaint Category(2024)

53 case

32%

19%

32%

11%

6%

- Medical expenses (10)
- Funeral support (17)
- Religious and culture support (6)
- Education expenses (3)
- Other (17)

(3) 팜유 정제사업 진출에 따른 공급망 관리에 대한 의견

사실 관계

- 2023년 설립된 정제법인 PT. AGPA Refinery Complex(ARC)를 통해 2025년 4분기 가동을 목표로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지역에 정제공장 건설을 준비 중임
- 정제공장은 칼리만탄에 조성된 산업단지 내에 건설될 예정으로, 공장 건설과 관련한 산림 훼손 또는 원주민 보상 이슈는 없음

향후 계획

- 국제사회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투명한 공급망 관리를 위한 선제적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음
- PT.ARC는 정제공장 운영 시점부터 RSPO 인증을 취득한 CPO의 사용량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 중임
- 정제공장 운영 개시 이후 3년 이내 RSPO 공급망 인증(SCC, Supply Chain Certification)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음

(4) TNFD 가입 및 자연자본(생물다양성) 공시에 대한 의견

사실 관계

- 2024년 6월, 포스코인터내셔널의 TNFD 포럼 가입이 승인됨
- 포스코그룹 TNFD 포럼 가입 현황: 포스코홀딩스(지주회사),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등 5개사

향후 계획

- TNFD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시 의무화 시점에 맞춰 생물다양성 정보 공시를 추진할 계획임

(5) NDPE 이행 내역 공시(FY2024)

구분	이행계획	진척도	연간 이행경과
정책, 제도 및 관리	2024년도 NDPE 실행 계획 공표	✓	2024년 4월, NDPE 실행계획이 공식 공표되었으며, 상세 내용은 당사 및 PT.BIA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OSCO INTERNATIONAL 홈페이지 ▶ PT.BIA 홈페이지 ▶
	공급망(플라즈마 농장) NDPE 정책 준수 모니터링을 위한 내부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추진	✓	PT.BIA는 지속가능한 팜 사업 운영을 위해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정책을 공급망 전반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신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NDPE Supplier Due Diligence」 제도를 신설하여 정책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 시 이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농장을 포함한 전체 공급망의 NDPE 이행 수준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공급망 추적성 운영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내부 감사에 활용 가능한 전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도입했습니다. 아울러, 임직원 교육을 통해 NDPE 정책의 핵심인 환경 보호, 인권 존중, 고충처리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해당 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PT.BIA는 앞으로도 NDPE 원칙이 공급망 전반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고 내부 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 관점의 NDPE 정책 실행 방향성 수립	🔄	회사는 NDPE 정책의 중장기 실행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다운스트림을 포함한 전체 공급망을 포괄하는 계획을 마련 중입니다. 해당 중장기 계획은 2026년 4월 발간 예정인 ‘2025년도 NDPE 이행보고서’를 통해 대외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환경 보존 및 관리	RSPO 최적 영농관리방안(BMP) 준수 및 하천 번 화학물질 사용금지 지속	✓	PT.BIA는 지속가능한 농업 실천을 위해 RSPO의 최적 영농관리방안(BMP)을 충실히 준수하였으며, 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수변 구역에서는 화학물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수질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버퍼존을 월 1회 모니터링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생활용수 및 공장용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수질 관리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였습니다. Bian강 및 Digoel강 등 임지 외 주요 하천에 대해 샘플링 테스트를 실시하여 사업장 외부의 수질 보호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해당 결과는 인근 지역 주민들과 투명하게 공유하였습니다. Riparian 지역 내 토양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LCC(Leguminous Cover Crops)를 식재하였으며, 드론 기반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구역의 토양 유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토양 부식도 검사를 통해 토양 건강 상태를 점검하였으며, 폐수 처리 시설 인근에는 환경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안내 표지판 8개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폐수 파이프라인의 누수 여부를 점검하고, 임시 댐 및 도랑을 설치하여 잠재적인 누수 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PT.BIA는 향후에도 RSPO BMP를 철저히 준수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활동을 통해 수질 및 토양 보존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임지 내 고보존가치구역(HCV) 6,718 ha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강화	✓	PT.BIA는 2024년에도 총 6,718ha에 달하는 고보존가치구역(HCV) 내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며 환경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HCV 구역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안내 표지판 38개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야생동물 생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HCV 구역과 주요 지역에 카메라 트랩 6대를 재설치하였습니다. B지구 HCV에 식재된 토착종 티크(Teak Tree)의 생육 상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HCV와 버퍼존 인근에서는 토착종 유지관리 및 잡초 제거 작업을 병행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토지청과 협력하여 농장 토지 경계를 모니터링하고, HCV 내 토착종 목료 양묘를 위한 양묘장을 신설하여 C지구에서 총 400그루의 목료를 양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HCV 보호구역 내 사냥 금지 배너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계도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PT.BIA는 앞으로도 HCV 보호구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모니터링, 복원 및 인식 제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Teak Tree 식재 양묘장

(5) NDPE 이행 내역 공시(FY2024)

구분	이행계획	진척도	연간 이행경과
환경 보존 및 관리	임지 외 야생동물 구조 및 재활시설 설립·운영 지원	✓	PT.BIA는 비안(Bian)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불법 포획 야생동물의 외부 반출을 방지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나우 비안(Danau Bian) 야생동물보호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보호센터는 설립 단계에 있으며 202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2024년에는 불법 포획된 보호종 야생동물 일부(Black Papua 뱀, 비단뱀, 앵무새 3마리, 악어 1마리)에 대해 구조 및 보호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자연 서식지로 방사 작업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PT.BIA는 향후에도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원과 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역 생태계 회복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지 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활동 실시	✓	PT.BIA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친환경 에너지 활용 확대를 통해 저탄소 경영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기존 화석연료 대신, 팜오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PKS(Palm Kernel Shell, 팜 열매 껍질)를 연료로 활용하는 친환경 보일러를 신규 설치하고 본격 가동했습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 저감과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PT.BIA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임지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지 외 지역의 화재 예방활동을 위한 화재 관리팀(MPA) 구성/운영	✓	PT.BIA는 임지 외 지역에서도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화재 관리팀(MPA, Masyarakat Peduli Api)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농장 인근 8개 마을의 MPA를 현지 법령에 따라 공식 등록하고, 마을별 조직도를 수립해 총 128명 규모의 화재 관리 인력을 편성했습니다. 화재 예방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8개 마을 전역에서 Smart Patrol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LBWR(Lake Bian Wildlife Reserve) 내에서도 반기별 Smart Patrol을 운영하여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 점검했습니다. 또한 드론 및 위성 이미지 기반의 정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화재 조기 감지 및 신속 대응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전문 기업과 협업하여 전 농장에 대한 산림 훼손 및 화재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플라즈마 농장을 포함한 모든 구역에 실시간 자동 알림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정밀한 화재 예방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PT.BIA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대응 역량 고도화를 통해 탄소 배출 방지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인권 보호 및 존중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속	✓	PT.BIA는 임직원의 전문성과 지속가능한 업무 수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총 8명의 임직원이 수질오염, 대기오염, 위험물질 취급 등 환경관리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직원 거주지 내 폐기물 처리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를 제작·게시하였습니다. 윤리·법규 준수를 위한 인권 및 사규 교육을 3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중장비 조작, 차량 운전 등 실무역량 강화 교육은 9회에 걸쳐 7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안전관리, 성윤리, 아동노동금지법, 폐기물관리법 등 법규 중심 교육을 총 8회 운영하여 33명이 수강하였습니다.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저직급자 12명을 대상으로 별도의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였고, ‘Waste4Change’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는 4명이 참여하여 폐기를 관리 최신 지식을 습득하였습니다. 화학약품·비료 살포 위험성, 최대 근무시간, 사후 처리 절차 등을 주제로 800명의 직원에게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임지 내 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폐기물 관리의 중요성과 실천 방안을 교육하였습니다. 사회적 영향 평가(SIA, Social Impact Assessment) 및 모니터링 관련 전문 과정에 3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지속가능경영 실현을 위한 내부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PT.BIA는 앞으로도 임직원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층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야생동물 방사 행사



학생 폐기물 처리 교육



임직원 폐기물 분리배출 교육

(5) NDPE 이행 내역 공시(FY2024)

구분	이행계획	진척도	연간 이행경과
인권 보호 및 존중	농장 및 공장 대상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강화	✓	PT.BIA는 2024년에도 농장과 공장의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작업자의 안전과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중장비 44대의 운영 허가를 갱신하고, 신규 보일러 및 저장 탱크 운영 허가 취득을 위한 정기 점검을 수행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안전한 설비 운영을 위한 관리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작업자 안전 인식 제고와 현장 운영 역량 강화를 목표로 ‘QSS(Quality, Safety, Sustainability)’ 교육을 실시해 총 973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음, 냄새, 조도, 진동 등 주요 환경 요인 점검을 병행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PT.BIA는 작업자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영 원칙 아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제, 의료,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	PT.BIA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 정부와 협력하여 ECCDP(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를 기반으로 경제, 의료,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 2024년에는 지역 주민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을 단위 공동경제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각 마을 특성에 맞춘 사업 기회를 발굴·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NOKEN(파푸아 지역 전통 가방), 코코넛오일, 베이커리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생선 양식장과 건조시설 지원, 염지법 교육을 통한 어업 사업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부 마을에는 묘목장과 종자 저장소 등 농업 기반 시설을 구축하였으며, 수확된 농·수산물의 판로 개척 및 수요 조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의료]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산모·영유아 대상 영양지원 프로그램(Posyandu)과 청소년 대상 보조식 제공 프로그램(PMT)을 운영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2024년에는 참여자의 영양 상태가 일부 개선되는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또한 위생교육 및 기초 의료 서비스를 병행하며 지역 주민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 아동의 문해력 향상과 기초 학습 능력 증진을 위해 ‘Calistung Program(읽기·쓰기·산수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년별 수준에 맞춘 분반 체계를 구축하고 방과 후 수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분기별 평균 200명이 참여하였으며, 마을 대표 및 이해관계자 대상 프로그램 홍보 및 결과 공유 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추가로 타 교육기관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PT.BIA는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경제 프로그램을 꾸준히 발굴·운영하고, 의료·교육 분야에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실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임직원 안전 의식 수준 향상을 위한 보상 체계 수립	✓	PT.BIA는 임직원들의 안전 의식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및 사고 예방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상을 기반으로 하는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임직원이 현장 안전 수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위험요소 사전 인지 및 개선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전사적인 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PT.BIA는 이 보상 체계를 통해 임직원의 안전 실천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은 물론 지속가능한 안전 관리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DE&I) 기업 문화 구축 추진	✓	PT.BIA는 2024년, 다양성(Diversity), 공정성(Equity), 포용성(Inclusion)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 조성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DE&I 정책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갭 분석(Gap Analysis)을 실시해 현행 제도와 글로벌 기준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177개 항목으로 구성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향후 정책 개선 시 국제 기준 부합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DE&I 정책이 조직문화 전반에 효과적으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실행 방안을 수립 중이며, 글로벌 선도 기업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실행 전략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규정 검토 및 현황 조사	✓	PT.BIA는 앞으로도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공정하고 평등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5) NDPE 이행 내역 공시(FY2024)

구분	이행계획	진척도	연간 이행경과
이해관계자 소통	고충처리 현황 공개 강화 및 고충처리 결과 주기적 업데이트	✔	PT.BIA는 2020년부터 고충처리 매커니즘에 따라 내부 신고 및 고충 접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모든 사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고충처리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고충처리 내역 및 결과는 PT.BIA 홈페이지 내 Grievance Log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고충처리 체계의 명확화를 위한 내부 협의를 진행하고, 프로세스를 보완함으로써 시스템을 한층 강화했습니다.또한, 지역사회와의 신뢰 형성 및 소통 강화를 위해 종교·지역 대표 1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고, 약 100명 이상의 선주민이 참석한 공청회를 통해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해관계자 공청회 이해관계자 공청회
			해당 자리에서는 PT.BIA의 환경 관리 및 지역경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해관계자로부터 피드백을 수렴하여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PT.BIA는 앞으로도 고충처리 절차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기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임직원 뿐만 아니라 농장 내·외부 지역 주민의 고충도 함께 접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함으로써, 모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경영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NDPE 이행 경과를 담은 연간 활동 보고서 발간		✔	PT.BIA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4년도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정책 이행 경과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Part 3.

In This Section

Factbook		134
Policybook		160
Reporting Index	GRI	183
	UNGP	185
	WBA	185
	CHRB	186
인증보고서		187

사업부문별 요약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부문	자산						매출 ¹⁾					
	FY2022		FY2023		FY2024		FY2022		FY2023		FY2024	
철강부문	57,229,302	58%	56,345,940	56%	66,585,437	40%	44,546,966	53%	40,393,273	52%	39,104,095	54%
인프라부문(무역)	11,744,812	12%	8,765,648	9%	21,012,507	13%	25,955,458	31%	24,033,506	31%	22,803,773	31%
인프라부문(건설)	8,027,388	8%	1,973,626	2%	9,270,877	6%	7,667,696	9%	8,301,130	11%	7,473,006	10%
인프라부문(물류 등) ²⁾	5,569,901	6%	9,206,723	9%	2,592,169	2%	3,998,959	5%	470,613	1%	421,742	1%
이차전지소재부문	6,101,655	6%	14,557,130	14%	15,090,058	9%	2,451,785	3%	3,816,042	5%	2,812,549	4%
기타부문	9,733,723	10%	10,096,327	10%	50,946,666	31%	129,340	0.2%	112,633	0.1%	72,978	0.1%
합계	98,406,781	100%	100,945,394	100%	165,497,714	100%	84,750,204	100%	77,127,197	100%	72,688,143	100%

1) 내부거래를 제외한 외부 매출액

2) 포스코에너지가 2023.1월부터 포스코인터내셔널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합병 이전 포스코에너지 실적은 인프라(물류 등)에 합산

지역별 매출현황

(단위: 백만원)

지역구분	매출					
	FY2022		FY2023		FY2024	
대한민국	54,519,647	64%	50,658,510	66%	45,960,140	63%
아시아(기타*)	9,331,724	11%	7,287,382	9%	7,382,157	10%
중국	7,430,619	9%	6,152,191	8%	5,737,686	8%
인도네시아	3,282,888	4%	3,422,647	4%	3,156,962	4%
유럽	2,811,444	3%	2,468,508	3%	2,743,528	4%
일본	2,651,584	3%	2,691,788	3%	2,814,631	4%
미국	2,413,054	3%	2,095,705	3%	2,504,563	3%
기타지역	2,309,244	3%	2,350,466	3%	2,388,476	3%
합계	84,750,204	100%	77,127,197	100%	72,688,143	100%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제외

주요 회사 재무현황(FY2024)

(단위: 백만원)

회사명	구분	자산	매출	당기손익
포스코홀딩스	지주회사, 상장	50,633,797	1,997,128	1,621,282
포스코	포스코홀딩스 지분 100%, 비상장	45,681,401	37,556,523	901,542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홀딩스 지분 70.71%, 상장	12,692,301	27,388,739	510,930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홀딩스 지분 52.8%, 비상장	7,370,054	9,161,904	36,177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홀딩스 지분 59.72%, 상장	6,765,713	3,608,988	(222,038)
포스코DX	포스코홀딩스 지분 65.38%, 상장	871,043	1,440,386	86,759
포스코플로우	포스코홀딩스 지분 100%, 비상장	571,976	2,505,369	29,053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 지분 56.87%, 상장	530,860	1,175,769	32,358
포스코엠텍	포스코 지분 48.85%, 상장	149,758	346,628	568

ESG Factbook_국내 주요 법인 연결

2024 포스코홀딩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부터 재무보고서와의 일관성 측면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철강, 인프라, 이차전지소재 부문으로 구분하여 공시하였습니다.

(1) 사업부문별 보고 종속회사

- 철강: 포스코,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엠텍(자동차, 조선, 가전 등 산업에 철강제품 공급)
- 인프라: 포스코인터내셔널(무역 등), 포스코이앤씨(건설), 포스코DX(IT), 포스코플로우(물류),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제조)
- 이차전지소재: 포스코퓨처엠(리튬, 니켈, 양극재, 음극재, 리사이클링 등 EV 배터리 소재)

(2) 연도별 보고 종속회사

- 2022년(8개사):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X,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엠텍
- 2023년, 2024년(10개사):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X, 포스코플로우,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포스코엠텍

국내 주요 법인 연결 - 환경

- 포스코홀딩스의 환경데이터 보고범위는 '포스코센터', '강릉사업장', '포항미래기술연구원(2024년부터 포함)'이며, 사업회사별 보고범위는 해당 회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일치합니다.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23년 1월부터 포스코에너지와 합병함에 따라 2023년부터 에너지 사업장을 포함하였습니다.

온실가스 Scope 1, 2¹⁾

지표명	단위	2022					2023					2024				
		포스코홀딩스 (별도) ²⁾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포스코홀딩스 (별도) ²⁾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포스코홀딩스 (별도) ²⁾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 ³⁾	tCO ₂ e	6,380	70,302,442	324,201	2,232,308	72,865,331	6,645	72,091,894	4,515,705	2,388,831	79,003,075	10,746	71,193,149	5,158,166	2,298,133	78,660,194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tCO ₂ e	1,339	68,365,152	278,822	1,916,392	70,561,705	1,358	70,650,464	4,351,130	2,022,088	77,025,039	1,057	69,734,198	4,990,315	1,885,309	76,610,880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2)	tCO ₂ e	5,041	1,937,290	45,379	315,920	2,303,630	5,289	1,441,437	164,580	366,750	1,978,056	9,689	1,458,960	167,858	412,832	2,049,339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Scope 1&2) ⁴⁾	tCO ₂ e/ (ton, 억원)	0.07	2.05	0.78	73.40	-	0.46	2.02	10.46	53.59	-	0.54	2.03	12.38	63.68	-

- 1) 환경부 온실가스 명세서 기준으로 사업장별로 소수점 단위 이하를 절사하여 합산하므로 배출량 합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2025년 6월 보고서 발간일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부 검증이 확정되지 않아 최종 고시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 포스코센터의 경우 배출권 거래제 및 목표 관리제 지정 업체를 제외한 입주 그룹사의 합계임
- 3) 단순 오류로 이전 연도 보고서 데이터 정정(하위항목 포함)
- 4) 철강 부문은 포스코(단독)의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조강생산량 기준)이며, 그외 부문은 매출액 기준으로 집약도 산정

국내 주요 법인 연결 - 환경

온실가스 Scope 3¹⁾

지표명	단위	2022				2023				2024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기타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²⁾	tCO ₂ e	7,107,502	3,231,159	8,575,445	18,914,106	7,419,787	3,620,218	1,604,844	12,644,849	7,216,788	3,403,010	1,972,949	12,592,747
기타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업스트림)	tCO ₂ e	4,570,474	1,262,925	4,586,268	10,419,667	5,229,508	2,036,922	1,535,016	8,801,446	5,054,941	1,915,484	1,934,105	8,904,530
제품 및 서비스 구매①	tCO ₂ e	2,583,823	1,224,667	3,434,090	7,242,580	2,764,127	1,975,801	664,089	5,404,017	2,170,214	1,840,468	892,124	4,902,806
자본재②	tCO ₂ e	857	179	0	1,036	563	14,275	20,906	35,744	939	10,598	35,643	47,180
Scope 1, 2에 포함되지 않는 연료/에너지③	tCO ₂ e	298,540	0	1,091,102	1,389,642	334,942	140	754,908	1,089,990	735,200	13,838	903,768	1,652,806
운송 및 유통④	tCO ₂ e	1,537,143	18,779	57,365	1,613,287	1,926,052	27,774	60,940	2,014,766	1,949,126	22,260	64,114	2,035,500
사업장 발생 폐기물⑤	tCO ₂ e	141,520	16,864	1,250	159,634	195,608	10,890	30,072	236,570	189,643	20,044	33,554	243,241
구성원 출장⑥	tCO ₂ e	346	1,915	443	2,704	486	7,485	846	8,817	1,895	8,230	773	10,898
구성원 통근⑦	tCO ₂ e	8,245	521	2,019	10,785	7,730	557	3,255	11,542	7,924	46	4,129	12,099
임차 자산⑧	tCO ₂ e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간접 온실가스 배출량(다운스트림)	tCO ₂ e	2,537,028	1,968,234	3,989,176	8,494,438	2,190,279	1,583,296	69,826	3,843,401	2,161,846	1,487,526	38,844	3,688,216
운송 및 유통⑨	tCO ₂ e	489,786	0	6,233	496,019	26,936	0	0	26,936	28,695	0	0	28,695
판매제품 가공⑩	tCO ₂ e	0	0	1,137,422	1,137,422	0	0	0	0	0	0	0	0
판매제품 사용⑪	tCO ₂ e	0	1,968,158	2,843,555	4,811,713	0	1,583,296	0	1,583,296	0	1,487,526	0	1,487,526
판매제품 폐기⑫	tCO ₂ e	0	0	0	0	0	0	0	0	0	0	0	0
임대 자산⑬	tCO ₂ e	1,888,240	0	0	1,888,240	1,974,893	0	0	1,974,893	1,935,128	0	0	1,935,128
프랜차이즈⑭	tCO ₂ e	0	0	0	0	0	0	0	0	0	0	0	0
투자⑮	tCO ₂ e	159,002	76	1,967	161,045	188,450	0	69,826	258,276	198,023	0	38,844	236,867

1) 그룹사 간 내부거래 제거 전 배출량이며, 제3자 외부 검증의견서는 사업회사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확인 가능
 - 보고범위: [철강 부문] 포스코, [인프라 부문] 포스코인터내셔널(FY2023부터 포함)*, 포스코이앤씨, 포스코DX, [이차전지소재 부문] 포스코퓨처엠
 * 발전소 연료 구매 및 판관비에 해당하는 Scope3 배출량에 한해 포함. 철강, 에너지, 식량 등 무역의 상품거래는 합리적인 산정 방법론 개발 후 산정 예정
 2) 단순 오류로 이전 연도 보고서 데이터 정정(하위항목 포함)

국내 주요 법인 연결 - 환경

에너지¹⁾

지표명	단위	2022					2023					2024				
		포스코홀딩스 (별도) ²⁾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포스코홀딩스 (별도) ²⁾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포스코홀딩스 (별도) ²⁾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에너지 사용량 ³⁾	GJ	130,790	336,097,561	3,479,164	15,868,721	355,576,236	137,263	356,445,413	88,411,736	17,765,118	462,759,530	223,299	361,751,783	101,693,778	18,250,505	481,919,365
비재생에너지 사용량	GJ	130,791	336,097,278	3,479,164	15,868,093	355,575,325	137,263	356,444,954	88,411,735	17,764,328	462,758,280	223,299	361,750,620	101,697,435	18,249,494	481,920,848
직접 에너지 사용량	GJ	55,885	320,191,037	2,525,145	9,367,653	332,139,720	26,752	344,145,919	84,993,244	10,129,127	439,295,043	20,835	349,300,872	98,187,732	9,611,448	457,120,886
석탄	GJ	0	- ⁴⁾	0	125,305	125,305	0	- ⁴⁾	0	36	36	0	- ⁴⁾	0	0	0
천연가스	GJ	55,885	31,858,648	2,422,609	191,188	34,528,330	26,752	46,899,454	84,779,252	255,371	131,960,829	20,835	62,261,997	97,202,797	297,011	159,782,640
부생가스	GJ	0	288,103,292	0	8,571,553	296,674,845	0	294,489,643	0	9,373,190	303,862,833	0	284,088,474	0	9,206,800	293,295,274
B-C유	GJ	0	0	0	190,351	190,351	0	0	0	245,826	245,826	0	0	0	42,659	42,659
등유	GJ	0	29	41,025	81	41,135	0	2,682	58,827	125	61,634	0	2,072	44,184	117	46,373
석유 코크	GJ	0	0	0	276,346	276,346	0	0	0	241,066	241,066	0	0	0	53,868	53,868
B-A유	GJ	0	0	0	1,173	1,173	0	0	0	2,298	2,298	0	0	0	0	0
휘발유	GJ	0	7,312	24,485	2,916	34,713	0	6,672	23,225	2,776	32,673	0	7,766	23,388	3,153	34,307
디젤	GJ	0	221,467	34,876	8,741	265,084	0	191,827	130,499	8,440	330,766	0	193,375	913,602	7,840	1,114,817
LPG	GJ	0	289	2,150	0	2,439	0	292	1,442	0	1,734	0	303	1,744	0	2,047
기타 ⁵⁾	GJ	0	0	0	0	0	0	2,555,349	0	0	2,555,349	0	2,746,885	461	0	2,747,346
간접 에너지 사용량	GJ	74,905	15,906,241	954,019	6,500,440	23,435,605	110,511	12,299,035	3,418,491	7,635,200	23,463,237	202,464	12,449,748	3,509,703	8,638,046	24,799,962
전기(전력)	GJ	74,905	15,680,635	920,618	6,375,993	23,052,151	110,511	11,975,992	3,260,764	7,550,603	22,897,870	202,464	12,127,042	3,361,158	8,561,812	24,252,477
스팀 ⁶⁾	GJ	0	225,606	33,401	124,447	383,454	0	323,043	157,728	84,597	565,368	0	322,706	148,546	76,234	547,486
재생에너지 사용량 ⁷⁾	GJ	0	282	0	628	910	0	459	0	790	1,249	0	1,162	4,194	1,011	6,367

1) 에너지원별 사용량은 사업장별로 단위 절사하여 합산하므로 하위 항목의 합계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포스코센터의 경우 배출권 거래제 및 목표 관리제 지정 업체를 제외한 입주 그룹사의 합계임.
 3) 단순 오류로 이전 연도 데이터 정정(하위항목 포함)
 4) 철광석 환원제로 사용되어 에너지 사용량으로 미집계, 발생 Gas는 에너지원으로 활용되어 부생가스 사용량으로 집계
 5) 재생연료 등을 2023년부터 '기타' 사용량으로 분류
 6) 폐열에너지 포함
 7) 자가발전 또는 PPA(전력 구매 계약)을 통해 조달·사용한 재생에너지량

국내 주요 법인 연결 - 환경

용수¹⁾

지표명	단위	2022					2023					2024				
		포스코홀딩스 (별도) ²⁾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포스코홀딩스 (별도) ²⁾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포스코홀딩스 (별도) ²⁾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³⁾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총 용수 취수량	ton	184,721	145,743,698	677,579	25,207,003	171,813,001	151,253	154,301,946	21,844,278	28,645,473	204,942,950	126,808	156,646,503	3,191,935	26,928,668	186,893,914
상수도	ton	184,721	621,537	597,102	788,108	2,191,468	151,253	27,732	2,158,212	857,148	3,194,345	126,808	30,118	2,375,971	1,046,702	3,579,599
지표수	ton	0	108,957,548	26,936	2,095,993	111,080,477	0	115,497,855	94,614	2,228,391	117,820,860	0	119,307,357	76,325	2,012,785	121,396,467
지하수	ton	0	3,457,973	53,541	0	3,511,514	0	4,158,878	426,178	0	4,585,056	0	4,556,880	514,044	0	5,070,924
해수담수	ton	0	3,608,003	0	0	3,608,003	0	5,044,618	19,143,613	0	24,188,231	0	2,992,678	0	0	2,992,678
시하수처리수	ton	0	29,098,637	0	0	29,098,637	0	29,572,863	0	0	29,572,863	0	29,759,470	0	0	29,759,470
기타	ton	0	0	0	22,322,902	22,322,902	0	0	21,661	25,559,934	25,581,595	0	0	225,595	23,869,181	24,094,776
‘High’, ‘Extremely High’ 지역 취수량 ⁴⁾	ton	184,721	0	2,674	0	187,395	0	84,054,014	117,058	797,301	84,968,373	0	87,319,386	9,845	990,107	88,319,338
‘High’ 지역 취수량	ton	184,721	0	2,674	0	187,395	0	84,054,014	117,058	797,301	84,968,373	0	87,319,386	9,845	990,107	88,319,338
‘Extremely High’ 지역 취수량	ton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총 용수 소비량	ton	184,721	73,518,006	677,579	847,760	75,228,066	151,253	72,560,905	2,177,295	727,345	75,616,798	126,808	71,954,149	2,633,388	2,377,736	77,092,081
‘High’, ‘Extremely High’ 지역 소비량 ⁴⁾	ton	184,721	0	2,674	0	187,395	0	38,181,117	4,940	283,067	38,469,124	0	37,013,437	9,845	413,319	37,436,601
‘High’ 지역 소비량	ton	184,721	0	2,674	0	187,395	0	38,181,117	4,940	283,067	38,469,124	0	37,013,437	9,845	413,319	37,436,601
‘Extremely High’ 지역 소비량	ton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폐수 방류량	ton	0	72,225,692	0	24,359,243	96,584,935	0	81,741,041	19,666,983	27,918,128	129,326,152	0	84,692,354	558,547	24,550,932	109,801,833
용수 재사용량	ton	0	44,625,210	6,907	0	44,632,117	0	40,390,660	200,741	0	40,591,401	0	37,206,622	276,113	0	37,482,735
용수 재사용률	%	0	23.4	1.0	0	20.6	0	20.7	0.9	0	16.5	0	19.2	8.0	0	16.7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TOC	ton	-	4.7 ⁵⁾	-	31.0	35.7	-	296.8	1.4	34.8	333.0	-	350.3	2.2	34.0	386.5
BOD	ton	-	197.4	-	18.4	215.8	-	212.6	1.1	21.9	235.6	-	196.3	1.0	176.8	374.1
T-N	ton	-	686.4	-	32.0	718.4	-	669.4	4.6	42.9	717.0	-	880.3	2.5	39.1	921.9
T-P	ton	-	3.8	-	0.5	4.3	-	2.1	0	0.3	2.4	-	5.7	0	0.3	6.1
SS	ton	-	136.7	-	81.0	217.7	-	135.6	0.5	55.3	191.4	-	161.1	4.2	137.9	303.3

1) 단순 오류로 이전 연도 보고서 데이터 정정(하위항목 포함)

2) 포스코센터의 경우 전체 입주사의 취수량을 포함

3) 미얀마 현지 여건상 용수 관련 데이터의 객관적 검증이 불가하여, 해당 연도의 포스코인터내셔널 미얀가가스전 실적은 집계에서 제외

4) WRI(World Resources Institute) Aqueduct 4.0의 Water stress map에 기반하여 산정(2025년 5월 기준)

5) 포스코는 TMS 측정기기 교체로 인해 해당 연도 실적 집계에서 제외

국내 주요 법인 연결 - 환경

주요 사업장별 용수 실적(FY2024)

지표명	단위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퓨처엠	
		포스코센터 ¹⁾	포항 미래기술연구원	포항제철소(본사 포함)	광양제철소	본사(송도)	인천발전소	광양터미널	포항(청림)	광양양극재
총 용수 취수량	ton	106,398	19,747	68,707,544	87,319,386	150,985	1,306,129	111,739	25,399,748	471,094
상수도	ton	106,398	19,747	0	0	150,985	1,306,129	111,739	37,930	38,559
지표수	ton	0	0	34,980,649	84,326,708	0	0	0	1,492,637	432,535
지하수	ton	0	0	4,556,880	0	0	0	0	0	0
해수담수	ton	0	0	0	2,992,678	0	0	0	0	0
시하수재처리수	ton	0	0	29,170,015	0	0	0	0	0	0
기타	ton	0	0	0	0	0	0	0	23,869,181	0
총 용수 소비량	ton	106,398	19,747	34,789,364	37,013,437	150,985	889,463	111,739	1,583,133	396,707

1) 포스코센터의 경우 전체 입주사의 취수량을 포함

국내 주요 법인 연결 - 환경

폐기물¹⁾

지표명		단위	2022					2023					2024				
			포스코홀딩스 (별도) ²⁾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포스코홀딩스 (별도) ²⁾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포스코홀딩스 (별도) ²⁾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총 폐기물 발생량		ton	173	19,126,260	1,145,261	311,144	20,582,837	202	19,531,185	700,081	298,756	20,530,223	557	20,213,571	1,389,943	306,239	21,910,311
일반 ³⁾		ton	113	19,027,656	12,916	308,898	19,349,584	114	19,420,427	11,126	295,752	19,727,420	402	20,104,969	28,718	301,121	20,435,210
지정		ton	0	98,603	68	1,425	100,096	0	110,758	640	2,405	113,803	43	108,602	618	4,579	113,843
건설		ton	60	0	1,132,277	821	1,133,158	87	0	688,315	598	689,001	112	0	1,360,607	540	1,361,258
폐기물 처리량		ton	173	19,126,260	1,145,261	311,144	20,582,837	202	19,531,185	700,081	298,756	20,530,223	557	20,213,571	1,389,943	306,229	21,910,301
일반 ³⁾	재활용	ton	113	18,734,938	11,938	306,599	19,053,589	114	19,189,062	9,788	293,986	19,492,951	374	19,898,328	16,241	296,117	20,211,060
	소각	ton	0	45,525	124	381	46,030	0	43,383	590	363	44,337	18	45,881	570	447	46,915
	매립	ton	0	247,193	854	1,917	249,964	0	187,982	747	1,403	190,132	11	160,760	11,907	4,557	177,235
	기타	ton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지정	재활용	ton	0	60,141	2	1,113	61,257	0	60,183	299	1,991	62,472	2	62,047	422	4,076	66,547
	소각	ton	0	17,772	18	279	18,069	0	9,078	279	355	9,711	7	9,803	133	434	10,377
	매립	ton	0	20,657	47	32	20,737	0	41,193	47	58	41,297	0	36,580	30	59	36,670
	기타	ton	0	34	0	0	34	0	305	15	2	322	34	171	34	0	239
건설	재활용	ton	0	0	1,132,255	0	1,132,255	0	0	687,988	0	687,988	0	0	1,351,759	0	1,351,759
	소각	ton	0	0	13	0	13	0	0	153	0	153	0	0	99	0	99
	매립	ton	0	0	9	0	9	0	0	175	0	175	0	0	8,749	0	8,749
	기타	ton	60	0	0	821	881	87	0	0	598	685	112	0	0	540	651
폐기물 재활용량		ton	113	18,795,079	1,144,195	307,713	20,247,100	114	19,249,245	698,074	295,977	20,243,410	376	19,960,375	1,368,422	300,193	21,629,367
폐기물 재활용률		%	65.4	98.3	99.9	98.9	98.4	56.8	98.6	99.7	99.1	98.6	67.5	98.7	98.5	98.0	98.7

1) 단순 오류로 이전 연도 데이터 정정(하위항목 포함)

2) 포스코센터의 경우 입주 그룹사의 폐기물 발생량을 포함

3) 음식물 폐기물 포함

국내 주요 법인 연결 - 환경

대기

지표명	단위	2022					2023					2024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¹⁾	ton	0	53,657	276	939	54,872	0	55,290	746	992	57,027	0	49,570	981	928	51,479
NOx	ton	0	27,752	267	824	28,843	0	27,792	739	881	29,412	0	24,001	908	803	25,711
SOx	ton	0	23,301	1	64	23,366	0	23,956	4	58	24,018	0	22,382	4	52	22,438
Dust	ton	0	2,512	8	49	2,569	0	3,422	3	50	3,475	0	3,076	69	70	3,216
기타	ton	0	92	0	2	94	0	120	0	2	122	0	110	1	3	114

1) 단순 오류로 이전 연도 데이터 정정(하위항목 포함)

환경관리

지표명	단위	2022					2023					2024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ISO 14001 인증률	%	-	100	100	100	100	-	100	100	100	100	-	100	100	100	100
대상 사업장 수 ¹⁾	개	0	8	6	8	22	0	8	13	9	30	0	6	11	11	28
인증 사업장 수	개	0	8	6	8	22	0	8	13	9	30	0	6	11	11	28
ISO 50001 인증 사업장	개	0	2	0	0	2	0	2	1	0	3	0	2	1	0	3
환경 법규 위반 건수 ²⁾	건	0	12	66	8	86	0	9	34	6	49	0	13	88	6	107
금전적 제재 건수	건	0	5	51	5	61	0	8	23	3	34	0	8	81	3	92
벌금	건	0	0	0	2	2	0	1	0	0	1	0	0	0	0	0
과징금	건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과태료	건	0	5	51	3	59	0	7	23	3	33	0	8	81	3	92
비금전적 제재 건수(경고, 개선명령 등)	건	0	7	15	3	25	0	2	11	3	16	0	5	7	3	15
환경 법규 위반 금전적 제재 금액	백만원	0	10	70	7	87	0	13	33	3	48	0	15	115	11	141
환경친화적 차량 보유 비율 ³⁾	%	20.8	15.6	3.9	2.3	10.3	24.2	21.6	20.8	8.9	20.4	27.9	25.4	22.2	31.0	24.7
환경친화적 차량 보유 대수 ⁴⁾	대	10	116	21	3	150	15	171	142	11	339	19	206	139	40	404

1) 그룹 지표 표준화로 2024년부터 대상 사업장 집계 기준 변경: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기준의 1~3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해관계자 요청 등 필요에 의해 인증받은 사업장 포함)

2) 그룹 지표 표준화(집계 기준 변경)로 이전 연도 데이터 정정 / 동일 위반 건에 중복 제재된 경우 제재 건수 합계와 다를 수 있음

3) 전체 보유 차량 중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의 비율(이륜차, 중장비 제외)

4) 단순 오류로 이전 연도 데이터 정정

국내 주요 법인 연결 - 사회

임직원 현황

지표명		단위	2022				2023					2024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임직원 수		명	232	19,575	9,792	2,344	31,943	542	19,453	11,631	2,805	34,431	537	19,372	11,508	3,043	34,460
임원 수		명	38	85	67	28	218	46	85	89	32	252	44	83	109	30	266
성별	남성	명	36	83	65	26	210	44	81	86	31	242	39	81	106	29	255
	여성	명	2	2	2	2	8	2	4	3	1	10	5	2	3	1	11
	여성 비율	%	5.3	2.4	3.0	7.1	3.7	4.3	4.7	3.4	3.1	4.0	11.4	2.4	2.8	3.3	4.1
연령별	30세 미만	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0~50세	명	1	0	1	0	2	2	0	3	0	5	0	0	3	0	3
	50세 초과	명	37	85	66	28	216	44	85	86	32	247	44	83	106	30	263
직원 수		명	194	19,490	9,725	2,316	31,725	496	19,368	11,542	2,773	34,179	493	19,289	11,399	3,013	34,194
성별	남성	명	141	18,424	8,267	2,163	28,995	397	18,308	9,880	2,586	31,171	387	18,213	9,675	2,810	31,085
	여성	명	53	1,066	1,458	153	2,730	99	1,060	1,662	187	3,008	106	1,076	1,724	203	3,109
	여성 비율	%	27.3	5.5	15.0	6.6	8.6	20.0	5.5	14.4	6.7	8.8	21.5	5.6	15.1	6.7	9.1
연령별	30세 미만	명	10	3,212	1,253	593	5,068	51	3,424	1,512	881	5,868	61	3,312	1,381	962	5,716
	30~50세	명	157	8,246	6,149	1,271	15,823	359	8,343	7,156	1,454	17,312	351	8,718	7,216	1,669	17,954
	50세 초과	명	27	8,032	2,323	452	10,834	86	7,601	2,874	438	10,999	81	7,259	2,802	382	10,524
계약 유형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수	명	169	18,476	6,924	1,951	27,520	426	18,278	8,501	2,542	29,747	420	18,133	8,673	2,829	30,055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수 ¹⁾	명	25	1,014	2,801	365	4,205	70	1,090	3,041	231	4,432	73	1,156	2,726	184	4,139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비율	%	12.9	5.2	28.8	15.8	13.3	14.1	5.6	26.3	8.3	13.0	14.8	6.0	23.9	6.1	12.1
관리직 수 ²⁾		명	61	4,219	976	434	5,690	115	4,406	1,220	494	6,235	127	4,468	1,242	478	6,315
성별	남성	명	58	4,147	941	430	5,576	103	4,334	1,177	488	6,102	112	4,385	1,189	472	6,158
	여성	명	3	72	35	4	114	12	72	43	6	133	15	83	53	6	157
	여성 비율	%	4.9	1.7	3.6	0.9	2.0	10.4	1.6	3.5	1.2	2.1	11.8	1.9	4.3	1.3	2.5
연령별	30세 미만	명	0	1	1	0	2	0	2	1	8	11	0	3	1	4	8
	30~50세	명	51	1,261	466	304	2,082	95	1,572	590	367	2,624	98	1,861	643	389	2,991
	50세 초과	명	10	2,957	509	130	3,606	20	2,832	629	119	3,600	29	2,604	598	85	3,316

1) 상무보 포함
 2) 직책자/관리자 수당을 받는 리더급 이상인 직원

국내 주요 법인 연결 - 사회

지역별 임직원 현황(FY2024)

지표명			단위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국내	임원 수		명	36	81	99	28	244
	직원 수		명	473	18,872	10,670	2,981	32,996
	계약 유형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수	명	400	17,718	8,046	2,797	28,961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수	명	73	1,154	2,624	184	4,035
	관리직 수		명	112	4,277	1,124	470	5,983
대한민국 이외 아시아권	임원 수		명	1	2	6	1	10
	직원 수		명	2	309	488	9	808
	계약 유형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수	명	2	307	416	9	734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수	명	0	2	72	0	74
	관리직 수		명	2	144	72	6	224
북미권	임원 수		명	1	0	1	1	3
	직원 수		명	6	43	48	23	120
	계약 유형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수	명	6	43	47	23	119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수	명	0	0	1	0	1
	관리직 수		명	5	18	10	2	35

지표명		단위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남미권	임원 수	명	4	0	0	0	4	
	직원 수	명	8	29	109	0	146	
	계약 유형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수	명	8	29	88	0	125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수	명	0	0	21	0	21
	관리직 수	명	4	13	13	0	30	
유럽권	임원 수	명	2	0	1	0	3	
	직원 수	명	4	26	70	0	100	
	계약 유형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수	명	4	26	63	0	93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수	명	0	0	7	0	7
	관리직 수	명	4	13	14	0	31	
기타 ¹⁾	임원 수	명	0	0	2	0	2	
	직원 수	명	0	10	14	0	24	
	계약 유형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수	명	0	10	13	0	23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수	명	0	0	1	0	1
	관리직 수	명	0	3	9	0	12	

1)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권역

다양성 및 포용성

지표명	단위	2022					2023					2024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장애인 재직 인원 ¹⁾	명	6	601	295	85	987	22	626	352	106	1,106	26	698	308	59	1,091
국가보호자 재직인원	명	3	781	116	53	953	8	746	153	55	962	6	745	133	58	942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3(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기준

국내 주요 법인 연결 - 사회

재직·이직·퇴직

지표명		단위	2022					2023					2024 ¹⁾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총 이직자 수		명	9	1,635	296	172	2,112	36	1,372	481	247	2,136	57	1,607	614	255	2,533
자발적 이직자 수		명	7	569	204	87	867	24	388	290	109	811	7	450	299	117	873
성별	남성	명	1	516	172	79	768	20	364	246	101	731	6	419	268	107	800
	여성	명	6	53	32	8	99	4	24	44	8	80	1	31	31	10	73
비자발적 이직자 수		명	2	1,066	92	85	1,245	12	984	191	138	1,325	50	1,157	315	138	1,660
정년퇴직		명	0	618	53	28	699	2	548	71	47	668	4	601	109	46	760
정리해고		명	0	0	0	0	0	0	0	0	0	0	0	6	5	0	11
기타		명	2	448	39	57	546	10	436	120	91	657	46	550	201	92	889

1) 그룹 지표 표준화로 2024년부터 집계 기준 변경(채용·이직·퇴직 집계시 사업회사 간 전직, 해외출탁 인력 등 제외)

채용

지표명		단위	2022					2023					2024 ¹⁾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총 신규 채용자 수		명	9	1,798	2,207	494	4,508	82	1,621	2,292	671	4,666	45	1,654	2,047	503	4,249
성별	남성	명	7	1,702	1,804	441	3,954	54	1,552	1,931	619	4,156	25	1,558	1,707	472	3,762
	여성	명	2	96	403	53	554	28	69	361	52	510	20	96	340	31	487
	여성 비율	%	22.2	5.3	18.3	10.7	12.3	34.1	4.3	15.8	7.7	10.9	44.4	5.8	16.6	6.2	11.5
연령별	30세 미만	명	2	818	788	268	1,876	32	836	699	464	2,031	24	1,011	568	322	1,925
	30~50세	명	3	308	1,049	59	1,419	42	232	1,037	161	1,472	20	232	843	121	1,216
	50세 초과 ²⁾	명	4	672	370	167	1,213	8	553	556	46	1,163	1	411	636	60	1,108

1) 그룹 지표 표준화로 2024년부터 집계 기준 변경(채용·이직·퇴직 집계시 사업회사 간 전직, 해외출탁 인력 등 제외)

2) 정년퇴직 후 재채용 인원 포함

국내 주요 법인 연결 - 사회

평가

지표명		단위	2022					2023					2024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정기성과 평가를 받은 임직원의 수 ¹⁾		명	212	16,630	7,162	542	24,546	437	17,002	8,473	728	26,640	470	16,850	8,837	805	26,962
성별	남성	명	171	15,748	6,307	483	22,709	376	16,087	7,360	631	24,454	390	15,931	7,582	688	24,591
	여성	명	41	882	855	59	1,837	61	915	1,113	97	2,186	80	919	1,255	117	2,371
계약 유형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수	명	165	16,453	6,726	542	23,886	378	16,817	7,674	728	25,597	404	16,675	8,023	805	25,907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수	명	47	177	436	0	660	59	185	799	0	1,043	66	175	814	0	1,055

1) 등기 임원 제외

교육

지표명		단위	2022				2023					2024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총 교육 시간		시간	10,465	1,831,745	442,126	272,355	2,556,691	35,243	1,841,392	425,310	174,301	2,476,246	40,284	2,030,125	456,501	177,285	2,704,195
1인당 교육 시간 ¹⁾		시간	45	94	45	116	80	65	95	37	62	72	75	105	40	58	78
성별	남성	시간	-	-	-	-	-	-	-	-	-	-	53	107	20	53	74
	여성	시간	-	-	-	-	-	-	-	-	-	-	36	72	29	122	50
직급별	일반	시간	-	-	-	-	-	-	-	-	-	-	52	101	21	53	69
	관리직	시간	-	-	-	-	-	-	-	-	-	-	43	118	29	110	98
	임원	시간	-	-	-	-	-	-	-	-	-	-	47	127	51	102	80
총 교육 비용		백만원	983	23,454	7,076	1,277	32,790	1,240	32,571	7,856	1,804	43,471	1,838	33,227	9,512	1,916	46,493
1인당 교육 비용		백만원	4.2	1.2	0.7	0.5	1.0	2.3	1.7	0.7	0.6	1.3	3.4	1.7	0.8	0.6	1.3

1) 2024년부터 세부 유형 분류 공시

국내 주요 법인 연결 - 사회

노사관계

지표명	단위	2022					2023					2024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단체교섭협약 적용 직원 비율 ¹⁾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파업으로 인한 작업 중단 횟수	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노동조합(또는 노사협의회) 교섭협약의 혜택을 받는 직원의 비율

근무조건

지표명		단위	2022					2023					2024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가족친화제도 사용 직원 수 ¹⁾		명	-	-	-	-	-	-	-	-	-	33	1,130	556	220	1,939	
유연근무 사용 직원 수 ²⁾		명	57	4,966	4,529	834	10,386	392	7,207	6,259	1,045	14,903	472	11,706	6,906	1,272	20,356
육아휴직 사용 직원 수 ³⁾		명	5	255	178	20	458	7	273	138	24	442	8	315	146	42	511
성별	남성	명	1	142	94	14	251	1	166	71	18	256	1	203	78	27	309
	여성	명	4	113	84	6	207	6	107	67	6	186	7	112	68	15	202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무 직원 수 ⁴⁾		명	-	-	-	-	-	-	-	-	-	-	2	150	115	24	291
난임휴가 사용 직원 수		명	1	90	27	20	138	0	116	48	17	181	1	115	41	11	168

1) 육아휴직,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자녀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근태지원 제도에 한함 (2024년부터 신규 집계)

2) 단순 오류로 이전 연도 데이터 정정

3)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

4) 2024년부터 신규 집계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or IATF 16949) 인증

지표명	단위	2022					2023					2024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인증률	%	-	100	100	100	100	-	100	64	100	84	-	100	75	100	88
대상 사업장 수 ¹⁾	개	0	8	6	8	22	0	8	14	9	31	0	8	16	10	34
인증 사업장 수	개	0	8	6	8	22	0	8	9	9	26	0	8	12	10	30

1) 그룹 지표 표준화로 2024년부터 대상 사업장 집계 기준 변경: 제품 품질 또는 용역(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고, ISO 9001 인증 범위에 속하는 사업장(이해관계자 요청 등 필요에 의해 인증받은 사업장 포함)

국내 주요 법인 연결 - 사회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or KOSHA MS) 인증

지표명	단위	2022					2023					2024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인증률	%	-	100	100	100	100	-	100	100	100	100	-	100	100	100	100
대상 사업장 수 ¹⁾	개	0	8	6	7	21	0	8	11	9	28	0	8	11	10	29
인증 사업장 수	개	0	8	6	7	21	0	8	11	9	28	0	8	11	10	29

1) 그룹 지표 표준화로 2024년부터 대상 사업장 집계 기준 변경: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 보건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생산시설 또는 건설현장을 보유한 사업장(이해관계자 요청 등 필요에 의해 인증받은 사업장 포함)

업무 관련 재해¹⁾

지표명		단위	2022				2023					2024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총 근로손실재해율(LTIFR)		명/100만시간	0	1.20	0.98	0.91	1.08	0	1.06	0.66	1.05	0.83	0	0.83	0.67	0.54	0.72
임직원 근로손실재해율(LTIFR)		명/100만시간	0	0.67	0.00	0.96	0.48	0	1.07	0.08	1.54	0.72	0	0.92	0.19	0.89	0.63
협력사 근로손실재해율(LTIFR)		명/100만시간	0	1.71	1.29	0.85	1.44	0	1.04	0.84	0.57	0.90	0	0.75	0.82	0.18	0.77
총 기록사고율(TRIFR)		명/100만시간	0	1.93	1.35	1.04	1.61	0.76	1.72	1.77	1.52	1.73	0	1.88	2.15	1.44	1.99
임직원 기록사고율(TRIFR)		명/100만시간	0	1.75	0.05	0.96	1.16	0.76	1.89	0.42	2.30	1.35	0	2.04	0.46	1.95	1.42
협력사 기록사고율(TRIFR)		명/100만시간	0	2.10	1.77	1.13	1.87	0	1.57	2.21	0.75	1.94	0	1.71	2.67	0.91	2.31
사고사망만인율		%	0	0.28	0	0	0.13	0	0	0.43	0	0.24	0	0	1.35	0	0.74
임직원 사고사망만인율		%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협력사 사고사망만인율		%	0	0.61	0	0	0.21	0	0	0.58	0	0.40	0	0	1.82	0	1.29
임직원 재해	사망자 수	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재해자 수	명	0	21	0	3	24	0	7	5	5	17	0	26	5	4	35
	아차 사고 건 수	건	0	7,164	11	220	7,395	1	6,466	273	186	6,926	1	4,746	241	248	5,236
협력사 재해	사망자 수	명	0	1	0	0	1	0	0	2	0	2	0	0	6	0	6
	재해자 수	명	0	31	78	2	111	0	17	68	1	86	0	24	70	0	94
	아차 사고 건 수	건	0	291	9	156	456	0	279	17	64	360	0	353	25	70	448

1) 그룹 지표 표준화(집계 기준 변경) 등으로 이전 연도 보고서 데이터 정정

국내 주요 법인 연결 - 사회

정보보호

지표명		단위	2022					2023					2024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정보보안교육 총 교육 시간		시간	135	30,412	33,369	5,865	69,781	331	15,658	31,438	2,658	50,084	393	14,374	29,041	2,707	46,515
정보보안교육 이수자 수 ¹⁾		명	269	18,608	9,027	1,955	29,859	661 ²⁾	18,503	10,847	2,658	32,669	786 ²⁾	18,686	10,865	2,707	33,044
계약 유형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수	명	145	17,517	6,709	1,818	26,189	411	17,321	8,272	2,416	28,420	409	17,197	8,254	2,465	28,325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수	명	124	1,091	2,318	137	3,670	250	1,182	2,575	242	4,249	377	1,489	2,611	242	4,719

1) 등기 임원 제외
 2) 그룹사 인력교류 인원 포함

공급망 관리

지표명		단위	2022					2023					2024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¹⁾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거래 공급사(Supplier) 수		개	14	1,737	1,944	1,002	4,697	99	1,710	3,512	1,062	6,383	241	1,774	4,237	1,038	7,290
평가 실시 공급사(Supplier) 수		개	0	1,369	1,367	124	2,860	0	1,323	2,313	115	3,751	0	1,534	1,653	109	3,296
공급사(Supplier) 평가 실시율		%	0	78.8	70.3	12.4	60.9	0	77.4	65.9	10.8	58.8	0	86.5	39.0	10.5	45.2

1) 2022년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실적이 제외된 수치임

사회공헌¹⁾

지표명		단위	2022					2023					2024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임직원 자원봉사 시간		시간	1,725	356,173	152,073	21,920	531,891	2,373	418,754	155,663	30,850	607,639	1,624	408,715	152,342	20,398	583,079
사회공헌비용		백만원	279	54,772	12,869	1,480	69,400	350	55,355	12,717	2,213	70,634	356	52,886	26,953	1,192	81,387

1) 단순 오류로 이전 연도 보고서 데이터 정정

국내 주요 법인 연결 - 사회

윤리·컴플라이언스

지표명	단위	2022					2023					2024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포스코홀딩스 (별도)	철강 부문	인프라 부문	이차전지소재 부문	합계
윤리·컴플라이언스 교육 총 시간	시간	1,666	38,064	25,950	7,398	73,078	1,534	24,751	24,995	6,784	58,064	2,030	24,197	24,011	7,187	57,425
윤리·컴플라이언스 이수자 수 ¹⁾	명	1,210 ²⁾	19,032	9,232	2,159	31,633	2,627 ²⁾	18,921	10,731	2,717	34,996	800	18,506	10,822	2,871	32,999
윤리·컴플라이언스 법규 위반 건수	건	0	0	0	1	1	0	0	0	0	0	0	0	2	0	2
금전적 제재 건 수	건	0	0	0	1	1	0	0	0	0	0	0	0	1	0	1
벌금	건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과징금	건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과태료	건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
비금전적 제재 건 수	건	0	0	0	1	1	0	0	0	0	0	0	0	1	0	1

1) 그룹사 인력교류 인원 포함
 2) 과징별 이수 인원 중복 집계 실적

국내 주요 법인 연결 - 지배구조

이사회

지표명	단위	포스코홀딩스		
		2022	2023	2024
이사회 규모 및 독립성				
사내이사 수	명	4	4	4
사외이사 수	명	7	7	6
기타 비사내이사 수	명	1	1	0
사외이사 구성 비율	%	58.3	58.3	60.0
이사회 다양성				
남성 이사 수	명	11	11	9
여성 이사 수	명	1	1	1
여성 이사 비율	%	8.3	8.3	10.0
이사회 참석률	%	100	100	98.1
이사 평균 재임기간	년	2.9	2.6	2.0
이사회 개최 횟수	회	11	10	10
이사회 안건 심의 건 수	건	24	24	26
가결	건	23	22	24
수정가결	건	1	2	2
부결	건	0	0	0

경제

지표명	단위	포스코홀딩스		
		2022	2023	2024
경제성과				
매출	백만원	8,589,819	1,454,079	1,997,128
당기순이익(손실)	백만원	(467,852)	799,578	1,621,282
주당순이익(손실)	원	(6,185)	10,539	21,398
현금배당총액	백만원	910,190	758,764	757,485
(연결)현금배당성향	%	29	45	69
중간배당 및 분기배당을 통한 배당액	백만원	758,492	569,073	568,433
주당배당금	원	12,000	10,000	10,000
주식 보유				
정부기관 5% 이상 주식보유 비율	%	9.11	6.38	7.46
창립자 및 가족 5% 이상 주식보유 비율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기본급 대비 CEO 주식 보유 비율	-	0.42	1.95	0.21
기본급 대비 사내이사 주식 보유 평균 비율	-	0.51	1.14	0.22

보상

지표명	단위	포스코홀딩스		
		2022	2023	2024
임직원 보상				
CEO 급여	백만원	2,893	3,441	2,048
직원 급여 평균값	백만원	121	149	148
CEO-직원 간 급여 비율	-	24	23	14

ESG Factbook_철강 연결

철강 생산법인 연도별 재무현황(KRW)

(단위 : 백만원)

구분	법인명	국가명	자산			매출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일관밀	포스코	대한민국	44,644,744	45,825,529	45,681,401	35,152,358 ¹⁾	38,971,567	37,556,523
	PT. Krakatau POSCO	인도네시아	3,973,061	3,475,929	3,523,003	3,006,300	3,130,551	2,817,274 ²⁾
	POSCO (Zhangjiagang) Stainless CO.,LTD.	중국	1,164,609	936,933	1,047,884	4,208,952	3,359,087	3,042,140
	POSCO Yamato Vina Steel Joint Stock Company	베트남	446,881	434,496	466,488	461,530	395,261	423,938
재압연밀	POSCO Maharashtra Steel Private Limited	인도	1,353,120	1,319,232	1,471,597	1,901,490	1,763,374	1,785,238
	POSCO Thainox Public Company Limited	태국	419,425	433,638	512,321	900,653	551,000	576,912
합계			52,001,840	52,425,757	52,702,694	45,631,283	48,170,840	46,202,025

1) 2022년 3월 1일 포스코홀딩스와 물적분할로 신규 설립됨에 따라 2022년 매출은 3월~12월까지의 10개월간의 매출임

2) PT. KRAKATAU POSCO의 2024년 매출액은 연결 기준 금액이며, 이외 법인은 별도 기준 금액임

조강생산량*

(단위: 천톤)

법인명	국가명	2022			2023			2024			국가별 조강 생산비율
		고로/전로	전기로	합계(조강)	고로/전로	전기로	합계(조강)	고로/전로	전기로	합계(조강)	
포스코	대한민국	33,255	964	34,219	34,625	1,057	35,682	33,893	1,154	35,048	89.2%
PT. Krakatau POSCO	인도네시아	3,030	-	3,030	3,005	-	3,005	2,981	-	2,981	7.6%
POSCO (Zhangjiagang) Stainless CO.,LTD.	중국	-	989	989	-	839	839	-	768	768	2.0%
POSCO Yamato Vina Steel Joint Stock Company	베트남	-	397	397	-	416	416	-	485	485	1.2%
합계		36,285	2,350	38,635	37,630	2,312	39,942	36,874	2,407	39,282	100%
비율		94%	6%	100%	94%	6%	100%	94%	6%	100%	

*상공정 법인만 표기

철강 연결 - 환경

포스코그룹 조강 생산법인 100%를 커버하며, 보고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관밀 : 포스코(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합산), PT.Krakatau POSCO(인도네시아), 포스코장가항불수강(중국), POSCO YAMATO-VINA(베트남)
- 재압연밀(2023년부터 포함) : POSCO Maharashtra Steel Private Limited(인도), POSCO Thainox Public Company Limited(태국)

온실가스

지표명	단위	2022			2023				2024			
		국내	해외	합계	국내	해외	합계		국내	해외	합계	
		포스코 ¹⁾	일관밀		포스코 ¹⁾	일관밀	재압연밀		포스코 ¹⁾	일관밀	재압연밀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	tCO ₂ e	70,185,623	8,412,126	78,597,749	71,971,900	8,383,419	315,115	80,670,434	71,065,170	8,174,071	337,244	79,576,485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tCO ₂ e	68,305,993	7,153,995	75,459,988	70,588,012	7,015,365	129,747	77,733,124	69,665,353	6,806,052	145,675	76,617,080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2)	tCO ₂ e	1,879,630	1,258,131	3,137,761	1,383,895	1,368,054	185,367	2,937,316	1,399,825	1,368,018	191,568	2,959,411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조강생산량 기준)	tCO ₂ e/ton	2.05	1.90	2.03	2.02	1.97	-	2.02	2.03	1.93	-	2.03

1) 환경부 온실가스 명세서 기준으로 사업장별로 소수점 단위 이하를 절사하여 합산하므로 배출량 합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에너지

지표명	단위	2022			2023				2024			
		국내	해외	합계	국내	해외	합계		국내	해외	합계	
		포스코	일관밀		포스코	일관밀	재압연밀		포스코	일관밀	재압연밀	
에너지 사용량 ¹⁾	GJ	333,781,599	38,794,427	372,576,026	354,002,733	38,163,868	3,486,048	395,652,649	359,242,804	37,671,934	3,666,058	400,580,796
비재생 에너지 사용량	GJ	333,781,376	38,786,798	372,568,174	354,002,498	38,152,644	3,268,074	395,423,216	359,241,857	37,660,228	3,435,297	400,337,382
직접 에너지 사용량	GJ	319,078,303	31,169,983	350,248,286	342,940,165	31,325,501	2,309,057	376,574,723	348,022,726	30,274,830	2,434,046	380,731,602
석탄	GJ	²⁾	455,618	455,618	²⁾	578,042	0	578,042	²⁾	489,121	0	489,121
천연가스	GJ	30,750,384	5,056,149	35,806,533	45,697,279	5,506,875	2,286,575	53,490,729	60,987,933	5,480,678	2,411,673	68,880,284
부생가스	GJ	288,103,292	25,479,428	313,582,720	294,489,643	25,067,682	0	319,557,325	284,088,474	24,110,656	0	308,199,130
등유	GJ	0	0	0	2,643	0	0	2,643	2,050	0	0	2,050
휘발유	GJ	6,249	0	6,249	5,569	0	162	5,731	6,740	0	328	7,068
디젤	GJ	218,348	177,131	395,479	189,682	171,830	19,483	380,995	190,644	192,350	19,725	402,719
LPG	GJ	30	1,657	1,687	0	1,072	2,837	3,909	0	2,025	2,320	4,345
기타 ³⁾	GJ	0	0	0	2,555,349	0	0	2,555,349	2,746,885	0	0	2,746,885
간접 에너지 사용량	GJ	14,703,073	7,616,815	22,319,888	11,062,333	6,827,143	959,017	18,848,493	11,219,131	7,385,398	1,001,251	19,605,780
전기(전력)	GJ	14,618,973	6,227,476	20,846,449	10,837,975	5,734,501	959,017	17,531,493	10,963,428	6,044,814	1,001,251	18,009,493
스팀 ⁴⁾	GJ	84,100	1,389,339	1,473,439	224,358	1,092,642	0	1,317,000	255,703	1,340,584	0	1,596,287
재생에너지 사용량 ⁵⁾	GJ	223	7,629	7,852	235	11,224	217,974	229,433	946	11,706	230,761	243,413
에너지 집약도(조강생산량 기준)	GJ/ton	9.8	8.8	9.6	9.9	9.0	-	9.9	10.3	8.9	-	10.2

1) 단순 오류로 이전 연도 보고서 데이터 정정(하위항목 포함) 2) 철광석 환원제로 사용되어 에너지 사용량으로 미집계, 발생 Gas는 에너지원으로 활용되어 부생가스 사용량으로 집계 3) 재생연료 등을 2023년부터 '기타' 사용량으로 분류 4) 폐열에너지 포함 5) 자가발전 또는 PPA(전력 구매 계약)을 통해 조달·사용한 재생에너지량

철강 연결 - 환경

용수

지표명	단위	2022			2023				2024			
		국내	해외	합계	국내	해외	재압연밀	합계	국내	해외	재압연밀	합계
		포스코	일관밀		포스코	일관밀			포스코	일관밀		
총 용수 취수량	ton	145,115,608	13,708,923	158,824,531	153,645,403	15,115,560	2,051,931	170,812,894	156,026,930	14,794,159	2,032,410	172,853,499
상수도	ton	0	9,536,820	9,536,820	0	10,825,856	2,051,931	12,877,787	0	10,666,070	2,032,410	12,698,480
지표수	ton	108,957,548	4,172,103	113,129,651	115,497,855	4,289,704	0	119,787,559	119,307,357	4,128,089	0	123,435,446
지하수	ton	3,451,420	0	3,451,420	4,154,290	0	0	4,154,290	4,556,880	0	0	4,556,880
해수담수	ton	3,608,003	0	3,608,003	5,044,618	0	0	5,044,618	2,992,678	0	0	2,992,678
시하수재처리수	ton	29,098,637	0	29,098,637	28,948,640	0	0	28,948,640	29,170,015	0	0	29,170,015
‘High’, ‘Extremely High’ 지역 취수량 ¹⁾	ton	0	0	0	84,054,014	9,685,311	518,177	94,257,502	87,319,386	9,395,856	641,842	97,357,084
‘High’ 지역 취수량	ton	0	0	0	84,054,014	9,685,311	518,177	94,257,502	87,319,386	9,395,856	641,842	97,357,084
‘Extremely High’ 지역 취수량	ton	0	0	0	0	0	0	0	0	0	0	0
총 용수 소비량	ton	73,375,512	10,036,479	83,411,991	72,416,383	11,355,436	1,697,599	85,469,418	71,802,801	10,720,508	1,693,179	84,216,488
‘High’, ‘Extremely High’ 지역 소비량 ¹⁾	ton	0	0	0	38,181,117	7,270,732	163,845	45,615,694	37,013,437	6,674,782	302,611	43,990,830
‘High’ 지역 소비량	ton	0	0	0	38,181,117	7,270,732	163,845	45,615,694	37,013,437	6,674,782	302,611	43,990,830
‘Extremely High’ 지역 소비량	ton	0	0	0	0	0	0	0	0	0	0	0
총 용수 집약도(조강생산량 기준)	ton/ton	2,144	2,273	2,159	2,030	2,666	-	2,140	2,049	2,532	-	2,144
폐수 방류량	ton	71,740,096	3,672,444	75,412,540	81,229,020	3,760,124	354,332	85,343,476	84,224,129	4,123,651	339,231	88,687,011
용수 재사용량	ton	44,625,210	1,796,870	46,422,080	40,390,660	1,669,314	750,455	42,810,429	37,206,622	1,948,296	740,501	39,895,419
용수 재사용률	%	23.5	11.6	22.6	20.8	9.9	26.8	20.0	19.3	11.6	26.7	18.8

1) 단순 오류로 이전 연도 데이터 정정 / WRI(World Resources Institute) Aqueduct 4.0의 Water stress map에 기반하여 산정(2025년 5월 기준)

대기

지표명	단위	2022			2023				2024			
		국내	해외	합계	국내	해외	재압연밀	합계	국내	해외	재압연밀 ²⁾	합계
		포스코	일관밀		포스코	일관밀			포스코	일관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¹⁾	ton	53,451	13,081	66,532	55,042	13,376	-	68,418	49,340	12,700	180	62,220
NOx	ton	27,653	6,539	34,192	27,685	6,607	-	34,292	23,909	6,204	145	30,258
SOx	ton	23,294	4,548	27,842	23,945	4,736	-	33,416	22,366	4,808	7	27,182
Dust	ton	2,504	1,994	4,498	3,413	2,031	-	5,444	3,065	1,688	28	4,781

1) 단순 오류로 이전 연도 데이터 정정(하위항목 포함)

2) 2024년부터 집계

철강 연결 - 환경

폐기물¹⁾

지표명		단위	2022			2023				2024			
			국내	해외	합계	국내	해외		합계	국내	해외		합계
			포스코	일관밀		포스코	일관밀	재압연밀		포스코	일관밀	재압연밀	
총 폐기물 발생량		ton	19,116,690	2,317,573	21,434,263	19,523,970	2,247,683	76,251	21,847,904	20,203,736	2,213,506	77,695	22,494,936
일반		ton	19,020,111	1,883,199	20,903,310	19,415,479	1,782,726	11,125	21,209,329	20,097,155	1,716,832	10,778	21,824,765
지정		ton	96,579	434,360	530,939	108,491	464,957	65,126	638,574	106,581	496,674	66,917	670,172
폐기물 처리량		ton	19,116,690	2,317,560	21,434,250	19,523,970	2,247,683	76,251	21,847,904	20,203,736	2,213,506	77,695	22,494,936
일반	재활용	ton	18,727,813	1,879,505	20,607,318	19,184,692	1,778,712	2,257	20,965,660	19,890,828	1,712,691	2,113	21,605,632
	소각	ton	45,485	3,695	49,180	43,343	4,014	0	47,357	45,833	4,141	0	49,974
	매립	ton	246,813	0	246,813	187,445	0	36	187,481	160,494	0	29	160,523
	기타	ton	0	0	0	0	0	8,832	8,832	0	0	8,636	8,636
지정	재활용	ton	59,344	418,759	478,103	58,307	444,934	60,192	563,433	60,447	483,944	62,702	607,093
	소각	ton	16,546	1,069	17,615	8,691	1,098	256	10,045	9,383	1,102	321	10,806
	매립	ton	20,657	16	20,673	41,188	0	2,555	43,743	36,580	0	1,974	38,554
	기타	ton	32	14,516	14,548	304	18,926	2,123	21,353	171	11,628	1,920	13,719
폐기물 재활용량		ton	18,787,157	2,298,264	21,085,421	19,242,999	2,223,646	62,450	21,529,095	19,951,274	2,196,635	64,815	22,212,724
폐기물 재활용률		%	98.3	99.2	98.4	98.6	98.9	81.9	98.5	98.8	99.2	83.4	98.7
총 폐기물 발생량 집약도(조강생산량 기준)		ton/ton	558.7	524.8	554.8	547.2	527.7	-	547.0	576.5	522.8	-	572.7

1) 단순 오류로 이전 연도 데이터 정정(하위항목 포함)

환경관리

지표명		단위	2022			2023				2024			
			국내	해외	합계	국내	해외		합계	국내	해외		합계
			포스코	일관밀			포스코	일관밀	재압연밀		포스코	일관밀	재압연밀
ISO 14001 인증률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대상 사업장 수 ¹⁾		개	2	3	5	2	3	2	7	2	3	2	7
인증 사업장 수		개	2	3	5	2	3	2	7	2	3	2	7

1) 그룹 지표 표준화로 2024년부터 대상 사업장 집계 기준 변경: 국내는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기준의 1~3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해관계자 요청 등 필요에 의해 인증받은 사업장 포함)이며, 해외는 각 국가의 법을 기준으로 대상 사업장 분류

철강 연결 - 사회

임직원 현황

지표명	단위	2022			2023				2024			
		국내	해외	합계	국내	해외	합계		국내	해외	합계	
		포스코	일관밀		포스코	일관밀			포스코	일관밀		
임직원 수 ¹⁾	명	18,122	5,059	23,181	17,985	5,030	1,323	24,338	17,919	4,982	1,289	24,190
임원 수	명	67	6	73	67	6	5	78	65	5	5	75
성별	남성	66	6	72	63	6	5	74	63	5	5	73
	여성	1	0	1	4	0	0	4	2	0	0	2
	여성 비율	1.5	0	1.4	6.0	0	0	5.1	3.1	0	0	2.7
연령별	30세 미만	0	0	0	0	0	0	0	0	0	0	0
	30~50세	0	1	1	0	1	2	3	0	1	2	3
	50세 초과	67	5	72	67	5	3	75	65	4	3	72
직원 수	명	18,055	5,053	23,108	17,918	5,024	1,318	24,260	17,854	4,977	1,284	24,115
성별	남성	17,046	4,649	21,695	16,918	4,623	1,198	22,739	16,841	4,572	1,164	22,577
	여성	1,009	404	1,413	1,000	401	120	1,521	1,013	405	120	1,538
	여성 비율	5.6	8.0	6.1	5.6	8.0	9.1	6.3	5.7	8.1	9.3	6.4
연령별	30세 미만	3,035	1,583	4,618	3,241	1,270	253	4,764	3,139	896	236	4,271
	30~50세	7,353	3,229	10,582	7,472	3,502	881	11,855	7,873	3,859	849	12,581
	50세 초과	7,667	241	7,908	7,205	252	184	7,641	6,842	222	199	7,263
계약 유형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수	17,107	4,686	21,793	16,926	4,636	1,305	22,867	16,784	4,528	1,256	22,568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수 ²⁾	948	367	1,315	992	388	13	1,393	1,070	449	28	1,547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비율	5.3	7.3	5.7	5.5	7.7	1.0	5.7	6.0	9.0	2.2	6.4
관리직 수 ³⁾	명	4,069	404	4,473	4,043	411	189	4,643	4,094	414	189	4,697
성별	남성	3,998	360	4,358	3,972	368	170	4,510	4,013	369	169	4,551
	여성	71	44	115	71	43	19	133	81	45	20	146
	여성 비율	1.7	10.9	2.6	1.8	10.5	10.1	2.9	2.0	10.9	10.6	3.1
연령별	30세 미만	1	12	13	2	6	0	8	3	7	0	10
	30~50세	1,191	348	1,539	1,363	365	122	1,850	1,650	365	113	2,128
	50세 초과	2,877	44	2,921	2,678	40	67	2,785	2,441	42	76	2,559

1) 단순 오류로 이전 연도 보고서 데이터 정정(하위항목 포함)

2) 상무보 포함

3) 직책자/관리자 수당을 받는 리더급 이상인 직원

철강 연결 - 사회

채용

지표명		단위	2022			2023				2024 ¹⁾			
			국내	해외	합계	국내	해외	합계		국내	해외	합계	
			포스코	일관밀		포스코	일관밀	재압연밀		포스코	일관밀	재압연밀	
신규 채용자수		명	1,669	327	1,996	1,511	211	82	1,804	1,535	180	59	1,774
성별	남성	명	1,580	278	1,858	1,452	182	78	1,712	1,447	138	52	1,637
	여성	명	89	49	138	59	29	4	92	88	42	7	137
	여성 비율	%	5.3	15.0	6.9	3.9	13.7	4.9	5.1	5.7	23.3	11.9	7.7
연령별	30세 미만	명	731	264	995	772	117	48	937	943	122	41	1,106
	30~50세	명	283	41	324	211	65	30	306	211	45	15	271
	50세 초과 ²⁾	명	655	22	677	528	29	4	561	381	13	3	397

1) 그룹 지표 표준화로 2024년부터 집계 기준 변경(채용·이직·퇴직 집계시 사업회사 간 전적, 해외촉탁 인력 등 제외)

2) 정년퇴직 후 재채용 인원 포함

재직·이직·퇴직

지표명		단위	2022			2023				2024 ¹⁾			
			국내	해외	합계	국내	해외	합계		국내	해외	합계	
			포스코	일관밀		포스코	일관밀	재압연밀		포스코	일관밀	재압연밀	
총 이직자 수		명	1,524	244	1,768	1,281	253	70	1,604	1,476	237	80	1,793
자발적 이직자 수		명	528	226	754	348	225	65	638	405	162	70	637
성별	남성	명	479	188	667	326	198	59	583	375	138	66	579
	여성	명	49	38	87	22	27	6	55	30	24	4	58
비자발적 이직자 수		명	996	18	1,014	933	28	5	966	1,071	75	10	1,156
정년퇴직		명	588	10	598	519	14	4	537	559	7	7	573
정리해고		명	0	4	4	0	11	0	11	0	0	0	0
기타		명	408	4	412	414	3	1	418	512	68	3	583

1) 그룹 지표 표준화로 2024년부터 집계 기준 변경(채용·이직·퇴직 집계시 사업회사 간 전적, 해외촉탁 인력 등 제외)

철강 연결 - 사회

업무 관련 재해

지표명		단위	2022			2023				2024			
			국내	해외	합계	국내	해외		합계	국내	해외		합계
							포스코	일관밀	재압연밀		포스코	일관밀	재압연밀
총 근로손실재해율(LTIFR)		명/100만시간	0.93	0.08	0.72	0.35	0.12	0.13	0.28	0.83	0.19	0	0.61
임직원 근로손실재해율(LTIFR)		명/100만시간	0.56	0.19	0.48	0.17	0.09	0	0.14	0.94	0.27	0	0.73
협력사 근로손실재해율(LTIFR)		명/100만시간	1.26	0	0.94	0.50	0.14	0.26	0.39	0.72	0.13	0	0.51
총 기록사고율(TRIFR)		명/100만시간	1.73	0.17	1.35	1.67	0.31	0.80	1.29	1.81	0.46	1.10	1.42
임직원 기록사고율(TRIFR)		명/100만시간	1.37	0.38	1.14	1.76	0.36	0.84	1.38	1.96	0.45	1.20	1.57
협력사 기록사고율(TRIFR)		명/100만시간	2.06	0	1.53	1.59	0.28	0.77	1.22	1.65	0.46	1.01	1.28
사고사망만인율		‰	0.29	0	0.22	0	0	0	0	0	0	0	0
임직원 사고사망만인율		‰	0	0	0	0	0	0	0	0	0	0	0
협력사 사고사망만인율		‰	0.63	0	0.46	0	0	0	0	0	0	0	0
임직원 재해	사망자 수	명	0	0	0	0	0	0	0	0	0	0	0
	재해자 수	명	14	0	14	4	1	0	5	25	3	0	28
협력사 재해	사망자 수	명	1	0	1	0	0	0	0	0	0	0	0
	재해자 수	명	30	0	30	16	2	1	19	23	2	0	25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or KOSHA MS) 인증

지표명		단위	2022			2023				2024			
			국내	해외	합계	국내	해외		합계	국내	해외		합계
							포스코	일관밀	재압연밀		포스코	일관밀	재압연밀
인증률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대상 사업장 수 ¹⁾		개	2	3	5	2	3	2	7	2	3	2	7
인증 사업장 수		개	2	3	5	2	3	2	7	2	3	2	7

1) 그룹 지표 표준화로 2024년부터 대상 사업장 집계 기준 변경: 국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 보건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생산시설 또는 건설현장을 보유한 사업장(이해관계자 요청 등 필요에 의해 인증받은 사업장 포함)이며, 해외는 각 국가의 법을 기준으로 대상 사업장 분류

철강 연결 - 사회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or IATF 16949) 인증

지표명	단위	2022			2023				2024			
		국내	해외	합계	국내	해외		합계	국내	해외		합계
		포스코	일관밀		포스코	일관밀	재압연밀		포스코	일관밀	재압연밀	
인증률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대상 사업장 수 ¹⁾	개	2	3	5	2	3	2	7	2	3	2	7
인증 사업장 수	개	2	3	5	2	3	2	7	2	3	2	7

1) 그룹 지표 표준화로 2024년부터 대상 사업장 집계 기준 변경: 제품 품질 또는 용역(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고, ISO 9001 인증 범위에 속하는 사업장(이해관계자 요청 등 필요에 의해 인증받은 사업장 포함)

Policybook

환경 정책

목적

본 정책은 지속가능경영·환경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포스코홀딩스, 포스코그룹의 전 계열회사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포스코홀딩스에게 적용된다.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그룹의 전 계열회사 및 포스코그룹과 거래하는 협력사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기본 원칙

1. 환경법규 준수 및 환경영향 개선

- 환경·에너지 관련 국제 협약 및 법규를 준수하고 제품의 개발과 생산, 사용, 폐기 등의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최적 기술 및 공정 도입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다.

2. 기후변화 대응

-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 자체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이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며 성과를 자체 평가한다.
- 화석연료 및 화석원료 사용량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자연환경 복원

- 천연자원,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 녹지·산림·습지·해양 등 지구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 확대 및 신규 사업장 설치 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철수 시 재조림, 녹지화 등 기존 자연환경 복원을 위해 노력한다.

4. 원부자재 및 용수

- 완제품의 자원사용량을 고려하고, 사용하는 자재를 재생가능한 원료, 불순물이 적은 원료 등으로 대체하거나, 절수기 설치와 같이 자원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신규 설비 혹은 청정생산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한다.

5. 폐기물 및 폐수

-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폐수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발생한 폐기물 및 폐수에 대해서는 최대한 재활용하며, 사업장 밖으로 배출하는 폐기물 및 폐수에 대해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폐기물 처리 또는 정수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6. 유해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유출, 누출 등의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유해화학물질의 이용 및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한다.

실행 방안

1. 환경관리시스템 구축

- 회사의 사업활동에 특유한 환경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관리 시스템(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고, 환경 관련 구체적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이사회와 경영진은 환경관리시스템 관련 중요한 의사결정 및 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환경관리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 실무진을 두어 인적·물적으로 지원한다.
- 환경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각 회사의 사업 실정에 맞게 기존 정책에 환경 관련 요소를 포함하고, 필요시 생물다양성·산림·습지·기후리스크 등 세부환경 분야에 대한 구체적 정책·지침·사규를 수립하여 준수한다.
- 협력업체, 공급사,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자에게도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소통하고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임원 및 부서장은 소속 임직원들이 환경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관리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2. 기후변화 대응

- 기후변화 관련 전환 리스크, 물리적 리스크를 전사적인 리스크 평가 체계 및 경영전략에 통합하고, 문서화하여 관리한다.
-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및 전략 평가는 이사회·경영진에 적절히 보고되도록 한다.
-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한다.
- TCFD 등 기후변화 관련 인증·공시 프레임워크에 따르거나 이에 준하는 방안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노력 및 현황을 합리적 범위에서 공개한다.

3. 생산 및 사업장 환경 관리

- KPI 등 목표 관리, 교육/훈련, 지침 수립 및 관리, 내부 심사 등의 프로세스 절차를 통해 생산 및 사업장의 환경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최적 방지기술 적용으로 오염물질 배출 및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 생산시설·사업장 특성에 맞춰 환경경영 매뉴얼을 제정·운영하며, 설비 가동 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사업장 개설·확대 및 철수 시에는 생태계 및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철저히 리스크를 평가하고 순 환경영향 제로를 위해 노력한다. 산림 및 습지를 파괴하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산림·습지 복원 활동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최선의 방향을 모색하고 실시한다.

4. 제품 및 서비스 개발·유통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 속 위기와 기회요인을 인지하고, 환경 영향 저감 제품·서비스 개발 및 부산물의 공급 확대, 운송·물류 과정에서의 환경 리스크 평가를 통해 제품·서비스 개발 및 공급의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 저탄소·친환경·신재생에너지 제품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한다.

5. 공급망 관리, 업체 선정 및 평가

- 외부 업체(공급·계약·서비스 제공) 선정 시 환경관리 수준 등의 평가 항목을 반영함으로써 환경 영향을 최소화한다.
- 공급사·협력업체가 높은 수준의 환경경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체적 공급사 환경경영 성과평가를 통해 공급망 전체의 환경 리스크를 선제로 관리한다.
- 자재·비품의 조달 시 녹색구매 정책을 준수한다.

6. 신규 프로젝트 및 인수·합병

- 신규 사업/투자 검토 과정에 환경관리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신규사업의 환경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 인수·합병 검토 시 환경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2022.8.31 제정
2024.6.19 개정
2025.6.26 개정

생물다양성 정책

목적

본 정책은 포스코홀딩스가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생물다양성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한 체계를 확립하고, 자연환경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사업모델을 개발해 나가기 위한 행동원칙과 실행방안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포스코홀딩스에게 적용된다.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그룹의 전 계열회사 및 포스코그룹과 거래하는 협력사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기본 원칙

1. 자원을 채취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한 후에는 이를 폐기하는 선형경제(Linear Economy)를 벗어나,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초래될 수 있는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를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생물다양성이 훼손된 경우, 서식지 및 토지의 복원·폐쇄 등 방법을 통해 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생물다양성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다른 장소에 대체 서식지 등을 조성하는 등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
4. 경영활동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상 지역을 설정하고, 사업장 내·외부에 지정된 보호 지역과 그 외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을 모니터링하여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한다.
5. 사업장 소재지 및 협력사 소재지 내에서 발견된 멸종위기 동식물의 위협요인을 식별하고, 해당 종(Species)의 보존을 위한 전략을 마련한다.
6. 경영활동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서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그 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 지역사회 참여 노력 및 프로젝트 결과를 공개한다.
7. 생물자원을 이용한 연구개발, 생물다양성의 증진과 동물보호를 위한 사업,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실행 방안

1. 경영전략 및 의사결정 과정, 장기적인 리스크 분석 과정 등에서 생물다양성 이슈가 지속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절차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중요 이슈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2. 생물다양성 관리를 그룹의 환경관리시스템에 통합하고, 이를 통제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표와 기준을 수립한다.

2022.8.31 제정
2025.6.26 개정

녹색구매 정책

목적

본 정책은 포스코홀딩스가 사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한 구매를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포스코홀딩스에게 적용된다.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그룹의 전 계열회사 및 포스코그룹과 거래하는 협력사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정의

본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녹색구매’란 원부자재·집기비품 등 사업활동에 필요한 제품을 조달하는 단계에서 해당 제품의 생산·공급·유통·후처리 과정의 환경성을 평가하여 구매 계약 및 공급망 관리를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 구매 활동을 말한다.
- 2. ‘녹색제품’이란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 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및 정부·공공기관 방침에 따라 그 친환경성을 인증받았거나 그러한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아래 예시된 경우 및 법령 및 제도의 변경에 따라 추가·확장되는 녹색제품을 포함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서 동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 (환경표지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환경성 개선을 인정받은 제품 또는 동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 (저탄소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 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 (우수재활용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 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 나. EU Ecolabel, Nordic Swan 등 위 가.에 준하는 외국 정부의 친환경·지속가능·저탄소·녹색 인증을 받은 제품
- 다. LEED, OEKO-TEX, Green Seal, ENERGY STAR, Cradle to Cradle 등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독립적 인증기관의 친환경·지속가능·저탄소·녹색 인증을 받은 제품

기본 원칙

- 1. 원부자재 조달, 공정, 운영, 물류·유통, 폐기물 처리 등 사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친환경성·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실질적인 녹색구매 활동을 실천한다.
- 2.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환경경영 실천을 위하여 주된 사활동에서의 자재 구매 활동뿐 아니라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집기비품 등 소모성 자재를 비롯하여 전사적 구매업무에서 녹색구매를 실천한다.

실행 방안

1. 녹색구매 적극 권장

- 녹색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며, 자재 등 구매 절차에 녹색제품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시장에 관련 인증 제도나 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는 이유 등으로 녹색제품 구매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활용 원재료 사용 여부, 유해화학물질 포함 여부 등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제품 및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 공정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 등 접근 가능한 정보를 활용하여 가능한 친환경적인 제품을 구매한다.

2. 녹색구매 시스템 구축

- 효과적인 녹색구매 실천 및 녹색구매 활동의 지속적 개선을 위하여 녹색구매 현황 모니터링, 녹색제품 및 녹색제품 공급처의 발굴 및 도입, 녹색구매 실적 평가 및 중장기 목표 수립 등 녹색구매 시스템을 구축한다.
- 녹색구매 실적 및 목표 등에 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

3. 공급망 내 녹색구매 장려

-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계열회사·협력업체·공급사·거래상대방에도 녹색구매 실천을 장려하며, 구체적으로 녹색구매 정책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하는지 여부를 협력업체 선정에 고려한다.

2022.8.31 제정

산업안전보건 정책

목적

본 정책은 포스코홀딩스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내외 법규 및 기준 등을 준수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감으로써, 산업안전보건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편익과 안정에 최적화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포스코홀딩스 및 그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그룹의 전 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과 포스코그룹과 거래하는 협력사 및 그 임직원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기본 원칙

1. 사업장

- 사업장의 모든 시설 및 운영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우선 조치 순위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개선하며, 성과 판단을 위한 계량화된 목표를 설정하여 유해·위험 요인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 사업장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며,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2. 제품 및 서비스

-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제품 및 서비스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슈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파악한 이슈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목표를 설정한다. 이러한 이슈 및 목표를 소비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3. 임직원 건강 증진

-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활동을 실시하여 임직원의 건강을 증진하며, 정신 건강 증진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 및 관리하고, 필요시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한다.

실행 방안

1. 산업안전보건 관련 유해·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구체적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이사회와 경영진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 및 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시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다.
3. 임원 및 부서장은 소속 임직원들의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실시한다.
4. 비상상황 발생 시 이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한다.

2022.8.31 제정

인권경영 정책

목적

본 정책은 포스코홀딩스가 세계 인권선언, 국제인권장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및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유엔 아동권리 협약, 유엔 선주민 권리 선언,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 등 인권 관련 국제기준을 준수하며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노동원칙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한 인권경영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포스코홀딩스 및 그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그룹의 전 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과 포스코그룹과 거래하는 협력사 및 그 임직원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기본 원칙

1. 기본 방침

- UN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을 존중하여 모든 인간은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권리에는 생명과 신체적 안전, 사상, 표현,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가정생활과 사생활의 자유, 식량과 물, 고문, 노예제도 또는 강제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공정하고 품위 있는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 차별 금지 등이 포함됨을 인정한다.
 - 이에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방지와 해결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이를 위해 인권존중 책임을 다하여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임직원은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권장 사항을 준수한다.
- ① 기업 활동을 하는 모든 곳에서 적용되는 법규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글로벌 인권기준을 준수한다.
 - ② 현지국의 상반되는 규제에 직면하는 경우, 글로벌 인권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③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회사의 중요한 경영 이슈로 중요하게 다룬다.

2. 주요 인권 이슈

- 다음과 같은 인권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권 리스크를 전사적 차원에서 관리하며 인권존중 책임을 수행한다.
- ① 차별금지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 여부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하지 않으며, 직무 자격 요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에 있어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한다. 성별 및 고용형태에 대한 차별 없이 동일가치 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동일임금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과 근로조건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임직원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②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인신매매를 포함한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배상액 예정을 금지하고, 금전대차를 이유로 근로자의 신분을 구속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추가적인 강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미성년자 노동조건 및 최저 노동 연령기준은 국가별 노동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한다.
 - ③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국내법과 국제노동기구에서 규정한 노동기본권에 준하여 근로자에게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등 근로자 단체 가입의 자유를 인정하며,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지 않으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 ④ 산업안전 보장
모든 종류의 재해와 작업 관련 질병은 예방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전사적인 보건안전 정책을 마련하여 국제적 수준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철저히 예방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을 방지함으로써 인간 존중 직장문화를 구현한다.

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및 아동인권 문제가 발생하는지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영향력 범위 내에 있는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사의 인권 리스크를 관리한다. 또한 협력사와의 거래가 상호존중과 동등한 관계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협력사가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⑦ 부패 및 뇌물방지

모든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UN부패방지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등을 포함한 모든 국내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다.

⑧ 환경권 보장

화석연·원료 사용량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천연자원,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환경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열린 의사소통을 추진한다.

⑨ 지역주민 인권 보호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사업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그 지역에 사회 및 환경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인권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예방하며 지역 환경과 주민의 안전, 보건, 식량 및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지역의 문화 보전 및 생물의 다양성 문제도 함께 고려한다.

⑩ 소비자 인권 보호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여 고객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경영활동에서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객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보호한다.

인권경영 정책

3. 정책과 절차 수립

· 인권존중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의 정책과 절차를 마련한다.

- ① 회사의 인권존중 책임을 담은 규범의 제정 등 정책적 의지
- ②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방지·완화하고,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동 내용에 대해 점검 조사하는 인권 실사 절차
- ③ 회사가 야기한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구제할 수 있는 절차

실행 방안

1. 인권 경영 거버넌스

· 인권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과 방향 설정 및 인권경영 이행 모니터링은 이사회 산하의 전문위원회인 ESG위원회가 수행한다. 경영전략실은 ESG위원회가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인권교육, 정보공개, 인권실사, 피해자 구제 등을 수행한다.

2.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

가. 핵심 고려요소

· 임직원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여 방지·완화하고, 활동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권 실사를 실시한다. 이 절차는 인권에 대한 실질적·잠재적 영향 식별 및 평가, 발견한 문제점 대한 대응, 대응 활동에 관한 기록, 이해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을 포함한다. 인권 실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한다.

- ① 회사, 자회사, 공급망에서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인권 관련 부정적 영향을 포함시킨다.
- ② 사업장의 소재와 규모, 인권 관련 위험성, 사업의 특성과 내용, 현지국의 정치·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따른 다양한 관련사항을 고려한다.
- ③ 회사의 활동과 사업운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인권에 미치는 위험도 점차 변화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지속적으로 실행한다.

나. 실시방법

· 국내외 사업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질적·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점검하는 노력을 다음의 프로세스에 따라 실시한다.

- ① 국내외 주요 사업장에서 인권 관련 리스크가 감지되는 경우에는 인권 실사를 통하여 현상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 ② 실사는 내부 전문가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 ③ 경우에 따라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단 및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면담을 실시한다.
- ④ 실사 시에는 잠재적·실질적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잠재적 영향에 대하여 전사적 차원에서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절차를 수행하여 방지·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이미 발생한 실질적 영향은 구제(Remedy) 및 해결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
- ⑤ 실사는 인권경영 관련 핵심요소를 진단하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실시한다.

다. 대응 및 후속조치

·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의 방지, 완화를 위한 인권 실사로부터 발견한 사실을 기반으로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후속조치를 취한다.

- ① 내부 대응체계 확립
 - i.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관부서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 ii. 내부 의사결정, 예산 할당, 감시 절차를 이러한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용한다.
 - iii. 인권 실사를 통해 도출한 문제점을 유관부서에 정확히 이해시키고 중요사안으로서 관리하여 대응한다.
- ② 후속 조치 및 구제
 - i.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였거나 가능성이 있을 때 이의 방지, 완화를 위해 가능한 필요 조치를 취한다.
 - ii. 최선의 정책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도 예견치 못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체와 협력하여 부정적 영향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iii. 직접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부정적 영향이 다른 주체(예: 공급사)와의 관계에서 기업의 운영 및 생산, 서비스와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 체계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직접적 책임은 없으나 소정의 역할을 담당한다.
 - iv. 회사가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완화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주체와 협력하여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
 - v. 효과적인 구제수단으로써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한다.

라. 이해관계자 의사소통

· 이해관계자들이 인권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경우 책임감을 갖고 소통한다.

- ① 영향을 받는 집단, 개인과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책임성과 투명성에 입각하여 의사소통하며, 이해관계자들이 용이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면회의, 공식보고서 발행, 온라인 채널 활용(예: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Helpline 등) 등 다양한 의사소통 형태를 고려한다.
- ② 공식보고서 발행 시에는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포함하며, 보고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독립적 검증절차를 고려한다.
- ③ 이해관계자들이 특정 인권 영향과 관련하여 회사가 대응을 적절히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마. 내재화 및 제도 개선

· 인권 실사 결과의 조직문화 내재화, 제도개선 활동을 통해 인권경영에 대한 실질적 개선을 유도한다.

- ① 전 임직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 교육, 인권경영 관련규범에 관한 교육, 성공 및 실패 사례 공유 등 인권경영을 조직문화로 내재화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 ② 전문가의 자문,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제도 실행을 통한 개선점 발굴 등으로 지속적으로 인권경영 제도 개선을 수행한다.

3. 고충처리제도

가. 핵심 고려요소

· 제기된 문제가 신속히 논의되고 구제될 수 있도록, 부정적 영향을 받는 개인과 지역사회를 위해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한다.

· 윤리상담센터(Helpline), 비윤리신고센터(Hotline) 등의 기존 수단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신고자, 피해자 및 협조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조사 신청 및 이에 대한 협조 등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 고충처리제도는 회사의 인권존중 책임과 관련해 다음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 ①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 이들은 인권과 관련된 우려 사항을 경영전략실에 직접방문, 우편,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고, 고충의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고충 수렴 및 피해자 구제를 조기에 직접 다루어 인권 피해의 확산을 막는다.
- ③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인권경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한다.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목적

본 정책은 포스코그룹 전 임직원에 대한 다양성·형평성·포용성을 개선하고, 직장내 차별, 괴롭힘 및 성희롱을 방지하여, 임직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건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포스코홀딩스 및 그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그룹의 전 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과 포스코그룹과 거래하는 협력사 및 그 임직원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기본 원칙

1. 다양성 및 포용성

다양성은 문화, 성별, 국적, 인종, 종교 또는 신념, 사회적 경제적 지위, 능력 등 임직원의 특성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고, 포용성은 모든 임직원이 조직에 소속감을 가지고 업무에 참여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성과 포용성은 조직 구성원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여 포용적인 근로환경을 유지한다.
- 모든 임직원이 회사 업무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 경험, 지식을 활용하여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임직원이 개인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간, 장소, 방법 등에서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조직 간의 벽을 없애고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개방적인 기업문화를 지향한다.
- 임직원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킹 그룹을 마련한다.
- 특정 임직원들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업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장애를 이유로 그들을 회사에서 소외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 다양한 세대가 각기 다른 능력을 제공하면서 공존하고, 다양한 배경, 국적, 인종의 임직원이 모여 함께 일하는 곳임을 인식한다.
- 결혼 여부, 이혼 여부, 자녀 유무 등 가족 관계가 서로 다른 모든 임직원들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능력에 기반한 승진 제도를 도입한다.

- 임직원 채용, 관리, 교육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이 사용되는 경우 특정 그룹 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고, 차별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형평성

형평성은 임직원이 개인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승진, 채용, 교육 등에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다음을 준수한다.

-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 여부, 성 정체성 등, 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이유로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 회사, 계열사, 공급·협력업체 내에서 양성평등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한다.
- 특정 성별이 적은 부서의 경우, 합리적 수준의 성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평등실현조치를 마련하여 실천한다.
-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를 분석하여 매년 공개한다.
- 회사의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는 인원의 성비를 균등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고 실천한다.
-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여성 임직원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
- 직장 내 개인의 성장이 성별을 이유로 방해 받지 않도록 한다
- 동일한 업무, 가치가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는 동일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 임직원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직무 자격 요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에 있어 평등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배경, 문화적 배경, 학력에 따른 편견 없이 타인을 대우한다.

3.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의 행위(유사한 행위 포함)는 금지된다.

- 신체적인 괴롭힘
- 업무적인 괴롭힘
- 정신적인 괴롭힘
- 개인적인 괴롭힘

4. 성희롱 금지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실행 방안

- 다양성·형평성·포용성을 개선하고 직장 내 차별, 괴롭힘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한다.
- 경영진 또는 이사회는 본 정책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상담, 조사 및 처리를 위한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며, 특히 성희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담 및 신고 센터를 전담 조직으로 운영한다.
- 누구든지 이 정책에 위반되는 행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전담 조직에 직접방문, 우편, 전화, 이메일 등의 신고 체계를 갖춘다.
- 전담 조직은 본 정책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징계, 부서 전한 또는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피해자 및 협조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불이익이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가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022.8.31 제정

책임광물 정책

목적

본 정책은 콩고민주공화국 등 내전이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군벌, 반군단체들의 자금원 역할을 해온 3TGs[주석(Tin), 탄탈륨(Tantalum), 텅스텐(Tungsten), 금(Gold)]과 같은 분쟁광물과 채굴과정에서 인권과 환경 이슈가 제기되는 코발트 등과 같은 광물의 사용을 금지하여, 분쟁의 자금줄이 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인권을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채굴된 ‘책임광물’만을 사용한다는 포스코홀딩스의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기본 원칙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포스코홀딩스에게 적용된다.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그룹의 전 계열회사 및 포스코그룹과 거래하는 협력사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더 나아가 포스코홀딩스는 협력사가 자신들의 협력사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것을 기대한다.

기본 원칙

1. 광물의 채굴과정에서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여 사회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노력한다.
2. 3TGs와 코발트(Cobalt) 등,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국가에서 분쟁을 유발하는 광물을 사용하는 협력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
3. 「미국 도드-프랭크법」, 「EU 분쟁광물 규칙」 등 분쟁광물 관련 규제를 준수하고, 3TGs 및 코발트 공급망의 위험을 식별하고 경감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사(Due diligence)방침을 제공하는 ‘분쟁지역 광물의 책임 있는 공급망에 대한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에 따른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협력사들이 책임광물 이니셔티브(RMI, 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의 책임광물보증절차(RMAP, 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 인증이나 이와 동등한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제련소로부터 3TG 및 코발트 등을 조달하도록 요구하고, 포스코그룹 공급망에 속한 제련소 중 RMAP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련소에 대하여 이를 충족하도록 요구한다.

실행 방안

인권보호와 분쟁위험을 고려한 책임 있는 자원 조달을 위해 ‘OECD 실사 가이드 라인’이 제시하는 5단계를 기반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광물이 채굴되도록 아래와 같이 관리한다.

1. 분쟁 또는 고위험지역에서 채굴된 광물과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2. 분쟁 또는 고위험지역에서 광물 채굴, 거래, 수출 등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리스크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3. 확인된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체계 및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이행 성과를 모니터링하며 관리 체계와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4. 분쟁 또는 고위험지역 내의 공급망에 속해 있는 제련소에 대해 실사를 실행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독립된 기관의 감사를 계획하고 실행한다.
5. 실사 결과를 매년 대외적으로 공개한다.

2022.8.31 제정

공급망 정책

목적

본 정책은 포스코홀딩스가 공급망 및 협력사들과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여, 이해관계자들과 상생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강건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포스코홀딩스에게 적용된다.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그룹의 전 계열회사 및 포스코그룹과 거래하는 공급사 및 협력사(이하 통칭하여 ‘협력사’)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더 나아가 포스코홀딩스는 협력사가 자신들의 협력사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것을 기대한다.

협력사 행동규범

1. 인권

협력사는 UN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과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국제노동기준(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등에 따라 불법적 미성년자 노동, 인신매매, 강제 노동 등을 용인해서는 안 되며, 모든 근로자의 인권, 근로 시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 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도 안 된다.

2. 환경

협력사는 환경 관련 규제와 법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리스크를 평가하고 환경경영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기 위한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하여 제품의 개발, 생산, 사용 등의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협력사는 화석연료 및 화석 원료의 사용량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천연자원,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3. 보건·안전

협력사는 전사적인 보건안전 정책을 마련하여 국제적 수준의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작업장에서의 사망사고, 부상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모든 직원들이 재해와 작업 관련 질병으로부터 보호되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협력사는 제품 생산에 있어 소비자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4. 부패방지

협력사는 모든 유형의 부패행위, 금품요구 및 부정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행위를 용인해서도 안 된다. 협력사는 국내외 뇌물 및 부패방지법을 및 규정을 준수하고, 기본에 철저하고 원칙을 지키는 경영 활동을 통해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에 노력한다.

5. 공정거래

협력사는 국제기준 및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경쟁사와 생산, 가격, 입찰, 시장분할 등에 관한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및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지식재산권을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와 재산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거나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되며, 경쟁사 정보를 포함한 기업 정보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만 취득하고 활용해야 한다.

6. 자금세탁 및 탈세 등 방지

협력사는 국내외적으로 불법자금의 세탁, 탈세 및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관련 자금의 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들을 준수한다

7. 이해상충 방지

협력사는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회피해야 하고, 회사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모든 기밀정보 또는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

8. 내부신고제도

협력사는 근로자들이 비윤리적 행위나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익명으로 보고할 수 있는 내부신고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이러한 신고사항을 조사하여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9. 임금

협력사는 최저임금, 급여, 잔업수당, 급여 공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모든 임금 관련 법률들을 준수한다.

실행 방안

1.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실사

- 협력사들이 본 정책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지 못해 공급망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리스크를 확인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 협력사 선정 시, 협력사가 본 정책의 협력사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공급망에 속한 협력사와 계약하는 경우, 협력사가 본 정책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고, 협력사가 그들의 협력사에게도 유사한 내용의 계약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공급망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인권, 환경, 제품 안전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급망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공급망 실사에는 공급망에서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부정 영향의 식별과 평가 부정적 영향을 방지·완화·개선하기 위한 실행계획 마련 및 이행, 실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이해관계자가 고충 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실사의 대상이 되는 공급망의 범위는 포스코그룹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1차 협력사 또는 2차 이상 협력사가 대상이 될 수 있다.
-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실사를 통해 협력사의 본 정책 이행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사의 기업활동과정에서 초래된 부정적 영향을 개선 및 완화시키기 위한 계획 수립과 이행을 협력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리스크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협력사의 부정적 영향 리스크가 완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협력사와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공급망 정책

2.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및 상생관계 구축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통해 함께 공존하는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노력한다.

- 협력사의 권리(지식재산권, 물적 권리 등)를 존중하며, 협력사와 거래가 상호존중과 동등한 관계 속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 협력사와 성과를 공유하여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 협력사와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협력사가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협력사에 대한 대금결제 환경 개선, 기술 및 금융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고, 협력사가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준수 하도록 지원한다.
- 기업 생태계의 전체적인 상생을 위해 동반성장 협력사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2022.8.31 제정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

목적

포스코홀딩스는 고객, 구성원,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변화하고 혁신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 큰 기업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본 정책은 공존·공생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및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소통해 나가기 위한 원칙과 실행방안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포스코홀딩스 및 그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그룹의 전 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과 포스코그룹과 거래하는 협력사 및 그 임직원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기본 원칙

1. 이해관계자의 정의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경영 활동, 제품, 서비스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 활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혹은 단체를 의미한다. 이해관계자에는 고객, 임직원, 주주, 협력사, 지역사회, 정부 및 시민단체, 국내외 투자자 등 다양한 집단이 포함될 수 있다.

2. 이해관계자 참여와 소통

- 진실, 공정, 정직을 최우선의 가치기준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받는 기업상을 구축하는 것을 지향해야 할 불변의 가치로 인식하며 이해관계자의참여를 독려하고 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이해관계자와 주기적 소통을 통해 기업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외부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사회책임경영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사항을 경영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지역사회 존중 및 참여

-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69호 또는 유엔 선주민권리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에 기초하여 지역사회 선주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선주민의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가 실현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지역사회 발전

-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실행 방안

1. 이해관계자의 식별, 참여 및 소통 절차 마련

- 기업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을 식별하고, 그 영향의 수준을 파악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여기에 의사소통 채널의 운영 주체와 주기 및 방식이 포함되도록 한다.

2. 지역사회 보호 및 참여 절차 마련

- 기업활동이 지역 주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역 주민의 권리를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에게 사업수행 여부 및 방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이 이에 기반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사전에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기업활동이 지역 주민의 재정착 및 보상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 기업활동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와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협의 하에 기업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지역사회 발전 프로그램

-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프로그램의 실행에 따른 지역사회 발전 성과를 이해관계자들과 주기적으로 공유한다.

4. 고충처리제도

- 기업활동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개인과 지역사회를 위해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한다. 윤리상담센터(Helpline), 비윤리신고센터(Hotline) 등의 기존 수단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신고자, 피해자 및 협조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조사 신청 및 이에 대한 협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2022.8.31 제정
2024.6.19 개정

조세 정책

목적

본 정책은 포스코홀딩스가 준수해야 할 조세 정책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및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에서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조세 법령을 준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포스코홀딩스에게 적용된다.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그룹의 전 계열회사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기본 원칙

1. 조세 법령 준수

대한민국 및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의 조세 법령을 준수하고, 그 과정에서 조세 법령의 문언뿐 아니라 그 취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2. 과세 당국과의 투명한 관계 구축

과세 당국과 투명한 관계를 구축하여 조세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납세 의무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며, 납세 의무가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세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3. 조세 회피 금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거나 조세 조약상 유리한 세율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계열사 간 거래를 함에 있어 독립기업 원칙(Arm's length principle) 및 OECD의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래 가격을 결정하며, 필요시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는다.

실행 방안

1. 조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구축

조세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세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파악된 리스크는 사전에 수립된 리스크 대응전략 및 행동계획에 따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2.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이사회는 본 정책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주체가 되며, 조세 관련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세 관련 조직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3. 외부 전문기관의 활용 및 정보공개

조세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기관의 객관적 검토를 받고, 중요한 의사결정 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조세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4. 투명한 정보 공개

대한민국 및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에서 납부하고 있는 세금 납부액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2022.8.31 제정

이사회 독립성·다양성 정책

목적

본 정책은 포스코홀딩스의 최고 의사결정 및 관리·감독기구인 이사회가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해관계자·시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객관적·효율적·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이사회의 독립성 및 다양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다양한 배경과 경험, 능력을 가지고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가진 이사들로 포스코홀딩스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포스코홀딩스에 적용된다.

기본 원칙

1. 이사회 독립성 확보

- 이사회는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하여 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경영진을 감독·견제할 수 있도록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외이사제도를 운영한다.
- 사외이사의 자격 및 독립성은 사내이사보다 엄격하게 규율된다. 사외이사는 관련 법령 및 본 정책에 따라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글로벌 선진 기준을 참고하여 관련 법령 및 본 정책보다 더욱 강화된 독립성 요건을 정할 수 있다.

2. 이사회 다양성 확보

- 이사회는 그 역할 및 책무를 다하고, 다양한 관점을 통한 효과적인 토론을 거쳐 객관적·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식·경험·능력·성별이 조화를 이루어 다양성을 충족하도록 구성된다.

실행 방안

1.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갖춘 후보 선정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정 시 이사의 역할 및 책무를 다하기 위한 능력·경험 및 역량을 갖춘 자를 선정하며, 기업가치의 훼손 및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 있는 자, 회사·주주와 이해 상충의 우려가 있는 자의 선정·선임은 보다 신중히 검토한다.

2.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

- 사외이사는 특별히 독립성 및 중립성이 요구되는 직책이므로, 사외이사 선임시에는 이사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중립적·객관적으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한다.
-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이 밖에도 사외이사가 회사와 어떠한 중대한 관계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최근 5년간 회사 임직원으로 고용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임직원이 아닌 경우
 - 사외이사의 직계가족이 최근 3년간 회사 또는 자회사의 임원이 아닌 경우
 - 최근 3년 이내 본인 또는 가족이 12개월 동안 회사로부터 1억 2천만 원(미화 10만 불 상당) 이상의 보상을 받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간 회사의 외부 감사기관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 회사 또는 회사 경영진의 고문 또는 컨설턴트가 아닌 경우
 - 회사와 주된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등의 임직원(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이 아닌 경우
 -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 이상인 법인의 임직원(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이 아닌 경우
 - 최근 사업연도 중 회사와 매출총액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임직원(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이 아닌 경우
 -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3. 이사회 다양성 확보

- 이사회 구성은 성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이사 후보군 추천·검토 시 이사회 다양성 제고를 위하여 성별, 국적, 연령, 전문 역량, 경험 및 배경, 인종, 종교, 민족 등 다양성 항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 사외이사 선임 시, 이사회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산업계, 금융계, 학계, 법조계, 회계분야 또는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들로 구성한다.

2022.8.31 제정

반부패준수지침

제1조 목적

본 지침의 목적은 포스코홀딩스(이하 “회사”) 임직원이 국내 반부패 법령과 글로벌 법규 및 스탠더드(이하 “부패방지 관련 법령”)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적용범위

반부패 준수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윤리규범, 윤리규범 실천지침 등 회사의 제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부패

‘부패’란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유무형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가 이러한 이득을 얻도록 하는 일체의 일탈행위를 의미한다.

3.2 공직자등

‘공직자등’은 대한민국 공무원과 외국공무원(현지 주재 한국공무원 포함)을 포함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회사가 소재한 해당 국가(이하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자
- 해당 국가 정부의 입법, 행정, 또는 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해당 국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하였거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¹⁾하고 있는 기업체의 임직원
- 해당 국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 업무 종사자
- 해당 국가 내 공직 후보자 및 정당의 임직원
- 공적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기타 부패방지 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

1) 해당 국가 정부가 기업체의 주요 인사 임명 및 해임권 등 주요 경영사항에 결정권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국가 정부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기업체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국가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기업체의 수익이 국가 재정으로 포함되는 경우 등

3.3 제3자

‘제3자’는 명칭을 불문하고 다음의 경우를 의미한다.

- 회사를 위하여 사업 수주 및 교섭, 통관, 인허가, 세무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
- 사업 수주 및 교섭, 통관, 인허가, 세무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하는 중개인, 컨설턴트, 전문 자문가
- 기타 거래업체, 파트너사, 합작투자사 등

3.4 금품등

금품등은 금전 및 유가물, 금행료를 포함한다. ‘유가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유가증권, 부동산, 식사, 선물, 골프
- 교통, 숙박 등 또는 그 경비
- 제품,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사용권 및 할인
- 정치후원금(Political Contribution) 및 자선기부
- 채무의 인수 또는 면제, 취업 제공(인턴십 포함),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3.5 금행료

금행료는 일상적, 반복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등에게 그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소액의 금전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비자발급 등 행정서류의 접수 및 처리
- 제품의 운송 등과 관련된 통관, 선적 및 하역
- 전화개통, 전기 및 수도 공급

제4조 조직 및 책임과 권한

4.1 부패방지 전담 조직

부패방지에 관하여는 정도경영 업무 담당부서가 전담 조직으로서 해당 업무를 주관 하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다른 부서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4.2 해외사업의 부패방지 전담 조직

해외사업 부패방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사업 분야에 관하여 별도의 부패방지 전담 조직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조직이 정도경영 업무 담당부서를 대신하여 해외사업 부패방지 전담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5조 일반원칙

5.1 국내 반부패 법령

국내(대한민국) 주요 반부패 법령으로는 형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이하 ‘국제뇌물방지법’)이 있다.

대한민국 ‘형법’의 뇌물죄는 대한민국 공무원 또는 중재인 에 대한 뇌물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국제뇌물방지법’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5.2 글로벌 반부패 법규 및 스탠더드

주요 글로벌 반부패 법규 및 스탠더드로는 미국 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 Bribery Act, OECD 뇌물방지협약, UN 글로벌컴팩트 등이 있다.

‘FCPA’는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법인 등을 대상으로 미국 외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을 금지하고 회계와 관련하여 정확한 장부기록 및 관리 등 내부통제의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Bribery Act’는 영국기업과 영국에서 사업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영국 외 국가의 공무원, 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뇌물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범죄로 규정한 최초의 국제 협약이다.

‘UN 글로벌컴팩트’는 기업의 뇌물 등 모든 형태의 부패에 대한 대응을 규정하고 있다.

5.3 반부패 법규 준수 의무

임직원은 상기 부패방지 관련 법령 외에도 사업을 수행하는 현지의 반부패 관련법규를 비롯하여 임직원이 공직자등에게 뇌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모든 국내외 반부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비록 사회적 또는 비즈니스의 관행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부패방지 관련 법령 또는 현지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 한편,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령, 현지법규, 본 지침, 윤리규범 등 회사의 다른 사규 등이 상충하는 경우 가장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반부패준수지침

제6조 금품등의 제공 및 수령의 제한

임직원은 공직자등에게 사업상 이익을 위한 부정한 의도로 접대 및 편의와 관련하여 금전 또는 유가물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품의 판촉, 계약체결 및 사업관련 상호이해 증진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한 접대 및 편의는 통상적 수준에서 주고 받을 수 있으며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준수사항은 윤리규범 실천지침에 따른다.

- 업무상의 접대 및 편의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 업무상의 접대 및 편의의 수준은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 업무상의 접대 및 편의라도 같은 공직자등에게 일정기간 동안 빈번하게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 관련 지출내역은 회사의 장부 등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6.1 식사, 선물 등

임직원이 공직자등에 대하여 식사, 선물 등을 호의나 예의의 표시로 또는 친목을 증진하기 위해 제공할 경우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식사, 선물 등은 상대방의 급여수준에 비하여 소액이어야 한다.
- 식사, 선물 등은 분명한 명분으로 필요한 시점에 한하여 적법하고 적절한 장소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 식사, 선물 등 접대금액의 범위는 국내·외 관련법규와 윤리규범 및 윤리규범 실천지침에 따른다.

6.2 편의제공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준수사항은 윤리규범 실천지침에 따른다.

-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주고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공식 행사 등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촉, 시연이나 설명,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 등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 편의제공에 따른 발생비용은 공직자등에게 지급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항공사, 호텔 등 편의 이용처에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6.3 급행료

임직원은 공직자등에게 일체의 급행료를 제공할 수 없다.

제7조 제3자에 관한 사항

부패방지 관련 법령에서는 제3자가 공직자등에게 제6조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제3자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도 제3자가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본 지침을 준수하도록 다음의 업무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7.1 업무절차

임직원은 특정 제3자에 의한 잠재적 부패방지 위험의 정도에 따라 사전 실사, 모니터링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자에 관한 업무 절차는 다음을 따르되, 상세한 사항은 [제3자 거래 관리 프로세스 지침]에 의한다.

7.2 계약체결 전

제3자와의 계약체결 전, 계약의 유형, 위험신호 등을 고려하여 [제3자 거래 관리 프로세스 지침]에 따라 리스크 평가를 하고,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라 사전 실사를 수행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7.3 계약체결

제3자와 계약체결 시에는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라 [제3자 거래 관리 프로세스 지침]의 “반부패 서약서”를 징구하고,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7.4 계약체결 후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리해야 하며, 여기에는 추가 실사, 감사, 교육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임직원은 제3자를 통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관련 법령의 위반이 우려되는 경우 즉시 전담조직에 문의하여야 한다.

또한 임직원은 제3자로부터 위반행위를 통지 받거나, 제3자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전담조직에 신고하여 회사가 이를 시정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 회계 기록 및 관리

임직원은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청구서, 영수증 및 기타 관련증빙을 보관하고 적절하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지출 또는 자산의 보유는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장부 및 기록의 유지뿐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른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따라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9조 반부패 준수교육

9.1 정기 교육

부패방지 전담 조직은 임직원을 상대로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반부패 정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반부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2 특별 교육

부패방지 전담 조직은 반부패 이슈가 과거에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위험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사업장의 임직원을 상대로 수시로 특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에 따라 별도의 부패방지 전담 조직을 둔 해외사업장이 특별 교육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직이 해외사업장의 임직원을 상대로 특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9.3 교육 방식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중 적절한 방식을 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반부패 관련 위험 평가 및 점검

부패방지 전담 조직은 관련 조직과 함께 임직원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본 지침을 포함한 사규 위반 여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중요한 경우 그 결과를 이사회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본 지침을 포함하여 사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한편, 그러한 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사회 및 대표이사는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본 지침을 포함한 사규 위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부패방지 전담 조직이 요청하는 사항에 관한 전사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반부패준수지침

제11조 반부패 관련 이슈 발생 시의 대응 절차

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패행위 또는 혐의에 관하여 국내외 정부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이하 ‘정부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의 대응은 법무 담당 부서에서 주관한다. 정부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개시되거나 개시될 예정임을 알게 된 경우, 법무 담당 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정부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개시될 경우, 모든 관련 임직원은 그 조사 또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반드시 법무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답변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신고 및 신고자 보호

12.1 신고의무 및 방법

임직원은 부패방지 관련 법령 또는 본 지침을 포함한 사규 위반에 해당되거나 그 위반으로 의심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임직원 또는 제3자가 부패방지 관련 법령 또는 본 지침을 포함한 사규를 위반하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부패방지 전담 조직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직원이 위의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윤리 행위 신고보상 및 면책 지침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신고 방법과 신고자가 원할 경우 감사결과에 대한 통보 방법은 비윤리 행위 신고보상 및 면책 지침에 따른다.

12.2 조사 절차

부패방지 전담 조직은 1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내부감사지침에 따라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 회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3 신고자 신분보호 및 신분보장

신고자 신분보호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비윤리 행위 신고보상 및 면책 지침에 따른다.

12.4 신고자의 성실의무

신고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또는 그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본 지침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신고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또는 그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비윤리 행위 신고보상 및 면책 지침에 따라 부패방지 전담조직은 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처벌

부패방지 전담 조직은 부패방지 관련 법령 또는 본 지침을 포함한 사규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후 내부감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내부감사지침에 따른 처분과 별도로, 회사는 부패방지 관련 법령 또는 본 지침을 포함한 사규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그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신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 또는 본 지침을 포함한 사규 위반으로 인해 발생된 임직원 개인의 민형사상 법적 책임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부칙

- ① 본 지침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지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본 지침의 도입 및 시행과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한 경우 부패방지 전담조직과 협의를 거쳐 개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④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나 규정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 부패방지 전담조직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목적

본 정책은 포스코홀딩스의 정보자산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포스코홀딩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임직원 및 협력업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임직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포스코홀딩스 및 그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그룹의 전 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과 포스코그룹과 거래하는 협력사 및 그 임직원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기본 원칙

- 정보보호 국제표준과 국내외 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기술 및 인력 등 정보자산을 보호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 임직원은 스스로 정보보호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정보보호 교육 및 훈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정보보호 수준을 개선한다.
- 임직원은 정보보호를 생활화하고, 정보보호 활동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킨다.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수집 당시에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그 특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는 목적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실행 방안

1. 정보보호관리체계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며, 보안사고로부터의 산업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한다.
- 보안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통제절차를 구축 및 운영하고 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토를 실시한다.
- 주요 정보자산에 대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위험평가를 실시한다.
- 모든 임직원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상시 관리·점검 체계를 수립해 정보보안의 효과성을 확보한다.

2. 개인정보 보호조치

-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 제공, 파기 등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모든 단계에 걸쳐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및 자유와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 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주관부서’는 임직원을 포함한 개인정보취급관리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 임원의 역할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 임원은 정보보호정책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총괄하고 관리체계를 수립 및 관리한다.
- 담당 부서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취약점을 개선한다.

4. 보고 및 징계

- 임직원은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담당 임원 또는 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위반행위 기준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해 징계할 수 있다.

2022.8.31 제정

윤리규범

I. 윤리 현장

우리 포스코그룹은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공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선의 가치임을 깊이 인식하고 실천하여 신뢰와 존경을 받는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 포스코인¹⁾은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한다’는 윤리경영 철학을 기반으로 법과 윤리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진실(Integrity), 존중(Respect), 공감(Mutual Empathy)을 지향점으로 하여, 기본에 철저하고 원칙을 지키는 경영활동을 통해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임직원 차원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구성원 개개인의 성장과 회사의 발전을 추구하며 상호 존중하는 기업문화의 정착을 통해 행복한 일터를 조성해야 한다. 모든 구성원을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인류사회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인권이 존중 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한다.

고객 차원에서는 고객의 신뢰와 성공이 우리의 미래임을 인식하여 고객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주주 차원에서는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정당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 가치를 증대시켜야 한다.

사업 파트너 차원에서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사업 파트너와의 동반성장을 통해 공존하는 기업 생태계를 공고히 해야한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사회에 소속된 주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사업 활동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 포스코인은 우리의 행동이 스스로의 자부심, 그리고 회사의 가치와 명성에 직결된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우리의 문화와 비즈니스 운영의 핵심에 윤리의식과 청렴성을 확고히 두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2024. 7.

1) 포스코홀딩스 및 사업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

II. 윤리 원칙

1. 모든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 우리는 포스코홀딩스가 사업을 영위하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관련 법규 및 회사의 규정과 지침을 준수합니다.
- 우리는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기업평판 유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 우리는 윤리적인 행동에 책임을 지고 실천함으로써 윤리적 문화를 정착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 우리는 나 또는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행동이 윤리규범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급자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²⁾에 즉시 신고 또는 상담합니다.
- 우리는 윤리규범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윤리경영 담당부서의 조사에 적극 협조합니다.
- 우리는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신고자 및 조사참여자를 상대로, 절대로 보복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우리는 윤리규범을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윤리규범을 위반하도록 요구한 경우, 윤리규범 위반 사항의 신고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신고자 및 조사참여자에게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특히, 금품수수, 횡령, 정보조작, 성윤리 위반의 4대 비윤리³⁾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됨을 알고 있습니다.

2) 업무분장 지침에 따름

3) 금품수수: 이해관계자로부터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범위 이상의 금전 및 물품을 받는 행위, 횡령: 회사公款이나 자산을 불법적으로 착복하는 행위, 정보조작: 업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위조·은폐·유포하는 행위, 성윤리 위반: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행위

2. 임원과 직책자의 특별한 책임

- 임원과 직책자는 솔선수범하여 윤리를 준수하고, 소속 직원들의 비윤리 행위를 예방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지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 경영/관리 의사결정 상 회사의 이익과 윤리가 상충될 경우 윤리 우선의 의사결정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직무 수행 시 윤리적인 행동이란 무엇인지 실제로 보여주며, 대내외적으로 롤모델로서의 본분을 다합니다.
 - 소속 직원이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의 내용과 준수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교육하고 상담해야 합니다.

- 담당 조직 내 비윤리가 없는지 상시 점검하며, 발생 가능성이 높은 비윤리에 대해서는 원인 발굴 및 프로세스 개선 등의 선제적인 예방 대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 소속 직원들이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소속 직원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윤리경영 담당부서로 신고 또는 상담해야 합니다.
- 비윤리행위를 한 경우 무한책임을 지고, 부하직원의 비윤리행위 시에도 관리책임을 집니다.

III. 행동 강령(Code of Conduct)

1. 기본 윤리와 관련 법령 준수

사적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 자신의 이익을 위하거나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회사 이익에 반하는 업무상 압력, 지시,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 회사의 모든 예산 자원 및 자산은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사적인 이득을 도모하는 일체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는 존중하되, 회사 내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회사의 자금, 인력, 시설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정보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 회사의 비공개 정보나 지적 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철저히 보호합니다.
-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경쟁하고 거래합니다.

- 국제기준 및 국가별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절차를 구축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UN부패방지 협약, FCPA,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국내외 반부패 법규 및 스탠더드를 준수합니다.
- 사업 파트너 및 거래회사에게 불합리한 업무 조건이나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강권하지 않습니다.

윤리규범

2. 신뢰의 인간존중 문화 조성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듭니다.

-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회사의 발전을 함께 추구합니다.
- 임직원은 신뢰를 바탕으로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공정한 기회를 부여합니다.

- 직무 자격 요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에 있어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 역량 개발과 자기개발 교육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며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평가에 근거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지연이나 학연 등 출신 배경에 관계없이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우대하는 건강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UN글로벌컴팩트,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 관련 기준을 지지하며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 구성원 개개인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언어적 신체적 고통, 따돌림, 협박과 같이 구성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정신적/육체적 강요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정한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등 고용조건을 보장합니다.
-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3. 고객가치 실현

고객만족을 실현합니다.

-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고객 중심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개선활동에 우선적으로 반영합니다.

고객가치를 창출합니다.

-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최상의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고객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서비스 마인드를 함양합니다.

고객신뢰를 확보합니다.

- 경영활동에서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에 위협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며,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합니다.

4.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

주주에 대한 책임을 다합니다.

-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여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동시에 증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주주의 정당한 제안을 존중하고, 주주와 상호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투자자와 투명하게 소통합니다.

-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결정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적시에 공정하고 충실하게 제공합니다.
- 재무정보는 정확한 거래사실을 기반으로 적절한 프로세스와 통제를 통해 산출하며, 모든 회계자료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합니다.

5. 거래회사와의 상생

거래회사와 상호신뢰를 구축합니다.

- 거래회사와의 거래가 상호존중과 동등한 관계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책임감 있는 회사를 거래회사로 선정하며, 사업장 안전, 임직원 인권,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지원합니다.

거래회사와 공영(共榮)을 추구합니다.

- 거래회사와 성과를 공유하여 상호 이익을 추구합니다.
- 거래회사와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거래회사가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거래회사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보장하여 동반자 관계로의 발전을 추구합니다.

6.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위해 노력하며, 조세납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 자원봉사, 재난구호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문화, 예술, 스포츠, 학문 등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기여합니다.
-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합니다.

환경 보호와 생태계 보전에 힘씁니다.

-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제품의 개발과 생산, 사용 등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 친환경생산 공정 도입과 환경오염 방지 최적기술 등의 적용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에 최선을 다합니다.
- 천연자원,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부칙

- ① 구체적 실천을 위한 기준 및 필요한 세부사항은 윤리규범 실천지침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② 본 윤리규범은 2024. 7. 8부로 개정, 시행한다.
- ③ 윤리규범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거나 해석에 있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 ④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필요한 경우 윤리규범을 개정하되, 윤리경영 담당부서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은 대표이사 승인을 득하여 개정한다.
- ⑤ 윤리경영 실천의 근간이 되는 윤리규범은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 한다.

윤리규범 실천지침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 적)

본 실천지침은 포스코홀딩스의 임직원이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대상)

본 지침은 회사와 모든 임직원에 대해 적용된다.

제 3조 (적용원칙)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윤리규범과 본 실천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단, 실천지침에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의 의사결정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하며, 자신의 판단에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¹⁾에 질의·상담하여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의사결정원칙>

- 합법성 : 자신의 행동이 법규 또는 사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가?
- 투명성 :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가?
- 합리성 : 지금 자신의 선택이 회사와 개인을 위한 최선인가?

1) 업무분장 지침에 따른

제 2장 윤리규범 실천 가이드

1. 금품의 제공 및 수령 제한

- 금품은 현금(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뜻한다.
-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²⁾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요구 또는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판촉 또는 홍보 용도의 선물, 단, 농수산물·가공품(화훼 포함)에 한해 15만원까지 허용
-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해관계자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 및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

- 해외출장시 해외법인으로부터 선물을 요구 또는 받아서는 안된다.
-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임직원이 포스코홀딩스의 업무상 지식, 직책 등을 이용하여 사외 출강으로 수익(강사료 등)을 얻는 경우에는 수익의 50%를 기탁하여야 한다.

2. 접대관련 원칙 및 제한

- 접대는 식사, 술자리, 골프, 공연, 오락 등 비즈니스로 인한 인적모임과 교류를 위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뜻한다.
- 이해관계자와 인당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는 주고 받을 수 없다. 업무와 관련하여 인당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를 주고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공무원, 언론인,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등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인당 5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 금액에 관계없이 이성도우미가 있는 유흥주점에서의 접대는 금지한다.

3. 편의관련 원칙 및 제한

- 편의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 행사지원 등의 수혜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 통상적 수준³⁾을 초과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주고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행사 등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 불가피하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편의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이해관계자 :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줄 수 있는 임직원 및 고객사, 거래회사, 사업회사, 협력사, 국내외 공공기관, 국제단체(그 소속 임직원 포함)

3) ‘통상적 수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을 말한다.

- ① 보편 타당한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 상 수용될 수 있는 수준이며, 공개되었을 때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고, 공정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일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② 금액 뿐만 아니라 장소, 목적, 방법, 횟수, 반복주기, 시기, 상대, 사례의 내용, 사회윤리 및 사회적 관습(관례) 등의 측면에서 적절하여야 한다.
- ③ 금액에 관계없이 일체의 대가성이 없어야 한다.
- ④ 청탁금지법 및 국내외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법령 해석 상 충돌이 있을 경우 상위 법령을 따른다.
- ⑤ 통상적 수준은 구체적인 상황, 업무의 성격, 직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경조금관련 원칙 및 제한

-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서는 안되며, 제3자를 통해 알리는 것도 본인의 통지행위로 간주한다.
- 직원간 경조사 안내는 사내 경조사 게시란 이용을 권장한다. 경조사 안내시 친족의 범위는 직계가족인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승중의 경우 조부모로 제한하고 임직원간 경조금은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 내에서 한다.
-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경조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화환·조화를 포함해 1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단,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화환·조화를 제외한 경조금이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조금을 받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에도 반환하거나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기탁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윤리경영 담당부서가 요구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경조금의 반환실적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화환을 받아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라도 전하지 않는다.

5. 청탁/추천관련 제한

- 사내 지인 또는 외부인을 통해 다음 사항에 대한 청탁/추천을 하지 않으며, 청탁/추천을 받은 경우 회사의 ‘클린포스코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설비/자재 구매 등 각종 계약에 대한 특혜 요청
- 채용, 승진, 상벌, 보직이동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 및 특혜 요청
-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과도한 편의, 특혜 제공 등 우대 요청
- 점검 및 검수 등 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 청탁금지법에 열거된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6. 금전거래관련 제한

-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명의대여 등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다.
- 사적인 친분관계로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윤리규범 실천지침

7. 행사찬조관련 제한

-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지 않는다.
-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불가피하게 행사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8. 회사 자산의 사용과 보호관련 원칙

-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회사의 예산재원은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며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경비집행시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예산 뿐 아니라 회사 비품, 시설 등 모든 유·무형의 자산을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자산에 대한 분류 및 보호조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해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임직원에게 대한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회사 자산에 해당하므로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9. 정보보호관련 원칙

- 회사의 비공개 정보나 중요한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
- 중요한 정보는 인지하는 즉시 업무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한다.
- 업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위조, 은폐, 왜곡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보고 또는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조작에 해당한다.
-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보안 등급에 맞게 관리하며 사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10. 공정거래 법규 및 거래회사와의 상호신뢰 구축

- 국제기준 및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경쟁사와 생산, 가격, 입찰, 시장분할 등에 관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않으며 국내외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한다.
- 고객 또는 거래회사를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대가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갑질행위를 근절하여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
- 지적재산권을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와 재산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해서 거래하거나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거래회사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관련 법규와 계약서상의 조건에 따라 엄격히 보호한다.
- 거래회사가 공정거래, ESG 등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11. 이해충돌 방지관련 원칙

- 이해충돌이란 거래 관계사 임직원과의 사적 이해관계가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뜻한다.
- 사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특정 개인, 법인 등을 우대하여 부당한 수익계약 체결, 고가 구매, 물량 몰아주기, 거래정보 사전유출 등의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는다.
- 퇴직임직원을 포함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 관계사 임직원의 부적절한 요청 사항은 철저히 배제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한다.
-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 관계사 임직원과 비공식적인 접촉을 하지 않으며, 의도하지 않은 접촉 시에는 부서장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알린다.
-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퇴직임직원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 거래 관계사 임직원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부서장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와 상담 후 결과에 따라 업무 조정 등의 조치에 따른다.
- 부서장은 본인 및 소속 직원의 업무상 이해충돌을 인지한 경우, 이해충돌을 회피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되, 업무 목적상 이해충돌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윤리경영 담당부서와 상담한다.
- 퇴직 후에도 포스코홀딩스 및 사업회사와의 이해 충돌을 방지한다.

12. 인간존중 조직문화 조성

-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욕설, 폭언, 폭행 등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 육체,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인간존중 위반 건 발생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임직원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 등을 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
- 미성년자의 노동조건과 노동의 최저 연령기준 등 국가별 노동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한다.
-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3장 비윤리 신고 및 포상·제재

1. 신고의무 및 비밀보장

- 임직원은 본인이나 타인의 행위가 윤리규범 및 본 지침에 저촉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부서장이나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 또는 상담하여 비윤리로부터 회사와 구성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단, 인간존중 위반 사건은 내부 보고 없이 즉시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알린다.
- 임원 및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보고받는 즉시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상담 해야하며 사안을 축소, 은폐해서는 안된다.
-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신고받은 사안에 대해 필요시 사실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보고자 및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보고자 및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직변경 등 인사조치를 취한다.
-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비밀을 지켜야 하며, 누설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윤리규범 실천지침

2. 포상 및 제재(징계)

- 회사는 비윤리 신고감사로 발생한 환수금의 일부를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인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보상 기준은 비윤리행위 신고보상 및 면책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 회사는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한다.
- 회사는 윤리규범을 위반하여 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 회사출입 및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3. 위반 행위의 보고 및 제보자 보호

- 윤리규범과 본 지침의 위반사항을 알게 된 임직원은 이를 조직의 부서장이나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보고 또는 제보하여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행위로부터 회사와 구성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구성원은 정당한 제보 행위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부 칙

1. 적용범위 및 시행일

본 지침은 202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해석 기준

본 지침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 윤리경영 담당부서의 해석과 규정에 따른다.

3. 윤리위원회 운영

회사는 윤리관련 중요 안전의 보고, 심의, 의결을 위해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기준은 따로 정한다.

4. 개정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필요한 경우 본 지침을 개정할 수 있다.

GRI

주제	번호	지표	포스코홀딩스 대응현황
GRI 2: 일반정보공개			
조직 및 보고 관행	2-1	조직 상세	p.7-12
	2-2	조직의 지속가능성 보고에 포함된 기업	p.2, p.134, p.150
	2-3	보고 기간, 보고 빈도, 문의처	p.2
	2-4	정보의 재기술	p.133-157
	2-5	외부 검증	인증보고서
활동 및 근로자	2-6	활동, 밸류체인, 기타 비즈니스 관계	p.7-12
	2-7	임직원	p.141-143, p.154-155
지배구조	2-9	이사회 구조 및 구성	p.19-21
	2-10	이사회 추천 및 선정	p.21-23
	2-11	이사회 의장	p.19
	2-12	영향 관리를 감독하는 이사의 역할	p.16, p.25-26, p.30
	2-13	영향 관리에 대한 책임 위임	p.25, p.28
	2-14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이사의 역할	p.25-26, p.30
	2-15	이해 상충	p.22
	2-16	주요 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p.32
	2-17	이사의 집단 지식, 역량	p.23
	2-18	이사회 성과 평가	p.24
	2-19	보수 정책	p.24
	2-20	보수 결정 절차	p.24
	2-21	연간 총 보수비용	p.149
전략, 정책 및 관행	2-22	지속가능 발전 전략에 관한 성명	p.6, p.9-15, p.29
	2-23	정책 약속	P.159-180
	2-24	정책 약속 내포	P.159-180
	2-25	부정적 영향 해결을 위한 절차	p.56 ,p.71-73, p.83, p.97
	2-26	자문 및 우려 제기 메커니즘	p.56 ,p.71-73, p.83, p.97
	2-27	법률 및 규정 준수	p.16, p.81-83, p.85, p.140, p.148
	2-28	협회 멤버십 현황	p.121-122
이해관계자 참여	2-29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p.32-36
	2-30	단체 교섭 협약	p.97

주제	번호	지표	포스코홀딩스 대응현황
GRI 3: 중요 주제			
중요 주제 공시	3-1	중대 토픽 선택 프로세스	p.30-32
	3-2	중대 토픽 목록	p.30-32
	3-3	중대 토픽 경영방침	p.38-52, p.53-59, p.60-66, p.67-80, p.81-85, p.86-93, p.94-98, p.99-109
GRI 201: 경제적 성과			
	201-1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	p.7, p.133, p.150
	201-2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과 사업활동에 대한 위험과 기회	p.40, p.49-50
GRI 203: 간접 경제효과			
	203-1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제공	p.111-114
	203-2	중요한 간접적 경제 파급효과 및 영향	p.111-114
GRI 205: 반부패			
	205-1	부패와 관련된 위험을 평가한 사업장	p.85
	205-2	반부패 정책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및 훈련 절차	p.81-82,p.84
	205-3	확인된 부패사건과 이에 대한 조치	p.83
GRI 206: 환경쟁 행위			
	206-1	환경쟁 행위, 반독점 및 독점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p.148
GRI 207: 세금			
	207-1	세금에 대한 접근방식	p.120
	207-2	세금 거버넌스, 통제 및 리스크 관리	p.120
	207-3	세금 관련 이해관계자 참여 및 우려사항 관리	p.120
	207-4	국가별 보고	p.120
GRI 302: 에너지			
	302-1	조직 내 에너지 소비	p.136, p.151
	302-3	에너지 집약도	p.151
GRI 303: 용수 및 폐수			
	303-1	공유 자원으로서 용수의 상호작용	p.87-88, p.92
	303-2	용수 배출 관련 영향 관리	p.88
	303-3	취수	p.137-138, p.152
	303-4	폐수 배출	p.137-138, p.152
	303-5	용수 소비	p.137-138, p.152

GRI

주제	번호	지표	포스코홀딩스 대응현황
GRI 304: 생물다양성			
	304-1	보호구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 또는 주변지역에 소유, 임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	p.102, p.105
	304-2	활동, 제품, 서비스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p.103-107
	304-3	보호 또는 복원된 서식지	p.106-107, p.109
	304-4	사업 영향 지역 내에 서식하고 있는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지정 멸종위기 종(Red list)과 국가지정 멸종위기종	p.105, p.109
GRI 305: 배출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p.42, p.134, p.151
	305-2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2)	p.42, p.134, p.151
	305-3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p.135
	305-4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p.134, p.151
	305-5	온실가스 배출 감축	p.42
	305-7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그리고 다른 주요 대기 배출물	p140, p.152
GRI 306: 폐기물			
	306-1	폐기물 발생 및 폐기물 관련 중대한 영향	p.90
	306-2	폐기물로 인한 중대한 영향의 관리	p.90
	306-3	폐기물 발생	p.139, p.153
	306-4	폐기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	p.139, p.153
	306-5	폐기 처리된 폐기물	p.139, p.153
GRI 308: 공급업체 환경평가			
	308-1	환경 부문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신규 공급업체	p.64-66, p.147
	308-2	공급망 내 부정적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조치	p.64-66, p.147
GRI 401: 고용			
	401-1	신규 채용 및 이직자	p.143, p.155
	401-2	상근직 근로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	p.97-98
	401-3	육아휴직	p.98, p.145
GRI 402: 노사관계			
	402-1	운영상의 변화에 따른 최소 고지기간	p.97

주제	번호	지표	포스코홀딩스 대응현황
GRI 403: 산업안전보건			
	403-1	산업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p.54-59
	403-2	위험성 파악, 리스크 평가, 사고 조사	p.54-59
	403-3	산업보건 서비스	p.54-59
	403-4	산업안전보건 관련 임직원 참여 및 소통	p54, p.56
	403-5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	p.57
	403-6	근로자 건강 증진	p.56
	403-7	비즈니스 관련 안전보건 간접 영향에 대한 경감	p.54-59
	403-8	산업안전보건 시스템 적용 범위	p.56, p.146, p.156
	403-9	업무 관련 산업재해	p.59, p.146, p.156
	403-10	업무 관련 질병	p.57, p.146, p.156
GRI 404: 훈련 및 교육			
	404-1	1인당 교육 시간	p.144
	404-2	직원 역량 향상 및 지속적인 고용가능성 지원 프로그램	p.95-96, p.98
	404-3	정기 성과평가 및 경력개발 점검을 받은 임직원 비율	p.144
GRI 405: 다양성 및 기회균등			
	405-1	이사회 및 구성원의 다양성	p.21, p.141-142, p.149, p.154
GRI 407: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407-1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또는 공급업체	p.123-125
GRI 413: 지역사회			
	413-1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 영향평가 및 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한 사업장	p.78-80, p.111-114
	413-2	지역사회에 상당한 잠재력을 가졌거나 실질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p.78-80, p.111-114
GRI 414: 공급업체 사회 영향 평가			
	414-1	사회 부문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신규 공급업체	p.64-66, p.147
	414-2	공급망 내 부정적 사회영향 및 이에 대한 조치	p.64-66, p.147
GRI 415: 공공정책			
	415-1	정치적 기부	p.121-122

UNGP

구분	보고원칙	세부 내용	포스코홀딩스 대응현황
인권 존중을 위한 거버넌스	A1. 인권정책	인권 존중 의지 대외 공개 여부	p.69, p.163-165
	A2. 인권 존중 내재화	인권 존중 의지 내재화를 위한 노력	p.68-70
중점 보고 분야	B1. 주요 인권 이슈 목록	사업 활동과 연관된 주요 인권 이슈	p.69, p.123-125
	B2. 주요 인권 이슈 식별	주요 인권 이슈 선정 방법	p.72-73
	B3. 주요 인권 관리 지역	주요 인권 이슈 발생 지역 및 지역 선정 방법	p.123-125
	B4. 잠재적인 인권 이슈	주요 인권 이슈와 잠재적 인권 이슈	p.69, p.123-125
주요 인권 이슈 관리	C1. 주요 인권 이슈를 위한 세부 정책	주요 인권 이슈를 위한 세부 정책	p.163-165
	C2. 이해관계자 참여	주요 인권 이슈 별 이해관계자의 참여	p.70-73, p.123-125
	C3. 영향평가	지속적인 주요 인권 이슈 식별	p.72-73
	C4. 인권 이슈 대응	주요 인권 이슈의 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활동반영	p.73, p.123-125
	C5. 성과평가	주요 인권 이슈 해결을 위한 활동의 효과성	p.73
	C6. 사후 지원	인권 관련 피해자를 위한 사후 지원 활동	p.73

WBA

구분	지표 코드	지표명	포스코홀딩스 대응현황
인권존중	CSI 1	인권 존중을 위한 노력	p.69, p.163-165
	CSI 2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약속	p.69, p.163-165
	CSI 3	인권 위험 및 영향 식별	p.72-73
	CSI 4	인권 위험 및 영향 평가	p.72-73
	CSI 5	인권 위험 및 영향 평가의 통합 및 조치	p.72-73
	CSI 6	영향을 받거나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와의 참여	p.72-73
	CSI 7	근로자를 위한 고충 처리 메커니즘	p.71
	CSI 8	제 3자 및 지역사회를 위한 고충처리 메커니즘	p.71
양질의 일자리 제공	CSI 9	건강 및 안전 기본 원칙	p.156
	CSI 12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p.97, p.163
	CSI 13	임직원 다양성 공개	p.141
	CSI 14	양성 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	p.98
윤리적 행동	CSI 15	개인 정보 보호	p.117-119, p.175
	CSI 16	납세 의무	p.120, p.170
	CSI 17	뇌물 수수 및 부패 방지	p.172-174, p.176-180
	CSI 18	로비 및 정치 참여 원칙	p.121, p.172-174, p.176-180

CHRB

구분	지표 코드	지표명	포스코홀딩스 대응현황
A. Policy Commitments	A01	인권 존중 약속	p.69, p.163-165
	A02	근로자 인권 존중 약속	p.69, p.163-165
	A04	취약계층 인권 존중 약속	p.69, p.163-165
	A08	피해구제 약속	p.69, p.163-165
B. Board-Level Accountability	B01	최고위층의 약속	p.69, p.163-165
	B02	이사회의 책임	p.68
C. Embedding Respect for Human Rights in Company Cultrue and Management Systems	C01	인권 업무를 위한 책임 및 자원 배정	p.68
	C03	리스크 관리와의 통합	p.16
	C04	정책 약속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p.69, p.163-165, p.169
	C05	인권 교육	p.70
	C06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p.71-73
D. Human Rights Due Diligence	D01	인권 위험 및 영향 식별	p.72-73
	D02	인권 위험 및 영향 평가	p.72-73
	D03	인권 위험 및 영향평가의 통합 및 이행	p.72-73
	D04	인권 위험 및 영향에 대한 대응조치의 효과성	p.72-73
	D05	인권 영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p.72-73
	D01	인권 위험 및 영향 식별	p.91
	D02	인권 위험 및 영향 평가	p.91-93
	D03	인권 위험 및 영향평가의 통합 및 이행	p.91-93
	D04	인권 위험 및 영향에 대한 대응조치의 효과성	p.91-93
	D05	인권 영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p.93, p.165

*일부 산업군에 대해서만 요구하는 지표로, 포스코홀딩스는 해당없음

구분	지표 코드	지표명	포스코홀딩스 대응현황
E. Remedies and Grievance Mechanisms	E01	근로자 고충처리 메커니즘	p.71
	E02	제 3자 고충처리 메커니즘	p.71
	E03	고충처리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관계자 참여	p.71
	E04	고충처리 메커니즘의 공정성 및 접근성	p.71
	E05	불만 또는 우려 제기에 대한 보복 금지	p.71
	E07	부정적 영향의 완화	p.71
	E08	고충처리 절차의 효과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및 내재화	p.71
F. Performance: Company Human Rights Practices	F03	아동 노동의 금지(자체운영 및 합작 투자)	p.163
	F05	강제 노동의 금지(자체 운영 및 합작 투자)	p.163
	F06	강제 노동의 금지(공급망)	p.167
	F07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자체운영 및 합작 투자)	p.163
	F09	안전보건(자체운영 및 합작 투자)	p.162
	F11	여성 권리(자체운영 및 합작 투자)	p.165
G. Performance: Response to Serious Allegations	G01	공개 대응	p.123-125
	G02	조사 및 적절한 조치	p.123-125
	G03	구제 조치	p.123-1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독립된 인증인의 제한적 인증보고서

주식회사 포스코홀딩스 경영진 귀중

2025년 6월 30일

인증결론

우리는 주식회사 포스코홀딩스 (이하 “회사”)의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이하 “보고서”)의 다음 정보에 대해서 제한적 확신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인증대상정보	인증대상 기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 페이지 번호	인증대상정보와 관련된 준거기준
보고서에 포함된 GRI Standards Index에 포함된 정보	2024년 12월 31일로 마감된 회계연도	183p - 184p	GRI Standards (Global Reporting Initiative)
보고서에 포함된 ESG Factbook DATA	2024년 12월 31일로 마감된 회계연도	135p - 159p	포스코그룹 지표 정의

우리가 수행한 절차와 입수한 증거에 근거할 때, 회사의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인증대상정보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준거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을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의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결론은 인증대상정보와 우리의 인증보고서와 함께 제공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기타 정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증결론근거

우리는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 (IAASB))에서 제정한 International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s (ISAE) 3000 (Revised) ‘Assurance Engagements Other Than Audits or Reviews of Historical Financial Information’에 따라 제한적 확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이 인증보고서의 인증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윤리기준위원회(International Ethics Standards Board for Accountants (IESBA))의 공인회계사윤리기준(International Code of Ethics for Professional Accountants (including International Independence Standards))의 독립성 요구사항과 기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합니다.

우리는 IAASB에서 제정한 품질관리기준서 1(International Standard on Quality Management (ISQM) 1 ‘Quality Management for Firms that Perform Audits or Reviews of Financial Statements, or Other Assurance or Related Services Engagements’)을 적용합니다. 이 기준서는 윤리적 요구사항, 전문가 기준,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정책과 절차를 포함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설계, 이행 그리고 운영하도록 요구합니다. 우리는 입수한 증거가 인증결론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인증대상정보에 대한 책임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 없이 인증대상정보를 작성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설계, 이행 및 유지함;
- 인증대상정보 작성하기 위한 적합한 준거기준을 선택 또는 확립하고 사용한 준거기준을 적절하게 설명함; 그리고
- 인증대상정보를 준거 기준에 따라 작성함

인증대상정보 작성의 고유 한계

지속가능성 정보의 작성에는 경영진이 준거 기준을 수립하거나 해석하고, 포함될 정보의 관련성에 대해 판단하며, 보고되는 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추정과 가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업들 간에 서로 다르지만 허용 가능한 해석, 판단,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정보에는 회사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이니셔티브와 목표,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의 미래 영향에 대한 고려, 약속 및 불확실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실제 결과는 경영진이 현재 평가한 정보와 실질적으로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사건과 상황이 자주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인증인의 책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 인증대상정보에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해 제한적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함;
- 우리가 수행한 절차와 입수한 증거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결론을 형성함; 그리고
- 우리의 결론을 회사의 경영진에 보고함.

인증결론의 근거로서 수행한 절차의 요약

우리는 인증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였습니다. 우리는 인증결론의 근거를 위해 인증대상정보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인증 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인증대상정보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기타 업무의 상황 그리고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을 고려하여 다음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 회사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관리하고 보고하는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이해
- 위험평가 프로세스 및 중대성 평가와 관련된 문서 검토 및 담당자 인터뷰
- 중요이슈에 대한 지속가능성정보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는 담당자 인터뷰, 중요이슈 관련 지속가능성정보의 기초 데이터 검토.
- 인증대상정보에 대한 질문과 분석적 절차
- 인증대상정보와 관련된 데이터의 제한적 검증
- 보고서에 수록된 재무정보가 회계감사를 받은 회사의 재무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
- 보고서에 제시된 정보가 회사의 지속가능성 성과에 대해 우리가 보유한 전반적인 지식 및 경험과 일치 여부 판단

제한적 확신 업무에서 수행된 절차는 절차의 성격과 시기가 다양하며 합리적 확신 업무에 비해 그 범위가 좁습니다. 따라서 제한적 확신 업무에서 얻은 확신의 수준은 합리적 확신 업무가 수행되었다면 얻었을 확신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김교태



이 인증보고서는 인증보고서일(2025년 6월 30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증보고서 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회사의 보고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인증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